

# 건축사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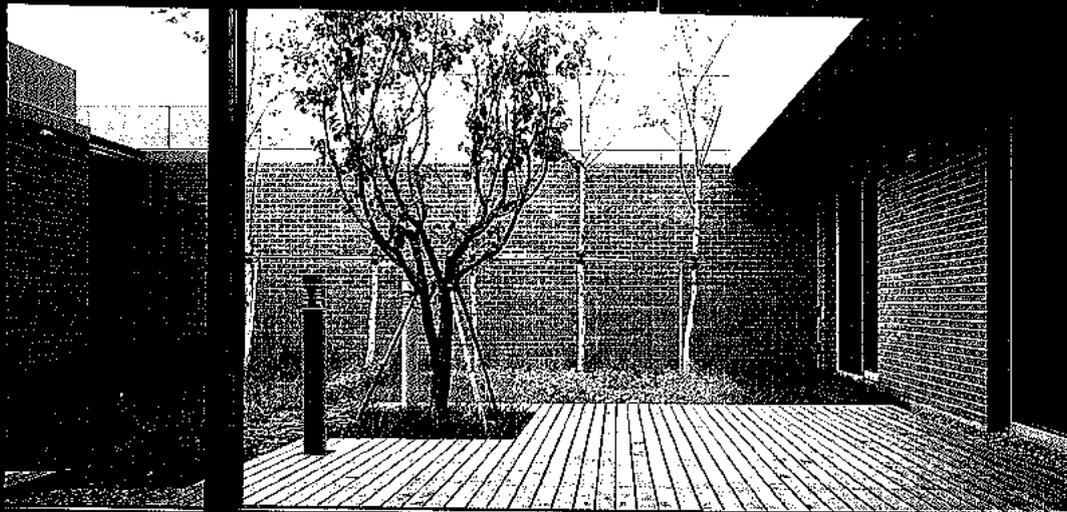
2001 **09** vol. 389

칼럼 \_\_\_\_\_ 타워링 인페르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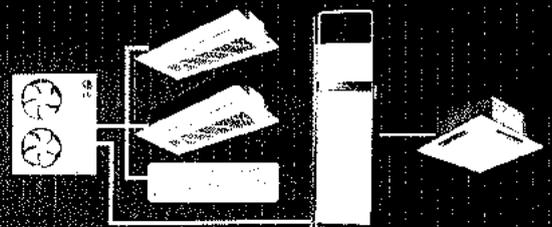
작품리뷰 \_\_\_\_\_ 마당깊은 집

작품노트 \_\_\_\_\_ 마르세 명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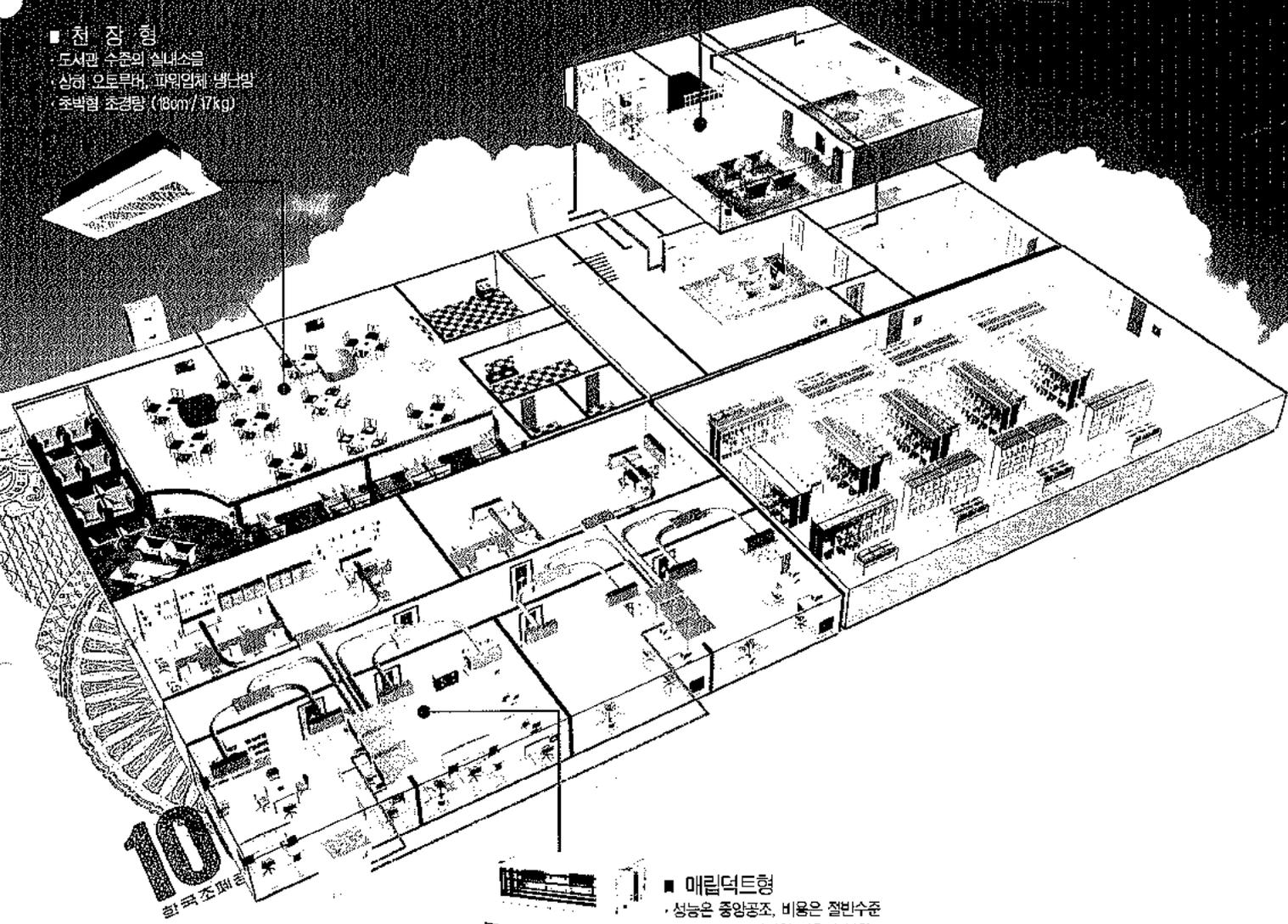
기고 \_\_\_\_\_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구조 보강 기법



■ 프리포인트 멀티링  
 · 저렴한 설치비용, 늘어난 냉방기능  
 · 실외기 1대에 실내기가 8대까지  
 · 쾌적한 질전냉방에 편리한 중앙제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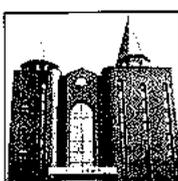


■ 천장형  
 · 도서관 수준의 실내소음  
 · 상하 오토루머, 파워인체 냉난방  
 · 조박형 초경량 (180m/17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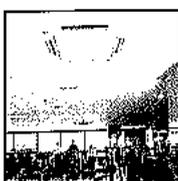


■ 매립덕트형  
 · 성능은 중앙공조, 비용은 절반수준  
 · 건물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설치  
 · 실내기 한대로 9실까지 냉난방

**중앙공조의 절반비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실속있는 건축주의 선택**



■ 교회



■ 랩스그램



■ 관공서



■ 오피스/리모델링 빌딩

**LG시스템에어컨**

아직도 냉난방설비는 중앙공조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공조환경을 위한 새로운 제안 -  
 LG시스템에어컨! 최적의 냉난방 설비를  
 중앙공조의 절반 가격에 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미래형 에어컨입니다.  
 강력한 파워냉난방, 손쉬운 설치시공  
 그리고 LG의 신뢰까지...  
 LG시스템에어컨으로 하시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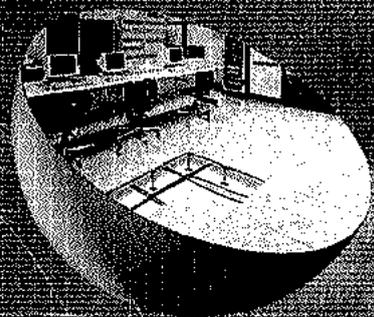
■ 고급빌라, 주상복합



■ 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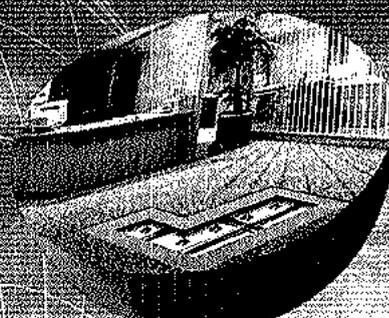


■ 사무실



**전산실 · 통신시설**

- TD FLOOR (무기질)
- LG VIP 전도성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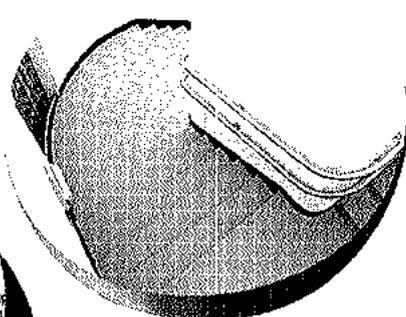
**인텔리전트 B/D**

- TD FLOOR (무기질)
- LG 카펫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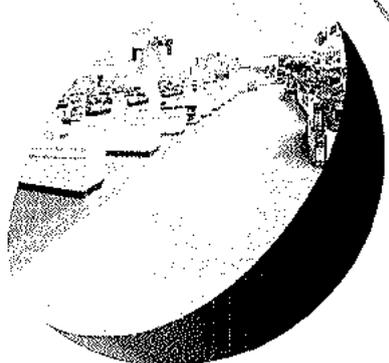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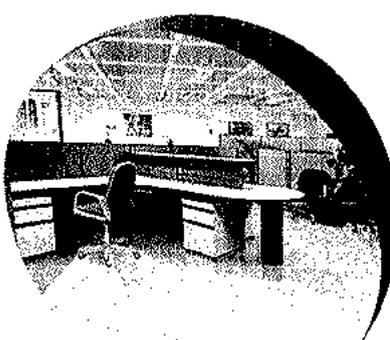
**교육시설용**

- LG 소프트롱
- LG VIP마블



**계단용**

- LG 소프트롱 계단용
- LG 디럭스 타일



**판매시설용**

- LG VIP타일 마블
- LG 갤럭시 타일

**공공·연구·문화·체육시설용**

- LG 갤럭시 타일
- LG 디럭스 타일
- LG 카펫 타일

# 상업용 바닥재도 역시 LG입니다.

만족의 순간 뒤에는  
항상 앞선 기술이 있습니다.

LG화학 기능성바닥재 : ■ LG VIP 타일 ■ LG VIP 전도성 타일 ■ LG 갤럭시 타일 ■ LG 카펫타일 ■ LG 소프트롱 ■ LG 디럭스 타일 ■ LG TD FLOOR

LG화학 본사 및 영업점  
 ■ 본사 : • 기능성재 PMJ : (02)3773-3230-33, 3240 • 특판팀 : (02)3773-3270-71 / 3284-7 • 기술영업 : (02)3773-3291-3 ■ 강서 : (02)671-3922-4 ■ 강남 : (02)542-5004, 542-5651-2 ■ 강북 : (02)545-6514, 542-6496-7  
 ■ 인양 : (03)1384-3118 • 수원 : (03)1382-9724-5 • 성남 : (03)1388-3650, 385-8782 ■ 인천 : (032)431-2296-7 • 부천 : (03)1435-8138-9 ■ 부산 : (05)1801-2520-9 ■ 창원 : (055)270-7720-6 • 진주 : (055)758-3990-4  
 • 울산 : (052)259-7850-2 ■ 대전 : (042)630-5631-5 • 천안 : (041)583-5561-2 • 청주 : (043)276-8541-3 ■ 대구 : (053)960-2230-6 • 포항 : (054)281-9688 ■ 광주 : (062)360-3670-5 • 전주 : (063)250-4350-2  
 • 순천 : (061)743-4430-2 ■ 강릉 : (033)653-8821-6 • 원주 : (033)748-0645 ■ 제주 : (064)742-8780-4 ■ C/S 060-022-1230 ■ LG대코발증합천전시경(실내) 외건축장식자재증합천시경(02)3489-7389-90



ISO 9002



UL 마크



부채기법

국내 최초 난연성 인테리아 신소재  
실용신안 등록 제 0218526호  
특허출원 제 2000-30887호  
특허출원 제 2000-20453호  
신용사양: 출원 제 2000-3613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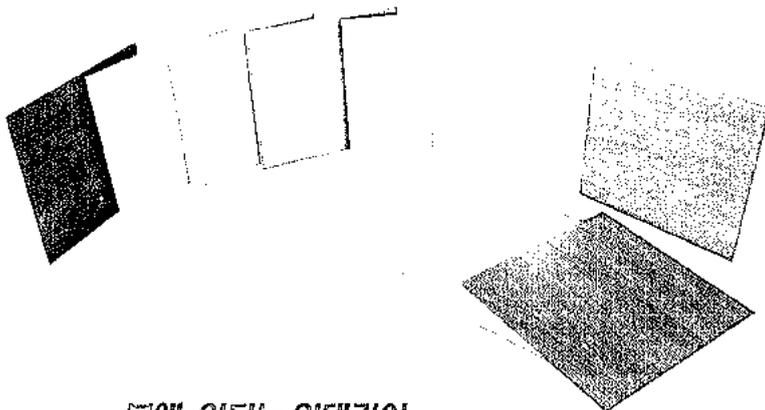
# 안타민

난연 1·2등급 / 방염성능 검증  
소방시설 완비증명

## 이젠 소방법이 건축비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난연·방염제 사용 의무화!”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공포: 2001. 3. 20 / 시행: 2001. 5. 20  
소방법 제1조, 동시행령 제1조

500여종의 다양한 무늬와 칼라로 무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창출하십시오



불에 안타는 인테리어

건축내장 마감재 - 안타민

★규격: 4×8ft×0.6T(13.1T)

### Antamine의 적용분야

- 관광호텔, 콘도, 여관의 일반 숙박시설
- 아파트, 기숙사, 단독 및 공동주택
- PC방, 호프집, 노래방의 위락시설
- 집회, 공연, 예식장의 문화· 집회시설
- 종합병원, 학교의 의료· 교육연구시설
- 공항, 항만, 여객터미널의 판매· 영업시설
- 아동·노인의 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발전소, 방송국, 촬영소의 공공용시설
- 사무실,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 생활권, 자연권의 수련시설
- 기타 다중이용시설

★건축용도: 벽체, 천장, 바닥면의 실내마감재



주식회사 서한메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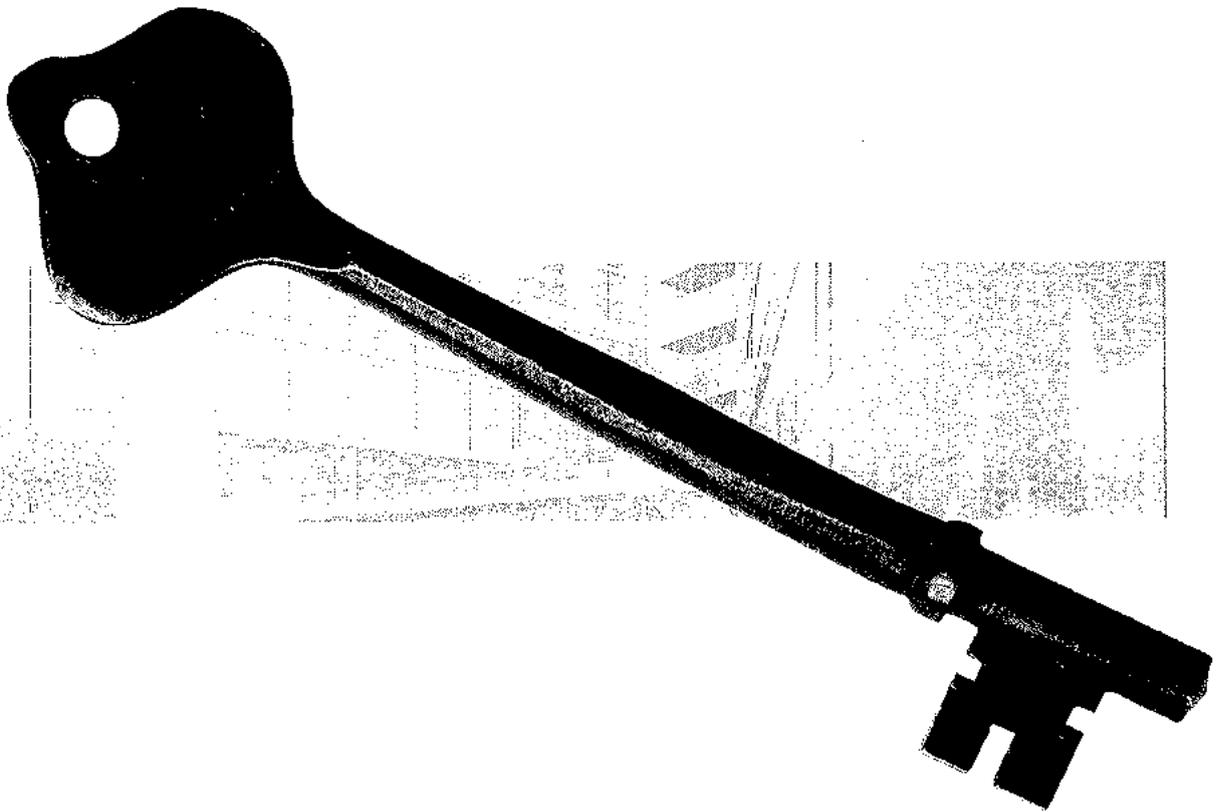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8 (남동공단 165B-6L) TEL: 82-32-815-1674~7 FAX: 82-32-814-4155

<http://www.antamine.com>

# ArchicAD

FOR ARCHITECTS IN THE INFORMATION AGE

10시간 **무료교육** 으로 3차원 설계를 스스로 ~  
그 해답의 열쇠는 여기에 있습니다.



## 2D 도면과 3D 모델링이 동시에

2D도면과 3D Modeling을 별도로 작업해 오셨습니까?

이제는 2D도면 작성과 동시에 3D Modeling이 완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설계 프로그램을 만나 보십시오.

ArchicAD는 여러분의 욕구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완성된 건축 및 인테리어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 완벽한 평면도, 입 / 단면도
- 설계, 시공 상세도
- 물량산출, 견적, 창문 / 문의 리스트 자동 작성
- 렌더링, 애니메이션, VR(가상현실)작성



## ArchicAD 무료교육

대상: 건축사

교육일정: 10월 2, 4주

시간: 오전 7시 ~ 9시

인원: 선착순 모집 마감

## 교육장 약도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17-36

\* 교육에 관한 신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17-36 리스빌딩 TEL: 02-523-7990 FAX: 02-523-7884 E-mail: archicad@doalltech.com

GRAPHISOFT®



**Doalltech**  
Solution Provi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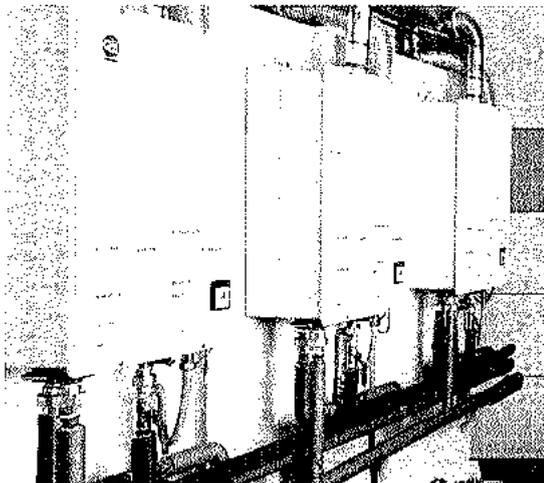
## 넓은 보일러실이 필요없는 공간절약형 병렬식 보일러 시스템(PBS)을 아십니까?

보일러 크기 때문에 벽까지 허물던 시절은 이제 옛말!  
벽을 따라 폭25cm 내외의 가스보일러를 나란히 설치만 하면 되는  
간단한 공사에 여유있는 공간을 확보해드립니다

난방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온수시공능력	50,000~200,000kcal

설치비 싸고, 난방비 아끼고, 관리사 필요없고!

###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 (PBS)



25,000kcal×3대 병렬

시공비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맞춤 제작으로 가정용 보일러를 필요한 만큼만 달 수 있어 기존의 대형 기흥보일러에 비해  
가격이 눈에 띄게 저렴합니다

연료비가 적게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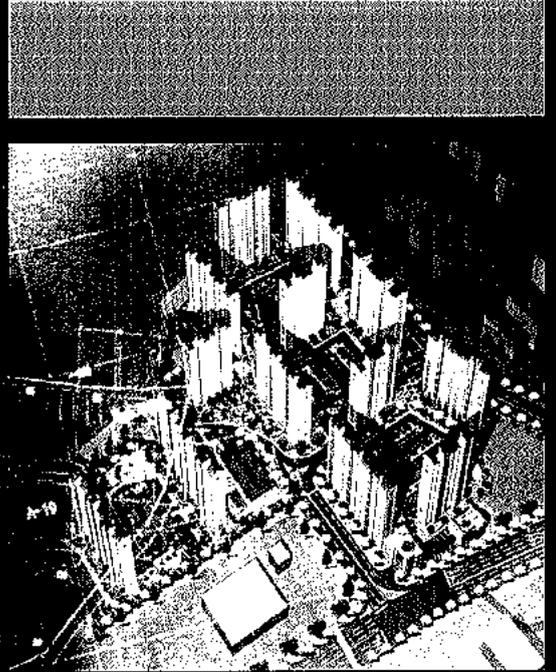
가스가 기름보다 싸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기름값 걱정 안해도 되고 손님 뜰 방안 선별적으로 보일러를 가동시킬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수명이 2배는 더 깁니다

고장났고 A/S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대형보일러와 달리 잔고장이 없고 수명이 오래갑니다.  
또한 부분가동이 가능해 A/S중에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어 영업에 자장을 주지 않습니다

관리기사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운전상태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주는 리모콘으로 실내에서나 카운터에서 편리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  
관리사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보일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上上 그 理上

## 공간 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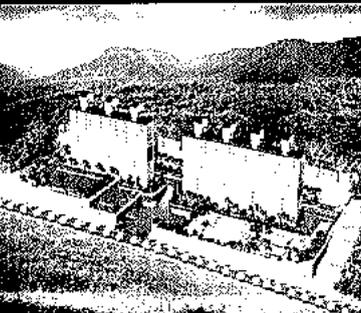
조감도 시뮬레이션  
아이소메트릭



(주)유진그래픽스



옛말에, 기는놈위에 뛰는놈이 있다고했습니다.  
유진은 뛰는놈위에 나는,  
그러한 무서운놈입니다.  
젊은 회사유진입니다.  
上上 그 理上 으로 飛上하는 회사입니다.



www.yuzin.co.kr   
(주)유진그래픽스   
TEL : 051)610-1741  
FAX : 051)610-1742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5-1번지  
센츄리시티 부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 745호  
yuzin@yuzi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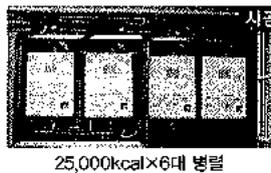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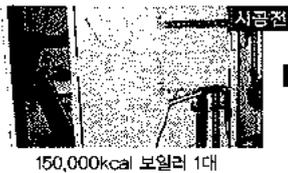
## 린나이 병렬식 가스보일러의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백문이불여일견  
대형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비가30%이상 절감되는 병렬시스템의 놀라운 경제성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서울 역삼동 소재 R사 사옥
- 연면적: 657평 ● 대지면적: 148.76평
- 설치보일러: 30,000kcal 모델 14대 병렬
- 난방면적: 536.5평
- 집난방비: ₩1,662,090
- 사용기간: 2000년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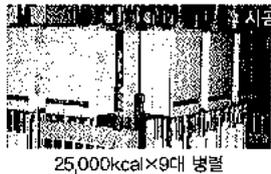


### 시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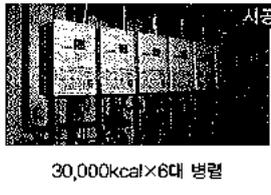
#### 경기 유치원(대치동) 교체 시공

99년에 설치한 K사 제품의 누수 및 난방불량 등의 잦은 이상으로 인해 린나이 병렬 시스템으로 교체한 사례. 층별 난방 및 온수 수도직결 TYPE으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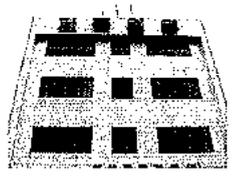
#### 수녀원(대구) 교체 시공

93년 국내최초로 린나이 병렬시스템을 설치한 곳으로 뛰어난 경제성과 손쉬운 관리로 이 시스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여겨진다. 난방배관에 층별 LINE PUMP 설치시공.



#### 상계동 기독교병원

지하 및 5층 규모의 병원으로 난방을 라디에이터 구조로 병렬 시공. 온수탱크는 1톤 규모이며, 층별 Line Pump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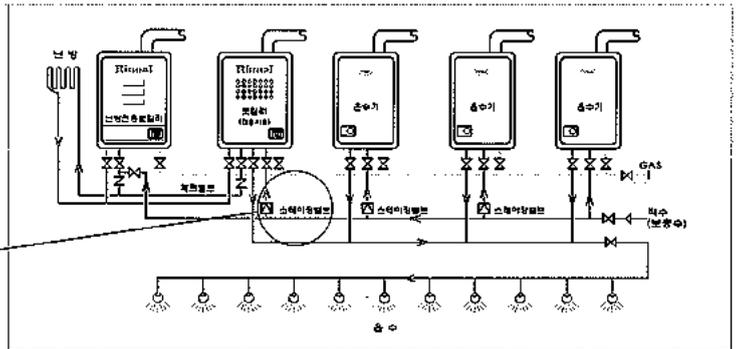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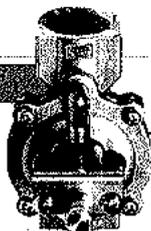


### 표준 시공 설계도 (난방, 온수 혼용 방식)

- 온수를 다량으로 사용하며, 일부 난방을 사용하는 스포츠 센터, 한식점 등 적용
- 온수 부분은 수도직결 및 Staging Valve(특허)를 적용
- 난방/온수 겸용 보일러는 보충용으로 사용 가능

#### 린나이 코리아만의 특허기술 '스태이징 밸브'

- 시스템 관련 특허출원
- 외부에서 설정압력을 임의로 조절가능
- 온수탱크 대체가능하며, 획기적인 연료절감 가능
- \* 수압력 계폐 역할을 하는 밸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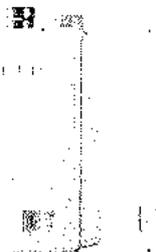


난방전문보일러(병렬전문)  
RPB-366SME/F

난방 : 36,000kcal/h  
사이즈 : 600(H)×440(W)×285(D)mm

디지털 가스보일러  
RB-366SME/F

난방 : 36,000kcal/h  
온수 : 36,000kcal/h  
사이즈 : 600(H)×440(W)×285(D)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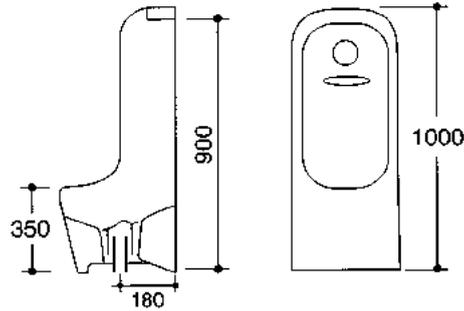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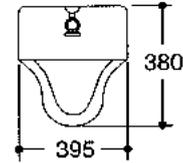
순간온수기(RW-16AE/F)

사이즈 : 600(H)×335(W)×160(D)mm  
온수 : 16L /분(ΔT:25℃)

신제품 출

# MIRO 센서내장용 소변기

## ■ SY-477 구조도면



(급수 배관은 바닥에서 900mm 센터)

## ■ 특징

- ◆ 센서와 소변기의 완벽한 조화로 시공이 간편하고 현대적이고 곡선미가 제품의 격을 높여줍니다.
- ◆ 최첨단 디지털 마이콤형식으로 센서내장형 소변기 (Sensor-embedded)의 성능과 기능을 높인 최첨단 기술의 감성적 신제품 입니다.
- ◆ 소변세척 후 최적유량으로 (1000cc) 자체트랩이 내장되어있어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스프레더 부착으로 세척기능도 완벽하게 해결하였습니다.
- ◆ 배터리 수명(리튬 배터리) 2년

(주)다다, 세림산업(주) 대리점



**유화도기상사**

서울·중구 을지로 3가 5-21

TEL:(02)2274-6343~4

FAX:(02)2274-6345



# AutoCAD R14를 업그레이드 하면 행복한 고민이 7가지!

AutoCAD 2002 또는 AutoCAD 2002 기반의 산업별 전문솔루션 중에서 원하는 솔루션으로 특별한 가격에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 지금 서둘러 만나십시오.

- 인테리어 및 건축 디자인 분야의 설계 표준 **AutoCAD® 2002**
- 2D 기계 설계 엔지니어링 솔루션 **AutoCAD® Mechanical 6**
- 2D와 3D가 결합된 기계 설계 솔루션 **Autodesk® Mechanical Desktop® 6**
- 건축 디자인의 2D 환경을 지원하는 건축 설계 솔루션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3.3**
- GIS의 개발 솔루션 **Autodesk® Map 5**
- 토지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광산의 솔루션 **Autodesk® Land Desktop 3**
- Autodesk Technology 기반의 3D 기계 설계 솔루션 **Autodesk Inventor™ 4**



뭘 고르지?

AutoCAD R14 및 AutoCAD R14 기반의 산업별 전문제품 업그레이드 종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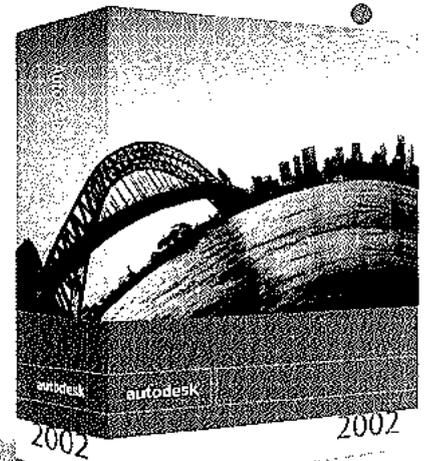
AutoCAD R14 및 AutoCAD R14기반의 베타팀 제품군(AutoCAD LT 98, Mechanical Desktop R3, Inventor R2, AutoCAD Map R2, AutoCAD Map R3, Architectural Desktop R1, MapGuide R4, Civil Design R1, CAD Overlay R14, Land Development Desktop R1, Genius R4, IGES R14, STEP R14)은 상위버전으로의 호환성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2년 1월 15일부터는 상위버전 또는 오로데스크 타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및 크로스 업그레이드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AutoCAD R14 고객만을 위한 업그레이드 대축제

업그레이드 품목	업그레이드 가격
AutoCAD® 2002(한글버전) AutoCAD® Mechanical 6(한글버전) Autodesk® Mechanical Desktop® 6(한글버전)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3.3 (영문버전, 추후 한글CD 제공 - 9월 중순 출시) Autodesk® Map 5(영문버전, 추후 한글CD 제공 - 9월 중순 출시) Autodesk® Land Desktop 3(영문버전)	₩1,235,000
Autodesk Inventor™ 4(한글버전)	₩2,580,000 (1년 무상업그레이드 비용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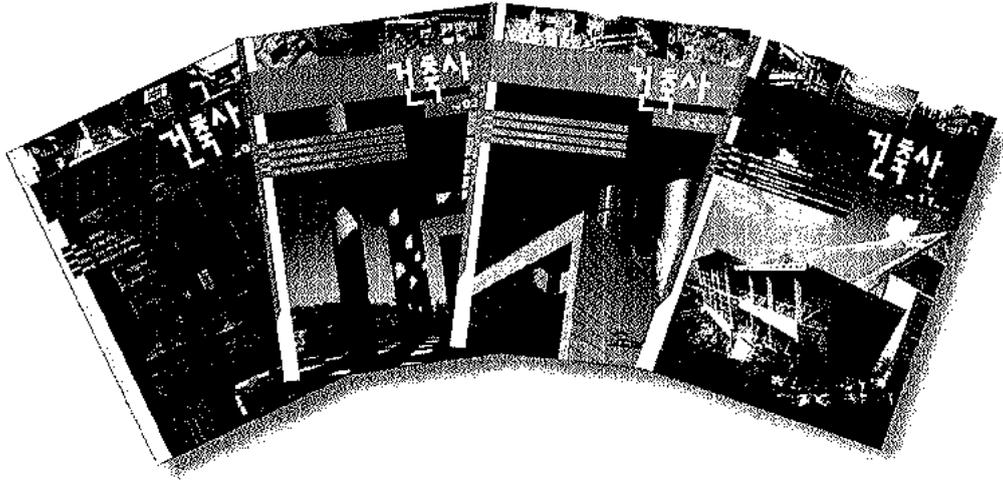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3.3과 Autodesk® Map 5 제공의 경우, 영문버전을 먼저 제공하고 한글제품 출시시 한글버전 CD를 드립니다.  
 \*AutoCAD R14 고객이 상기 업그레이드 제품 구입시 Autodesk® CAD Overlay® 2002 영문제품을 120만원(시중가 165만원)에 드립니다.  
 \*상기 가격은 1년 무상 기술 지원이 포함(MDT 업그레이드 제품은 기술 지원이 별도)부가세 별도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상담은 [www.autodesk.co.kr/upgradeAtoZ](http://www.autodesk.co.kr/upgradeAtoZ)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사이트에서 자료를 신청하시면 업그레이드 리소스 가이드북을 보내드립니다.



autodesk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의 광고는  
 국내 최초의 건축·건설 전문기획사인  
 (주)한마당21이 대행합니다.



〈단위:만원〉

광고 단가표

표지 4면	표지 2면	표지2 대면	표지3면	내지
250	120	120	100	70

월간「건축사」誌는 최고의 권위와 최대의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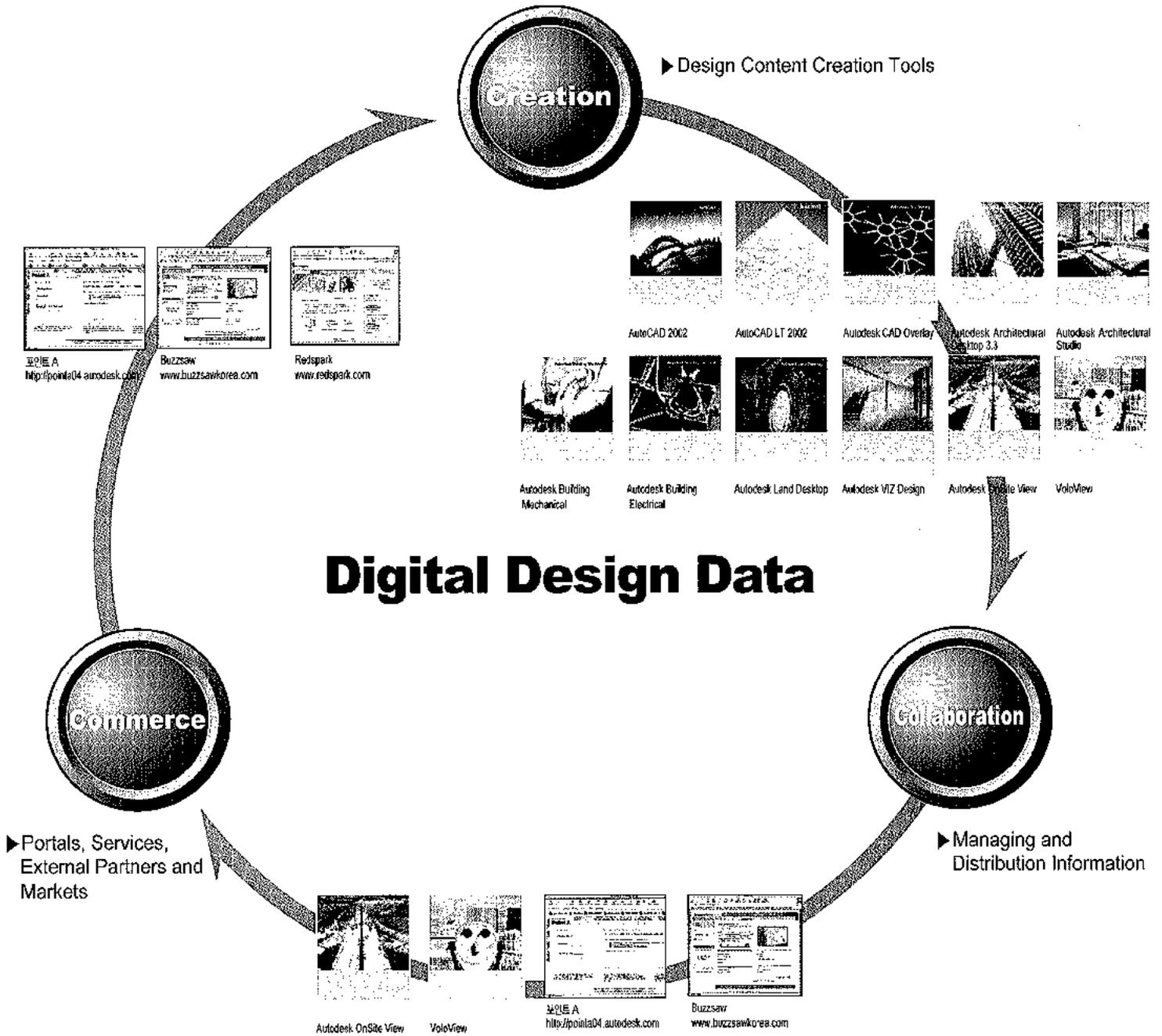
- 대한건축사협회가 직접 발행
- 전국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보 (약 50,000명)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건축사 약 8,000명)
- 건축관련 단체(협회등) 및 대학교
- 건축관련 정부기관·연구소
- 건축관련회사(건설회사, 자재회사, 정보통신회사 등)



광고문의 \_\_\_\_\_  
 전화 : 02-702-1871~2  
 팩스 : 02-702-1873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빌딩 1503호 (주)한마당 21



# 건축디자인의 모든 것, 오토데스크에서 만나십시오!



## 건축/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초기 스케치로부터 유지/보수관리까지 한번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같은 세상에 길이 남을 건축물을 상상하십니까? 오토데스크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전세계 160여개국 400만명이 사용하는 오토데스크의 디자인 솔루션과 만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오토데스크 산업별 포털사이트 및 마켓플레이스

- 포인트 A : 각 산업별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http://pointa04.autodesk.com>)
- Buzzsaw :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전문가를 위한 B2B사이트 ([www.buzzsawkorea.com](http://www.buzzsawkorea.com))
- Redspark : 기계, 전자, 매뉴팩처링 산업 전문가를 위한 B2B사이트 ([www.redspark.com](http://www.redspark.com))

오토데스크의 디자인솔루션은 Autodesk Systems Center에서 만나십시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객지원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AEC ASC : (주)리인테크시스템 02-569-1814, (주)캐드컴시스템 053-652-1898, (주)코스렉정보 02-584-6480, 한국씨.아이.엠(주) 02-515-3167

**autodesk**

(주)오토데스크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삼부빌딩 17층  
TEL: 527-0790 FAX: 527-0799 [www.autodesk.co.kr](http://www.autodesk.co.kr)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 연 7.5%~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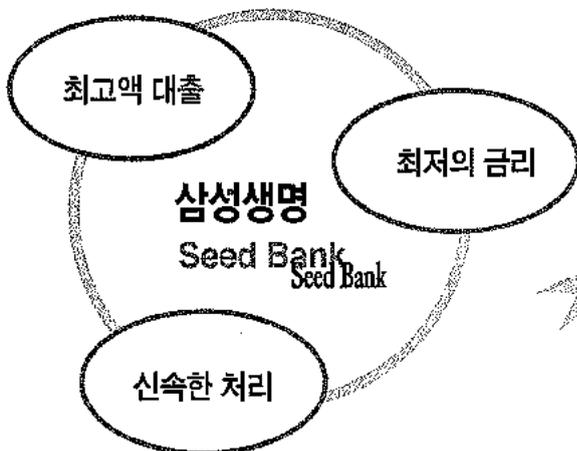
기간 / 1년~5년 (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삼성생명대출특선!!



- 경락대금 : 90%까지 대출가능
- 담보대출, 창업자금대출 특별상담
- APT소유자, 구입예정자 : 7.5%~9.1%(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플러스 대출 : 최저 7.5%
- 스피드 학자금 대출



상담문의  
0 8 0 0

삼성생명 정책5부

팀장: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H·P 011-9738-0087

세·계·최·초·의·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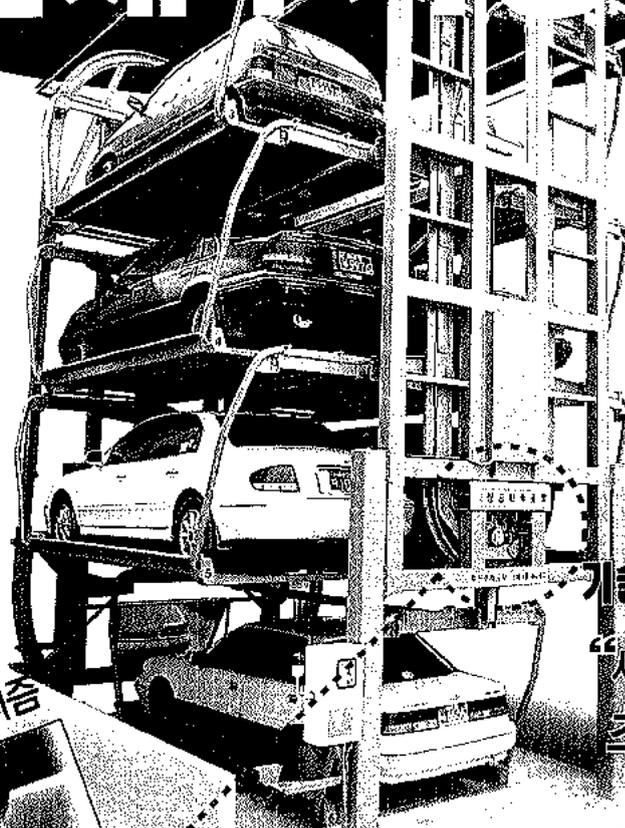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SKY PARK

# 입체주차장치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0190326호



適者生存의 無限競爭時代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이렇게 다릅니다.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 ([www.Juchagi.com](http://www.Juchagi.com))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 ([www.Archidb.com](http://www.Archidb.com))의 '주차' 를 검색하십시오.

☞ **지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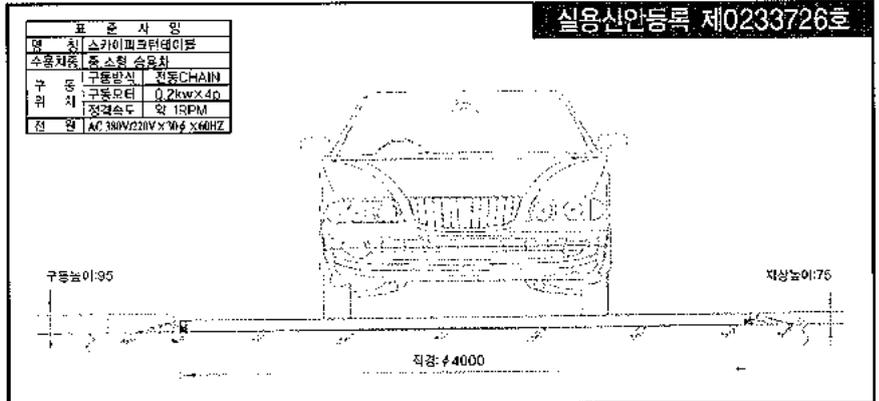
☞ **신제품** 지상설치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5mm!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표준 사양	
명칭	스카이파크턴테이블
수용차종	중소형 승용차
구동방식	전동CHAIN
구동치	구동모터 0.2kw×4p
구속	정격속도 약 19PM
전원	AC 380V/220V x 70φ x 60HZ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창공 汽車 産業**  
[www.Juchagi.com](http://www.Juchagi.com)

본사·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TEL : (053)956-8838(대) ■P.P : 011-507-8838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E-mail : cgp210@kornet.net  
 ■서울A/S센터 : (02)790-2723 ■부산A/S센터 : (051)784-6721



마당깊은 집(민현식+기오현 作)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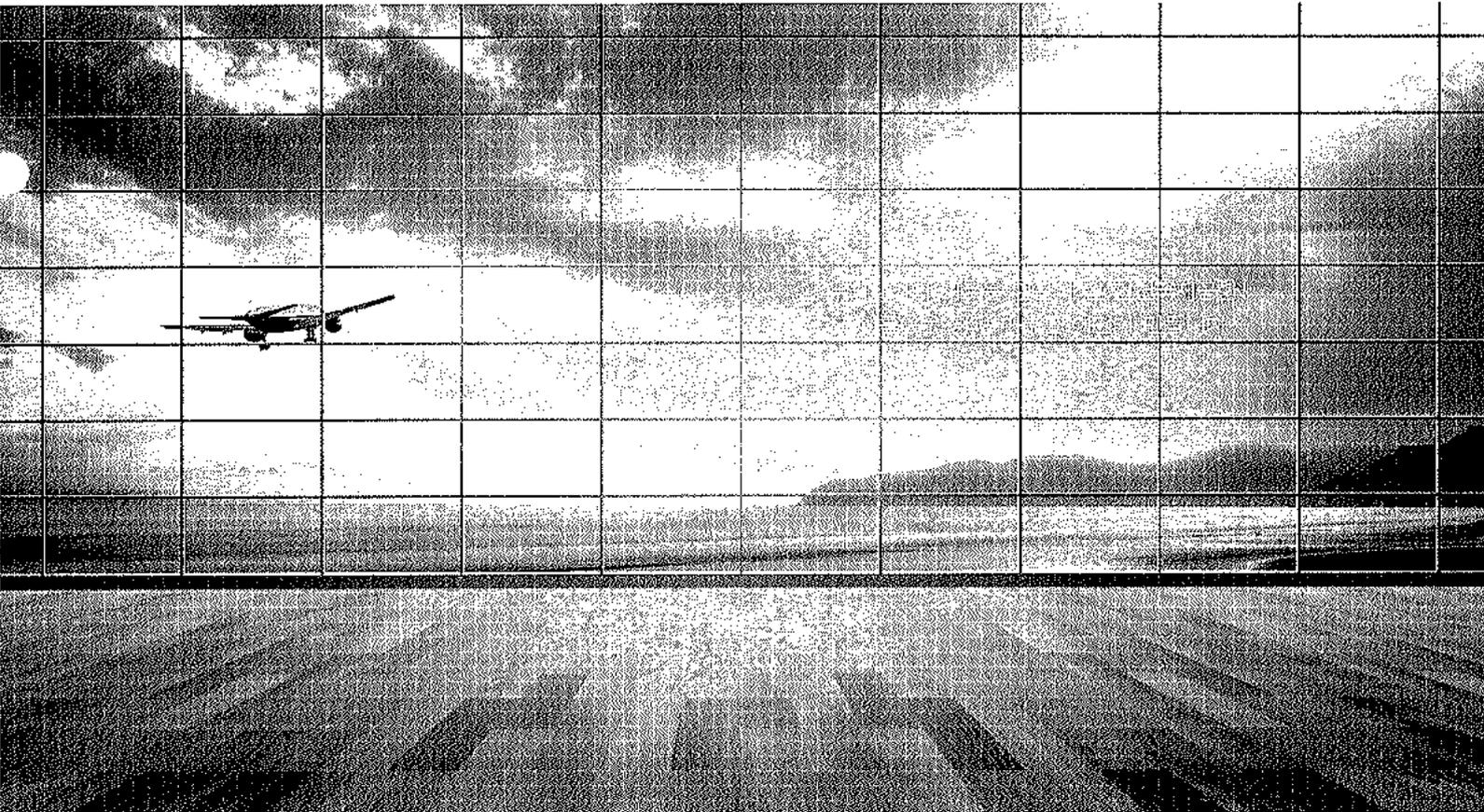
30

50



칼럼	타워링 인페르노	강 혁	20
회원작품	포항시 남구보건소	김승희 · 강월필	24
	대전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김인수 · 최재인	32
	괴곡동 "L"주택	박영준	40
	단설	최삼영	48
작품리뷰	마당깊은 집	민현식	56
	비평 : 서향(西向)을 디자인한 시간	이공희	67
작품노트	마르세 명동점	함인신	70
현상설계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76
	상암3공구 주거단지		80
	인천교대다목적교육관		86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		90
기고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구조 보강 기법 2	이창남	94
	공동주택에서의 지구단위계획	김영하	100
건축만평		유원재	106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107
	해외잡지동향		111
	리포트(홍콩국제건축교육토론회)		117

발행인: 우남웅  
 편집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영식  
 위 원 / 김석환, 김수경, 목대상, 최동규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mailto: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 (주)한마당21 (02)702-1871~2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첫인상 이건 창과 마루

그 나라의 첫 느낌은 공항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저 아름답다고만 해서 365일 바닷바람속에서 있을 인천국제공항의 창과 마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평균 400KG/M<sup>2</sup>의 사상 유례 없는 풍압을 견디고  
 폭풍우에도 배수가 확실하며 부식 걱정이 없는 창,  
 바쁘게 들어오고 나가는 하루 수백만 인파의  
 발걸음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마루만이  
 영종도에서 아름답게 손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도 한국을 기억하게 할 아름다운 창과 마루 -  
 지금 이견창호와 이견마루의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된 실용적 이미지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자성과 포용력을 상징하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이견창호**  **이견마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루  
 이견창호 이견마루 서울 영등포구 영등동 107 2번지 신동빌딩 TEL. 02)2007-2200

76

86

90



## Column

Towering Inferno	Khang Hyuk	20
------------------	------------	----

## Works

Pohang Nam-gu Health-Care Center	Kim Seung-Hoy & Kang Won-Phil	24
Daejeon Noeun Agricultural & Fisheries Whole Sale Market	Kim In-Su & Choi Jae-In	32
Goigokdong "L" Residence	Park Young-Jun	40
Danseol	Choi Sam-Young	48

## Review

A House with Deep Madang	Min Hyun-Sik	56
Critique : Time that Designed the Western Exposure	Lee Gong-Hee	67

## Design Note

Marché Myungdong	Ham In-Sun	70
------------------	------------	----

## Competition

Jeju-Port Coastal Ferry Terminal		76
Sang-am Housing Block		80
All-Purpose Education Hall at I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86
Human Ecology Center at Ulsan University		90

## Feature

State-of-the-art Structural Reinforcing Devices of Remodeling Buildings	Lee Chang-Nam	94
District Units Plan of Apartment Complex	Kim Young-Ha	100

## Cartoon

Yoo Won-Jai	106
-------------	-----

## Architects' Plaza

Archi-Net		107
Overseas Journal		111
Report(Visiting Hong Kon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hitectural Education)		117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 Park Young-Sik, Kim Seok-Hwan, Kim Soo-Kyeong, Mok Dae-Sang,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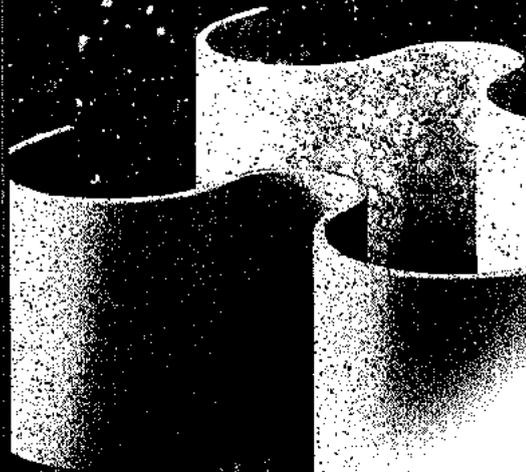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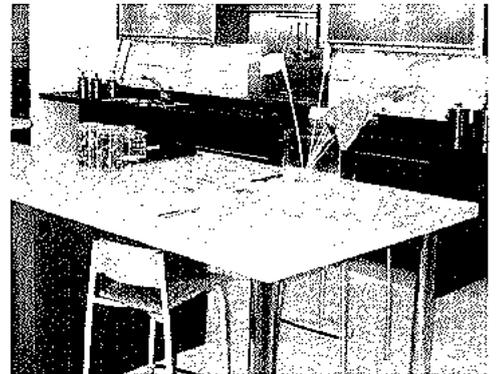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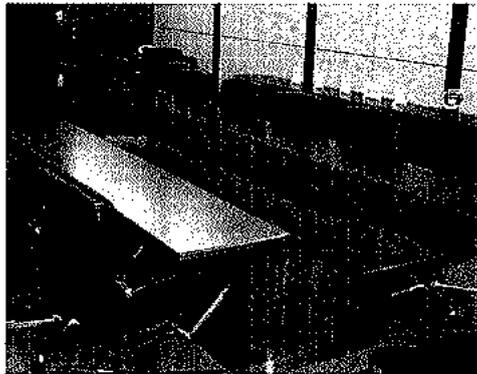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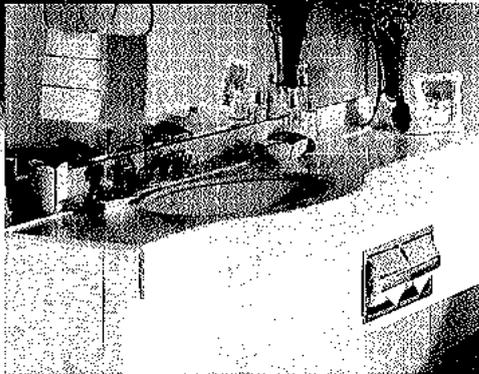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 미래의 인테리어 문화를 주도할 획기적인 소재 최고급 인조대리석 - LG하이막스

부드러운 고급 질감의 표면과 무공질의 균일하고  
가공성이 우수한 인테리어 소재인 LG하이막스는  
어떤 오염에도 강해 언제나 청결하고  
신선한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원하는 형태의 가공이  
가능하며 첨단 디자인과 다채로운 색감의 조화로  
초현대적 인테리어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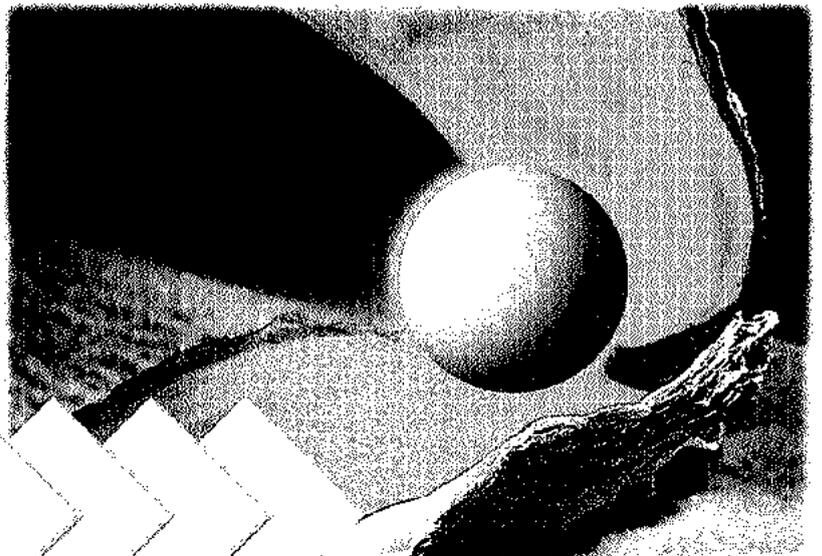
## 자연의 느낌 그대로 LG비안코

천연석과 같은 자연스러운 질감에 가공의  
까다로움과 많은 LOSS을 개선한 - LG비안코

대리석의 비안코 무늬를 채택한 LG비안코는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질감을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대리석의 단점인  
가공성, 기계, 화학적 품질을 개선하여 인테리어 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 제품입니다.

색상이 다양하며 가공이 용이하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모든 Counter 및 Table top 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세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LG비안코'  
분명 만족하실겁니다.



## LG Bianco

이태리 대리석의 일종인 비안코 무늬를 아크릴계 인조대리석에  
적용하여 탄생된 LG화학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 타워링 인페르노

### Towering Inferno

강 혁 / 경성대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by Khang Hyuk

한 때 재난을 주제로 다룬 영화(disaster movie)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다. 아카데미상을 탄 포세이돈 어드벤처같은 영화가 대표적인 예인데, 대개가 절대 절명의 재난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성, 그리고 운명과 운감하게 맞서 싸우는 인간을 그린 휴먼 드라마들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타워링 인페르노(Towering Inferno)로 우리 말로는 '하늘높이 솟아오른 지옥' 짬으로 번역해야 될 것이다.(우리나라에선 그냥 타워링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다.) 초고층 건물이 대형 화재에 휩싸이면서 꼭대기에서 벌어지던 호화 파티에 참석했던 인간 군상이 겪는 참상의 이야기이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자본을 들였고 몇몇 극적인 장면이 인상깊었지만 썩 잘 만든 영화는 아니었다고 기억된다. 재난 영화가 다 그렇듯이 마지막에 지혜롭게 화재를 극복하고 인간애를 다시 확인한다는 이야기이다. 화재 원인으로서는 건축가의 설계를 준수하지 않고 불량 재료를 쓴 설비업자의 부정이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가 동원되었다. 오래 전이라 뚜렷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거기에 이런 요지의 말이 나온다. 현대 기술 문명의 총화인 초고층 빌딩이 저렇게 화염에 휩싸이고 거대한 침화를 빚은 것은 인간의 오만과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그런데 영화에서 보았던 고층 건물의 화재에 비할 바 없는 대참사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났다. 지난 11일 오전 미국의 심장 뉴욕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WTC)가 테러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고 순식간에 무너진 사건이었다. 영화에서나 가능했었을 일이 실제 상황으로, 그것도 세계의 중심인 뉴욕 맨하탄에서 일어난 데 대해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러나 건축인으로 더욱 놀랐던 것은 그 거대한 타워가 무력하게 붕괴하는 모습이었다. 필자는 그 뉴스를 받듯게 차안의 라디오로 들으면서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 그저 부분적인 손상 정도를 과장해 묘사하는 것이니 했다. 집에 들어와 막상 TV에서 쌍둥이 빌딩의 붕괴를 보면서 눈을 의심할 지경이었다. 아무리 비행기와 충돌하더라도 저렇게 짧은 시간에 힘없이 무너지다니!

건축과에 적을 둔 학생으로서 타워링 영화를 보고 나서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저 영화는 엉터리야. 초고층 건물이야말로 화재나 지진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단다. 온갖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여러 단계로 안전을 도모했기 때문이지." 물론 건축학도로 상식 선에서 알고있던 지식을 떠벌린 것이었다. 그러나 바벨탑의 전설이 말해주듯 인간이 세운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을 무역센터의 참화는 보여주었다. 생각해보라! 그 어느 누가 그 건물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건물 설계와 구조와 설비에 관련했던 그 많은 이들이 벌의벌 재난의 기능성에 철저히 대비했다 하더라도 테러, 그것도 비행기가 와서 정면 충돌하는 테러는 아마 변수에 넣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1978년 학부 수업 때 작고하신 김희춘 교수님으로부터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대해 처음 들었다. 미노루 아미자키라는 일본계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것, 당시로서는 흔치않은 쌍둥이 빌딩이라는 것, 외벽의 디자인이 그대로 골조가 되고 있다는 것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후 사진에서 그 우아한 자태를 보았고 또 수직의 창살이 지상에서 고딕의 뾰족 아치 모양을 만들며 내려오는 것도 알았다. 10년 전 뉴욕에 가서 맨하탄의 야경을 직접 보았을 때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은 유독 눈에 띄었다. 맨하탄에서도 건물이 밀집한 쪽이 아니라서 두 타워는 발코

로 눈에 띄며 장관을 만들고 있었다. 작년 봄 맨하탄 건너편 뉴저지에서 식구들과 배를 타고 앨리스 아일랜드로 가면서 애들에게 트윈 타워를 가리키며 이것 저것 설명해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건물의 붕괴라는 대 재난은 엄청난 인간 생명의 멸실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경악과 슬픔을 주었다. 비록 내 가족, 내 친척이 아니더라도 생생한 화면에 비쳐지는 인간의 울부짖음은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지구상에 왜 갈등과 충돌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더불어 인간 생명의 상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건축인에게 잘 알던 건물의 비극적 사라짐 역시 마음 아픈 사건이다. 두 타워가 없는 뉴욕은 앞으로 몹시 허전한 풍경을 연출할 것이다. 고통스런 참극을 연상시키면서.

초고층 타워는 현대 기술문명의 산물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부와 힘과 기술을 상징하는 기념비로 일컬어졌다. 일찍이 고대부터 높은 탑을 세우기를 회구했던 인간의 열망은 20세기에 인공의 공중 도시로 실현되었다. 인간의 권력 의지와 욕망의 가시적 실현물이기도 한 그것은 건축 뿐 아니라 문명의 개가이기도 하다. 이제는 너무 흔해서 일상화되기까지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적같은 현상이고 아직도 바라보는 이에게 경외감과 감탄사를 유발케 한다. 최근의 첨단 과학 기술에 힘입어 그것은 더욱 정교해지고 지능적이 되고 있다. 마치 거대한 항공기나 잠수함, 혹은 로켓처럼 초고층건물은 그 자체가 거대하고 복잡하며 고도로 직접화된 기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거대해질수록,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자동화될수록 더욱 편리해지고 안전해지고 효율적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더욱 취약해지고 허술해지며 인간의 제어 능력을 떠난 시스템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건물에 있어서 설비의 자동화는 건물의 관리자나 사용자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범죄 영화에서 흔히 보듯이 첨단화된 시스템은 적에게 아주 좋은 공격의 수단을 제공하는가 하면, 우호적인 환경에 길들여져 있던 내부자엔 순식간에 속수무책의 공간으로 변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정보의 네트워킹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컴퓨터 해커의 침투나 Y2K 같은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무방비 상태에 피해가 대규모화될 확률이 커지는 것과 같다. 혹은 첨단의 장비가 장착된 항공기가 유독 하이재커에게는 꿈쩍 못하고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의 우발적인 총알 한방은 곧바로 비행기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기술의 고도화는 한편으론 치명적인 문명의 아킬레스건을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자동화와 네트워킹화는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우리의 도시를 아비규환의 장소로 만들 수 있다. 정전, 급수 중단, 교통 마비, 통신 두절, 에너지 공급 차단, 이것 중 어느 하나도 현대 메트로폴리스에 끔찍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는 대도시가, 혹은 세계 전체가, 비유하자면 하늘에 뜬 대형 점보기와 같은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누군가는 위험사회라고 명명했다. 카오스이론에서 아마존 유역의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개 짓이 아시아 대륙에 태풍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비슷하게 대수롭지 않은 작은 사고가 대형 참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도시에 전기와 급수가 중단됐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럴 때 가장 취약한 것은 고층의 인텔

리조트 빌딩 주택일 것이다. 최근에 서울에 지어지는 40층 높이의 주상 복합 빌딩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 40층에 사는 거주자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쓸 수 없고 불이 안 들어오고 전화가 불통이며 한 겨울에 난방이 끊어졌다면, 그리고 물이 안 나오는 것은 물론 화장실의 수세도 안 된다면? 그래서 밥 한끼 지어먹을 수도 없고 변소도 갈 수 없다면 그곳이 바로 생지옥일 것이다.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곳이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장소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물론 생각하기도 싫고 결코 있어서 안 되는 사태이겠지만 이번 무역센터 참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무작정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진화론자는 공룡이 고도로 자신을 발전시킨 결과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망했다고 말한다. 역사가 중에는 지구상에서 고도의 문명들이 붕괴한 것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만큼 내적으로 취약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합리화되고 효율화되는 한편, 체제와 구성원은 취약해지는 것이 그리 낯선 일은 아니다.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던 우리 근대 문명도 실상 그런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아마도 이번 무역센터 참사는 건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대형 건축물의 안전이나 보안 문제가 계획이나 설계, 그리고 시공에 큰 관건으로 떠오를 것이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감시망과 보안 체계,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나 공간에 대한 연구가 힘안으로 연구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건설비의 증가를 뜻한다. 유비무환이라고 다양한 대비책과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한계를 안은 채 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앞서 보았듯이 복잡화, 고도화, 자동화가 근본적으로 내포하는 취약점 때문이다. 둘째, 미래의 사태와 변수를 모두 감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축구 경기장을 설계하던 건축가가 오늘날 홀리건들의 난동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이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렇다면 근대의 기술문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마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지구촌을 모든 인류가 더불어 살 수 있는 우호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광기와 욕망을 잠재우고 다시 성찰과 윤리와 절제가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게 하는 것이다. 타자의 원망과 분노를 밥그릇 삼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상생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오늘의 사태는 가르쳐 준다. 둘째로 위와 관련하여 미친 듯이 질주하는 오늘의 삶의 방식, 특히 자본주의와 기술 만능주의에 적절한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다. 하이데거는 일찍이 근대 문명의 사악성과 맹목성을 경고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대신 이해와 무관한 다른 일에 주의와 가치를 둘 것을 요청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환경론자나 반세계화론자들의 주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건축에서도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건축가는 항상 바벨탑의 신화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작금의 건축가의 오만과 자기 인정 욕구 대신 겸손과 윤리 의식이 새로운 가치로 요구되는 시대이다. 환경과 생태 문제, 생명과 건강 문제, 에너지 문제, 자원 문제, 인간의 심성과 행복, 공동체성을 외면하고서 21세기의 건축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참회는 탈근대 문명 시대의 건축이 가야할 길에 대해 깊이 숙고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㉞

## 포항시 남구보건소

### Pohang Nam-gu Health-Care Center

김승희 · 강원필 / 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eung-Hoy & Kang Won-Phil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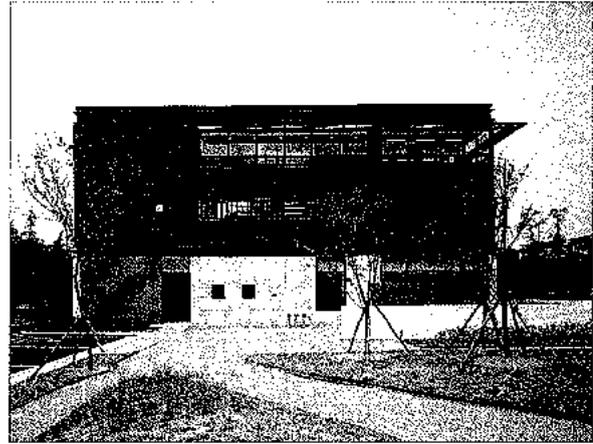
대지위치	포항시 남구 인덕동 161-1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주요용도	업무시설(보건소)
대지면적	7,363㎡
건축면적	1,082.06㎡
연면적	3,097.72㎡
건폐율	14.7%
용적률	35.65%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4.7m
주요마감	외장-샌드위치패널, 노출콘크리트, 점토벽돌 내장-비닐페인트, 자작나무합판, 오크무늬목, 점토벽돌
주요설비	공조냉난방설비
설계담당	이규상, 김주경, 김주애
구조	하우구조 신홍식
설비	기한엔지니어링
전기	새한설계 조재금
시공	덕성건설 이수길, 최영표
건축주	포항시장
설계기간	1999. 07~1999. 11
공사기간	2000. 02~2001. 05

새로운 부지는 제일 기계시대를 증언하는 포항의 공업지대에 마련되어 있다. 제철도시 포항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어서, 건축주는 새로운 보건소에 제철도시 포항의 인상이 담겨지길 희망하였다. 공해에 대비해 공기정화 시스템을 구비해달라는 특별한 요구도 있었다. 이는 공사비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단순한 윤곽을 가진 형태를 고안하는 한편,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값싼 재료를 이용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주변의 도시적인 상황도 그리 간단치 않았는데, 간선도로의 거친 속도와 포항제철의 확장된 스케일, 그리고 주거단지의 섬세한 텍스처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역시 중요한 과제였다. 집의 전체적인 윤곽은 들려 올려진 상자(2,3층)와 그라운드 레벨(1층)로 구성된다. 들려 올려진 직육면체 상자는 철골 프레임과 샌드위치패널로 이루어진다. 철골 프레임은 상현재와 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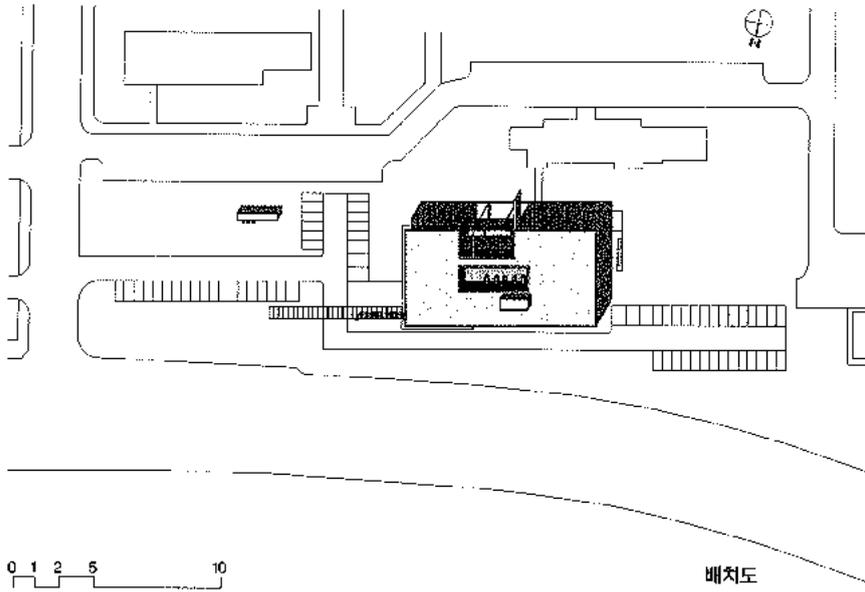


재, 그리고 수직부재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식이며, 정면의 양쪽 끝은 캔틸레버로 처리하여 모서리가 구속되지 않는 경쾌한 구조를 드러낸다. 철골 프레임은 가장 절제된 형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최소한의 표현을 통해 건축의 강렬함과 제철 도시 포항의 물질성을 보다 고양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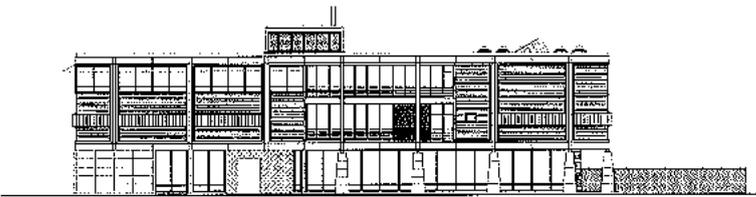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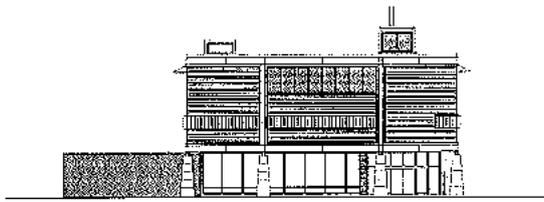
대지를 감싸고 있는 여러 재료와 스케일들, 그리고 다양한 도시적 관계들이 이 집에서 만나고 있다. 직원 숙소의 벽돌 벽과 공장의 철구조물들이 보건소를 이루는 소재로 다시 인용되고 간선도로의 속도와 주거 단지의 흐름이 보건소의 프로그램과 공간 속에 스며든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그리고 그것의 해석과 극복을 통해 집은 비로소 그 형태를 획득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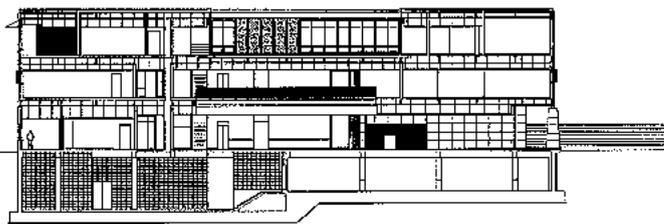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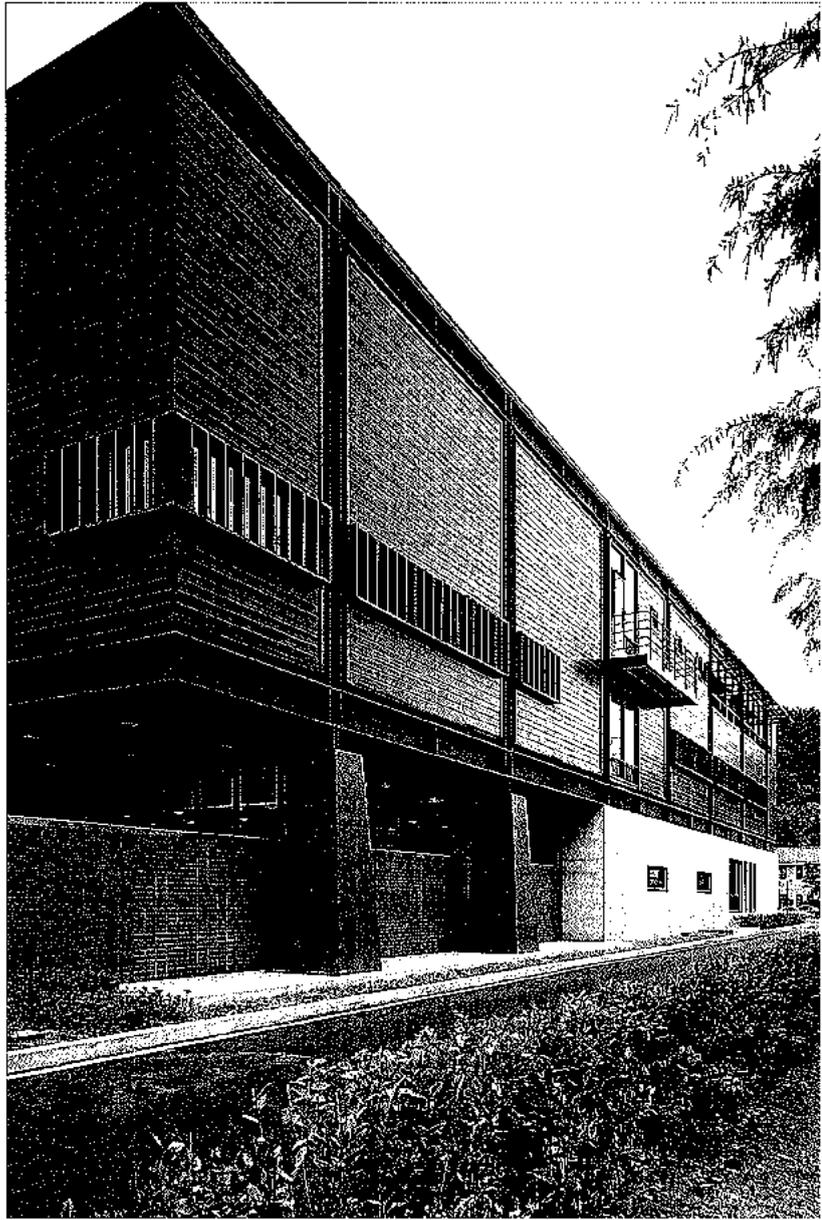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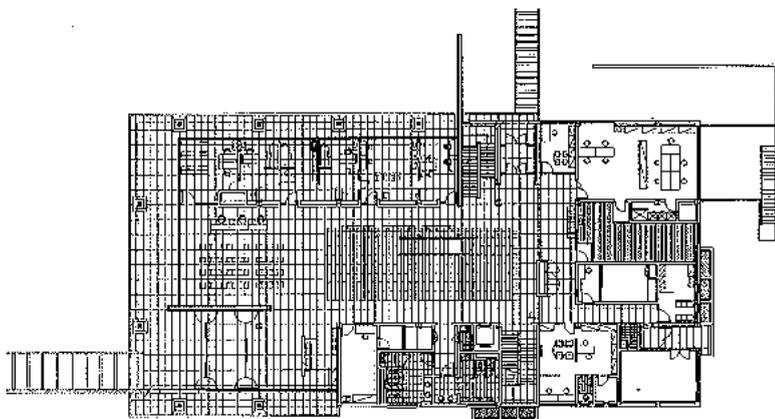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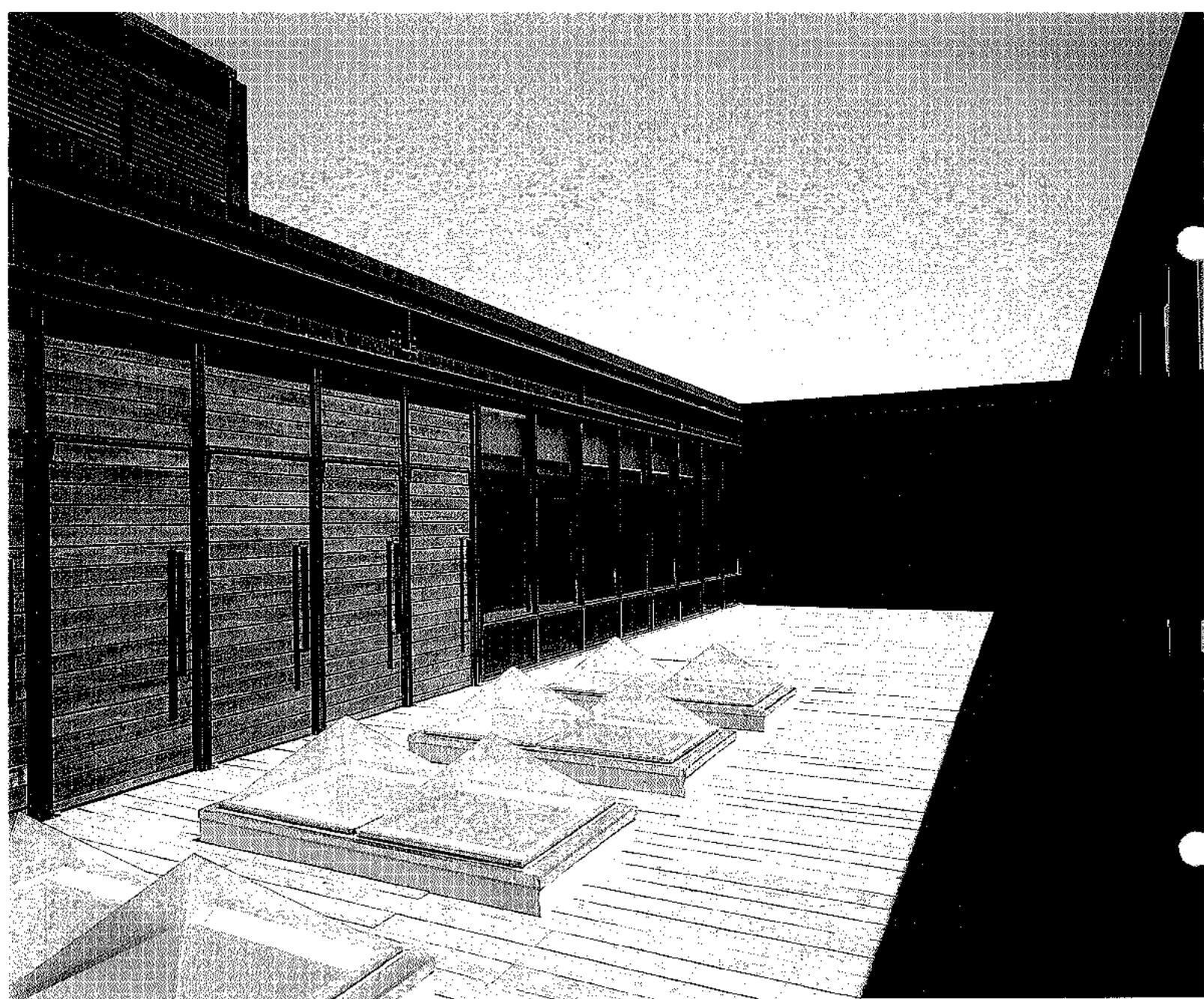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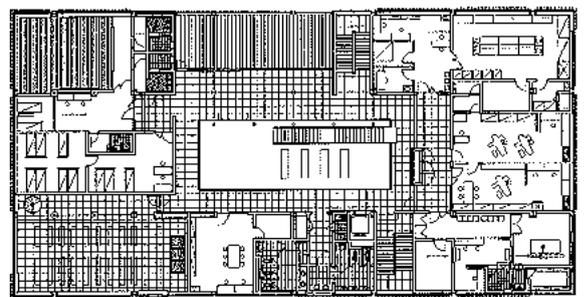
일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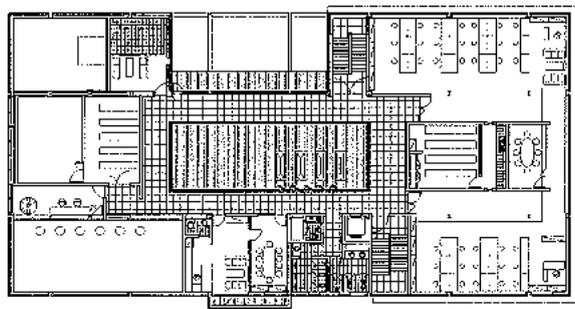
0 1 2 5 10 단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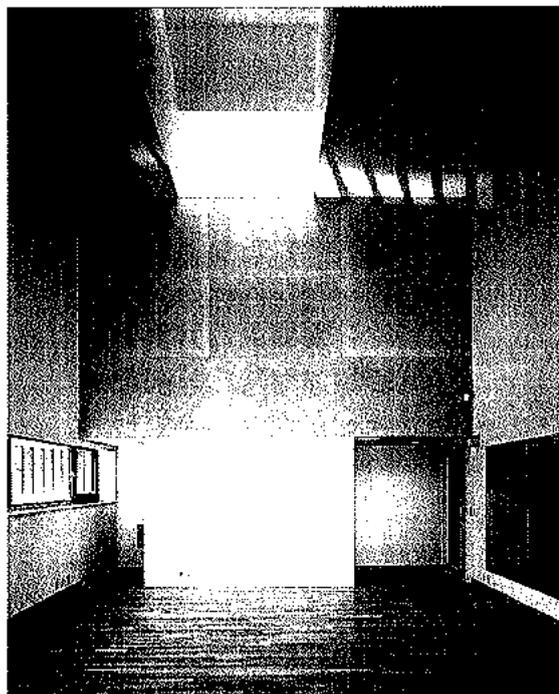


2층 평면도



0 1 2 5 10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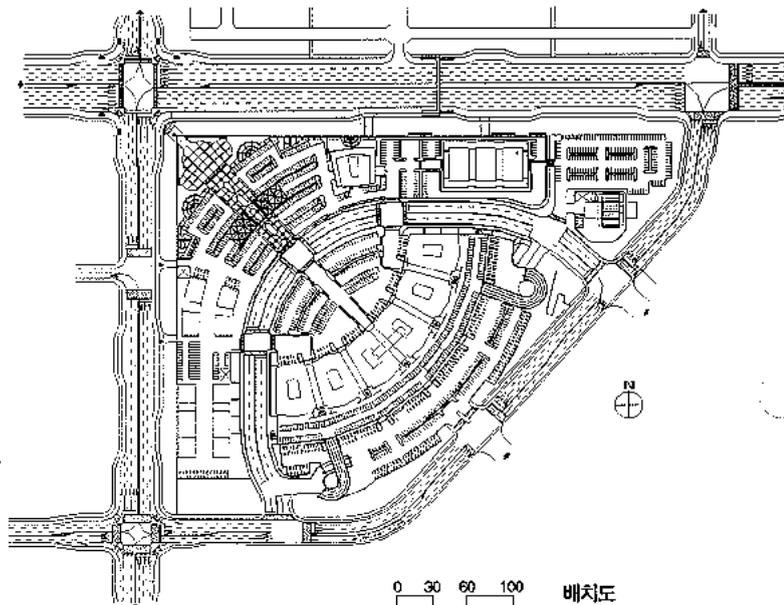
# 대전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 Daejeon Noeun Agricultural & Fisheries Whole Sale Market

김인수 · 최재인 /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In-Su & Choi Jae-In

### 건축개요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66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110,569.62㎡
건축면적	27,722.09㎡
연 면 적	45,020.12㎡
조경면적	11,551.35㎡
건 폐 율	25.07%
용 적 륜	29.03 %
주차대수	1399 대 (장애자용 49대)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청과물동 외 10개동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스페이스프레임조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수성페인트+알미늄 복합페널
전 기	삼정건설 (주)
통 신	서현정보통신 (주)
설계담당	양완숙, 오세욱, 이재명, 장동희, 김혜영, 이은숙, 이한수, 남현주
감 리	(주)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기간	1996. 07~1997. 11.
공사기간	998. 03~2001. 04



### 설계자도 소비자이지만 양심바리기

나는 엉터리 "교인" 이면서도 매일 아침 식탁을 대할때면 옛날 성경교리 공부할 때 외운 주기도문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두 아이들에게 이 농산물이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으며,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귀가 아프게 이야기 아닌 억지설교를 한 자신의 잘못 뒀을 가끔씩 반성도 하고 산다. 농부들이 아무리 땀흘려 농사를 지어도 그것이 소비자인 우리식탁에 오기까지 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경매와 도·소매 과정에서 원가는 배꼽이 배보다 큰 것 처럼 커져서 농민은 50%정도도 갖지 못하지만, 그 당시 설계자 이전에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도 원가의 2배이상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서 어느정도 작은 농부들과 쌈쌈이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은 직거래를 한다지만, 아직도 그 많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가져와 가격을 정하고, 판매하는 공간이 필요하기에 우리같은 건축가에게는 제법 큰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는 용케도 기회를 잡아 이 설계를 할 수 있었다.

### 관공서 발주 설계는 인내심 테스트 하기

3번의 설계자문회의와, 2번의 설계심의, 2번의 영향평가를 하느라 많은 기간을 보냈지만, 건축공간 창조라는 환상과, 그리 작지않은 설계비에 스스로 위안하고, 헤매이다 보니 정작 많은 기간이 필요한 실시설계는 시간이 모자라게 되어 아군을 밥먹듯이 해서 겨우 설계준공을 할 수 있었다. 설계를 할 때면 항상 느끼지만 설계자문회의, 발주청보고,

각종심의, 각종평가 등에 설계공정의 60~70%가 소요되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조사, 계획, 설계, 내역, 시방서 등을 하다 보면 작업에 한계를 느끼게 되나 그래도 설계하는 것이 좋고, 도면이 현실화 된다는 희망에 산다.

### 설계 수주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이 설계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P/P라는 절차가 있었다. 누가 만든 제도인지, 설계사무소를 힘들게 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자본주의 세상에 경쟁해서 능력있는지만 살아 남는다는 비정한 원칙은 어찌 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진 자에게는 기회가 더 좋고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다음에도 또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세상은 둥글고 평평하다지만, 이 제도는 모나고 울퉁불퉁한 것 같다. 또한 이 제도는 설계능력, 기술능력, 재정능력 등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에게 입찰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평가되어 1등이 되어도 재수없으면 입찰에서 쫓겨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서류만들고, 작품만들고 한 모든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느님께서 아침 식탁에서 가깝씩하는 내 주기도문을 들어주셨는지 우리는 작품도 1등을 했고, 입찰도 운이 좋아 아주 아슬아슬하게 낙찰되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주기도문을 안해서 그런지 오늘있었던 3건의 조달청 입찰은 모두 풍당이다. 독자님들이시여,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운도 아주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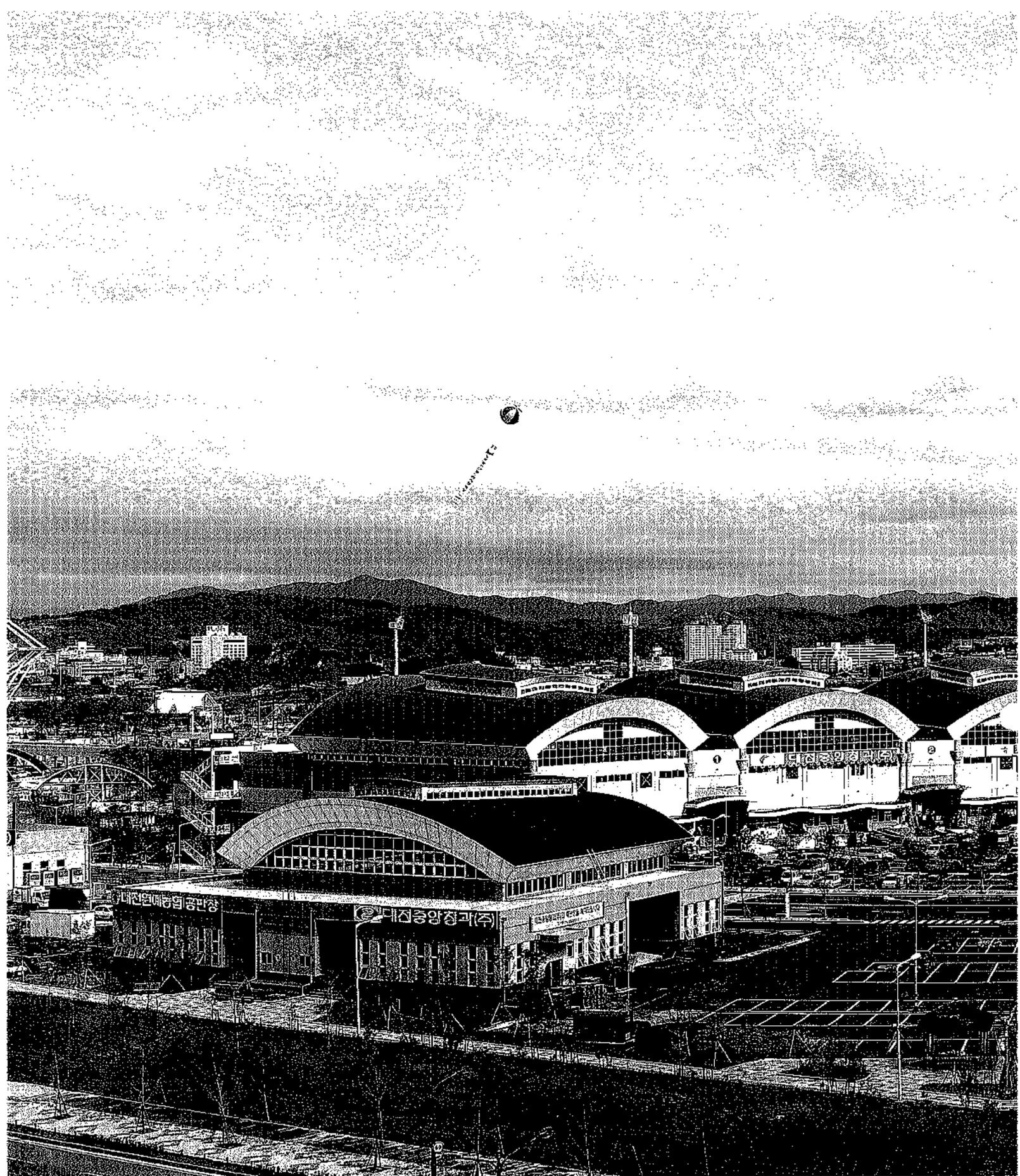
### 설계방향 정하기는 미분 문제 풀기

나는 설계에 앞서 농산물시장이란 이미지는 말 그대로 "뒹그러서" 처럼 어수선하고 지지분하며 복잡한곳 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3만3천평이나 되는 이 넓은 대지에 하루 취급물량 채소 610톤, 과일 274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첫 번째 설계화두는 어수선, 지지분, 복잡함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설계의 원칙을 SPEED, CLEAN, SIMPLE로 정하고 쾌적하고, 편리하며, 합리적인 공간이 되도록 설계의 기본방향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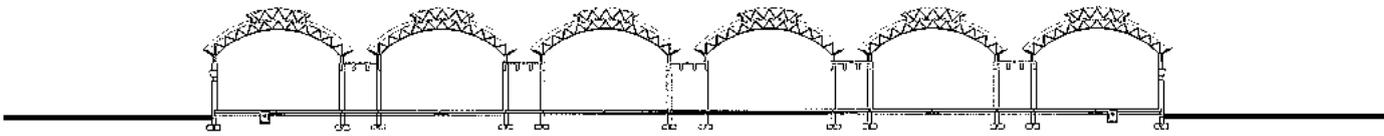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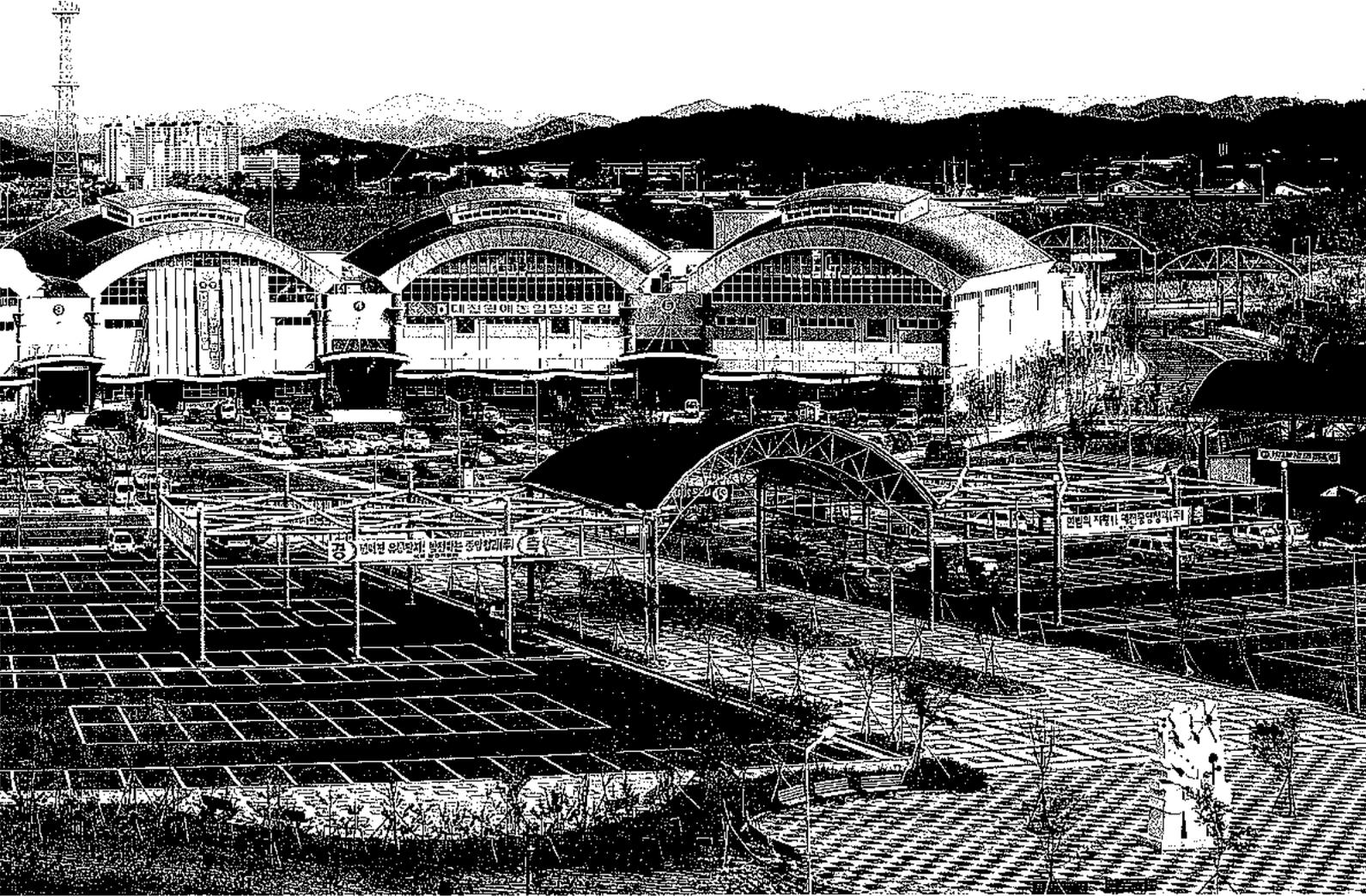
### 디자인 하기는 도(道)뒹기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구상은 언제나 그냥 되는 법이 없고, 지칠대로 지치고, 머리를 쥐어 짜민만큼 다음도 보이지 않으며, 왜 이렇게 힘든 작업을 택했나하고 한참 고민할때쯤 한줄기 빛처럼 희미하게 디자인의 실매들이 잡힐때가 있다. 그때는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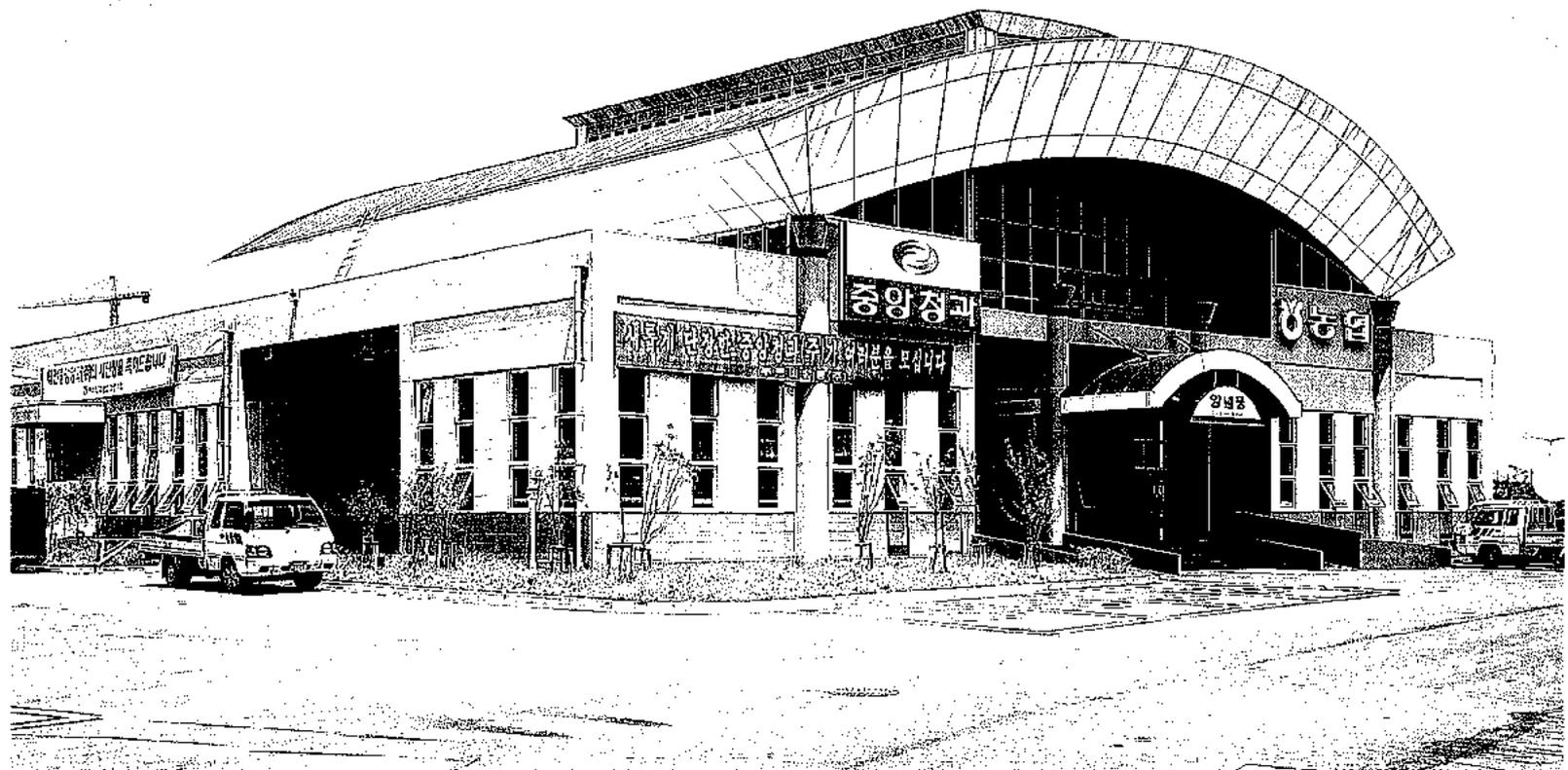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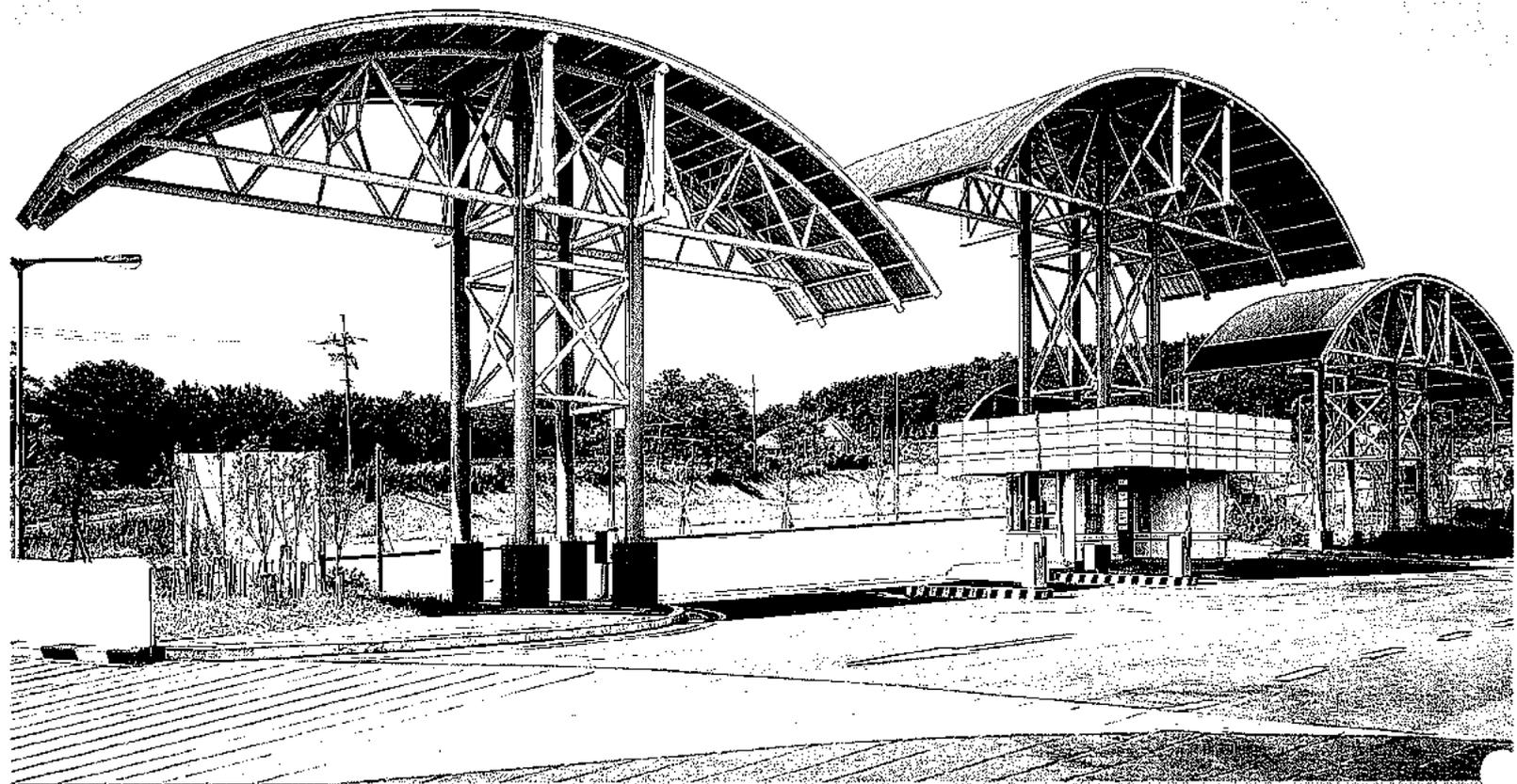




정면도



정과물동 단면도



들린 것처럼 잘도 풀려나간다. 그러다보면 좁전의 번뇌는 모두 어  
다가고 "건축가의 길은 역시 멋있는 길이야" 하며 제멋에 감동해  
한참동안 심취하게되다가 어느 순간에 제정신이 들면 그래도 디  
자인적으로 조금 발전한 자신에 스스로 감동한다.

### DESIGN CONCEPT 만들기

대규모의 경매 및 도소매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경매 및 도소매 공  
간을 형상화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스케치를 하게되고 가장 중요한  
DESIGN CONCEPT은 대규모 OPEN VOLUME 만들데 사  
과상자 모양보다는 사과처럼, 바나나처럼, 아니면 배추같이, 무갈  
이 만들어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  
르게 도면 위에는 둥글게, 둥글게 그려지게 되었다.

### 건축계획 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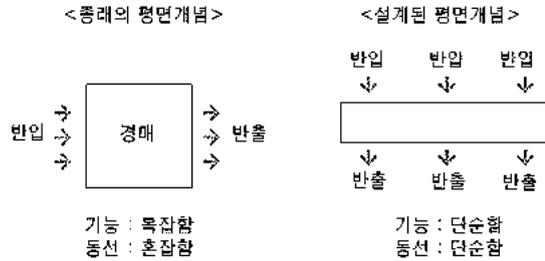
우리에게 있어 건축설계에서의 중요한 원칙은 건축기능과 건축 미  
의 싸움에서 어느편을 드느냐인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두말할 것  
도 없이 기능을 편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 1천400대이상 차량  
이 움직이고, 이용자가 년인원 250만 규모의 도매시장의 복잡함  
에 우선적으로 기능의 편리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마리를 풀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건축계획에 앞서 첫 번째 딜레마는 주변도로  
에 의한 높이차이가 20m이상이나 되는 대지에 어떻게 평탄한 도  
매시장의 기능을 소화하느냐 하는 고민이었다. 어찌하여 발주처는  
이렇게 경사진 땅에 도매시장을 건설하겠다고 토지를 구입했는  
지? 이해가 안되었다. 그 이후 설계중에 토지를 공급한 토지공사  
에도 문제점을 제시하니 도매시장으로는 경사차이가 심하다고 인  
정은 하지만 토공비란스가 어찌구 저찌구 하면서 할 수 없다니 가  
급적 평지를 원하는 도매시장 기능을 풀기에 골치 아픈일이 아닐  
수 없었다. 평면계획의 기본원칙은 화물량의 이동 및 경매의 편리  
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 평면짜기 및 배치해보기

본 계획에서는 6개의 독립된 경매공간을 장방형의 MASS에 단

방향의 물품 동선이 관통하게 하도록 하는 배치개념을 적용하게  
되었다.

### 경매장 기본 평면 CONCEPT



### 입면 및 외관 만들기

입면계획의 기본원칙은 Human의 Scale을 벗어나는 규모의 장  
막벽을 지루하지 않게 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변화감과 친근감  
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곡면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청과물의 반  
입, 반출을 위한 출입구와 창문은 반복적 패턴을 사용하여 리듬감  
을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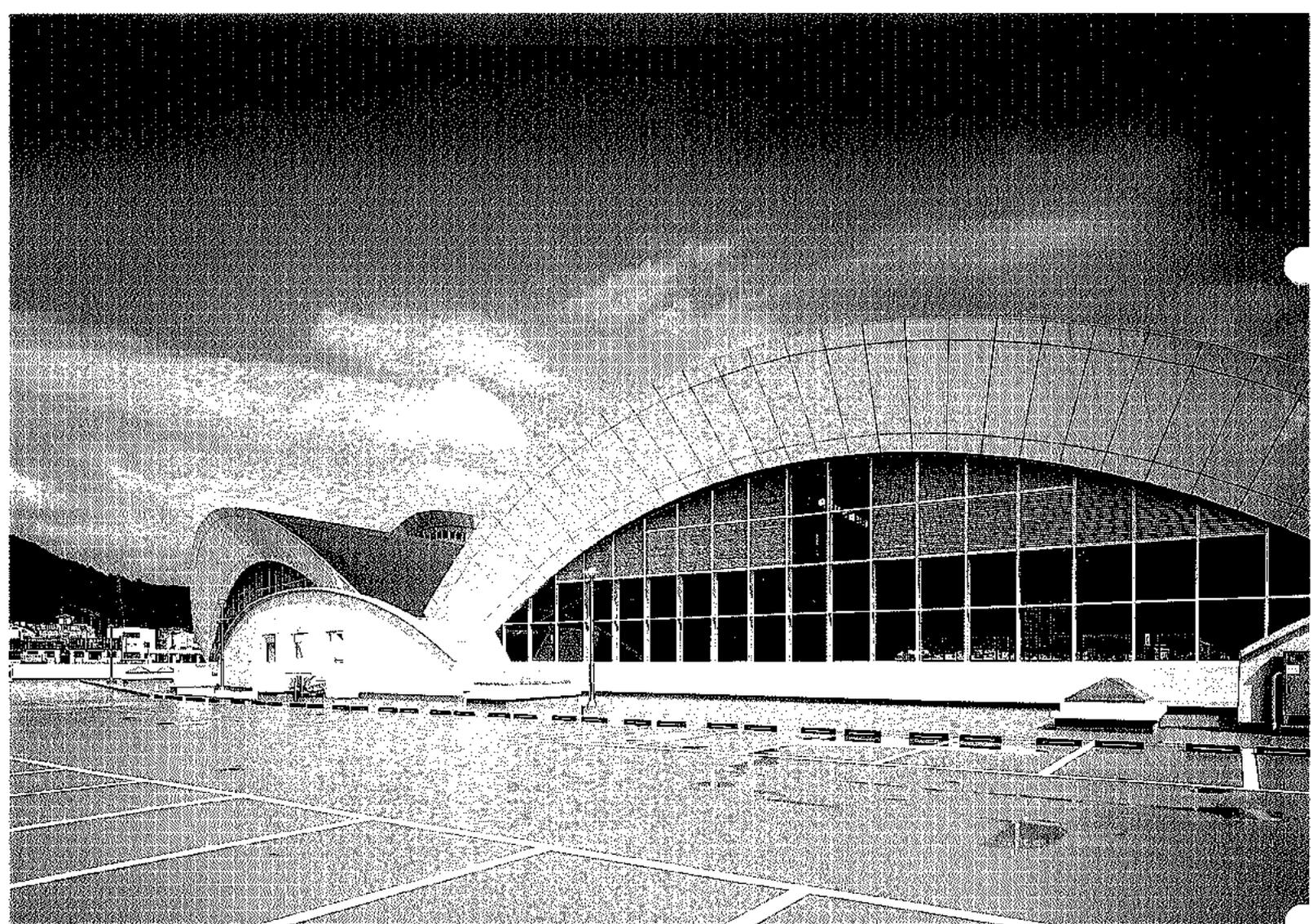
### 단면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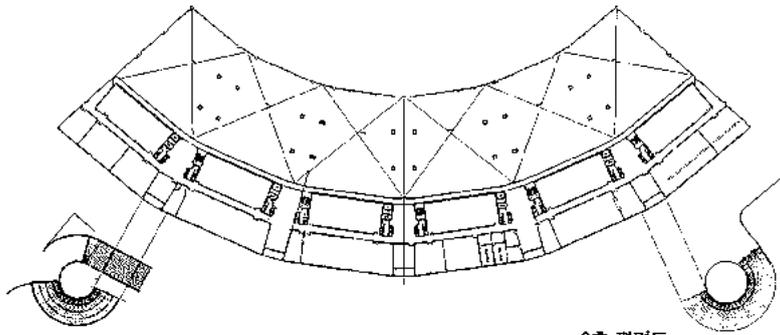
단면계획은 쾌적한 실내공간의 확보 차원에서 경매공간과 사무공  
간으로 구분하여 기능에 따른 높이 차이를 두었고, 지붕구조는 스  
페이스 프레임을 택하여 경제성을 도모하였다.

### 설계하고 느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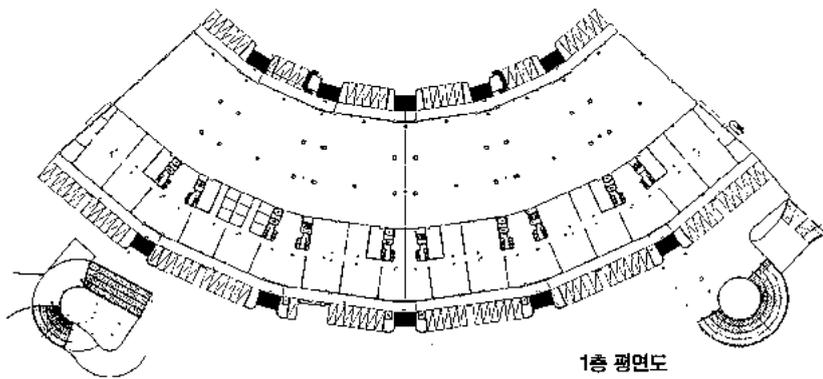
설계에서 준공까지 4년 넘는 오랜기간 동안 설계자는 어려운 일  
이 많이 있었고, 설계당시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시공사  
에 설계변경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었음에 스스로 설계능력의 모  
자람을 많이 느낀다. 좋은 건물이 되고, 편리하게 쓰여져야 하기  
에 설계자는 어떤 어려움도, 모자람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죽은 이후에도 저건물은 남아있을텐데, 나는 그때까지 자부  
심을 갖고 싶고, "사용에 편리한 건물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싶은  
소박한 희망을 가져본다.(글/ 최재인)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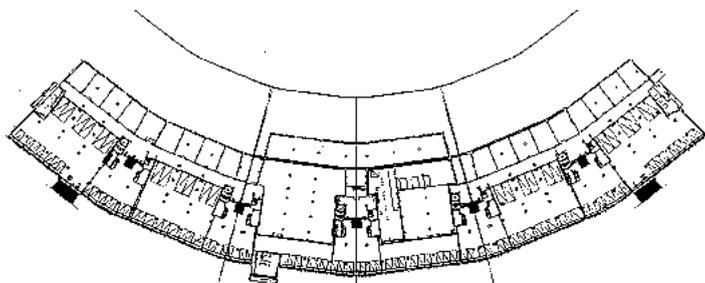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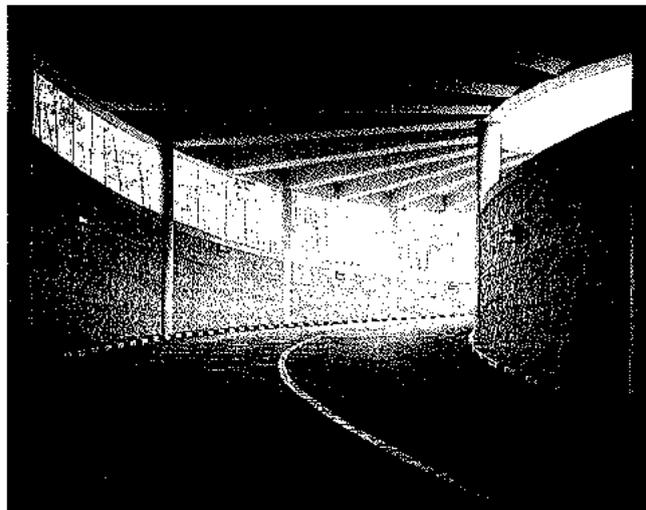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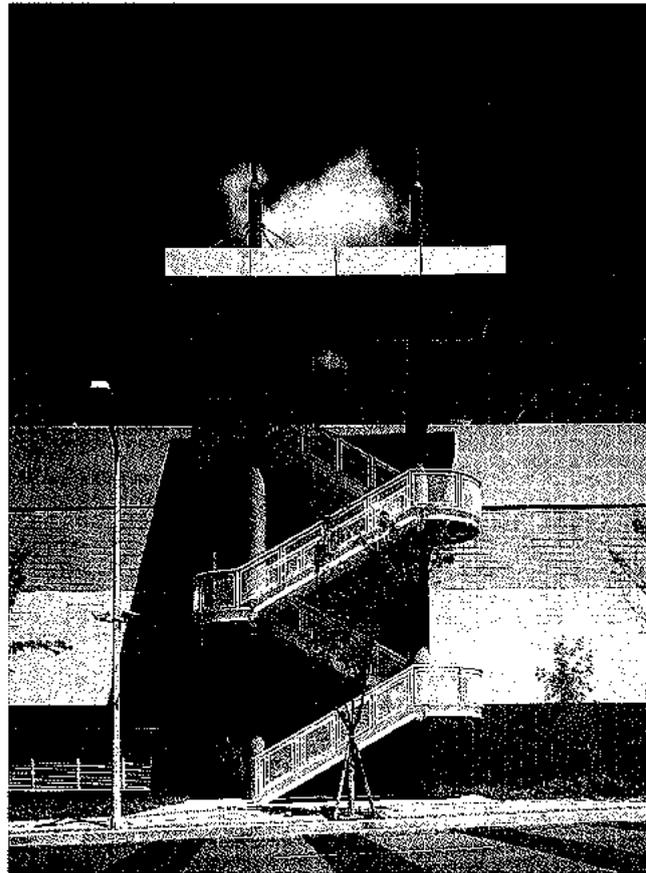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0 10 30 60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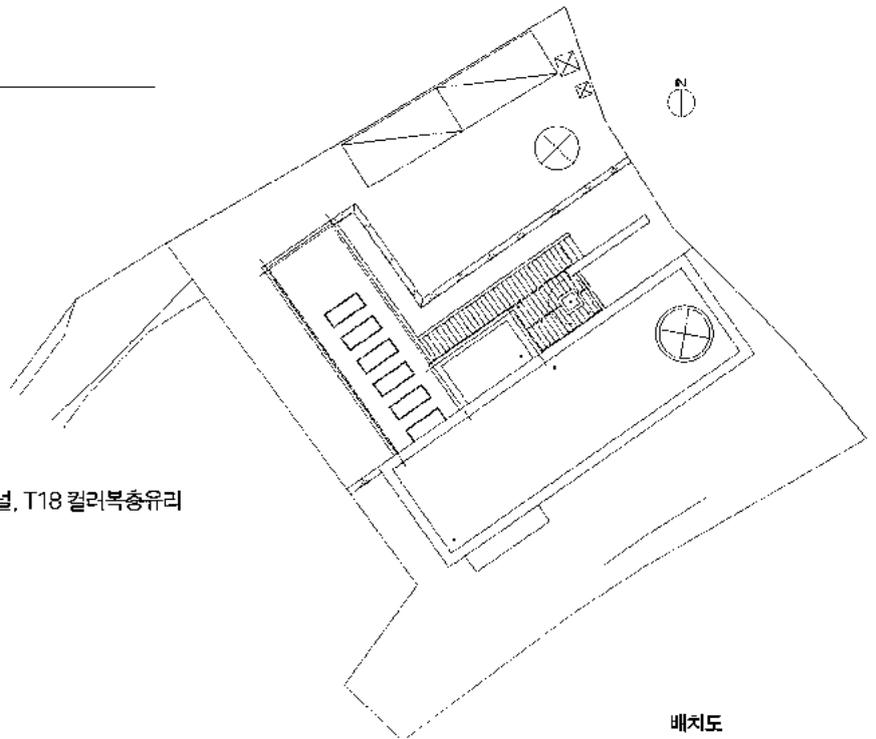


## 괴곡동 “L”주택 Goigokdong “L”Residence

박영준 / 건축사사무소 우반건축  
Designed by Park Young-Jun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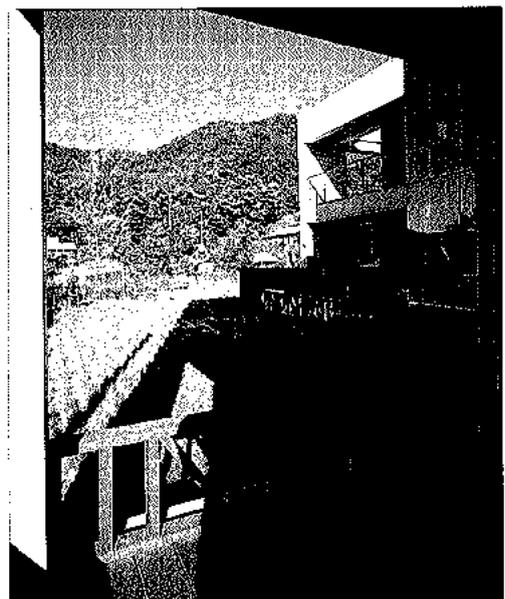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시 서구 괴곡동 101-1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	486.00㎡
건축면적	130.98㎡
연 면 적	199.696㎡
조경면적	200㎡
건 폐 율	26.95%
용 적 륜	41.09%
규 모	지상 2층
구 조	내력벽 구조
마 감	내부마감 : 비닐벽지 미송후로링 외부마감 : 인도사암, T35 베이스페널, T18 컬러복층유리
실계담당	김상우, 신관식
실계기간	2000. 7. 5 ~ 2000. 8. 14
공사기간	2001. 3. 3 ~ 2001. 6. 4
사 진	채수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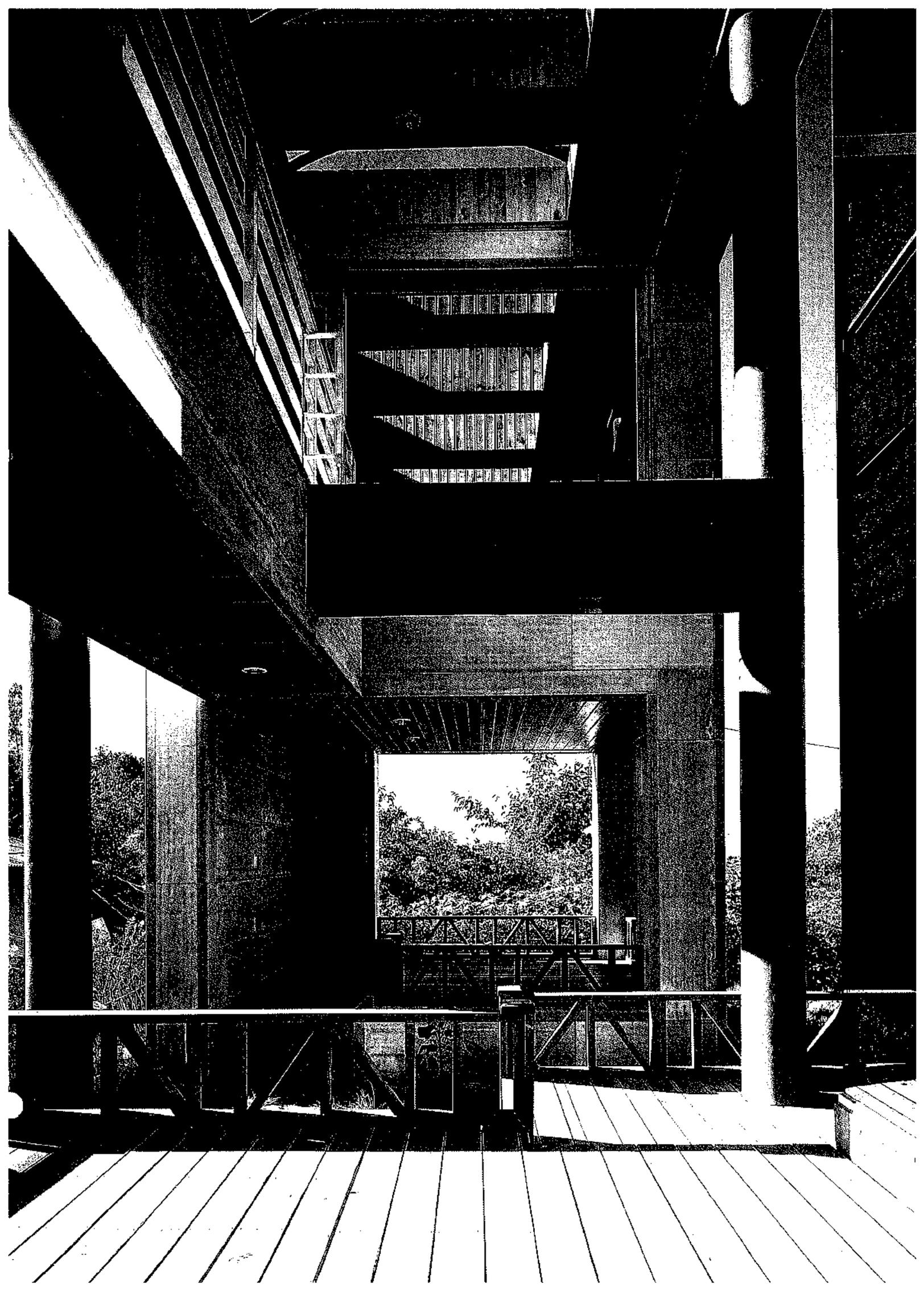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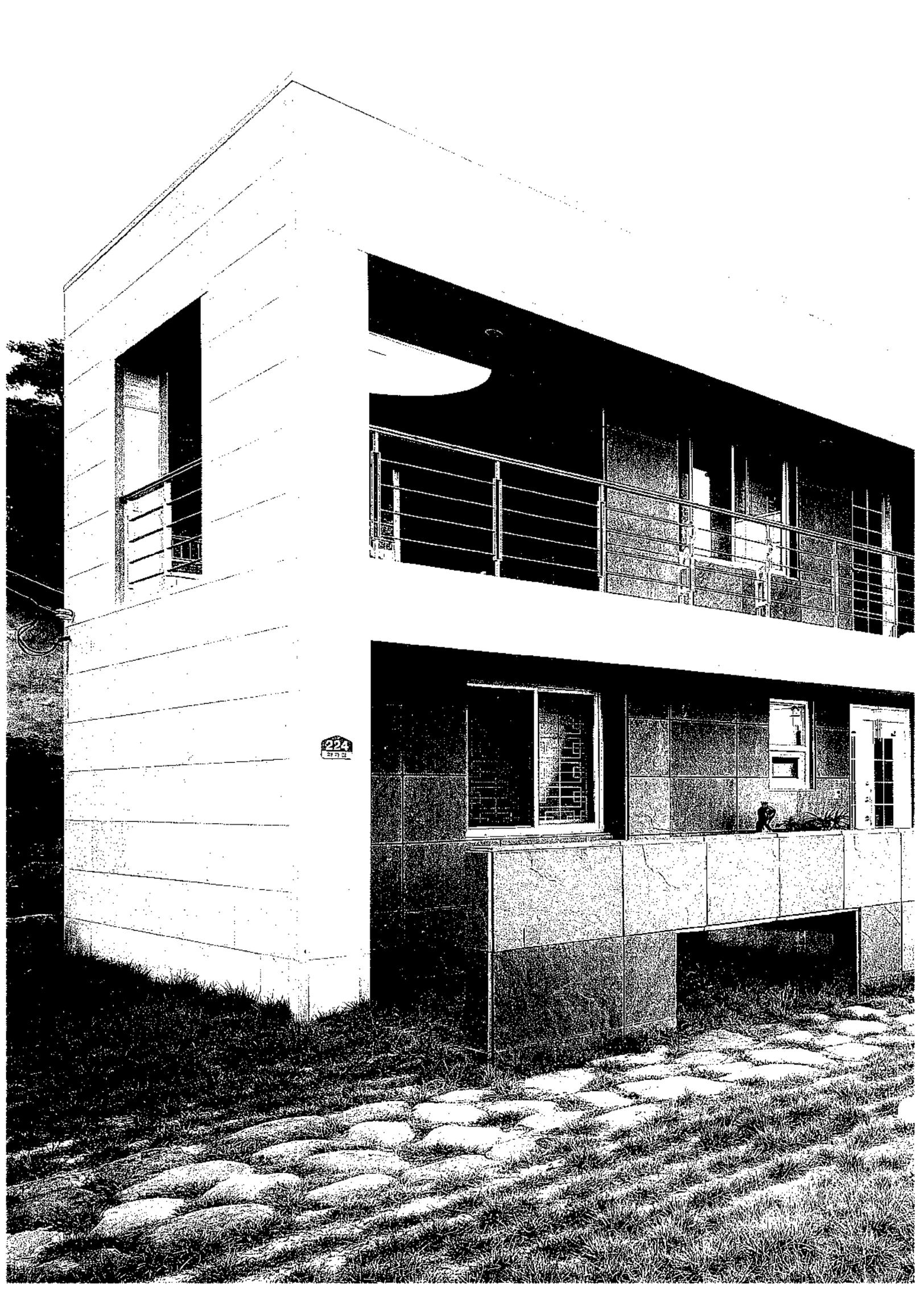
배치도

2000년 7월의 한여름 젊은 부부로부터 주택설계에 대해 상담을 요청받았다. 그 더운 여름날 젊은 부부는 아기를 안고 6살밖에 어린아이와 손을 잡고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맨처음 대화 내용은 외벽은 비닐사이딩과 지붕에는 아스팔트싱글의 전원풍의 주택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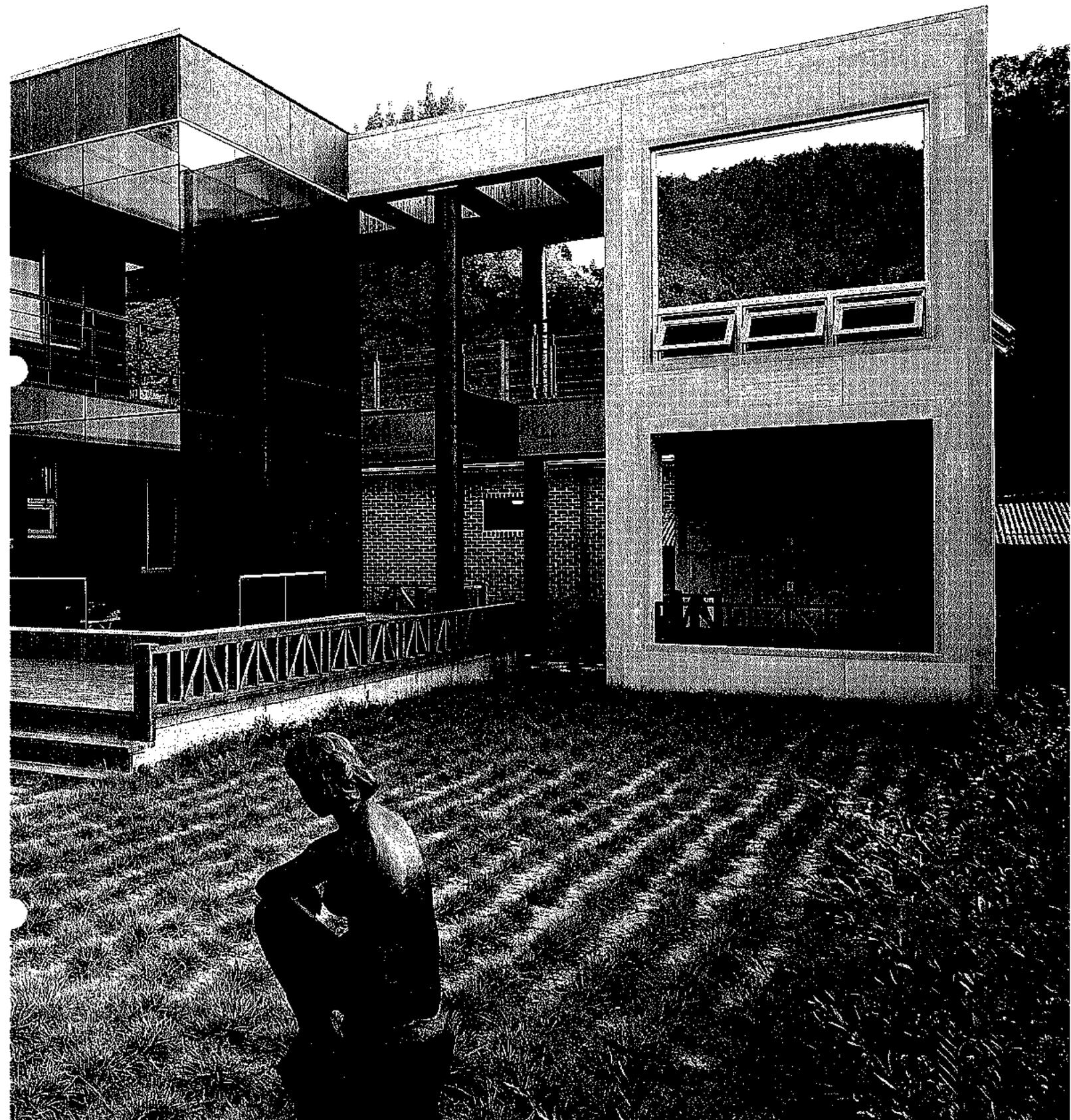
일단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건축주와 전원풍경 얘기를 나누며 나름대로 느낌을 받으며 현장에 도착하였다. 모든 주변 경관은 너무도 감동적이었으나 모든 주택들은 정북향을 하고 있었다. 일주일의 고민후 건축주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뒤로한 채 평소 필자가 살고 싶었던 주택안을 제시하였다.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하는 흥분과 조심심을 가지고 협의가 시작되었는데, 너무나도 의외로 잘 받아들여져 필자의 의도대로 설계안이 진행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설계함에 있어 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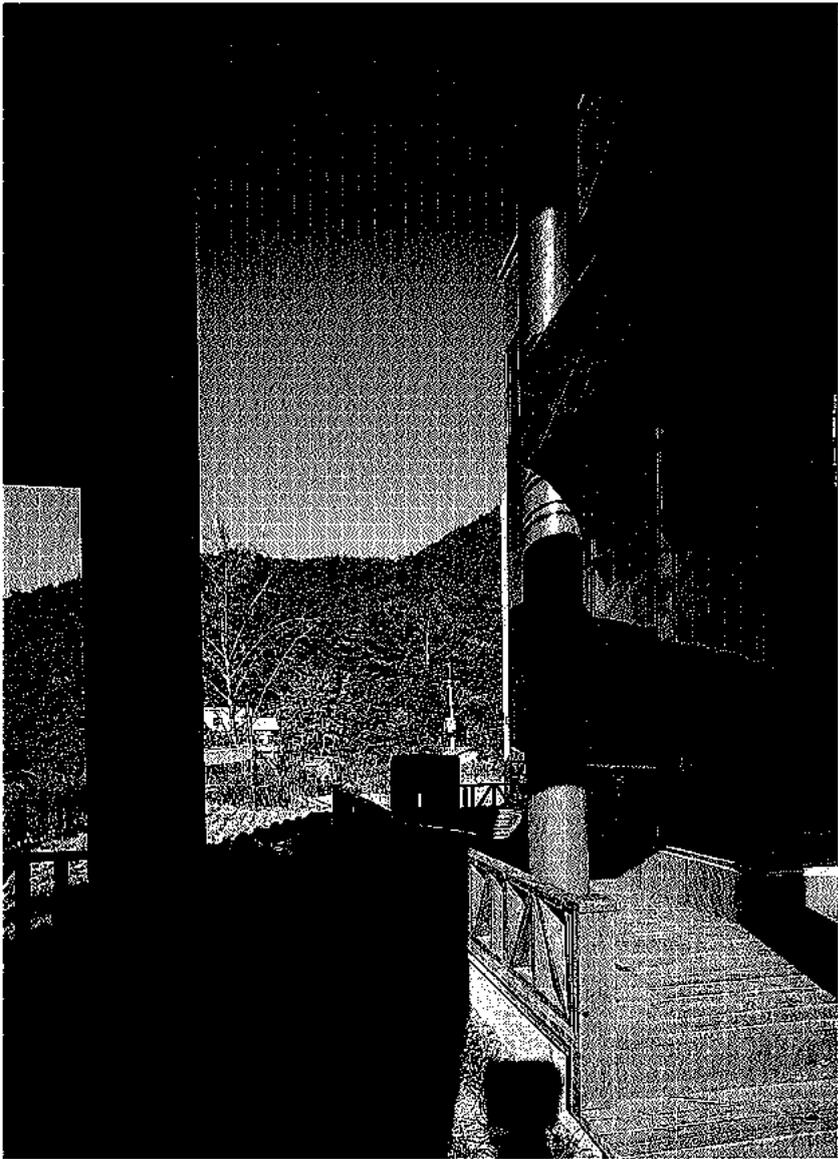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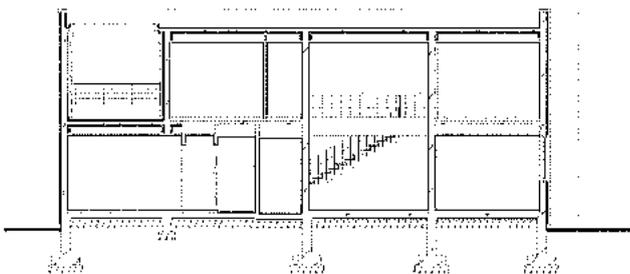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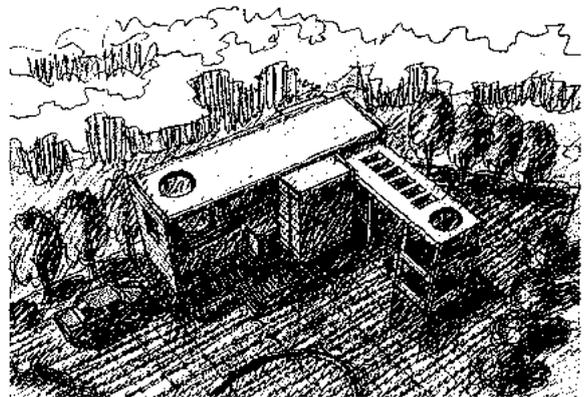
224  
27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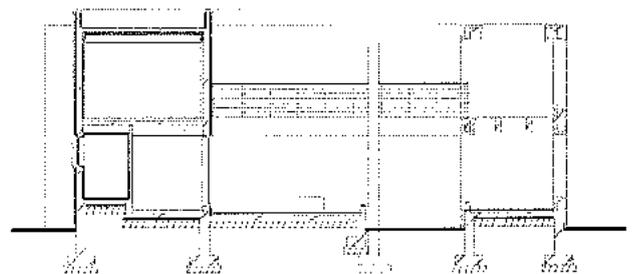


먼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대지와 건물과의 관계 설정이었다. 이 주택에는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 자녀 둘을 둔 4인가족이며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컴퓨터 매니아인 건축주를 감안하여 별도의 개인서재를 설정해 주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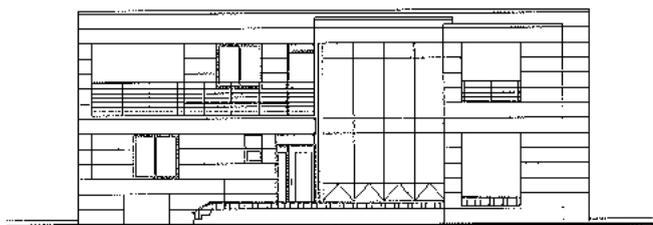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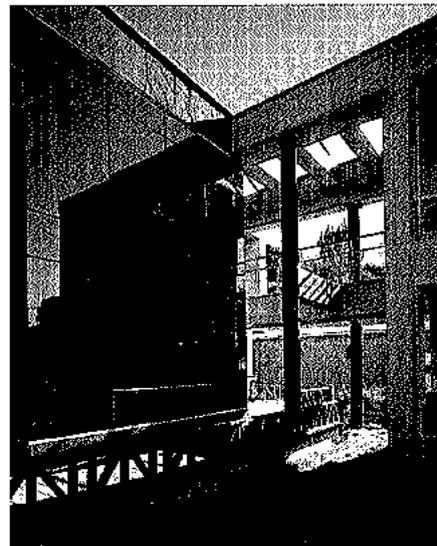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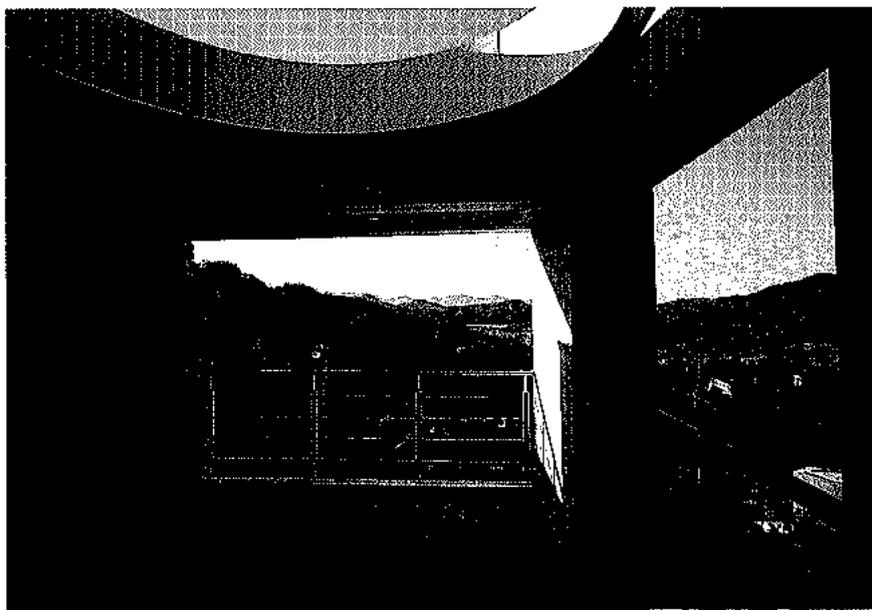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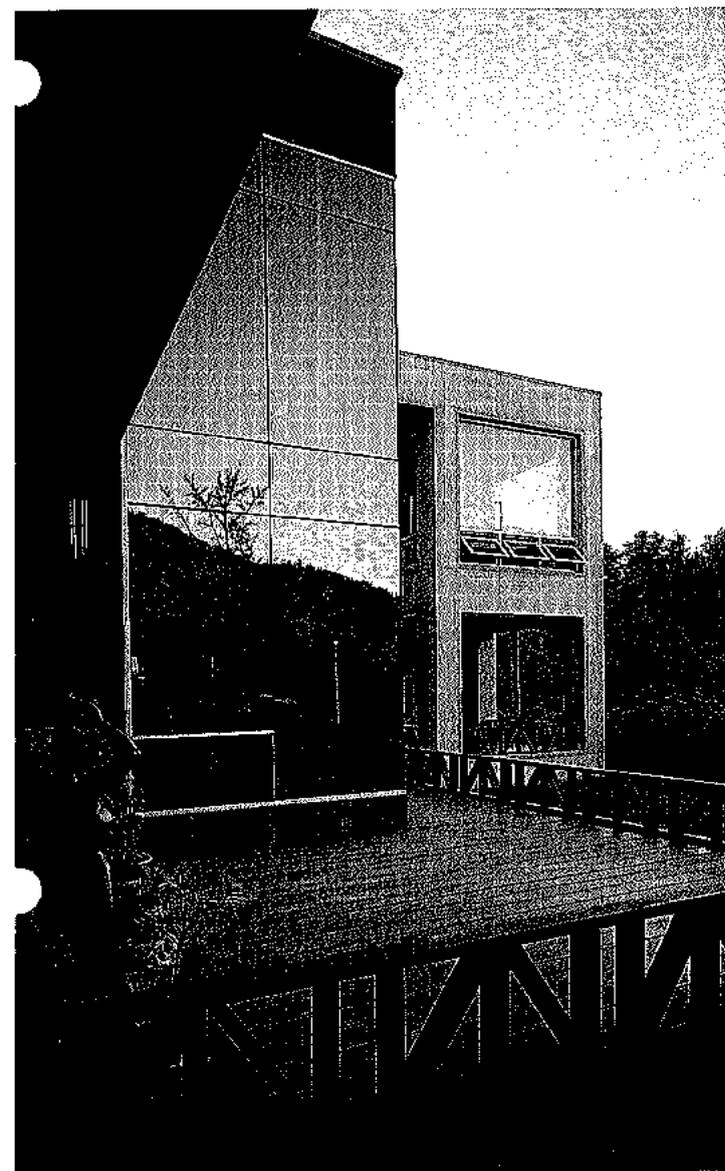
주택 내부에서 2개의 층높이 거실이 1,2층 공간의 구심점으로 인지되도록 하였으며, 남측에는 최대한 투과성있는 창을, 북측 거실에는 적극적인 채광을 위해 창을 두었으며, 1층의 부부침실에서 거실, 주방, 식당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당쪽으로 끌어내어 마당을 건물과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식당에서 이어지는 동네주민들과의 만남의 공간을 두어 적극적으로 내·외부 공간의 활용을 높였다. 2층에는 아이들 방 2개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Open 지붕 및 벽면을 통한 전망을 꾀하였다. (글/박영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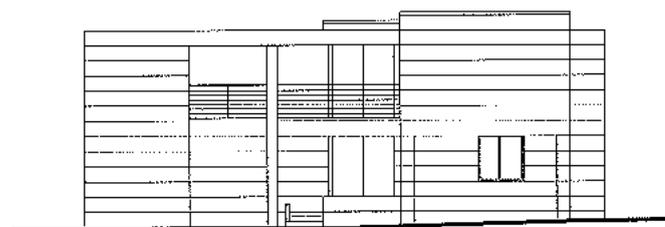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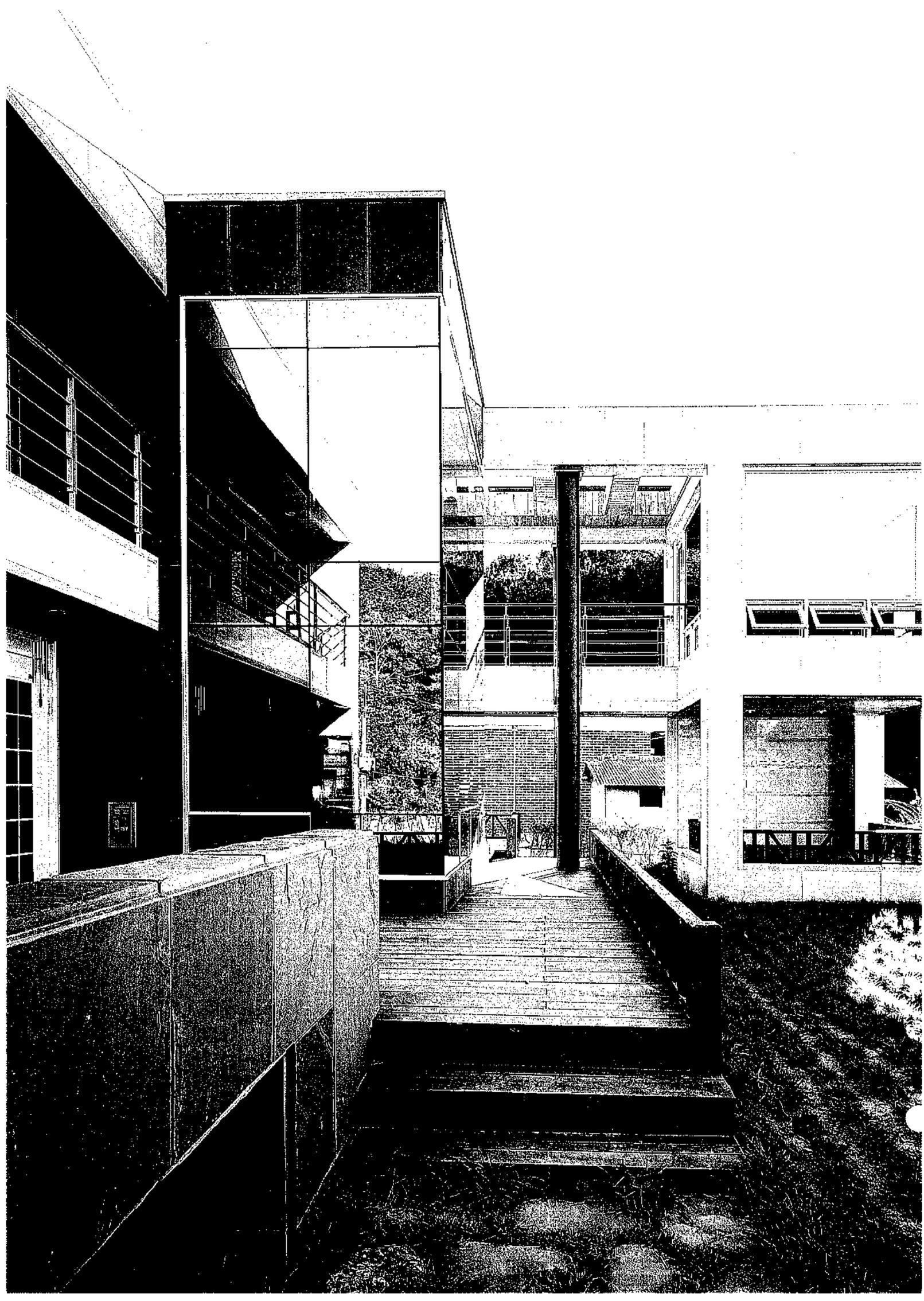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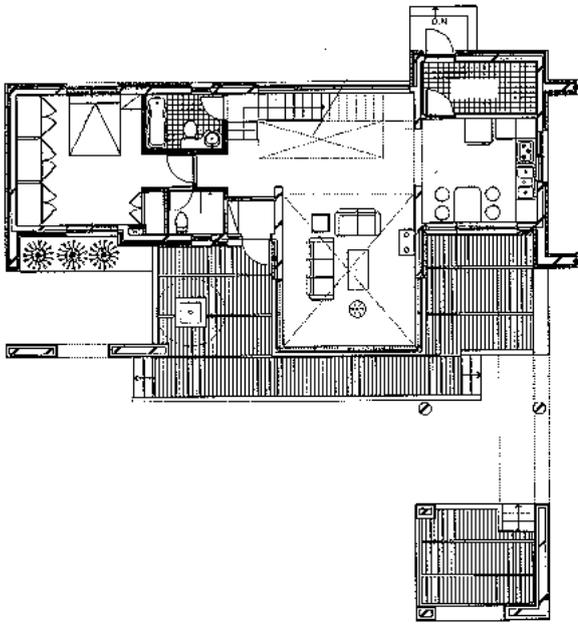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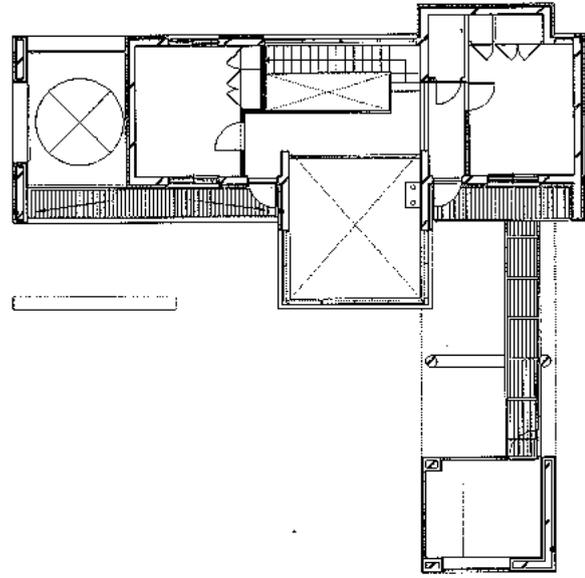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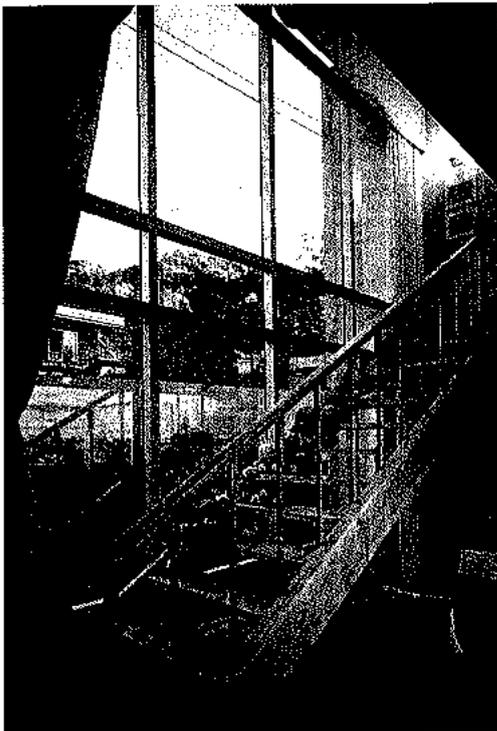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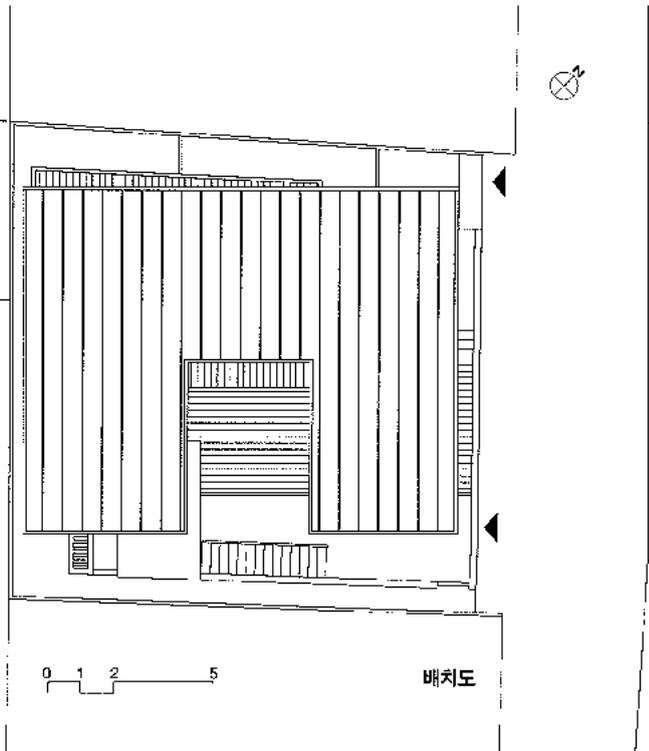
# 단설(短舌)

## Danseol

최삼영 / (주)가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am-Young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87-35
대지면적	205.36㎡ (62.12평)
연면적	259.83㎡ (78.60평)
건축면적	31.01㎡ (102.50평)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용적률	87.12% (법정 : 100%)
건폐율	49.91% (법정 : 50%)
용도	단독주택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외벽 / S-WOOD, 시멘트 벽돌 위 수성페인트 지붕 / 갈바나이즈 강판
주차대수	1대
설계담당	이기호, 조만재, 이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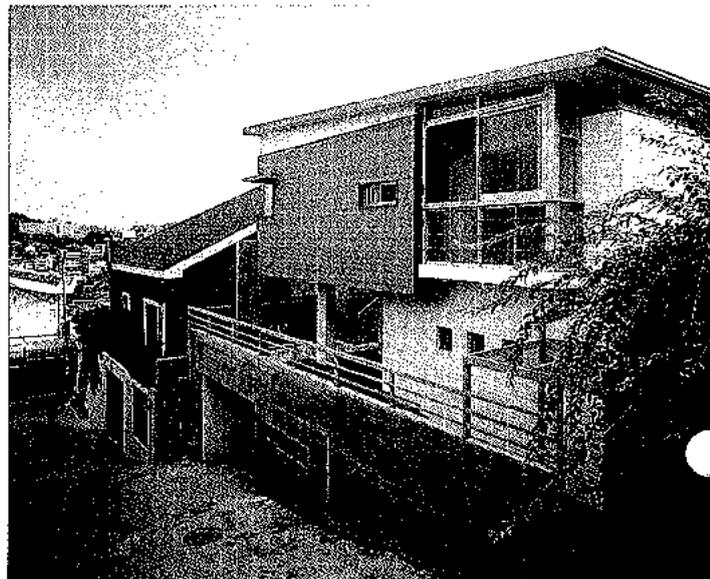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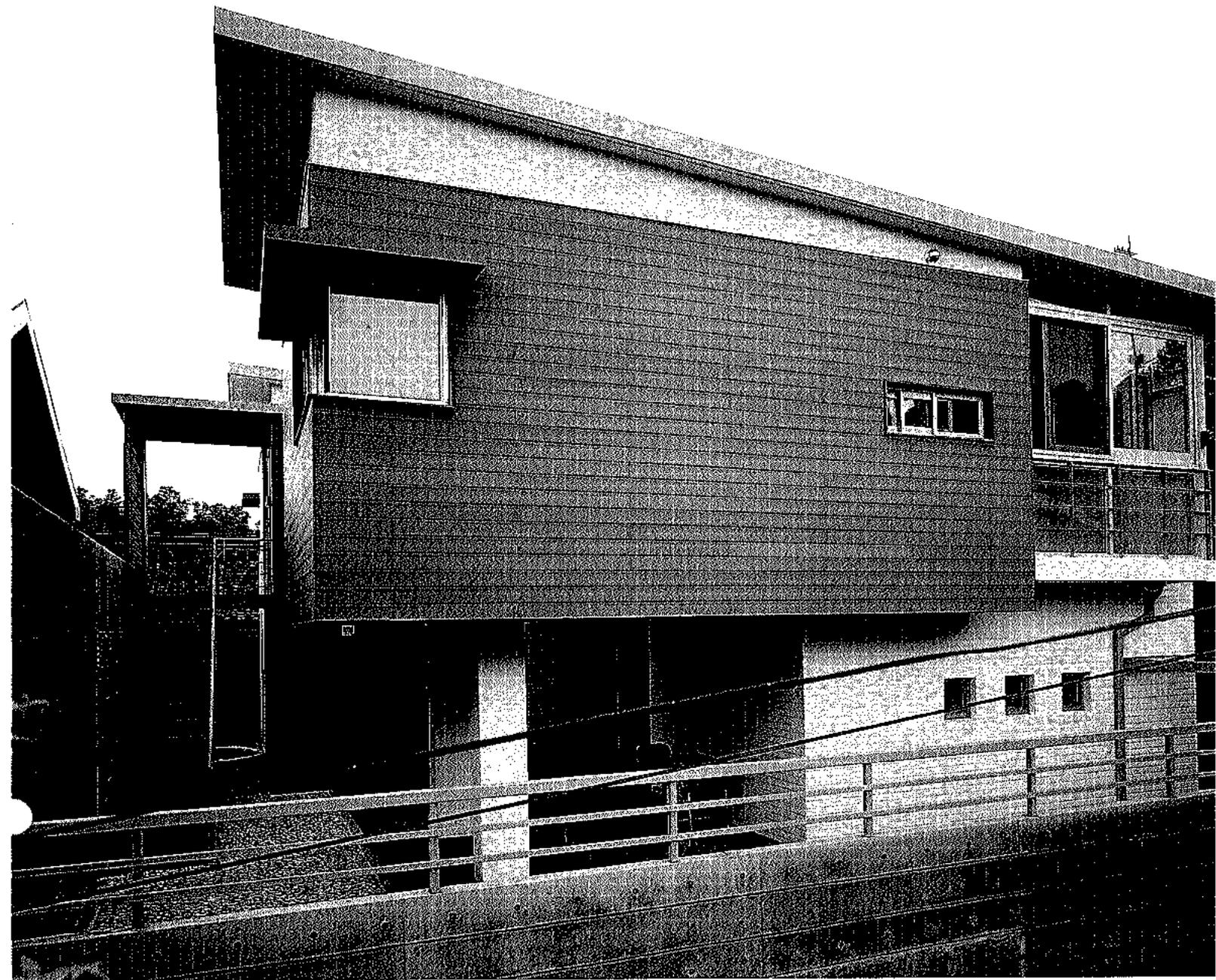
### “썩(혀)는 짧은 놈이 춤(침)은 멀리 뵈고 싶다”

역양 짙은 지방 속담에서 비롯된 이 집의 애칭은 형편상 부족한 공사비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건축주와 설계자가 계획을 시작하여 공사를 마칠 때까지 늘 안타깝고 아쉬워했던 그 마음을 담은 이름이다.

기존 대지에는 단층집이 있었고, 66평 남짓한 좁은 땅에는 마당이 거대한 앞집 벽과 바로 맞대고 있었다. 1층에서는 3면이 담으로 막혀 있었지만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장애물 하나 없이 멀고 가까운 도심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었다. 가족구성엔 노모와 중년으로 접어드는 도예가 부부, 그리고 유치원생 아들을 전제로 계획되었다. 주택과 작업실이 필요했고 주택부분은 2층으로 구성되기를 원했다.

이 집의 1층은 “ㄱ”자 집이고 2층은 “ㄷ”자 집으로 겹쳐





진 형태다. 외부공간은 3개의 마당과 2개의 하늘을 중심으로 흐름과 머무름이 구성되었고 내부공간은 건축주 부부의 작업상 지하층과 1층은 작업실과 응접실, 주차장으로 할애되었고 2층만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넓은 마당을 위해 1층의 요구면적을 줄이고 피로티를 만듦으로서 내외부 공간이 비로소 생동감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동선은 길어지고 설계자는 흐름의 변화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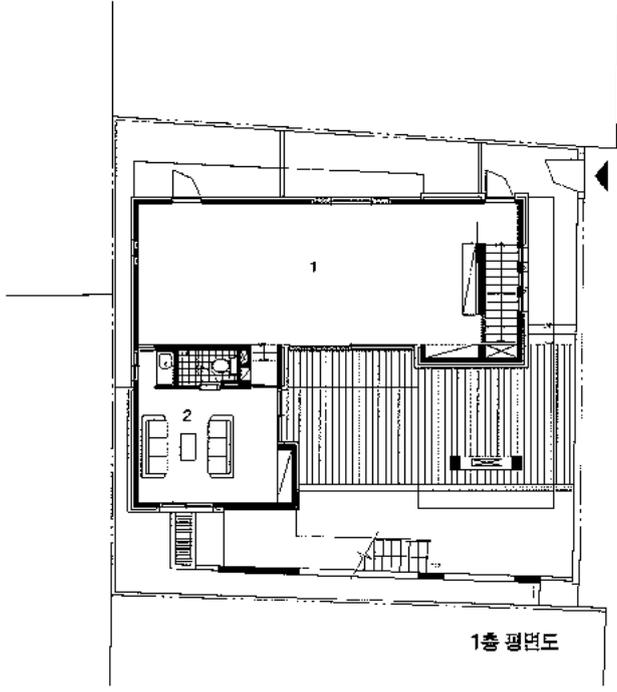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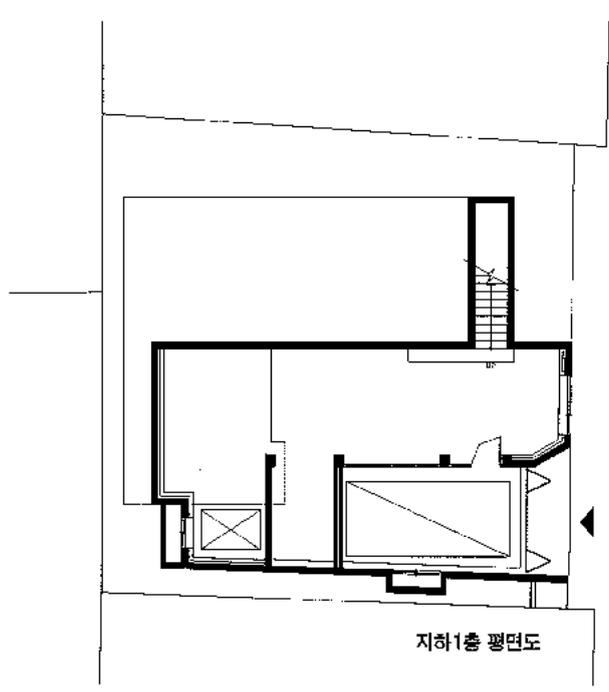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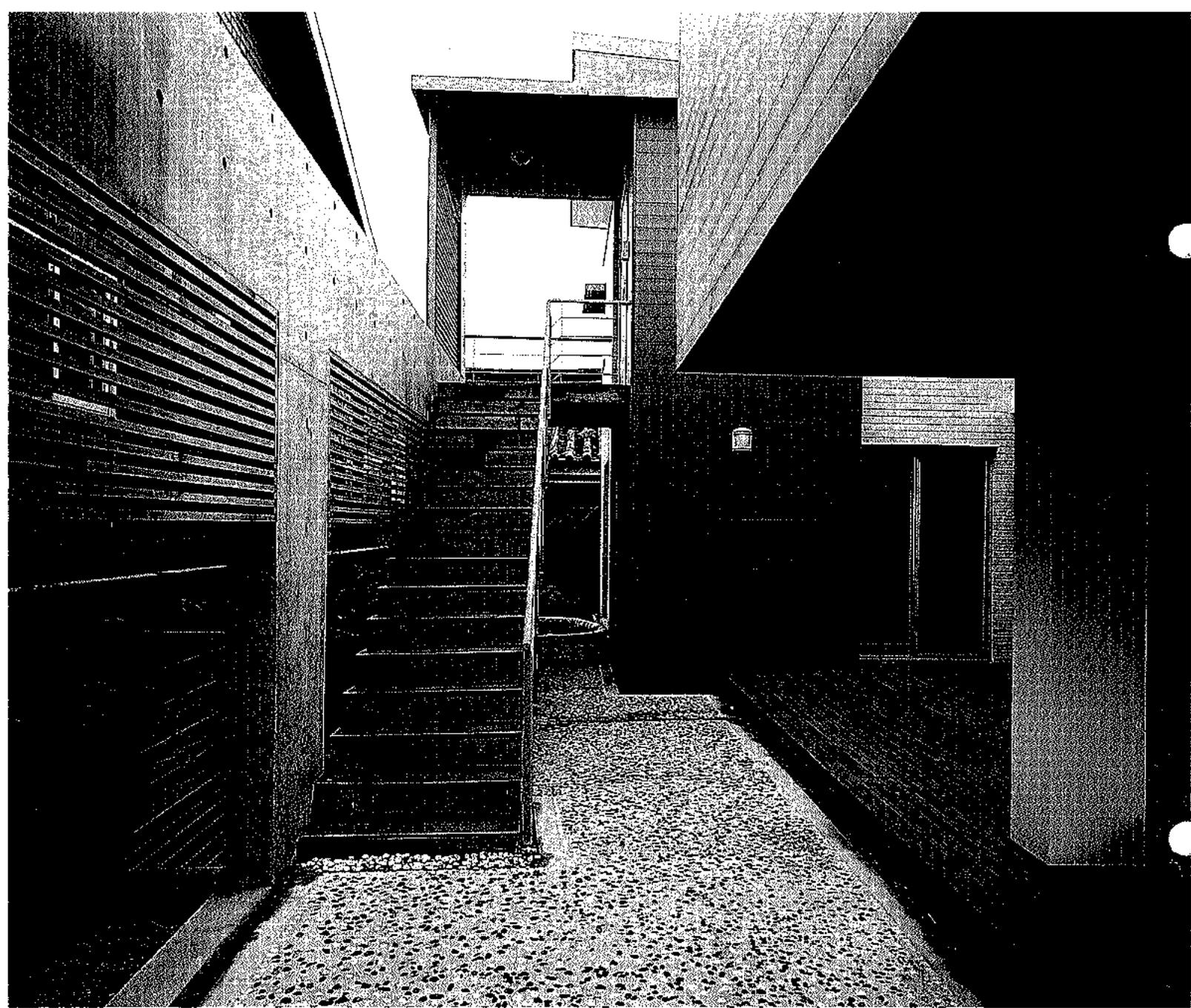
#### 흐름과 머무름의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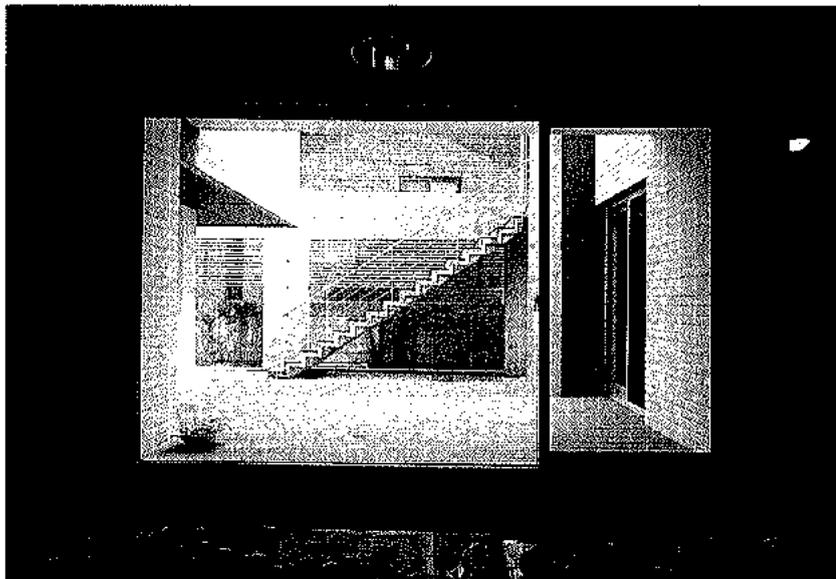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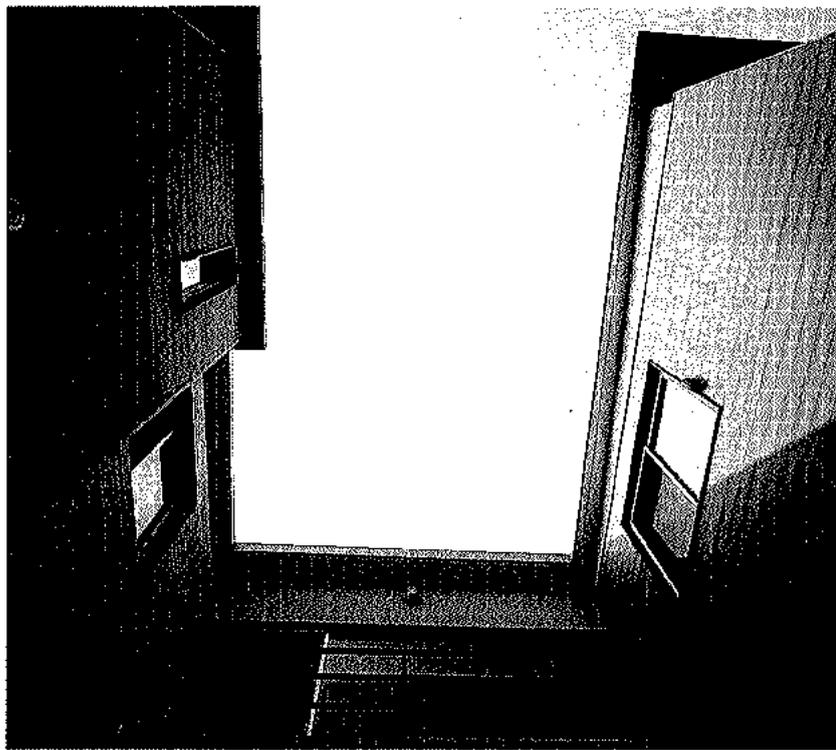
대지경계의 담장으로부터 연결되어 솟아오른 듯한 대문을 들어서면 인사하듯 조그마한 정원이 나타난다. 왼쪽으로 돌아서면 통로가 보이고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유도된 시야 끝으로 멀리 도시가 내려다보인다. 이 좁은 통로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대지면적에 비해 상당히 넓은 앞마당을 만나게 된

다. 이 마당의 중심에서 시선은 첫 번째 하늘과 통하게 되며 가벽에 의해 만들어진 액자 속의 꽃과 나무의 그림을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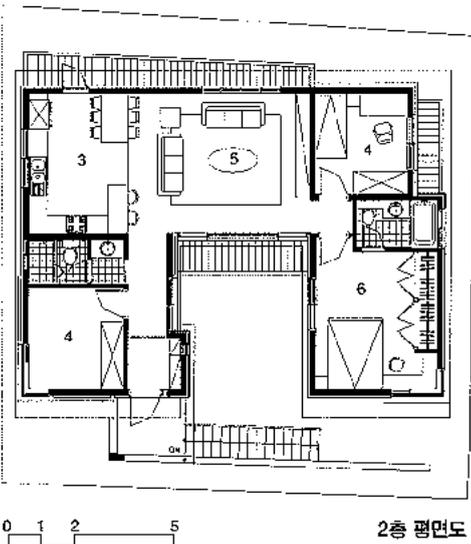
노출콘크리트의 이 가벽은 너무도 바짝 붙어 있는 앞집의 창과 벽을 가린다. 왼쪽의 도로 쪽으로는 이웃집과 도시풍경이 피로티로 인해 액자화되었고 오른쪽으로는 2층 현관과 피로티 하부로 또 하나의 마당이 연결되어 확장된다. 이곳은 1층의 응접실에서 조용히 관망할 수 있는 나무 한그루가 있는 정적인 공간이다. 2층의 주택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는 가벽으로부터 뻗어 나와 본체에 꽃혀진 현관의 지붕과 벽에 의해 만들어진 화면속의 2번째 하늘과 만나게 된다.

젯빛 기와의 용마루 선으로 오버랩 되는 푸르른 산과 하늘은 계단의 높이에 따라 변화되는 그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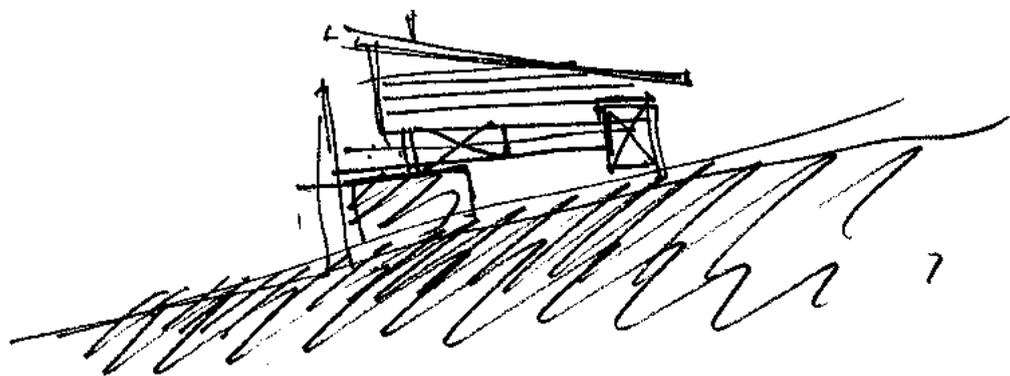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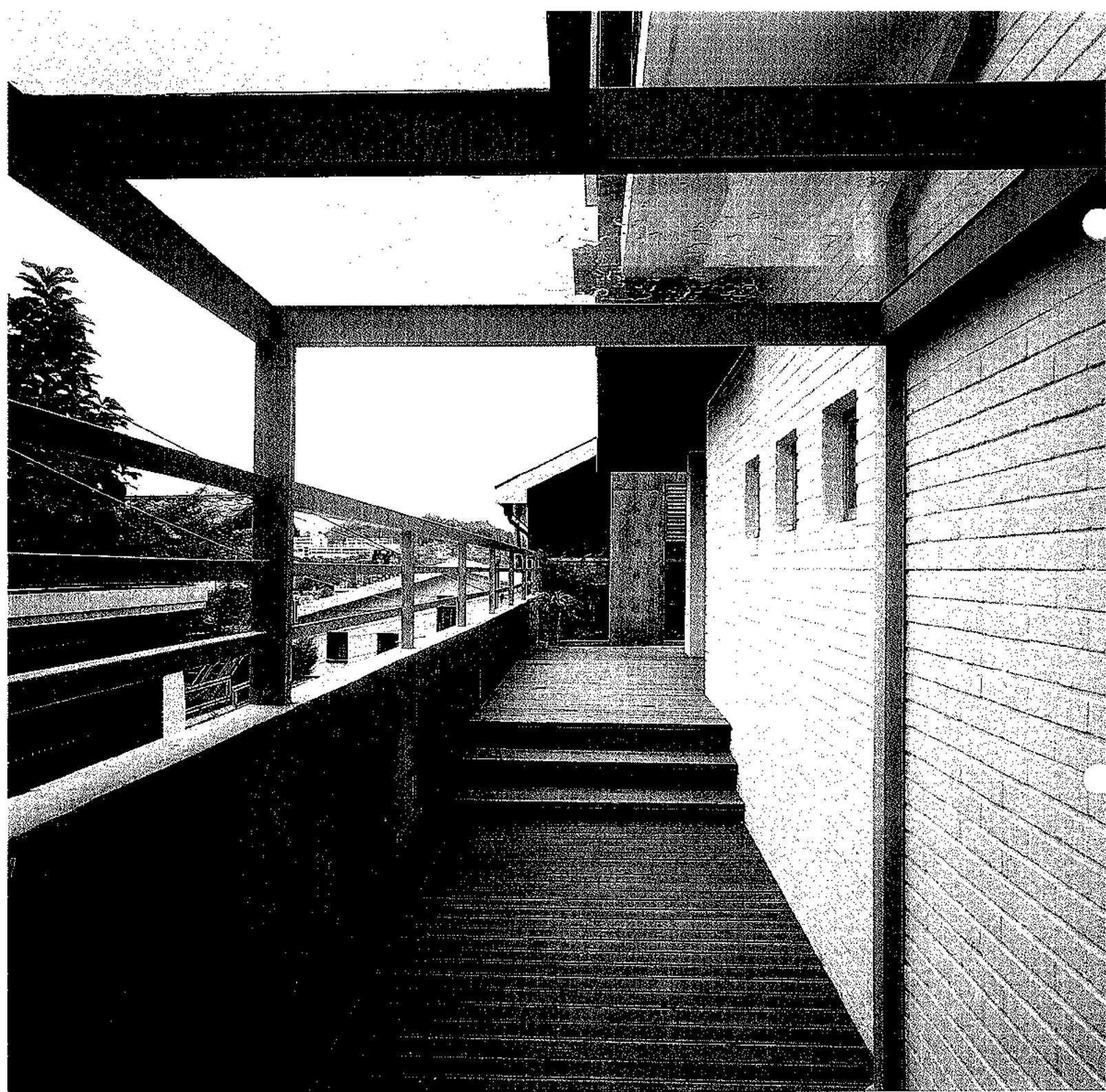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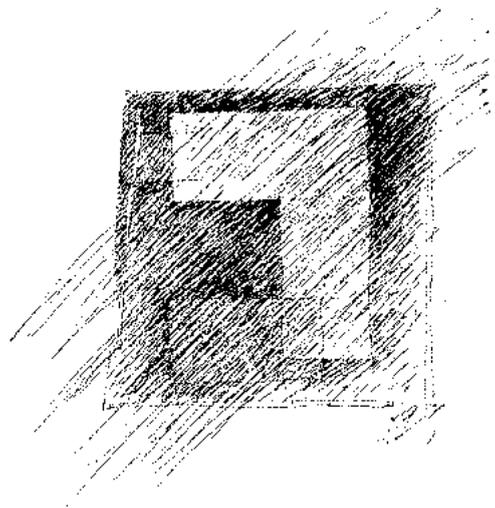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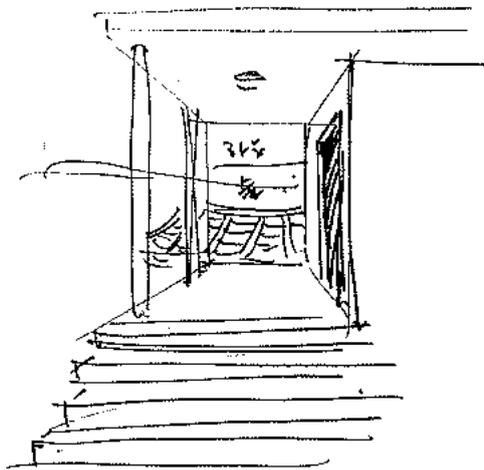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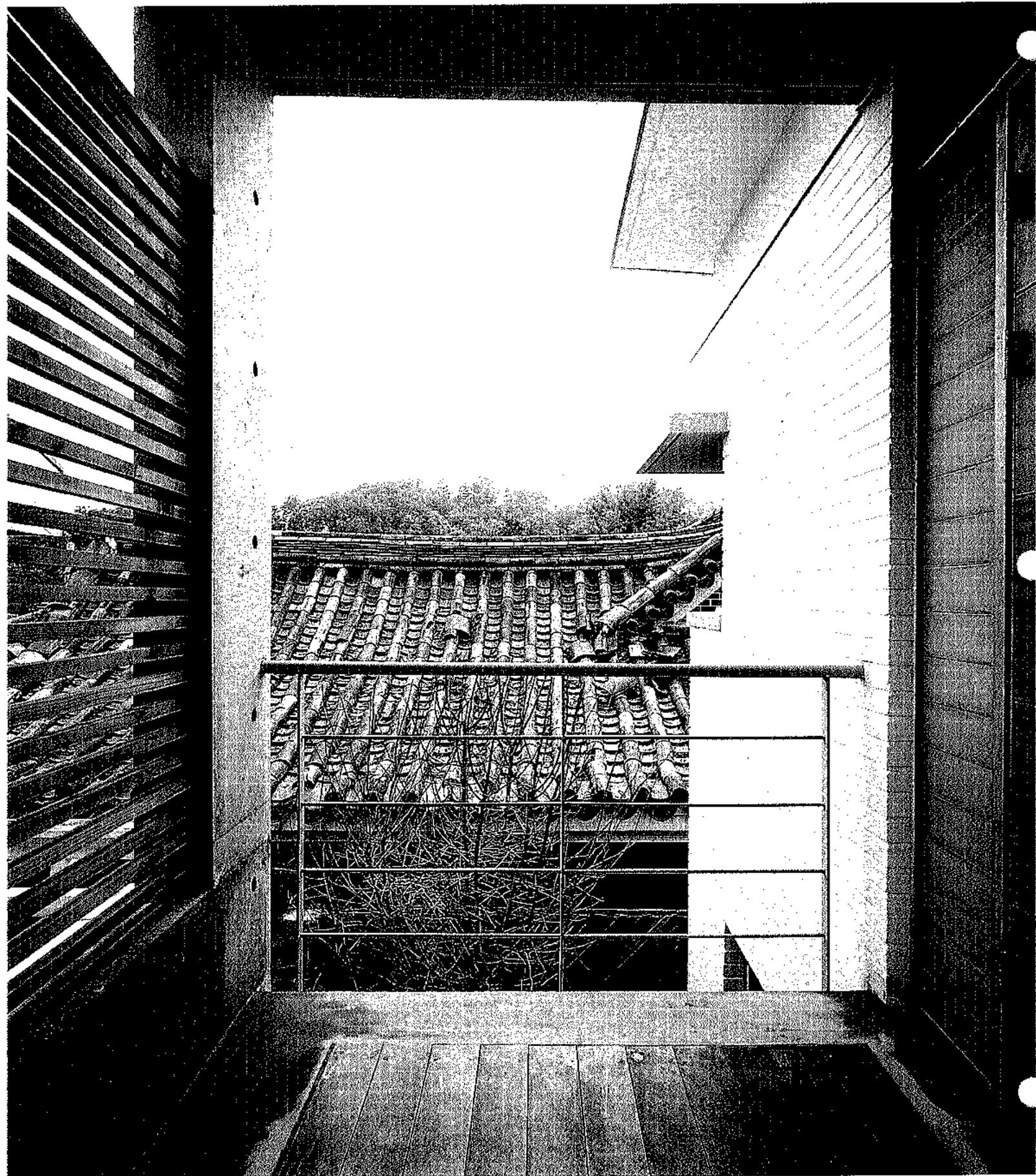
- 1. 작업실
- 2. 공작실
- 3. 주방
- 4. 방
- 5. 거실
- 6. 부부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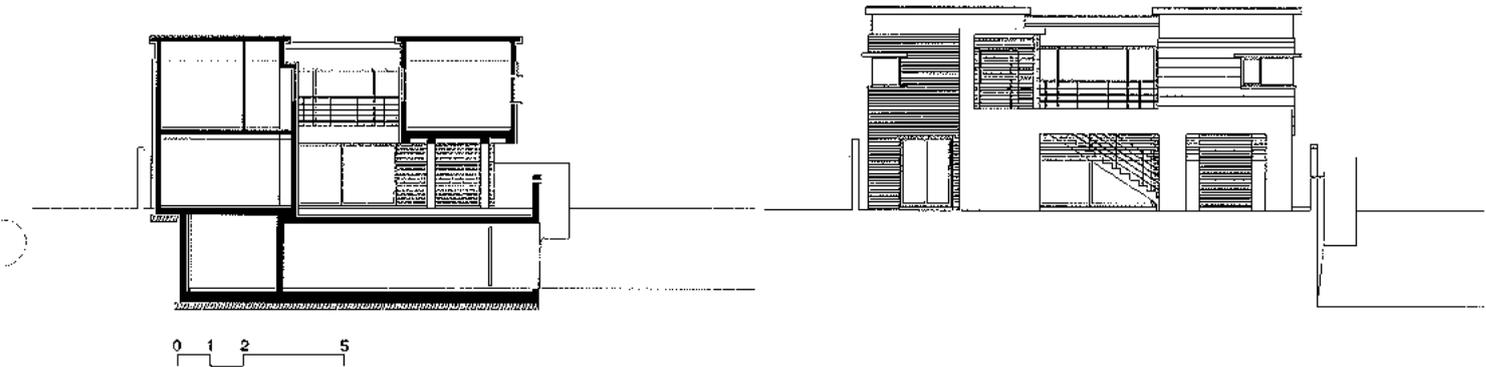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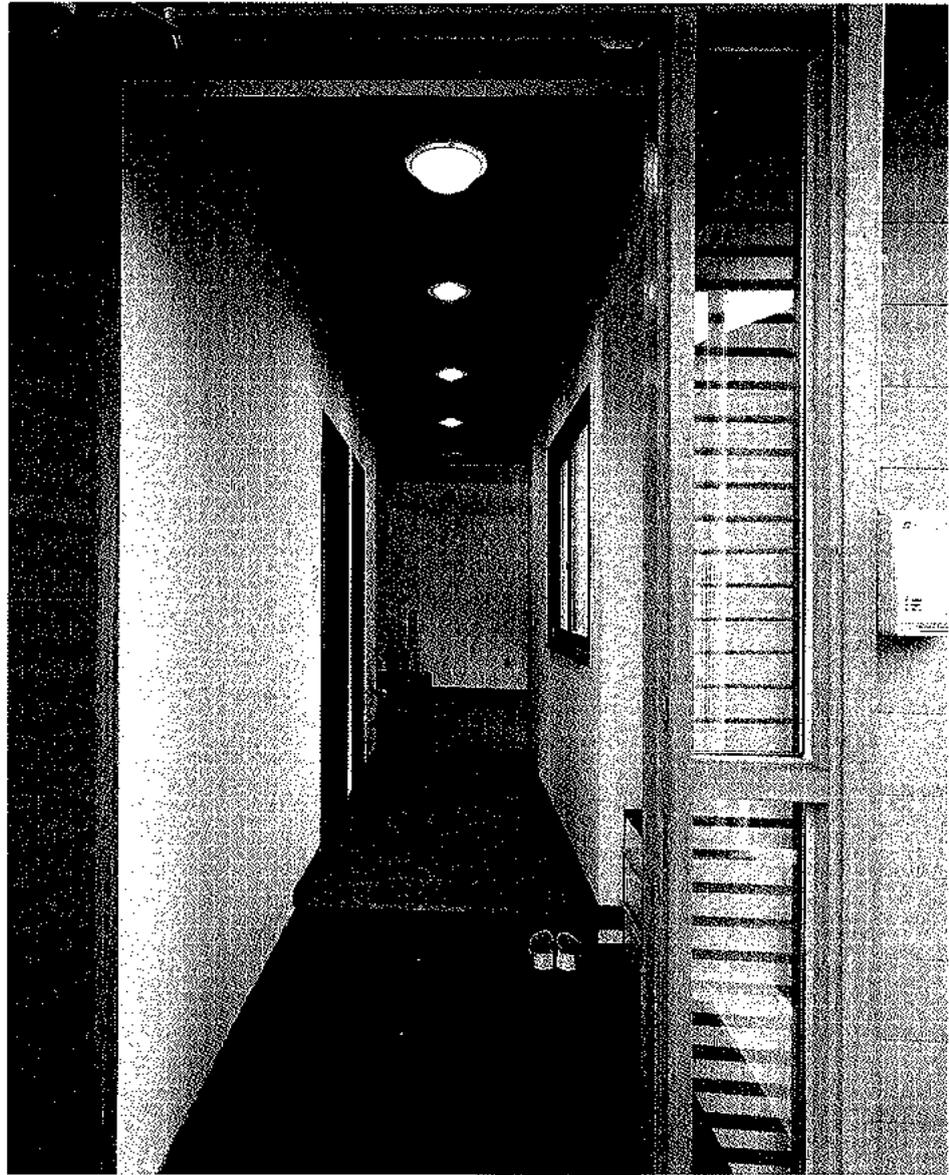


계단을 올라 살림집으로 들면 문간방(어머니방)을 지나 거실로 든다. 문간방 오른쪽 창으로 안방이 마주하여 서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양측의 방과 앞집 담으로 에워싼 내부 중간 마당으로 트여진 거실은 부엌과 통합시켜 좁지 않게 보이려 했다. “ㄷ”자로 만들어진 2층 살림집은 내부로는 크게 열려 있으나 외부로는 조망이 고려된 크고 작은 창들로 적게 열려있다. 멀리 인왕산을 내려 보는 안방코너 창에 가까이 다가서면 오밀조밀한 정감 있는 스케일의 지붕들을 볼 수 있으며, 문간방 코너 침에서는 기와지붕의 용마루 선을 따라 펼쳐진 하늘을 입체적으로 펼쳐볼 수 있다. ㉠









# 마당깊은 집

## A House with Deep Mad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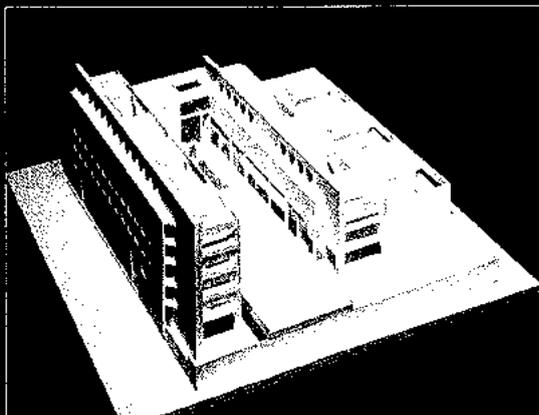
작품리뷰

review

민현식+(주)건축사사무소 기오현  
Designed by Min Hyun-Sik,  
KIOHUN Architects & Associates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4-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특별설계구역
주 용 도	공동주택(인입주택)
대지면적	2,434.00㎡
건축면적	941.26㎡
연 면 적	2,780.69㎡
건 폐 율	38.67%
용 적 륜	89.82%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설비	기변냉방+패널히팅
주요 마감	외장-신토석벽돌, THK2.3 이연도강판위 불소수지 페인트, THK22 복층유리 내장-바닥 온돌마루, 벽-벽지, 천장-천정지, 색락카스프라이
설계담당	김진숙, 이계순, 박호
설계기간	1999년 11월~2000년 3월
공사기간	2000년 6월~2001년 3월
사 전	김용관



10년 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글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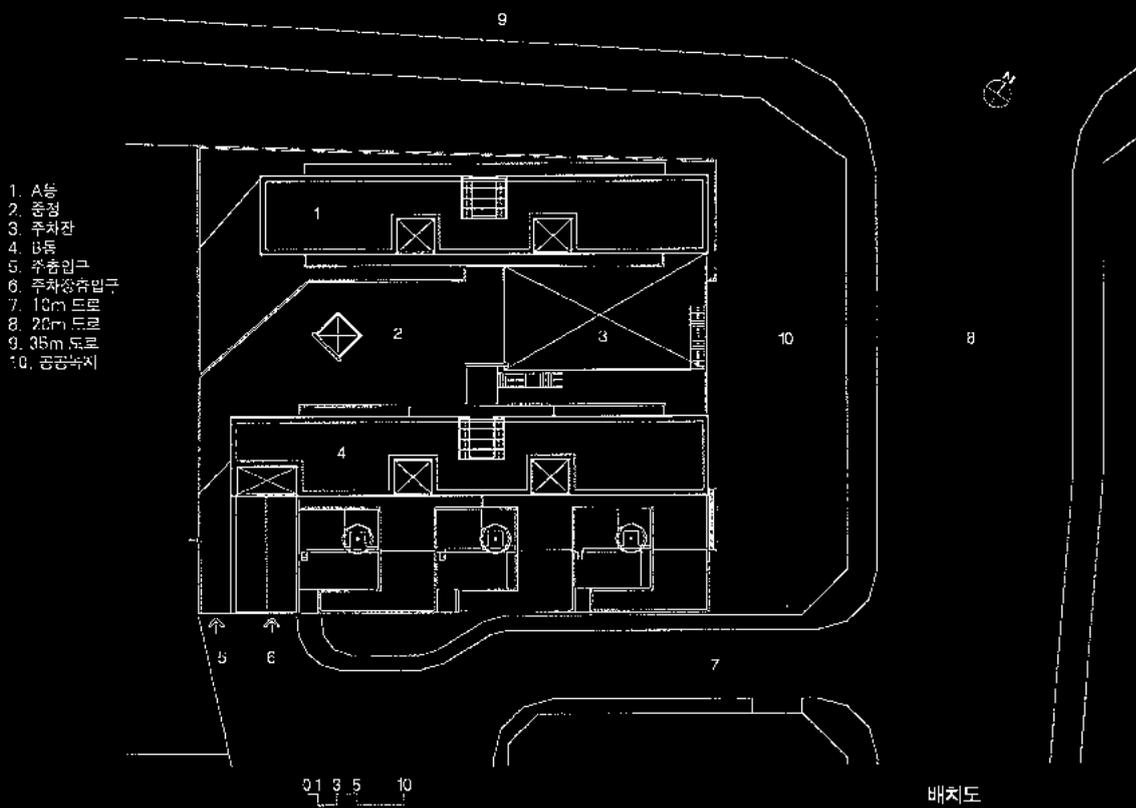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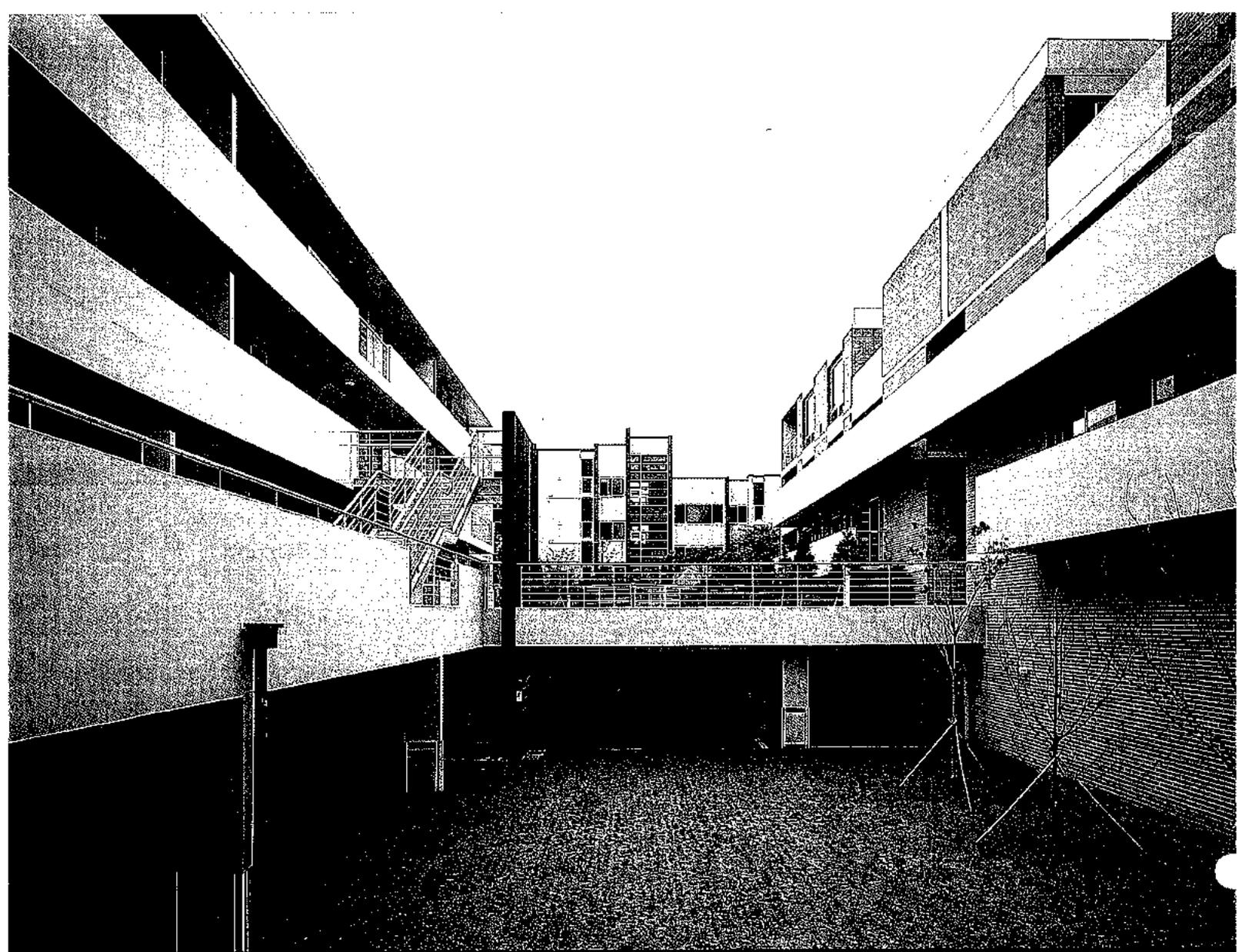
'마당 깊은 집에서 의도하는 바는 비율의 건축학이다. 이 집을 구성하는 모든 방과 장소들 뿐 아니라 그것들을 구축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건축적 요소들이 그러하기를 바란다. 그 중에서 특히 길, 마당을 주목하여 그것들을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든 다기보다 이들이 햇빛과 바람과 조우하면서 엮어 내는 순간순간의 상황과 느낌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벽은 긴신도로에 평행하게 세워진다. 자동차의 소음을 차단하려는 현실적 해결을 넘어 이 벽은 서쪽 태양에 맞서게 함으로써 매일 매일 다른 황혼 빛을 더욱 극명히 느끼도록 한다. 따라서 이 벽은 하나의 오브제이지만 그 형태의 디자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벽에 부딪치는 빛의 디자인이다. 이 집을 구성하는 개개의 공간을 관통하는 길은 가능한 길게 불의 흐름과도 같이 조직한다. 시가 언어들의 연계이고 음악이 음표들의 이음어듯이 건축은 각기 다른 질을 가진 공간들이 길을 따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진 것이다. 길을 걸으며 밝고 어두움, 열리고 닫힌 공간을 만나고, 그 여정에서 이웃을 만나고 때때로 홀로 빛과 바람, 하늘을 만난다. 마당을 비어있다. 조용하고 명료하며 투명한 깊은 마당은 쏟아지는 햇빛과 지나가는 바람이 적절히 조율되어 팽팽한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 그곳에 빛과 바람이 머물고 있음으로 해서 또한 다른 공간에 빛과 바람, 생명력을 줄 수 있게 된다. 석층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집합주거에서 적절한 위계를 가진 다양한 벽, 길, 마당을 마련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사는 그리고 홀로 사색하는 의미를 잃어 가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려 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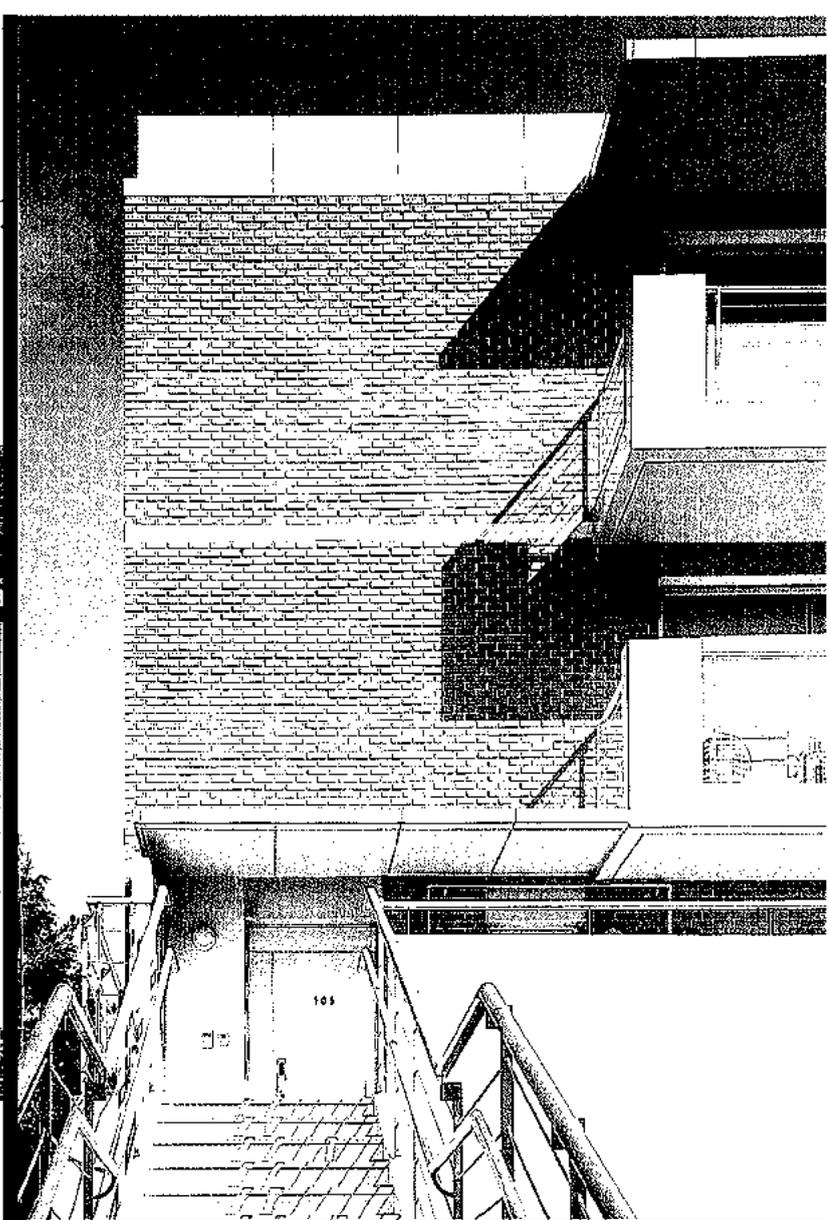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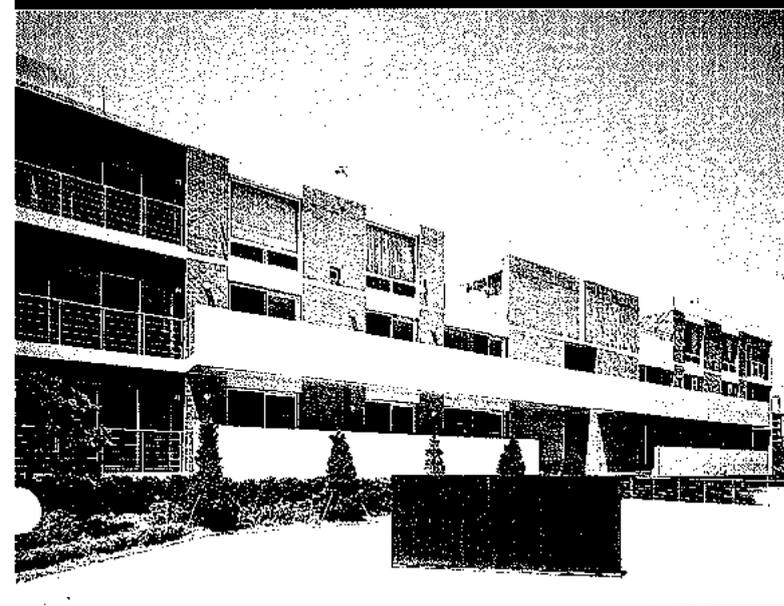
그리고 10년이 흘렀고,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손질한다. 마당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 대한 가치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재료와 공법에 차이는 크다. 그래서 다른 집이 된다. 시간의 축적을 알 수 있는 재료, 옅은 색 벽돌과 내후성 강판(corten steel plate) 등에 손금과도 같은 시간의 흔적들이 쌓여가기를 기대한다.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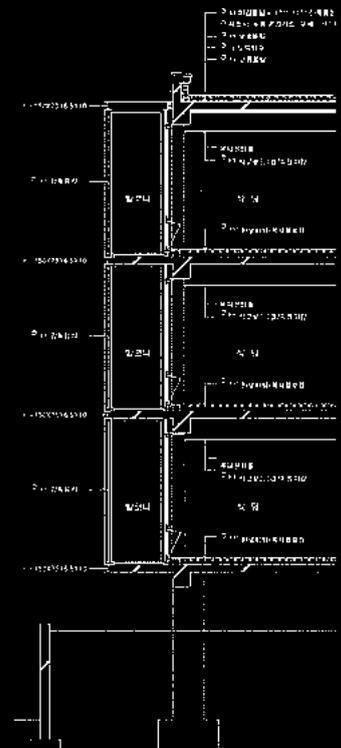








"The object of the project 'House with a Deep Madang' is to translate 'emptiness' into architectural terms. The concept would not only be applied to the rooms and places of the house, but also to every architectural components, both material and immaterial. Walls, paths, and the madang - the courtyard - will have further emphasis: their meanings will lie in the circumstances and atmospheres they create in harmony with the sunlight and the wind, rather than in their formal aspects. A wall is erected parallel to the adjacent road. Its performance is beyond the barrier against the traffic sounds: it straightly faces, just before dusk, the strong sunlight of the west, whose variant changes are reflected and delivered to the inhabitants. The wall stands as an architectural object, where formal plays occur not of physical ones but of luminous lights. The path that runs through the spaces was organized like a natural flow of a stream. As poems are associations of words and musics are correlations between notations, architecture is a connection of different spaces following a narrative line of path. Along its journey, we come across strong contrasts between brightness and darkness, open and closed spaces, meet other people, and, at times, confront alone the nature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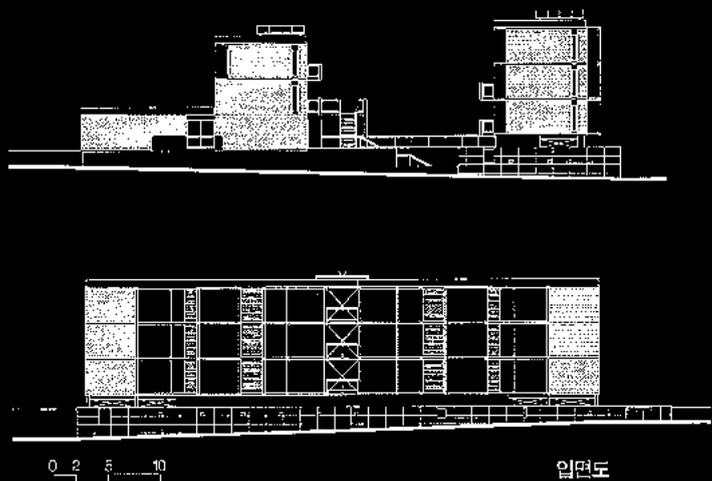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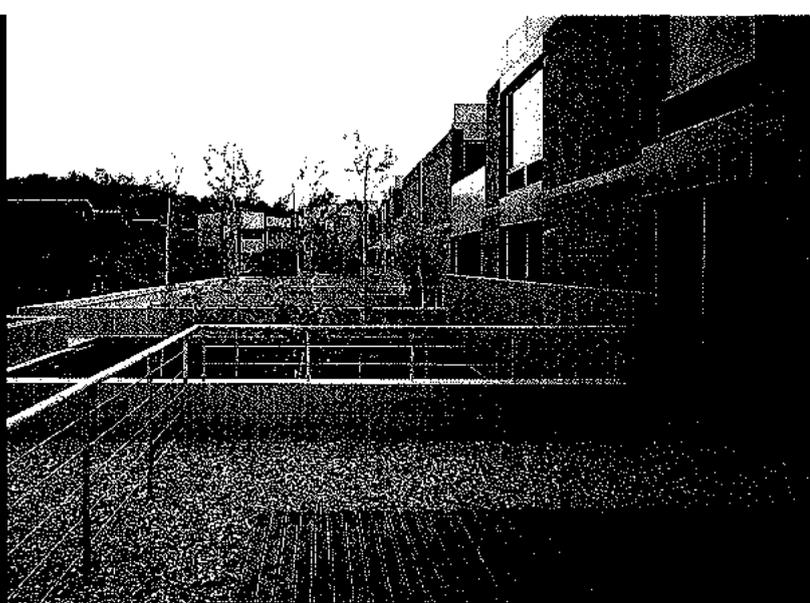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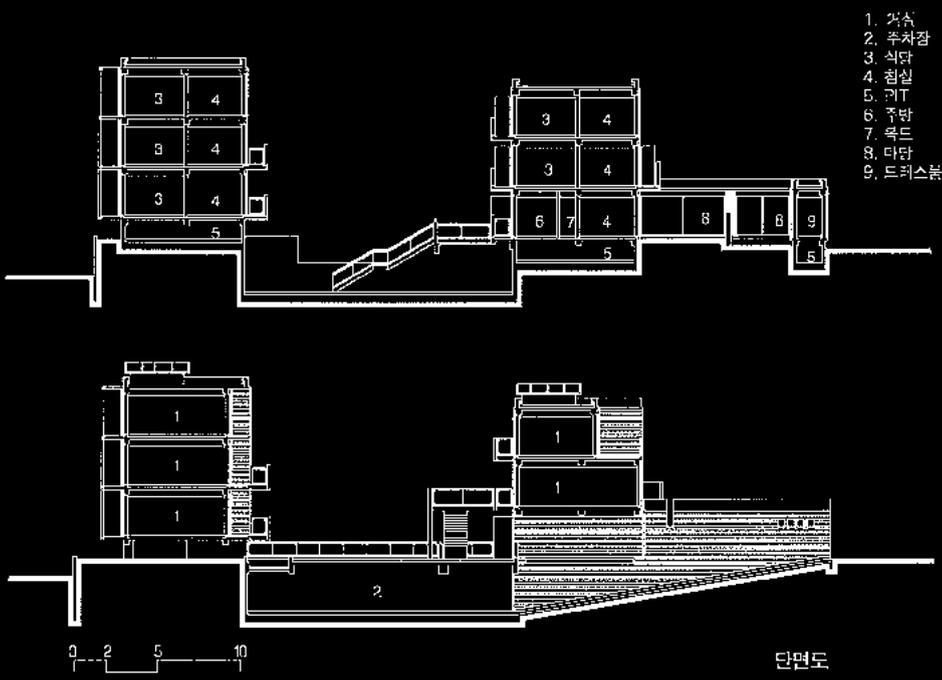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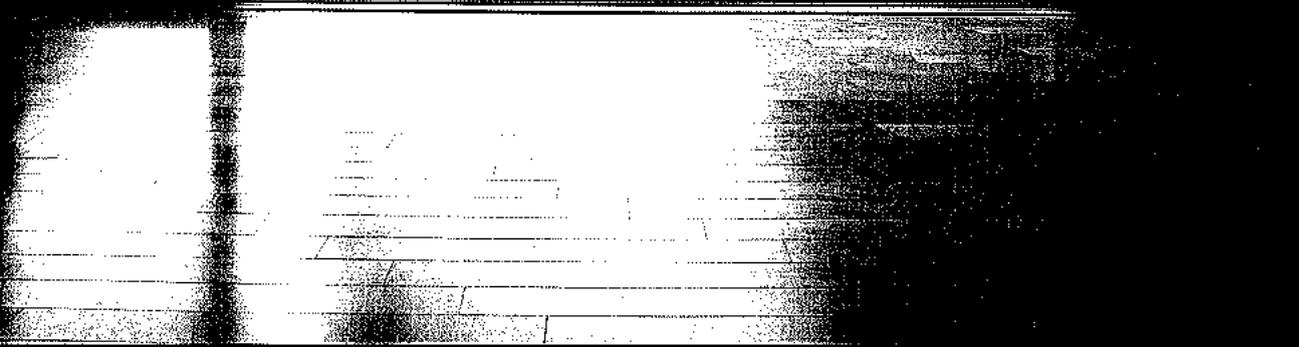
외벽단면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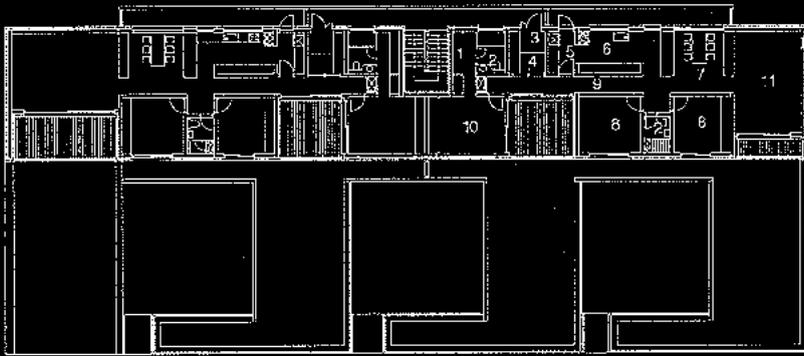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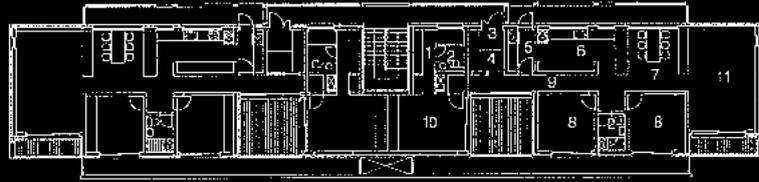
light, wind and the sky. The madang remains empty. Tranquil, transparent, and with depth, the courtyard becomes a receptacle for light and wind, whose mutual exquisite tuning maintains its heightened atmosphere. The abundance of light and wind in turn vitalizes its neighboring spaces, breathing life into the whole community. In a multi-family housing, where stacking of units is inevitable, an arranged hierarchy of various walls, paths, and madang will hopefully enable its inhabitants to appreciate the communal life with families and neighbors, and simultaneously provide them with contemplating a space of their own."

Thus I wrote a decade ago. Many modifications has been made since then. Valuing a community mediated through a madang remains the same, but changes in method and material to achieve that end are enormous. It is a different house now. May its history be engraved in the materials of light-colored bricks and cor-ten steel plates that display the traces of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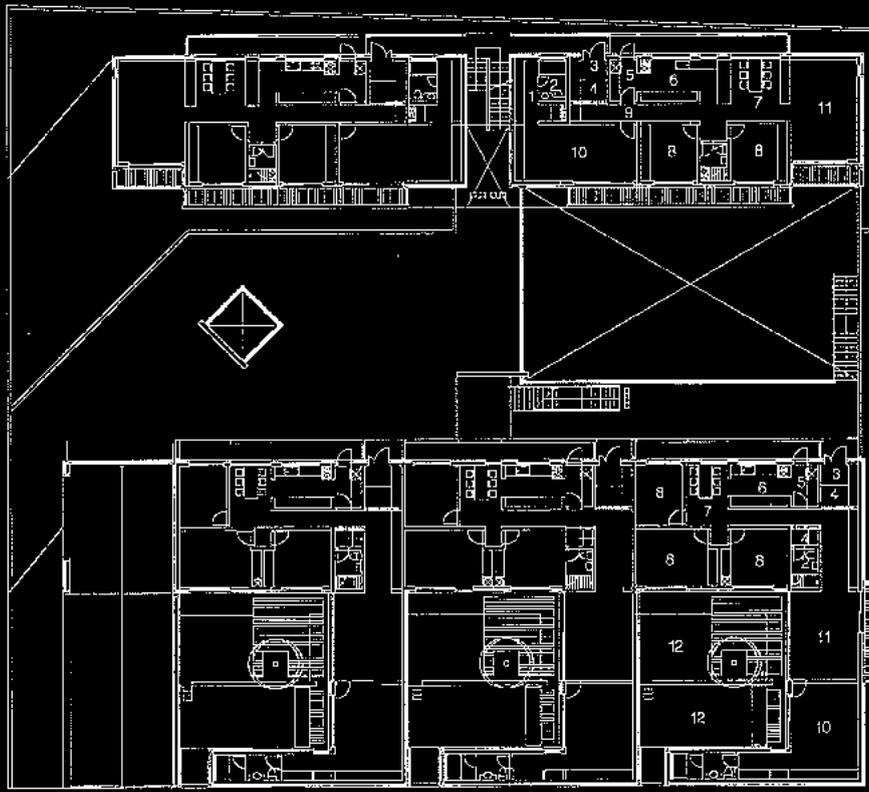




- 1. 드레스룸
- 2. 복싱
- 3. 합과
- 4. 장선
- 5. 다용도실
- 6. 주방
- 7. 식당
- 8. 침실
- 9. 화장실
- 10. 주인침실
- 11. 거실
- 12. 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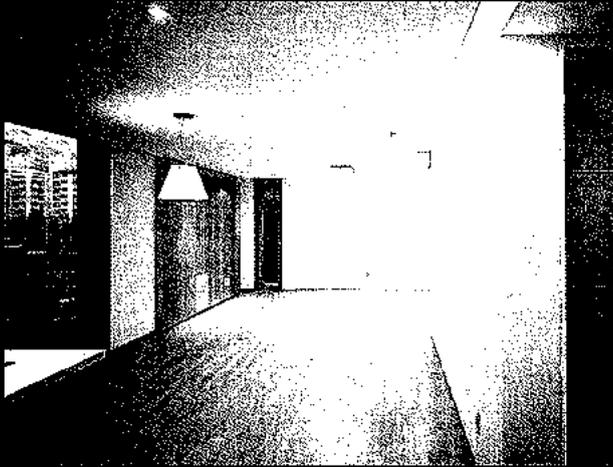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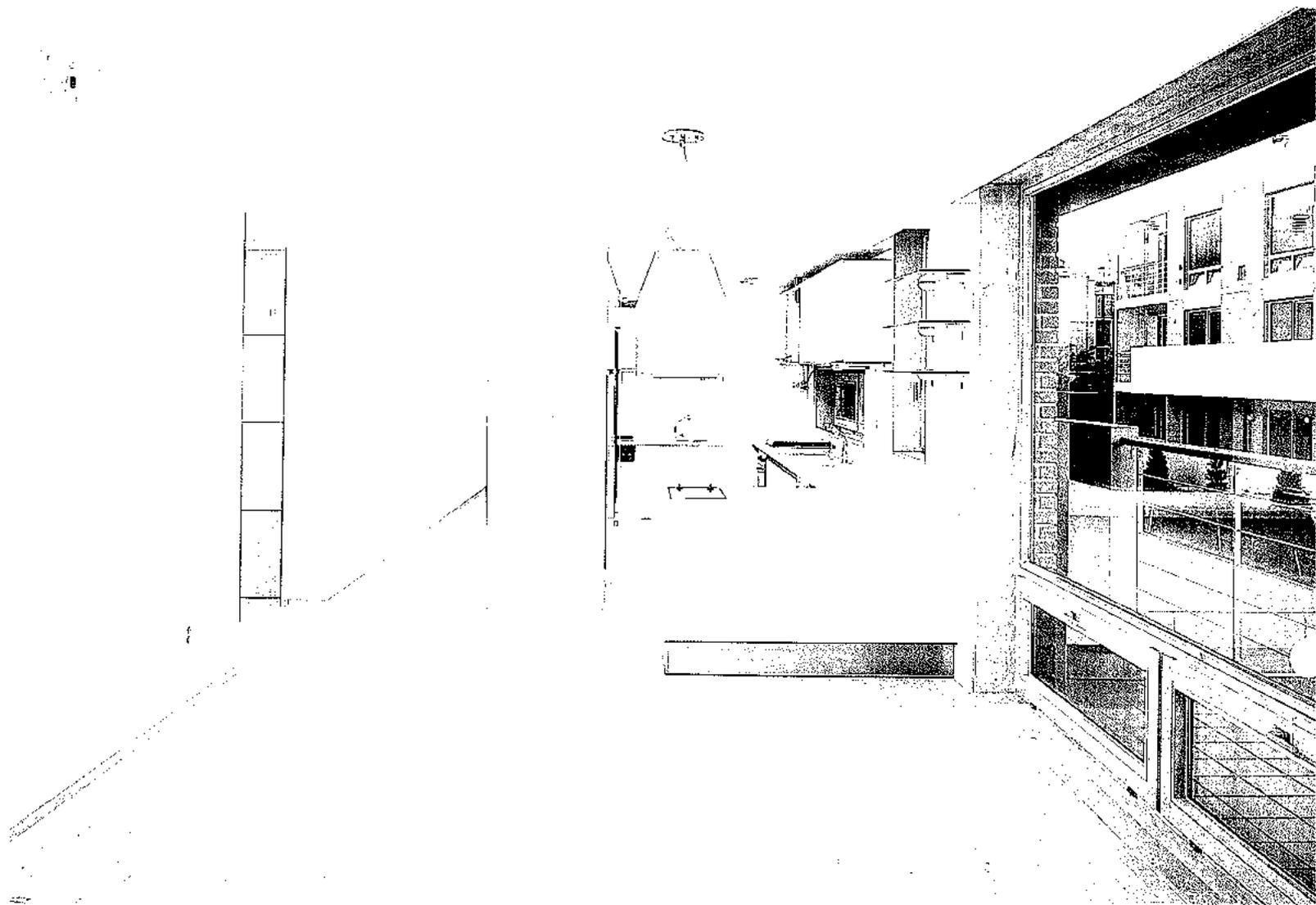


0 2 5 10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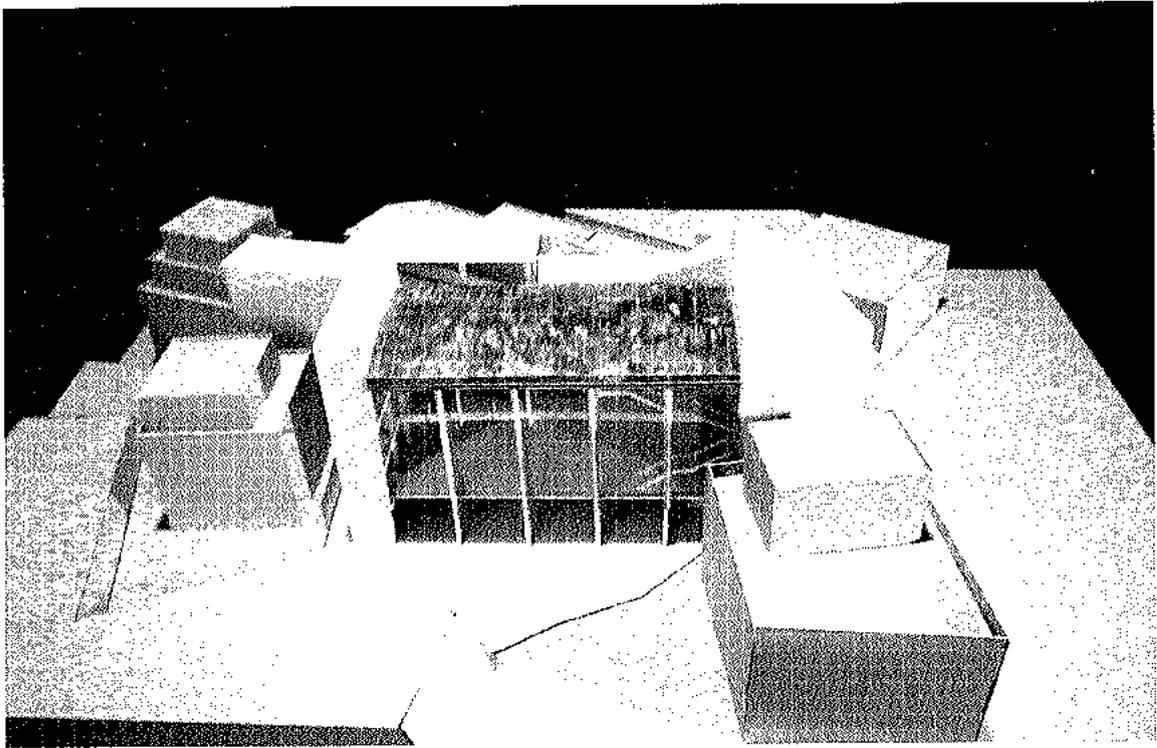


<b>Location</b>	44-1 Bundang-dong, Bundang-ku, Sungnam City, Kyunggi Province
<b>Area Specification</b>	Regular Residence District, Special Design District
<b>Main Function</b>	Collective Housing
<b>Site Area</b>	2,434.00m <sup>2</sup>
<b>Building Area</b>	941.26m <sup>2</sup>
<b>Total Floor Area</b>	2,780.69m <sup>2</sup>
<b>Building Coverage Ratio</b>	38.67%
<b>Gross Floor Ratio</b>	89.82%
<b>Number of Floors</b>	4 including 1 Basement Floor
<b>Structure</b>	Reinforced Concrete Frame
<b>Major Installation</b>	Individual Air Conditioning System, Panel Heating System
<b>Exterior Finishing</b>	Brick, Fluorine Paint on THK2.3 Galvanized Steel Plate, THK22 Double Glass
<b>Interior Finishing</b>	Floor - Panel Heating Maru Wall - Wallpaper Ceiling - Wallpaper, Lacquer Spray
<b>Design Team</b>	Kim Jin-sook, Lee Kye-soon, Park Ho
<b>Design Period</b>	Nov 1999 - Mar 2000
<b>Construction Period</b>	Jun 2000 - Mar 2001
<b>Photography</b>	Kim Yong-kwan



## 마르쉐 명동점 Marché Myungdong

함인선 / (주)베타건축사사무소  
by Ham In-Sun



최종안

마르쉐 명동점은 1996년에 설계를 시작하여 이번에 완료하였으니 해수로 6년이 걸린 프로젝트이다. 당초 마르쉐의 3호점으로 예정했던 것이나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11호 점이 될 터이니, 어지간히도 찬밥 신세였던 땅인 셈이다. 그럴 만도 했다. 한참 설계가 진행되던 중 소위 IMF 상황이 되어 외식 산업 같은 데 투자한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할 처지를 맞았던 것이고 다시 브랜치를 늘려 가는 여건에서도 기존 건물이나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에 우선권이 주어졌었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서너 달이면 끝낼 일을 6년씩이나 달고 있는 것이 아프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 고약한 놈을 몇 년 동안 마치 옆구리의 종창처럼 데리고 살면서 나름대로 얻은 바도 가치가 없지는 않다. 재개와 보류를 거듭할

때마다 새로 만들었던 그 때마다의 안이 그 당시의 나의 건축적 사고와 관심사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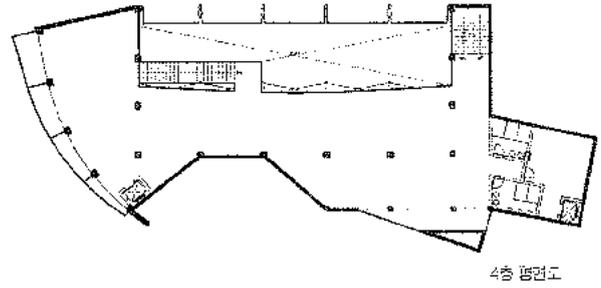
대지는 명동 지하철의 남산 쪽 입구에 면해있다. 강북의 대개의 필지가 그러하듯이 매우 제멋대로인 경계선을 가지고 있으며 노후한 건물들로 포위되어 있다. 위치에 걸맞지 않게 일반 주거지역이며 남산 제 모습 찾기 규정에 의해 높이 제한도 가진다. 사방에 옥죄어 들어오는 외부 조건에 대응할 내부 프로그램 또한 만만치 않다. 마르쉐란 프랑스로 시장(market)이란 뜻인데 신선한 식 재료를 그 자리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이 식당의 특징인 바 재료의 저장, 조리, 제공, 식사 행위가 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넓고 장애없는 공간이 필요하다. 조리 장소에서 테이블까지 본인이 직접 음식

을 옮겨야 하므로 두 영역이 같은 층에 있어야 옳지만 면적 상 두 층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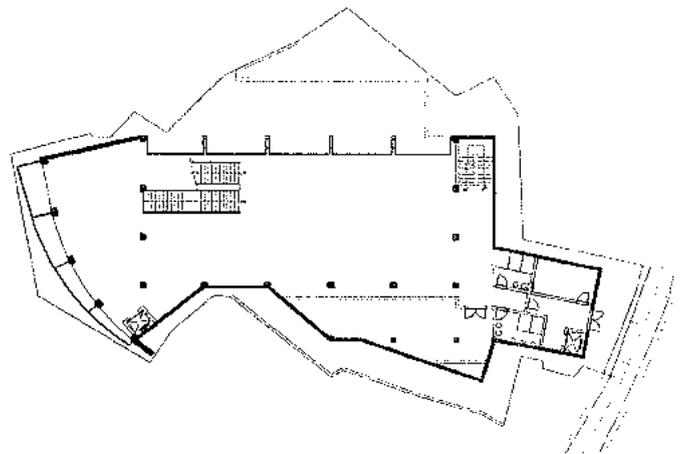
최초의 안은 대지에 내접하는 가장 정형적인 도형(여기서는 원형)을 찾아낸 후 여기에 박스를 결합한 것이다. 이 안은 그 당시 나의 습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즈음 나는 마치 산꼭대기마다 깃발을 꽂지 못해 안달 난 등산가 처럼 대지를 밟아 들자마자 가장 강력하고 자의식으로 충만한 도형을 찾아 세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좋게 말하여 자기 완결적인 형태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 현시 내지는 일종의 강박관념의 소산이었을 것이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이 안으로 진행하던 중 YS가 사고를 쳐 프로젝트는 무기한 보류 상태로 들어갔다.

근 삼 년 만에 재개될 시점 필자는 자의든 타의에서건 상당히 겸손 혹은 의기 소침해 있는 상태였다. 두 번째 안은 이 시절 사고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날, 기억하기로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이었을 것이다. 문득 창 밖 아래를 보니 광활한 평원 한 가운데 자그마한 도시와 그 안에 악다구니로 모여있는 집들이 있었다. 마치 기계충 때문에 머리에 생긴 원형 탈모증 같았다. 그 높이에 올라 와서야 필자는 인간이 만든 도시란 건축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연의 한 귀퉁이를 기계충처럼 파먹은 공허부(void)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 순간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스쳐지나 갔다. "건물(figure)을 정형화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공허부(ground)를 정형화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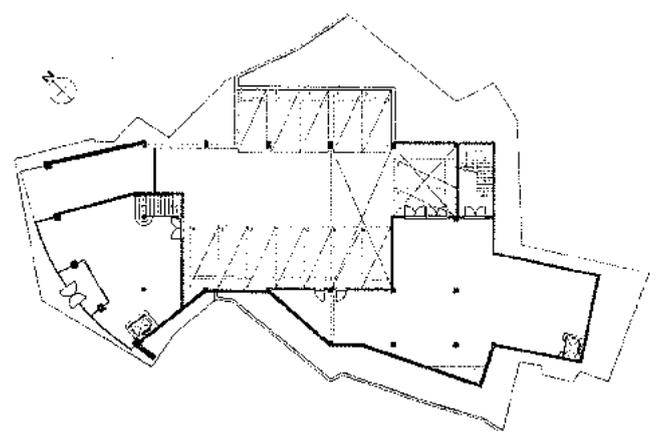
이 시점이 적어도 필자의 사고에 있어 탈 근대화 화가 일어나는 시기였던 것 같다. 근대주의자들이 자연의 거칠고 비합리적인 속성을 인간의 자의적인 합리성 안에 순치시키려 하고 자연을 개발 혹은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듯이 필자 역시 이 건물이 들어왔을 대지의 불규칙함과 주변 건물의 누추함에 대해 계속 투덜대면서 그것들과 '구별' 내지 '압도' 하는 오브제를 만들려 애썼던 것이다. 그러나 대자연 안에서는 인간의 도시가 '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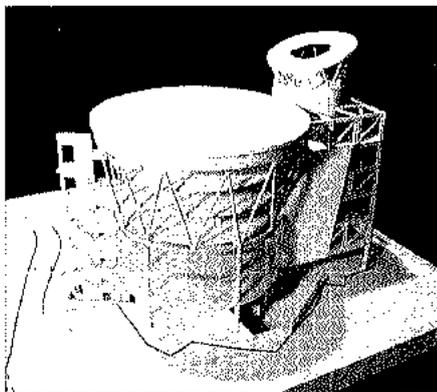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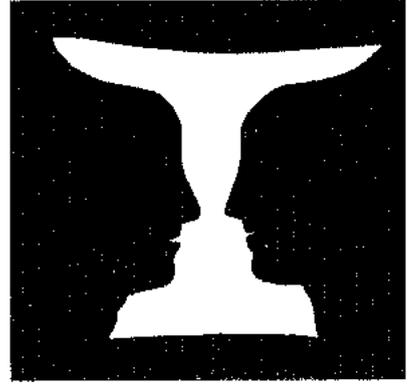
2차안

통'에 지나지 않듯이,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자연의 더 큰 합리성 안에서는 더 비합리적이듯이, 이미 나름의 필연성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구도심의 생태계 안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하학을 이식하는 것은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비행기 안에서 새로운 스케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것이 두 번째 안이다. 여기서는 주변 건물의 울퉁불퉁한 외벽 선을 따라 건물의 외벽이 만들어진다. 반면 외부 정원과 내부 아트리움이 결합한 공허부는 직사각형의 정형적 형태를 가진다. 말하자면 공허부를 제외한 부분은 마치 주변 건물이 생장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같이 보이드의 에너지를 보존시키기 위해 솔리드들이 양보하는 방법은 예컨대 루카의 원형 광장 같은 데에서 볼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해서 생성된 보이드를 공용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슈트트가르트에서 본 어떤 시장(마르세!)에서도 발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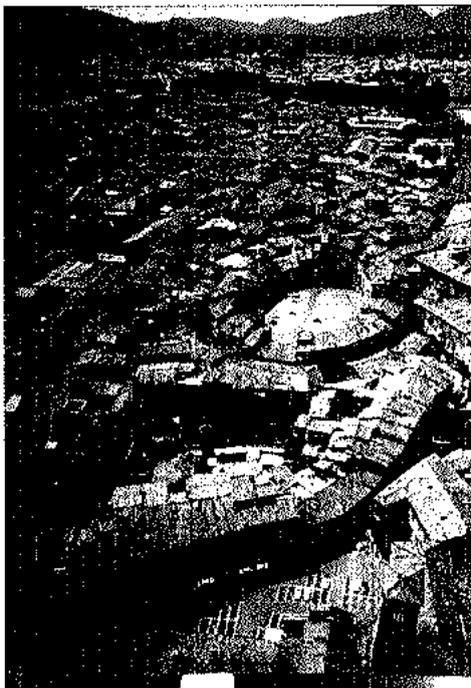
건축은 결국 '있는 것'을 통하여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보이는 구조체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고, 단순한 시지각적인 인식을 뛰어넘어 전 신체를 통한 총체적 경험을 기획하는 일이다. 고딕 성당의 건축인들이 추구하였던 바도 돌로 된 몸체가 제공하는 양괴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몸체를 가늘게 함으로써 연출되는 수직적 공간과 열려진 벽을 통해 쳐들어오는 빛의 잔치 즉 비물질성이 아니었는가? 데카르트가 수학적 좌표계로 환원

되는 무색 공간을 발의한 이후 무릇 합리와 근대를 표방하는 건축이라면 정성적 특성(예컨대 genius loci)보다는 정량적 특성에, 건축에 대한 총체적 경험보다는 시각적 경험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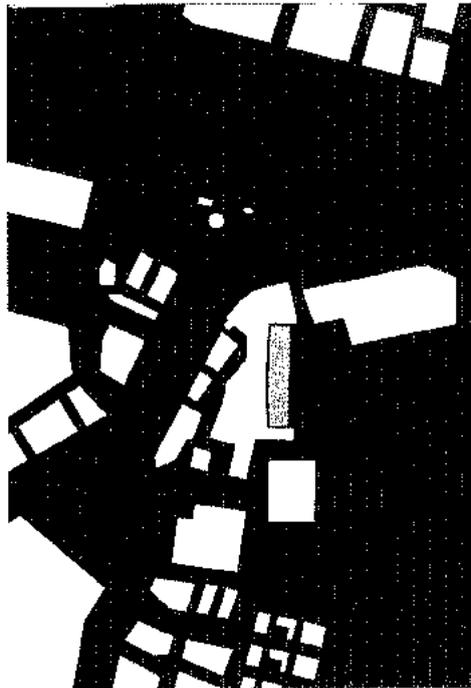


루빈의 향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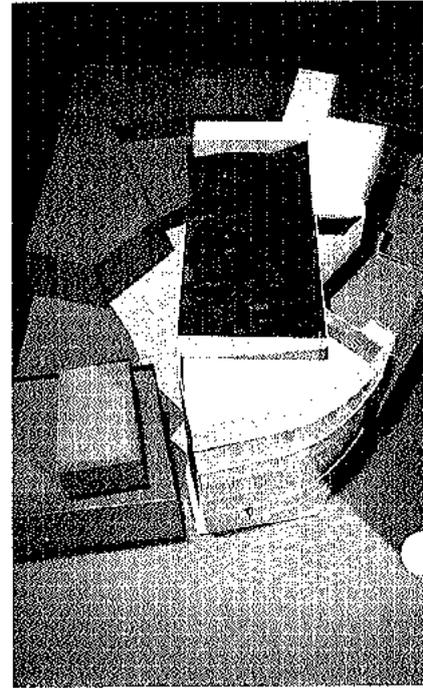
그러나 루빈의 향아리가 말해주는 대로 지(地 : ground, void)가 없는 도(圖 : figure, solid)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게슈탈트 이론이 밝힌 대로 전체는 단순히 부분들의 산술적 합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향아리를 보는 순간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사람 얼굴이 그 순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듯이 건축 행위는 보이는 부분을 만드는 일임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필연적으로 일그러뜨리는 작업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건축가는 오브제만을 따로 떼어내어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브제와 그것이 놓일 공허부를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첫 번째 안이 solid를 완전히 하기 위해 void를 왜곡시켰던 것이었다면, 두 번째 안에서는 반대로



루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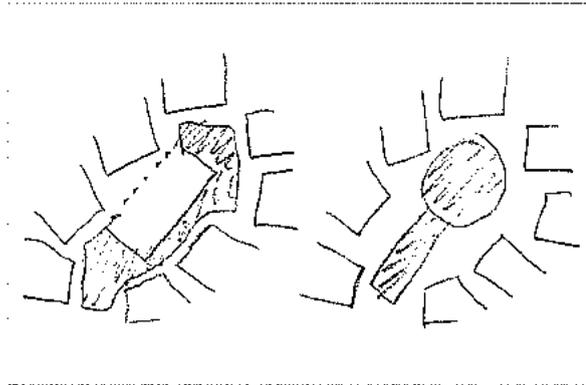
도(圖 : figure, solid)



void를 정형화함으로써 solid가 부정형적으로 일그러졌으나, 그것은 주변의 건물군과 융해되는 작용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층수의 변동 등 몇 가지 사소한 변경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건 설계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다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도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었지만 뒤늦게 한 지질조사가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남산 산자락이 다 보니 암반이 거의 표피층까지 올라 와 있는 것이었고, 대수층이 얇게 생각했던 지하공사가 거의 전체 건축 공사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이 드러난 것이었다. 지하층을 없앤다는 원칙만 세워진 채 다시 기약 없는 휴전에 들어갔다. 주차장 부분을 반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도로 및 르비 레벨과 마켓 레벨 그리고 좌석 레벨을 반 층씩 만 차이하게 할 수 있었던 이점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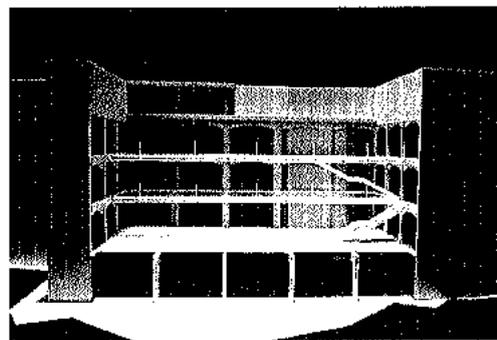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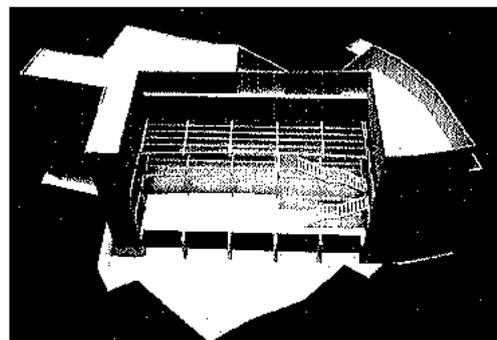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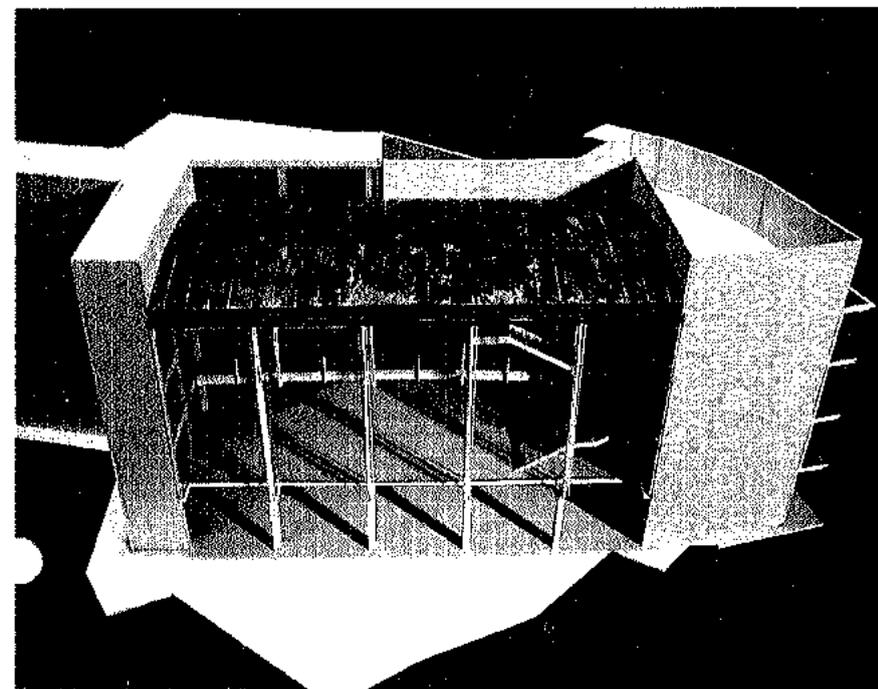
다시 일 년여가 지난 후, 올 초에 작업 재개 지시를 받았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안(제발 그렇게 되기를!)인 이번 안의 가장 큰 변화는 단면 계획과 전면 도로에서의 입면 변화이다. 우선 2차안의 skip floor가 포기됨에 따라 로비, 마켓, 좌석 레벨은 한층씩 차이가 나게 되었고, 최상층에는 별도의 레스토랑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추가되었다. 아트리움 부분에도 면적을 더 확보할 필요가 생겨 이 만큼은 지붕 트러스에 매달린 구조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보다도 눈에 띄이는 변화라면 입면의 변화일 터인데, 이 또한 그 사이의 필자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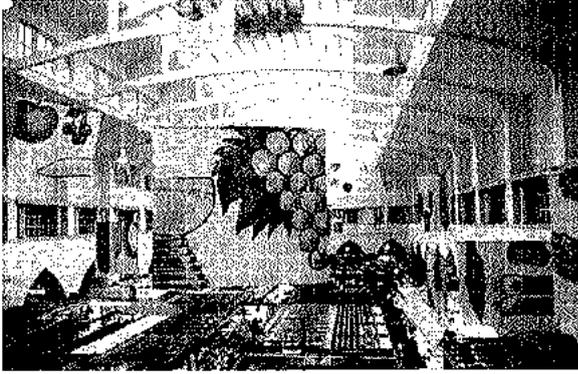


개념 스케치

미가 있었다.

2차안에서 정형의 void와 부정형의 solid를 병치시키면서 그 둘을 차이하게 하는 전략으로 쓰여진 방법은 서로 대비되는 재료와 구법을 사용케 하는 것이었다. 즉 solid라 칭해진 부분은 벽돌과 아취 공법을 통해 (인접한 건물들이 그렇듯이) 축조적(stereotomic)이며, 폐쇄적이 되게 하였으며, void라 칭해지는 부분은 유리의 철골을 써서 구축적(tectonic)이며, 투명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 각각은 비정형과 정형에 맞는 구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면 부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그래픽한 입면이 나타난다. 다소 짙은 구석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면은 전면이므로"라는 매우 포스트모던적인 논리로 얼버무리며 당시에는 넘어갔다. 1년여의 휴지기는 이 미봉책이 슬직하지 않은 해결임을 알게 해 주었다. 즉 어떤 논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자 자의식의





슈트노가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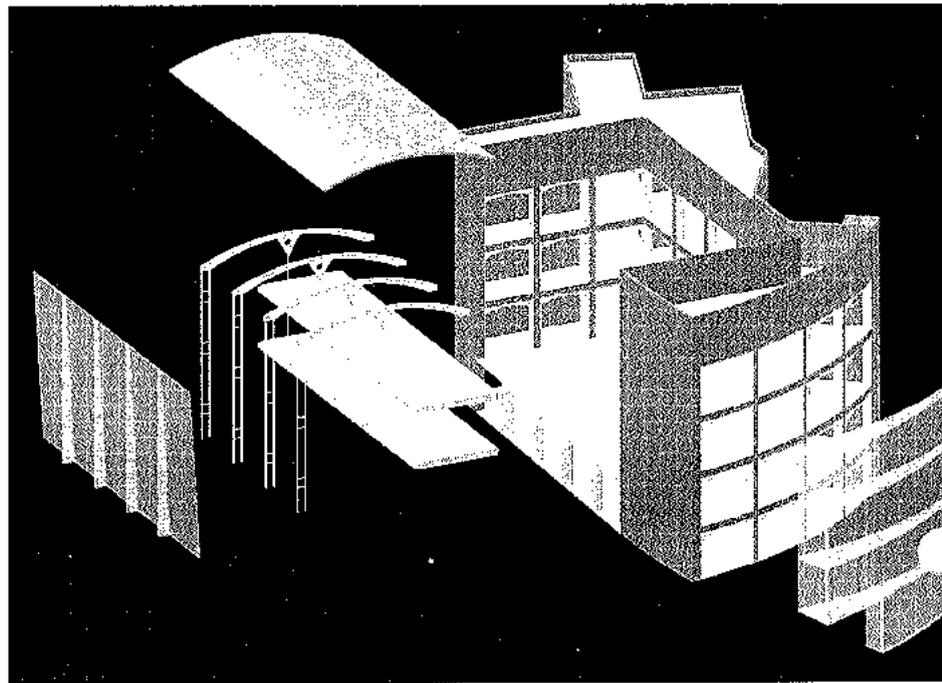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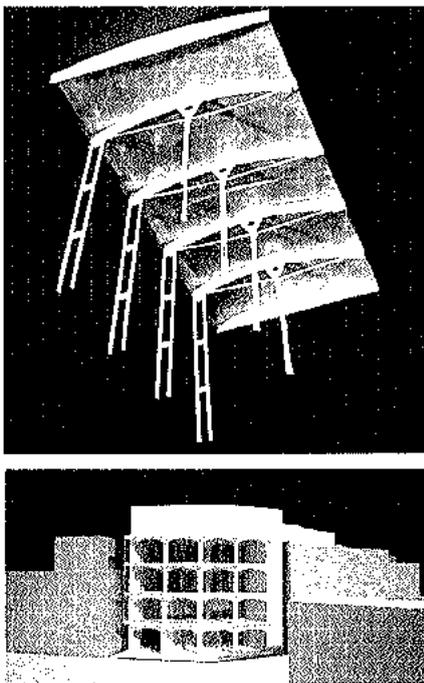
최후의 보루였다. 즉 평면과 내부까지는 소위 컨텍스트에 의해 양보했지만, 전면 즉 얼굴에만은 필자의 자국을 남기고 싶은 욕구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최종안을 만들면서 전면의 입면을 놓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가장 큰 딜레마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놓는다는 말의 뜻은 디자인하기를 포기한다는 말, 다시 말해 작가가 자신의 언설을 풀어놓기보다는 오히려 그 재료 그 구법이 스스로를 말하고 그리하여 생성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이 되겠다. 그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었다. 조용히 그가 얘기하려는 바를 들을 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일인가에 쉬운 일인 반면 그것을 설명하고픈 어쩔지않은 지식과 개입하려는 욕망이 방해로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것은 그 건축이 요구한다면 '나다움' 까지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어쨌든 그 입면은 '나답지 않게' 정리되었다. 노출 콘

크리트와 벽돌이 동원되었으며, 구조적 의미가 없는 아취가 심심하게 늘어지게 되었다. 전면은 "나도 내부의 연장이다" 라고 즐기차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버리고 비워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 참으로 말로는 쉬운 얘기이다. 그러나 그 누가 그 상실감을 자진하여 감내하려 하겠는가? 상실감이 괴로운 것은 이미 잃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의 기억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출가한 스님이 꿈에서 머리 깎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다고 한다. 평생 장발로 출현하는 꿈을 꾸는 스님도 있다하니 그만큼 잃음에 대해 익숙해지기가 어렵다는 말이겠다. 정형외과 친구의 얘기에 의하면 팔을 자른 환자가 손가락이 가렵다는 호소를 할 때가 가장 난감하다고 한다. 아직 남은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 때문이라는데 이 환자 증(幻肢症)에서 극복되는 데에도 상당한 세월이 필요하단다. 자발적으로 머리를 잃은 스님이건 타의로 팔을 잃은 환자인 건 그 잃음을 극복하게 하고 잃음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다. 필자 또한 아주 오래 걸린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되돌아켜 볼 때 마지막 안이 가장 마음에 든다. 이마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었다면 비워내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굶어낼 수 있었고, 그 상실에 적응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라.

루이 알튀세르의 자서전인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를 얼마 전 다시 읽었다. 당대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이기도 한 그는 지적, 정치적 동자이기도 한



구조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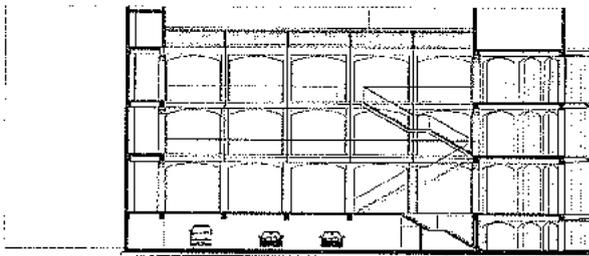
아내를 목졸라 죽인 사람으로 더 유명하다. 감금 시절에 쓰여진 그의 자서전은 전기인 동시에 자신이 왜 그녀를 죽이게 되었는가를 소름끼칠 정도로 냉철하게 분석한 정신분석 교과서이기도 하다. 여러 모양으로 상실을 당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려 세월이라는 약을 마시는 필자에게 그의 책은 그 때마다 큰 위안이 된다. 이에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나의 상실이 왜 다른 업을 일 수 있는지 변명하고자 한다.

“그렇다, 나는 처음부터 끊임없이 나 자신의 상(喪)을 입고 있었다. ... 존재에 대한 완벽한 무능은 모든 것에 대한 전능과 같다. 언제나 꿈쩍한 양면성인데 전체(totum) = 무(nihil)라고 한 중세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우리는 그와 똑같은 것을 보게 된다. (중략) 사랑하는 것이란 자신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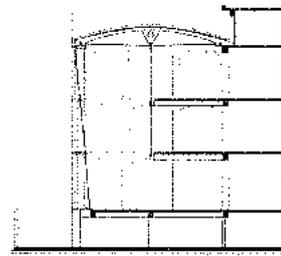
상대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욕망과 그의 리듬을 존중하고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그러나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 하나의 선물을 인생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배울 줄 아는 것, 그리고 전혀 자만하지 않고 전혀 강요하지 않은 채 똑같은 선물, 똑같은 기쁨을 상대방에게 쓸 줄 아는 것이다. 요컨대 단순한 자유이다. 세잔느는 무엇 때문에 생트-빅투아르 산을 매순간 그려냈는가? 그것은 매순간의 빛이 하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이란 그 모든 비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 나는 예순 일곱 살이다. 그러나 나는 마침내 지금, 나 자신으로서 사랑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청춘이 없었던 나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곧 인생이 끝나게 되겠지만, 젊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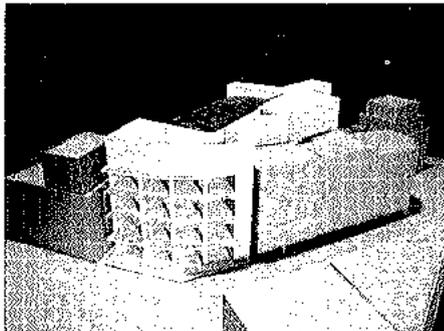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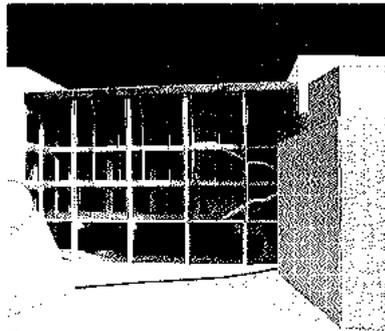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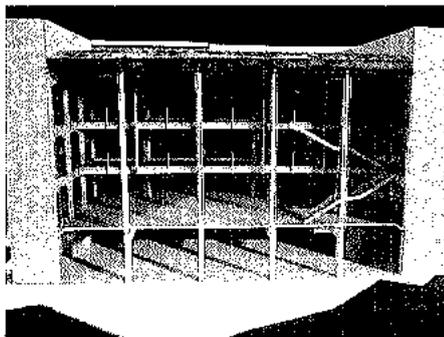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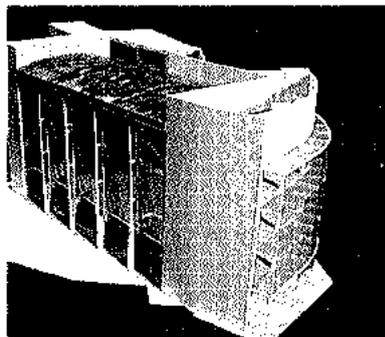
그렇다.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圖



횡단면도



종단면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6-1의 2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최고고도지구
용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대지면적	936.74㎡
연면적	1835.57㎡
건축면적	539.08㎡
건폐율	58.00%
용적률	195.95%
규모	지상 5층
최고높이	17.5m
구조	RC조+철골조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 76

삼암3공구 주거단지 / 80

인천교대다목적교육관 / 86

울산대생활과학관 / 90

###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Jeju-Port Coastal Ferry Terminal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3월 19일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신축공사 설계경기를 공고하였다. 연안여객터미널 뿐 아니라 진입광장까지의 디자인이 요구되었던 이번 공모전에는 총 38개 업체가 참가하여 9개 작품이 접수되었다. 당선작에는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세환건축사사무소, 우수작에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주)우대기술단건축사사무소, 가작에는 (주)상지건축 건축사사무소의 인이 각각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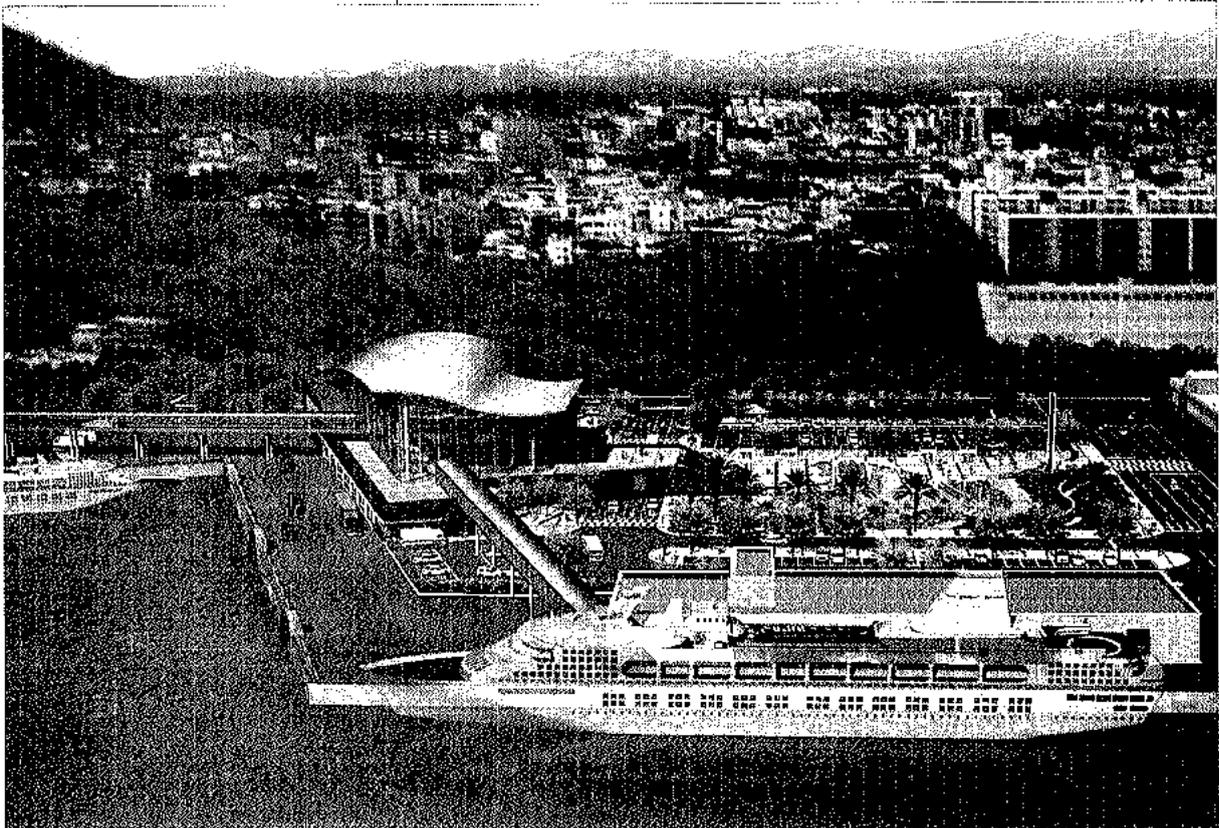
심사위원으로는 박 승(삼우건축), 김성우(연세대 학교), 김승제(광운대학교),

김태일(제주대학교), 양수현(한라대학교), 이종숙(산업정보대학교), 김용수(중앙대학교), 송병하(홍익대학교), 여영호(고려대학교), 장민봉(해양수산부 건축사무관), 이규용(해양수산부 토목사무관)이 맡았다.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은 2002년 6월 이후 착공 예정이며 2003년 완공될 예정이다.

▶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정영균) + 이세환건축사사무소(이세환)

대지위치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918-25,30,32번지내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고도지구, 향만시 설보호지구
용도	종합여객시설
대지면적	58,315㎡
건축면적	2,798㎡



연면적	지상층면적 4,646,36㎡ 지하층면적 302,72㎡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폐율	23.85%(법정60%)
용적률	61.61%(법정300%)
구조	S.R.C,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14대 (장애자 주차 6대 포함) (버스 주차 5대 포함)
설계팀	김은식, 박재성, 정진환, 이명희, 김정훈, 김상원

### 배치계획

- 입체적 보행동선계획을 통한 프로그램의 기능적 배치
- 동측의 수공간과 결합된 소광장, 남측의 대광장, 북측의 부두가 레벨을 달리한 데크와 브릿지 등을 통해 터미널의 핵심 공간인 대합실을 중심으로 입체적 연결
- 중앙에 대합실능주위에 서비스,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능적 일체화
- 1층레벨에서 처리하는 화물동선과 분리하여 2층레벨에 대합실을 마련함으로써 승객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 장래 2호 여객터미널의 역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지 서측 증축부지 마련

### 평면계획

#### 원활한 여객동선 처리

- 여객승하선 전용도로(브릿지)계획 : 동선의 간소화, 화물동선 분리, 여객안전성 확보
- 대합실 중심으로 승하선 동선 분리계획 공간기능별 유기적 연계성과 분리
- 여객관련시설, 사무/관리시설 층별조닝 분리계획
- 대합실 중심으로 각 시설간 유기적인 공간연계
- DECK계획으로 광장으로의 접근 용이 여객의 공공성·편의성 증대
- DECK광장을 이벤트광장으로 활용
- 해양전시관/수공관 계획으로 친수문화공간 이미지 확보
- 충분한 휴게시설/현송대 계획
- 장애인·노약자·임신부 이용 편리성 고려한 계획

### 단면계획

#### 단면ZONING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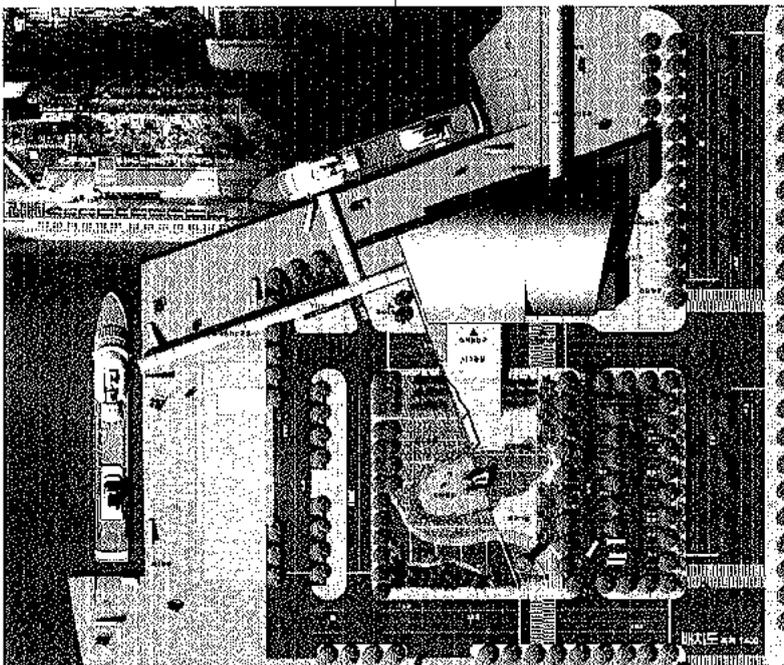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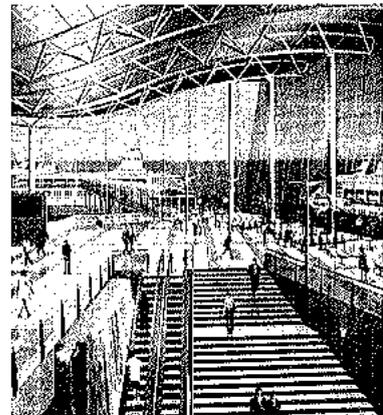
- 1층 매표실 계획, 2층의 대합실 계획으로 여객의 편의성과 쾌적성 증대
- 2층 대합실 계획으로 바다측 열린 전망 확보

- 대합실의 높은 층고 계획으로 승객들의 쾌적성, 개방성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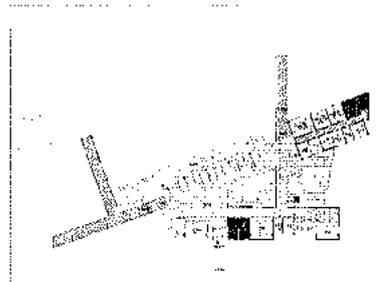
- 1층 사무실의 자연채광, 환기극대화 및 에너지 절약 계획에 의한 환경친화형 계획

#### 공간 전개 계획

- 여객전용 통로, 대하빌, 데크광장, 한라광장까지의 유기적 연계 계획
- 승객들의 한라광장까지의 자연스러운 동선 유도로 접근도가 떨어져 활성화 되지 않던 광장의 활용도 높임
- 화물은 1층 레벨로 승객은 여객전용통로로 이동하도록 계획하여 사람/화물 동선 분리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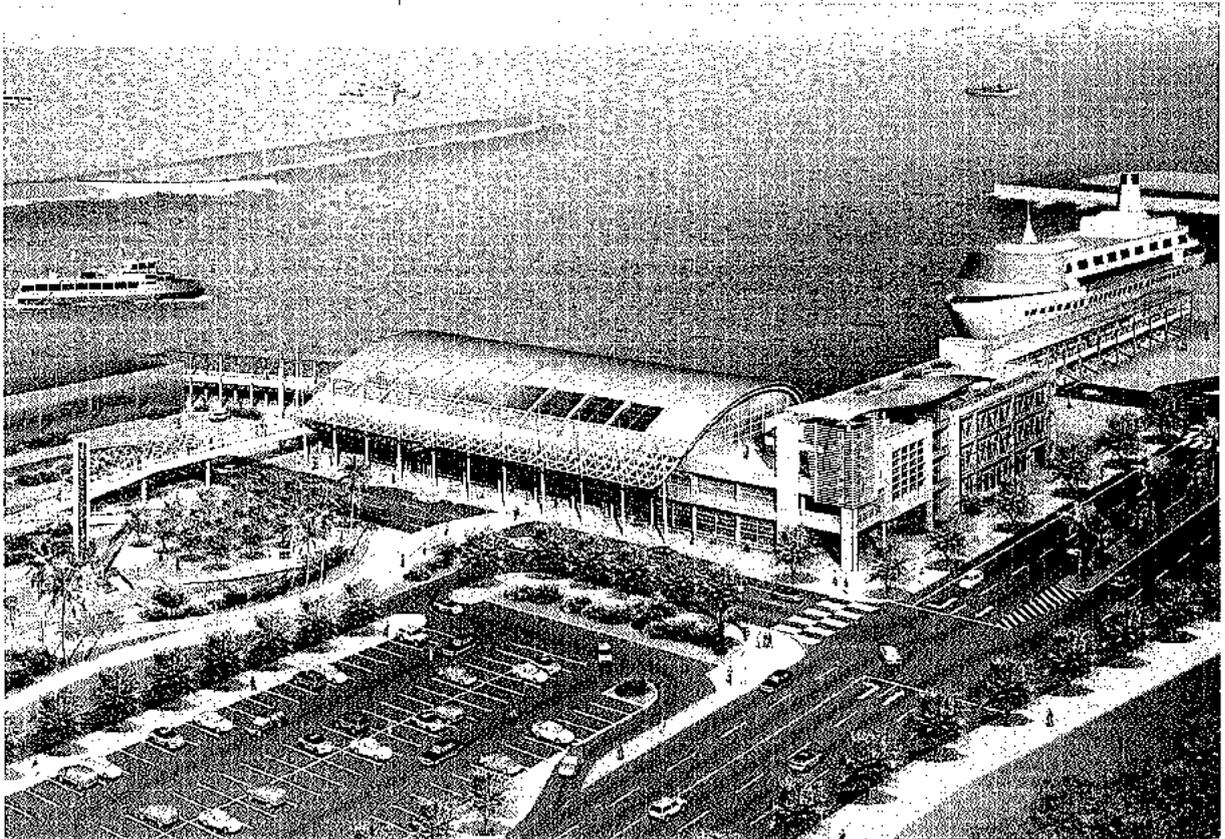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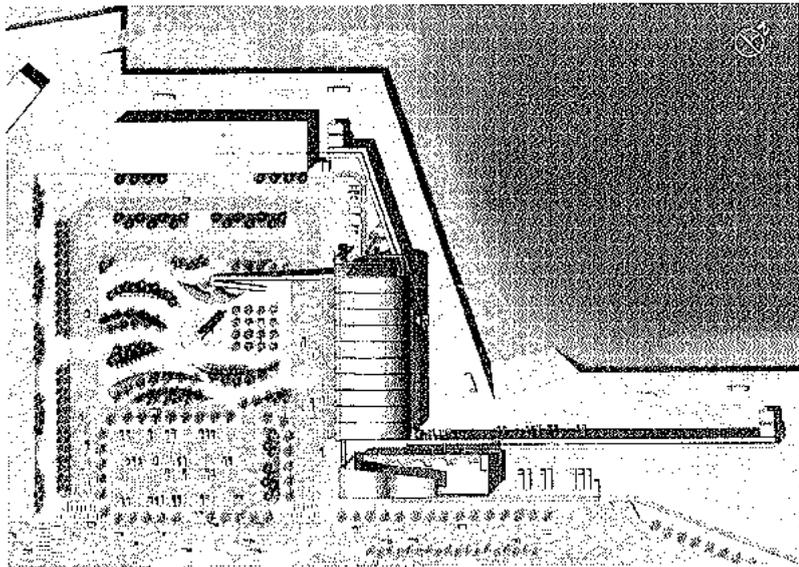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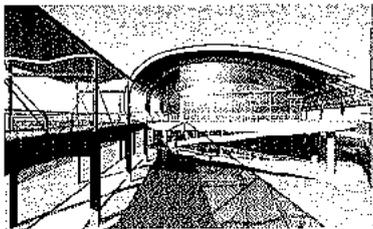
▶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기림건축 (장안철·박준승) + (주)  
우대기술단건축사사무소(양현승)**

대지위치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918-25, 30, 32 번지내
지역지구	일반공업지구, 고도지구(20m), 항만시설보호지구
대지면적	58,315㎡
건축면적	여객터미널 2,824.50㎡ 승하선전용통로 840.66㎡
연면적	여객터미널 4,940.44㎡ 승하선전용통로 303.69㎡
조경면적	15.1%(8,805.56㎡)
건폐율	4.80%
용적률	8.47%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골조
주차대수	98대
설계팀	김현우, 조수미, 류용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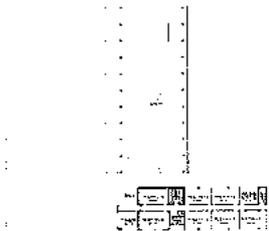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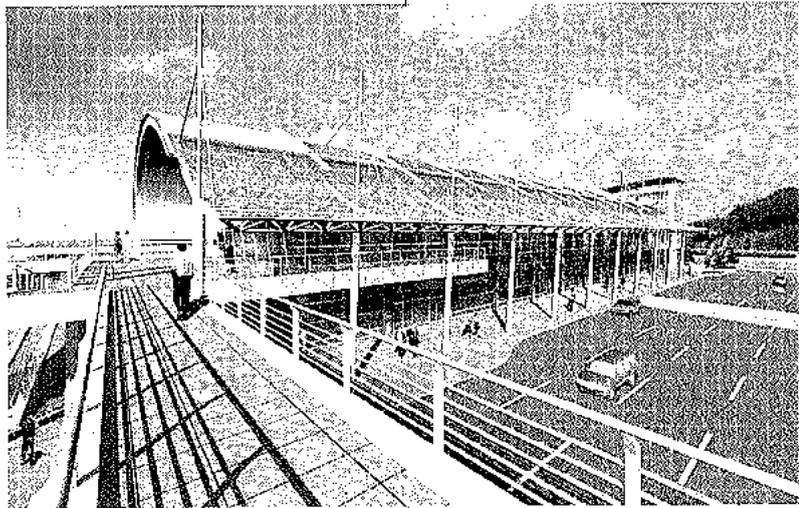
떠나는 이와 보내는 이는 항구라 명명된 장소에서 그들의 시간을 기억한다. 어떠한 이유든지 그들이 가진 장소에는 이별과 만남이라는 너무나 인간적인 애뜻한 주제가 살아있다. 이 제주라는 장소성이 지닌 여정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에 관한 물음으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자연이란 인간에게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 속에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섬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은 무한히 확장되는 신의 모습이다. 때로는 근엄한 모습으로 때로는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곳에서 건축이란 어쩌면 그러한 신과 인간의 접신의 장소가 아닐까? 그렇다면 그 접신의 원형성과 토속적 디자인의 모티브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인가? Mass의 기본적인 형태는 제주섬에서 기인한다. Mass 등은 제주도 민간의 초기집의 형태에서 영원한다. 완만하게 바다를 향하여 펼쳐져 있되 강하게 대지를 지탱하는 제주의 초기집은 이

번 제주항의 주된 디자인 모티브가 된다. 또한 배면의 곡선 라인을 수직적으로 지탱하여 주는 기둥은 제주의 전통고기잡이 배인 태우의 형상을 모티브로 한다. 이 주동 Mass는 이러한 제주적인 모티브에 의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계획안은 제주의 해양관문으로서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차량, 화물, 여객의 동선은 서로 분리되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동의 주변부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고려한 시설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기존 광장 및 건물의 Deck 부분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제주민들의 실질적인 여가공간을 의도하였다. 시공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제주항의 건물을 단계별로 철거, 시공함으로써 신축시에 가건물의 설치가 불필요하게 계획되었다. 또한 기존광장을 재조성하고 신축예정 방파제로의 산책로를 계획하여 지역민에게 그린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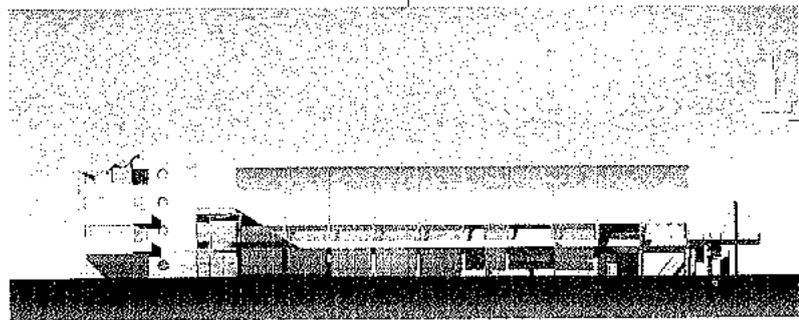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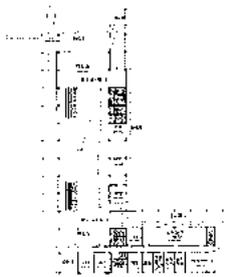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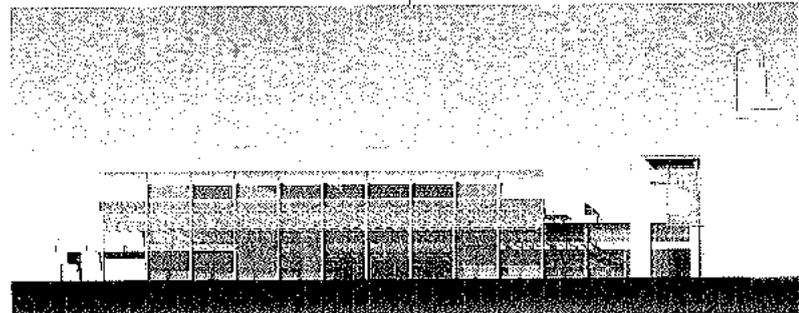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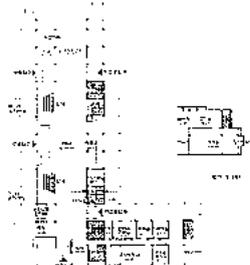
단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4층 평면도

## 상암3공구 주거단지

Sang-am Housing B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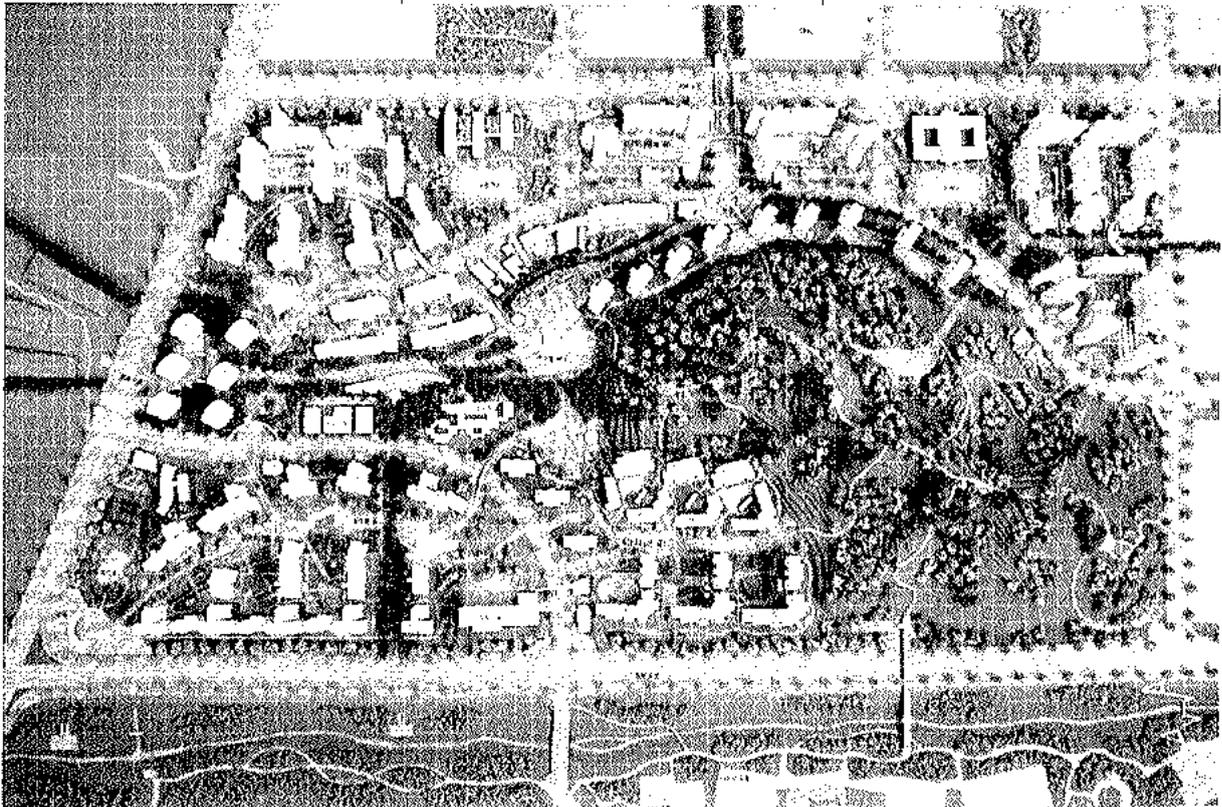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상암 3공구 주거단지 현상설계를 실시, 지난 5월에 공고, 총 88개 업체가 참가접수를 하고, 7월 30일까지 작품접수를 한 31개의 안을 심사, 지난 8월 14일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는 일반공개경기로 진행하였으며, 국내건축사와 더불어 외국건축사도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하였다. 당선작에는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 정영균) + 예주종합건축사사무소(김선재) + (주)디에이그룹(김현호)의 안이, 우수작에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김종국) + KSWA(우규승), 가작에는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김

창수),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문홍길, 채희, 이상근) + (주)단목건축사사무소(김성우, 노태학),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이상림, 박창민)의 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건축계획분야에 송인호(서울시립대), 장림중(연세대), 심우갑(서울대), 신유진(광운대), 이구락(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교통계획분야에 김홍상(명지대), 노정현(한양대), 단지 및 도시계획분야에 최종현(한양대), 박철수(대한주택공사 연구소), 정석희(국토연구원), 조경계획에는 김유일(성균관대), 김학범(한경대), 친환경계획에는 김강수(고려대), 이은희(서울여자대), 배경동(서울시) 등 총 15명이 맡았다.

▶ 당선작 /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정영균)+예주건축사사무소(김선재)+(주)디에이그룹(김현호)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상암산 일대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30,631.00㎡
건축면적	98,173.61㎡
연면적	543,965.76㎡
건폐율	42.57%
용적률	188.81%
조경면적비율	52.67%
평형별세대	40㎡ - 364세대 50㎡ - 546세대 85㎡ - 2,456세대 105㎡ - 868세대
계획세대	4,233세대
주차대수	5,194대
구조	전우구조
설계팀	최광휴, 신혜정, 정대락, 조원준, 김태완, 아세훈, 이재영, 이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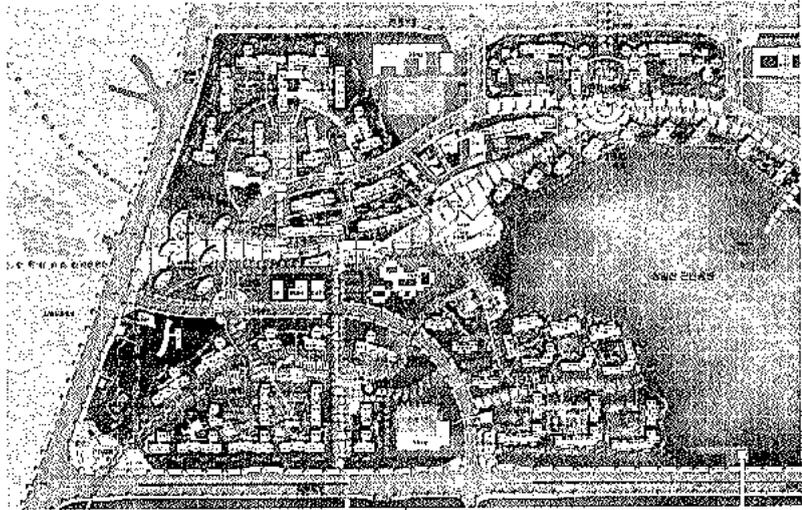
이종권, 전민영, 박동원, 김영호,  
조 일, 류제희

이번 상암3공구 기본계획을 통하여 우리는 서울시 새천년 신도시 계획구상과 21세기를 준비하는 주거단지 개발에 역점을 두어 상암지역의 입지적 잠재력을 활용하고,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부정적인 환경을 적극개선하여 자연, 인간, 기술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생태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본 사이트와 주변지역의 생태현황을 조사하여 계획의 기본 알개를 구상하였다.

본 계획안의 개념은 환경친화, 인간친화, 경관친화를 주제로 녹지, 물, 바람, 커뮤니티, 경관, 정보라는 6개의 생태마을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변환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에너지 흐름이 생명 의 본질이며 생태마을을 구성하는 본질로 이해하고 매개체로서의 '결' (Rhythmic vitality)이라는 계획개념으로 전개하였고, 자연 속의 결과 결이 만나 생성되는 상생의 에너지를 나뭇잎에 무늬진 생명의 그물로 생태마을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결'은 서울의 광역녹지체계에서부터 북한산에서 시작하여 상암산으로 이어지는 그린네트워크의 산결, 난지천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블루네트워크의 물결, 한강의 강바람과 난지도의 골바람을 이어주는 크린네트워크의 바람결, 관운도시로서 주변의 스카이라인을 이어주는 시티네트워크의 하늘결, 사이버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보네트워크의 빛결, 보행자 전용의 생활가로공간으로 이어지는 커뮤니티네트워크의 숨결로 발전된다. 그 흐름은 공간적으로 열림과 비움으로 극대화되고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등 상위계획부터 매스계획, 입면계획 등 건축계획까지 주된 흐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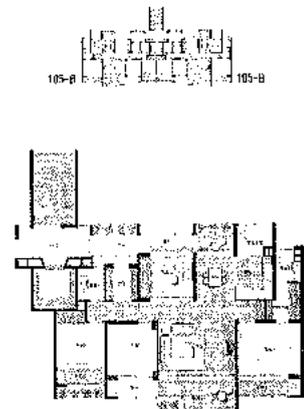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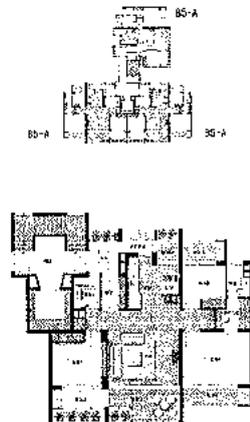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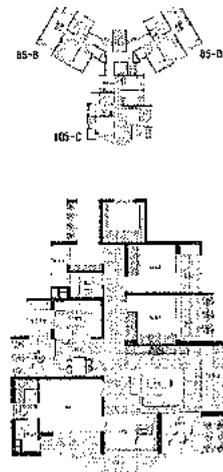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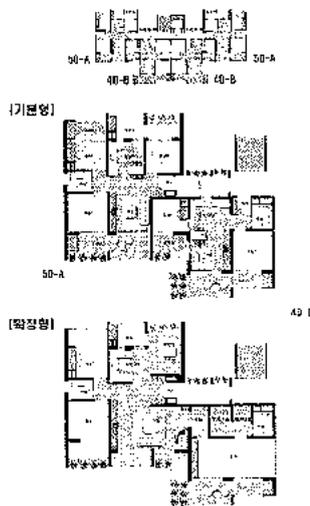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은 단지 중심부에 도로로 단절되지 않은 오픈스페이스 스파인을 구성하여 생태적 보고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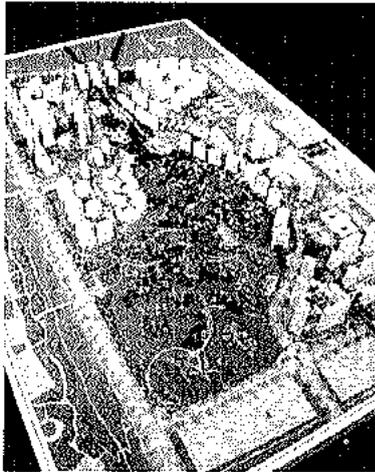


배치도

암산이 연장되도록 하였다. 아파트는 5개의 분양단지와 1개의 임대단지로 구성, 특히 임대단지는 공공성을 제고하는 입지를 가지며, 지구중심에 초등학교와

교와 가로공원, 생태공원, 공공시설을 배치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의료시설, 복지시설은 단지 외곽에 분산 배치하였다.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시설은 생





활가로공간을 따라 분산 배치함으로써 한결길의 어메니티를 높이도록 하였다. 매스계획은 주보행동선인 한결길 주변으로 저층 건물군을 배치하여 리듬감이 있는 스카이라인과 시각회랑을 열어주었고, 관문도시로서 상징성을 제고하고자 포인트 주동을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외곽은 도시적 흐름에 대응하도록 하였고, 내부는 자연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친환경적 성격으로 상암산 주변과 내부를 바꾸는 모습이 되었고 공공시설군을 적절히 배치하여 어반 코리더를 형성하였다.

동선계획은 인간중심의 계획으로 쉽게 단지중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차량동선은 루프형 동선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차량동선계획에서 도시계획도로는 효율적인 단지의 분할과 주변 계획도로와의 정합성을 가지도록 하였고 지구내 교차로는 통과차량의 억제와 안전을 위해 3지 교차로로 계획하였고 단지내 동선은 순환이 가능하게 진출입구를 2개

소씩 계획하였다.

주차계획은 지상주차를 데크식 주차로 처리함과 동시에 단지의 자연지반을 높이도록 하였다. 보행동선계획은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진입동선을 보행자 전용으로 계획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였다.

주보행동선인 '한결길'은 어메니티 계획 즉, 가로계획 안에서 카페테리아, 비담분수, 벽천, 휴게시설, 조형물, 생태공원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직접 체험하는 자연으로 다양한 형상의 요소와 패턴들을 교차시킴으로써 활력 넘치는 연속적인 생활가로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상암산을 주거점으로 생태흐름을 따라 각 단지에 거점녹지와 수공간을 조성하여 거점을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기적이며 위계적인 다양한 친환경 외부공간을 창출하였다.

친환경 계획방법으로서는 가산, 생태습지 및 실개천은 기존 생태를 조사하여 복원하였고 생태이동통로, 비오름, 유수지, 풍차, 옥상정원 등을 계획하였다. 식재 시설을 계획은 현장조사한 봉산 및 상암산의 식생구조를 반영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복원하였고 특화된 공간 분위기 연출을 위해 질감이나 형태, 색채 등을 고려한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였다.

단지별 외부공간 특성으로 빗결마일은 반도체 첩과 태양의 문양을 광장의 패턴모티브로, 하늘결마일은 도시적이고 정형적인 기하학적 공간으로 연출하였고, 숨결마일은 절개지를 복원하여 상암산의 숨통을 터주었고, 바람결마일은 바람개비와 깃발, 풍력 발전기 등과 같

은 모빌 조형물로 바람길 게이트를 나타냈었고, 물결마일은 실개천과 나루터 모양의 수변데크 그리고 배모양의 참여 놀이시설을, 산결마일은 인공가산, 관찰데크, 자연학습원을 계획하였다.

주동계획은 친환경적인 개방감과 조망을 확보하는 2세대, 3세대 조합의 다양한 타워형 주동타입과 테라스하우스를 계획하였다. 주동의 입면계획은 주동의 각 모서리에 플랜트 박스와, 저층부에는 기단개념을 적용하였고 옥상정원인 하늘마당을 조성하여 수직 그린네트워크로 입면 차별화 계획을 하였다. 또한 주동 접점부 피로티 부분에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커뮤니티 공간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단위세대 평면의 계획은 임대단지의 소형평형에서도 기본적인 세대구성이 가능하도록 2개내지 3개의 침실로 계획하였고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는 확장형 평면타입을 적용하였고, 주변DMC생활지의 거주패턴과 가족구성원을 고려하여 모든 평형을 가변형으로 계획하였다. 코어에 자연채광과 조경공간을 도입하여 세대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다. 이전의 주거단지가 기하학적으로 질서 정연한 체계를 통하여 상징성을 표출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주변의 생태환경에 순응하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담은 새로운 의미의 상징성이 새천년 주거단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대시 랜드마크

▶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간원(김종국) + KSWA(우규승)

용적률 172.56%  
계획세대 4,265세대  
주차대수 5,217대  
설계참여 김희춘, 이호섭, 이주현, 김민석,  
윤 원, 김광민, 박경민, 이재혁

문제의 이해

밀레니엄 시티의 기본계획구상은 그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서구도시의 근간이 되고 있는 19세기 상업도시, 20세기 도시에서 한단계 진보한 21세기 도시의 유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상 21세기 도시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선례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현상지침에 명시된 환경친화, 인간친화, 경관친화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환경친화는 현대사

화가 당면한 자연에 대한 문제로서, 자연관은 자연경외에서 정복의 단계를 거쳐 이제 실존 및 공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난 세기의 문제를 극복, 해결하려는 의지로 인식된다. 둘째, 인간친화는 주변과의 관계, 사회성, 정체성의 문제로 사회적으로는 구심점의 형성이고 물리적으로는 중심의 확립, 문화적 측면에서는 내향성 즉, 한국 정체성의 보존 및 확립으로 해석된다. 셋째, 경관친화는 외부와의 관계 설정으로서, 커뮤니티 자체로서는 외곽지역과의 연계성이지만, 좀더 크게는 지구화 및 IT를 더욱 부각된 외향성의 문제로 현대도시의 필수 요소인 인지성과 개방성(open system)외에 외향성으로 파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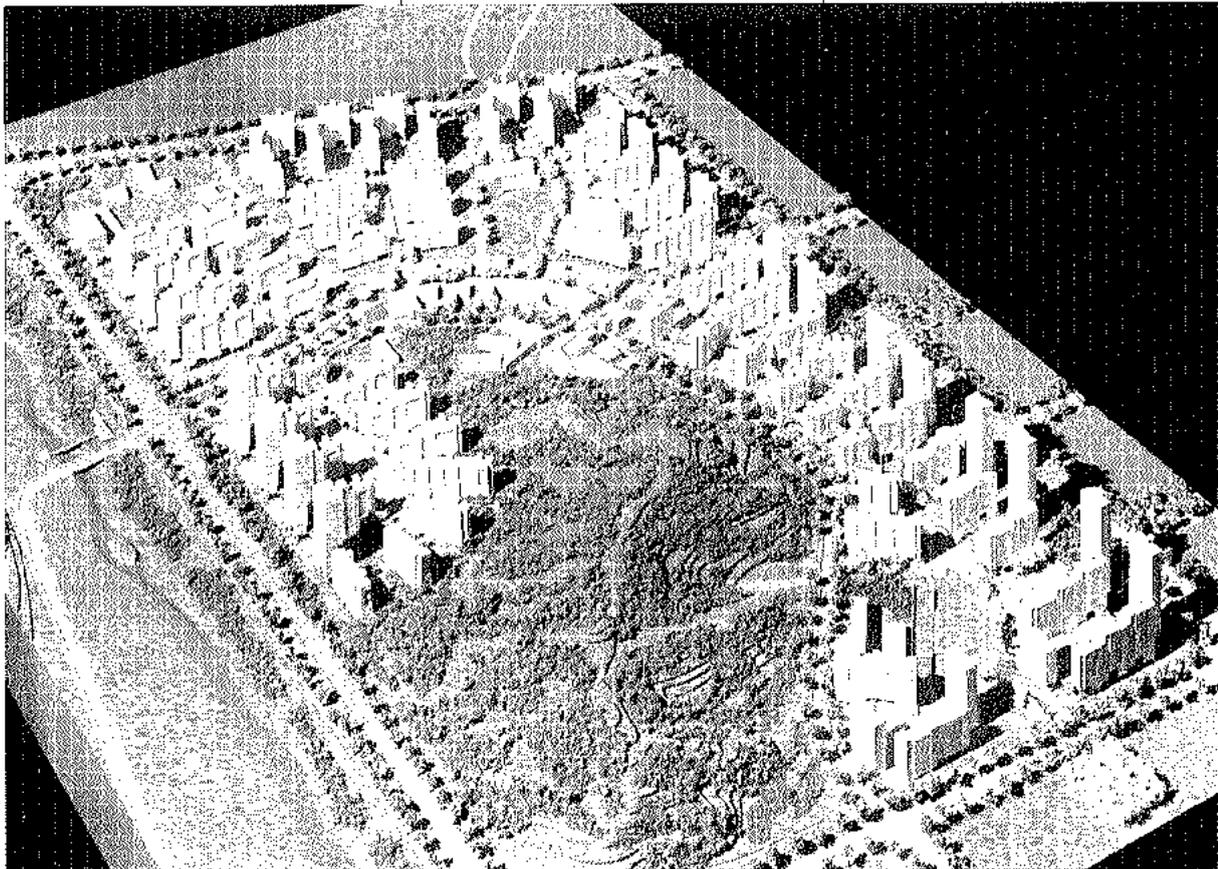
자연친화

전체 배치계획은 기능의 연계로서 형태 모두 대지 내 지배적인 요소인 상암산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다. 형태로는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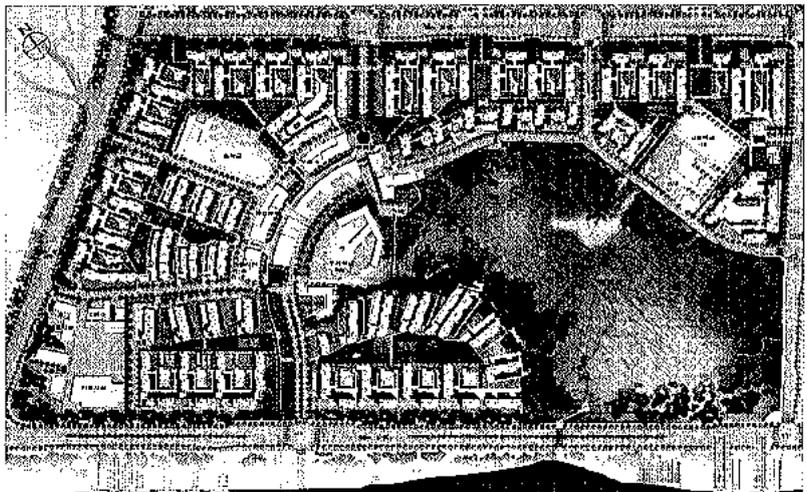
곽에 고층건물을 세우고 상암산 쪽으로 저층을 배치함으로써 상암산을 중심으로 공간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상암산 쪽 주거군은 주차장으로 산세를 연장시켜 최대한 현 지형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고, 주보행동선과 중심지역은 모두 산의 흐름에 평행하게 함으로써 상암산이 전체 대지에 대한 인식의 바탕이 되도록 하였으며, 전 단지를 관통하는 보행 네트워크를 통하여 단지 내부와 외부를 유지적으로 연결하였다. 자연과의 친화를 위하여 자연지반복지를 최대화하였고(48.03%) 그린 네트워크와 병행하여 우수, 그리고 저수를 이용한 블루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친수공간의 형성과 함께 자연을 이용한 동선의 인식성을 제고하였다.

인간친화

모든 단지는 하나의 보행동선으로 연결하고 이 주동선을 따라서 커뮤니티시



설, 학교 등을 배치하여 보행동선을 상업시설들이 위치한 중심지역을 관통하도록 하여 전체 커뮤니티가 하나로 엮여지도록 하였다. 외곽에 고층이 서고 삼삼한 쪽이 낮은 건물의 배치는 외곽과 중심의 관계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재래 한국의 내향적 공간구조를 재현하였고, 개개의 아파트에서 건물의 입구, 몇 동이 모인 클러스터(cluster) 그리고 단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레벨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여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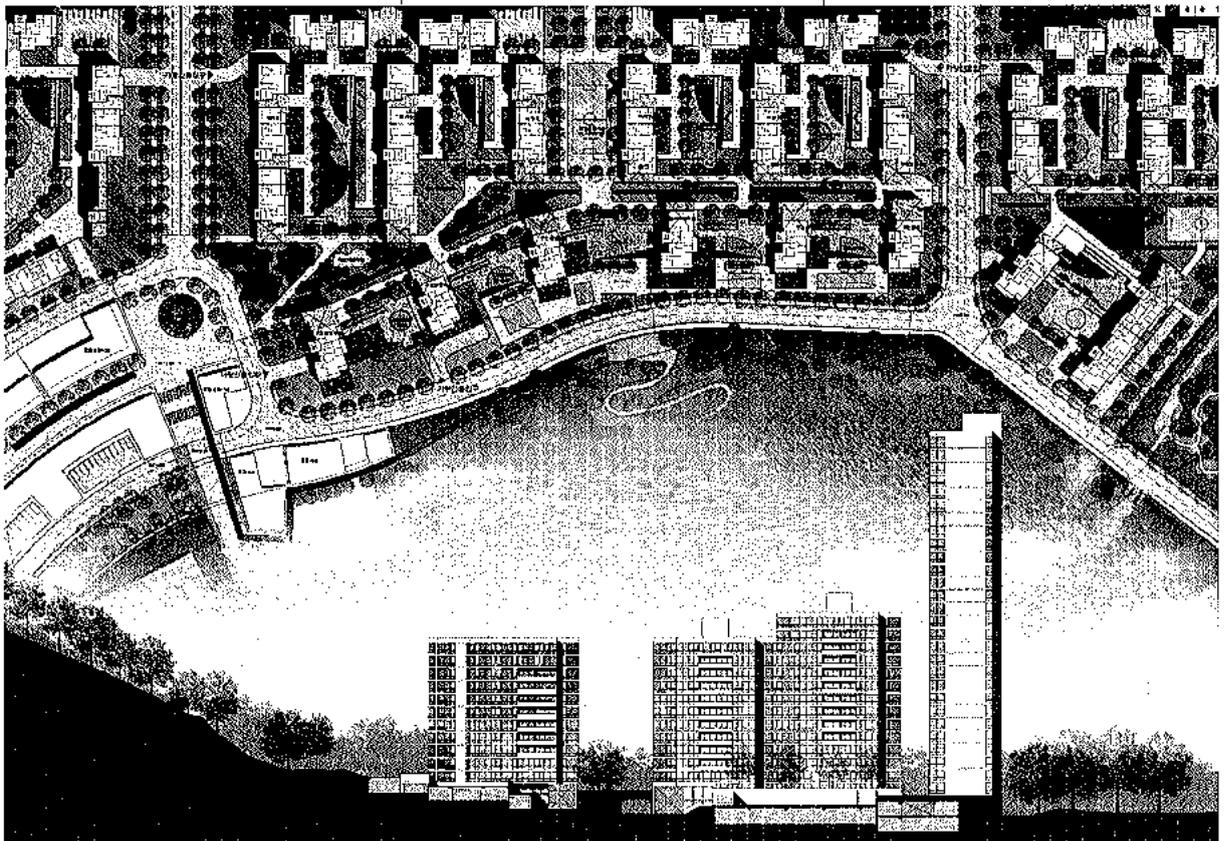
배치도

### 경관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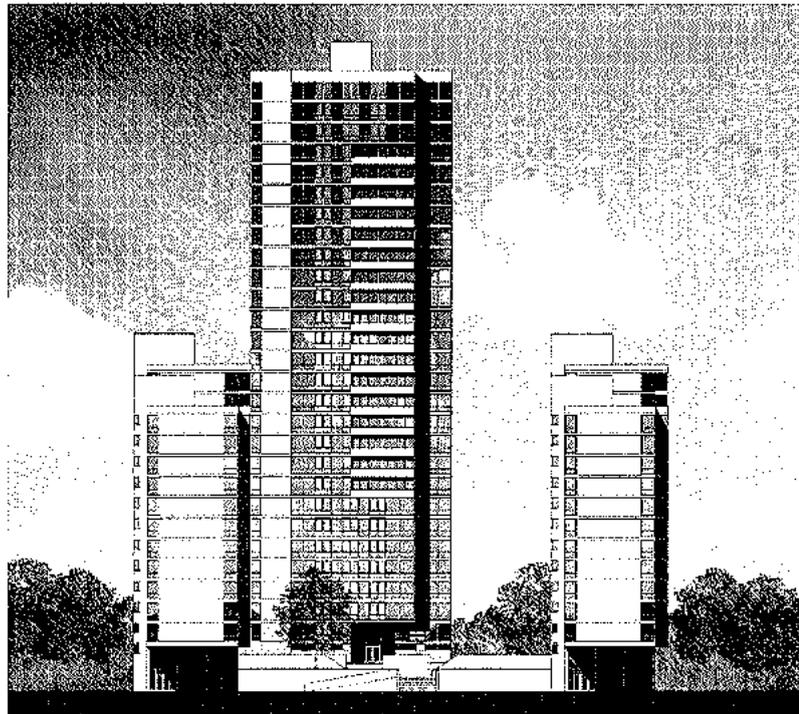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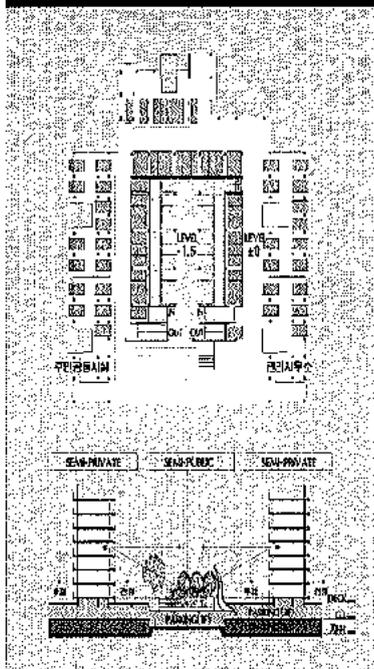
외부와의 연계수단으로서 교통체계를 뚜렷이 하고, 밀레니엄 시티의 일부로서 DMC, 난지공원 등 인접지역과의 연계를 교통, 보행, 자전거, 녹지, 블루네트워크 등으로 형성시켜 도시내 다른 지역과의 연계를 확립하였으며, 특히 외관과 만나는 진출입구를 명확히 하였

다. 또한 DMC에서 내려오는 녹도축을 받아 삼삼산까지 연계되도록 시각적 연결, 보행동선이 이루어지는 계획을 하였다. 주보행도로변의 연속된 필로티 및 타운센터의 아케이드, 아파트 입구의 2층공간 등 지상레벨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유도한다. 입면계획에 있어서는 전체 배치 및 건물계획 의도에 입각하

여 작위적인 형태의 도입 대신에 자연, 인간, 경관친화 등의 개념을 부각하여 전체단지의 조화를 꾀하도록 단야하게 계획하였다. 고정창은 투명유리를, 개폐창은 반투명 유리를 사용하여 막힘(solid)와 열림(void)의 개념을 입면에서 표현하여 반투명 창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햇빛의 효과를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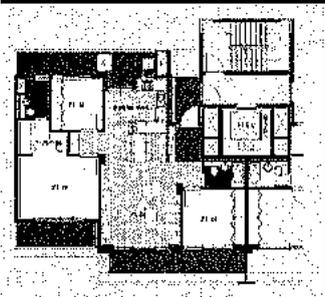


중점공간 (커뮤니티+주차공간)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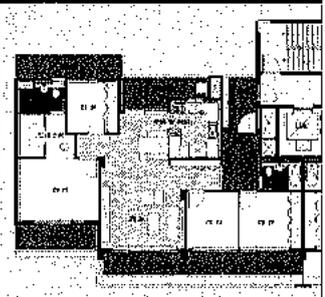


주동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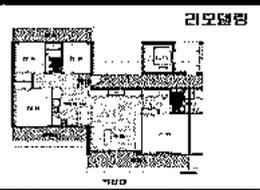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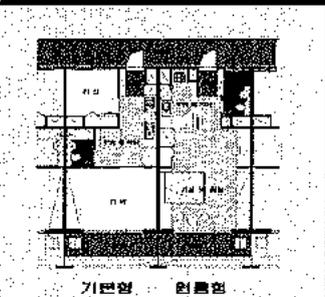
전용 85M<sup>2</sup> 단위세대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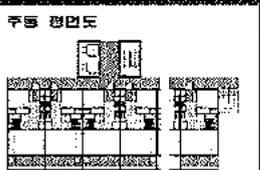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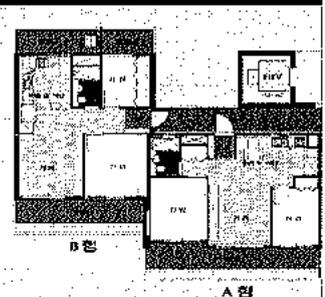
전용 105M<sup>2</sup> 단위세대



전용 39M<sup>2</sup> 단위세대평면도



전용 49M<sup>2</sup> 단위세대평면도



## 인천교대다목적교육관

All-Purpose Education Hall at  
Inch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당선작 / (주)원도사건축사사무소  
(변용 · 장응재)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 59-87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면적	2,761.5㎡
연면적	8,503.9㎡
주차대수	115대 (장애인 전용주차 4대 포함)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조
내부마감	바닥/비닐타일, 벽/수성페인트, 천장/양면흡음천정판
외부마감	타일PC, 알루미늄커튼월 + THK24 복층유리

설계팀 홍재정, 여동진, 강은영, 서종원,  
이종환, 박영아, 이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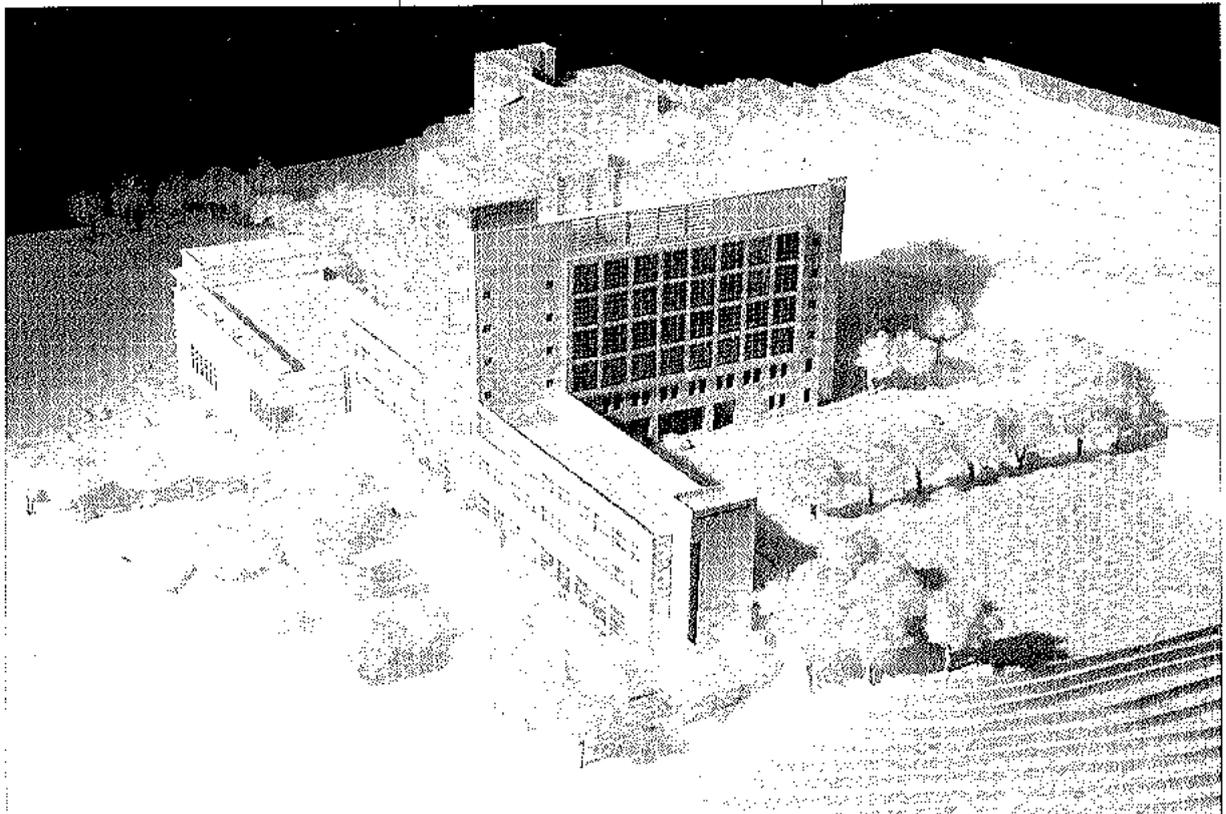
대학 캠퍼스의 건축은 장기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하여 일관된 체계 안에서 주요시설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캠퍼스의 공간체계에서부터 유기적 성장의 체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초청 설계경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목적교육관 2450평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우리는 지침서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파악된 사항으로 캠퍼스 부지는 인천광역시의 북측에 위치한 해발 130m의 계산을 서쪽으로 등지고 앉은 산기슭을 차지한 부지로서 정문에서부터 기슭사까지 50m정도의 고저차를 갖는 경사지로 조성되고, 기존시설 11개 건물 11482.2평의 건물이 분동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1987년부터 건물단위로 연차적으로 소화하여 2000년 제2기속사 건립까지 이루어져 있다.

정문으로부터 시작된 동서방향의 주진입로가, 캠퍼스의 중심역할을 하는 분관, 도서관, 학생회관 등의 시설까지 주축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으나 부지 조건상 계산의 급경사에 막혀 남북축으로 직교되는 부축과 연결 남북으로는 강의 연구동과 운동장 체육관이 배치되고 북측으로는 과학관을 거쳐 기슭사에도 달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산 기슭의 고저차가 심한 대지에 건축부지마련을 위한 성토, 절토는 건물주위에 더욱 기파른 경사지를 야기시키고 접근을 위한 도로의 경사가 무척 부담스러운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프로젝트의 건립단계에 대해서는 캠퍼스내의 단위 건물의 건축이라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캠퍼스 전체의 대학사회 활동과 생활을 담을 수 있는 시공간(時空間)구조에 대한 가능성을 포함하여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다목적교육관의 계획부지로서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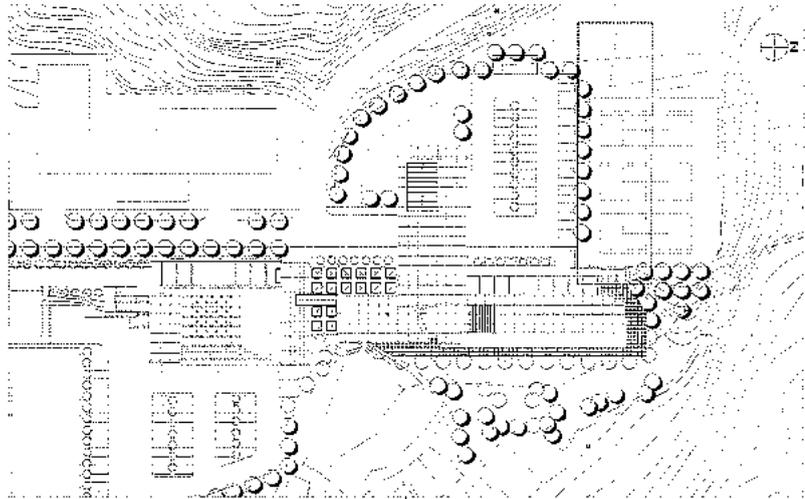
교부지 최북단의 7520㎡의 정지된 부지가 주어졌으나, 주어진 프로그램, 즉, 집회시설로서 다목적 강당과 공동시설로서의 강의실 기능은 그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전체 대학교 시설과의 관계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가지의 그룹으로 기능을 파악하였으며 각각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 ① 다목적 강당 : 학교내의 집회, 학술 발표, 공연 등을 위한 시설로서 캠퍼스 코아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② 강의실동 : 프로그램 내의 3개학과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공용시설로서 사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배치가 필요.
- ③ 3개학과 및 사회교육원 : 미술교육, 실과교육, 수학교육과 사회교육원 실습 및 교수연구실

상기의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대지의 악조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첫째, 현재 버려져 있는 경사지를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둘째, 계획 부지의 일부를 절토에 의해 Level을 낮춤으로서 가용부지를 확장되도록하고, 셋째, 계속 상승하는 주진입로와 별도로 낮은 Level의 「연구의 길」을 설정하여 캠퍼스 코아로부터 본건물의 연결을 편리하도록 한다. 넷째, 3개학과 실습실 교수연구실동은 계획부지의 남측으로 사용



배치도

토록하고 최대한 층수를 높임으로 상징성을 부여하고 또 장래증축이 가능한 대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한다.

본 프로젝트를 위하여 우리팀은 과거의 캠퍼스 계획 경험에 의거 교수연구실, 일반강의실, 합반강의실의 모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실습실의 모듈은 일반강의실과 동일 모듈을 선택하고 강의실 부분과 3개학과 실습실 교수연구실동은 T 형으로 배치, 수직동선의 겸용이 가능토록하고 별도의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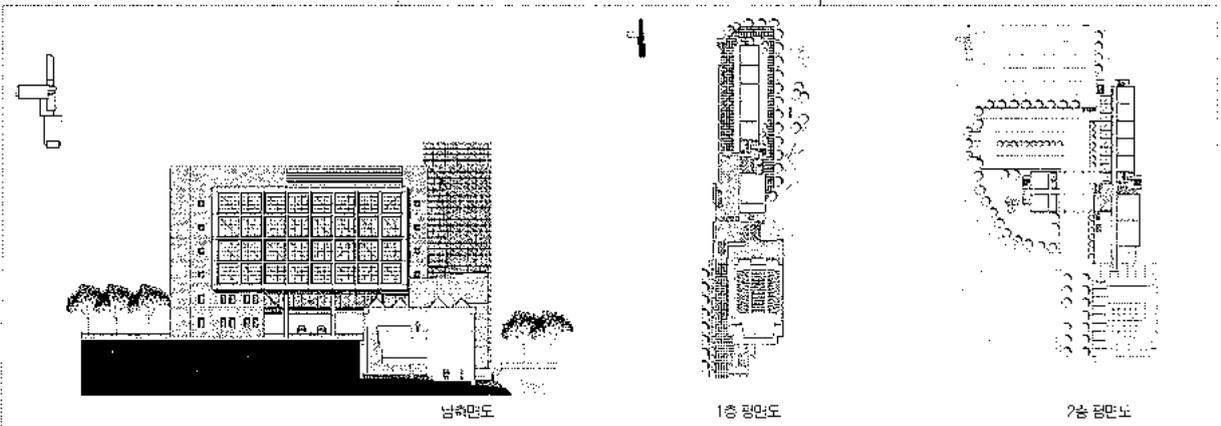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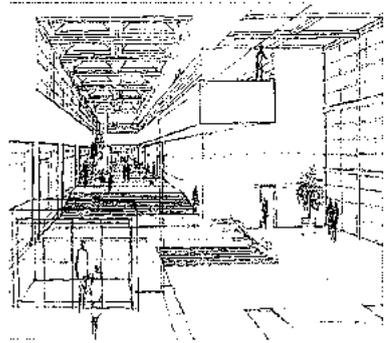
600명 수용의 강당시설은 캠퍼스 코아에 근접토록 배치하고 접근통로와 강당 로비 등은 미술교육과 전시공간으로 활용, 사용확과의 특성을 살리는 "연구의 길"이 되도록 하였다.

저층부의 긴 입면은 분절되도록 하고 고

층부의 측면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내부적으로는 전망에, 외부적으로는 현대적,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얻도록 하였다.

기존 건물의 외관과 조화되는 친근감과 안정성을 돋보이도록 하는 입면처리를 기하도록 노력하였다.

외부공간의 활용과 향후의 계획을 위해 정구장 북측 삼각형 대지의 매입은 극히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측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우수작 / (주)일건건축사사무소  
(황일인)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 59-87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77,029.00㎡
건축면적	3,365.34㎡
연면적	8,485.00㎡
건폐율	1.9%
용적률	4.7%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주차대수	36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강당상부)
내부마감	바닥: 스트롱계쉬트, 벽: 수성페인트, 천장: 압면텍스
외부마감	화강석울갈기+도드락마감, THK24컬러복층유리
설계팀	김성수, 김인수, 김진수, 권순진, 강병수, 장대석, 안성준

최근경인지역은 타도시에 비해서 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매년 초등학생의 증가 또한 가중되고 있는 터에 교원정년단축 및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교원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인천교육대학교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학생정원을 늘리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교육관의 신축을 고려하게 되었다.

계획대지는 인천교육대학교의 북측경계에 위치하며 주변건물보다 지대가 비교적 높다. 캠퍼스전경뿐만 아니라 주변경관 또한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Landmark적인 건물계획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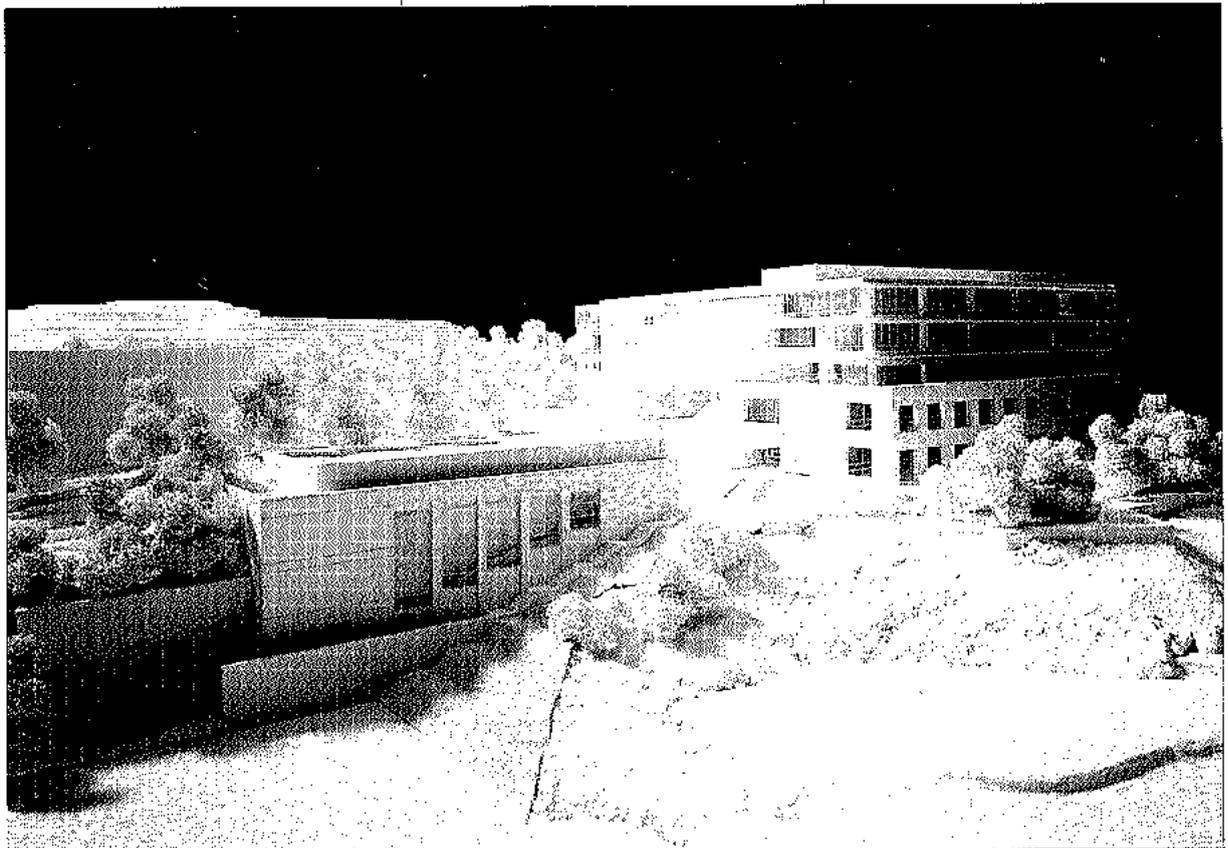
기존의 건물들이 정지된 대지위에 올라선 형상이라면 본 계획안은 대지의 조건을 적극 수용하여 경사지에서 건물이 일체화되고 땅이 솟아오르는 형

상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 평면상으로는 조망이 용이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단면상으로는 테니스장에서 계획대지까지 약 17m의 고저차를 극복하는 방법이 고려되었다.

접근방법은 기존의 과학관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대학본부를 경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학본부를 경유하는 방법은 경사지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중강당측면계단, 중강당로비, 야외조각장 등 다양한 외부공간을 경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시설물로의 선택적 접근이 가능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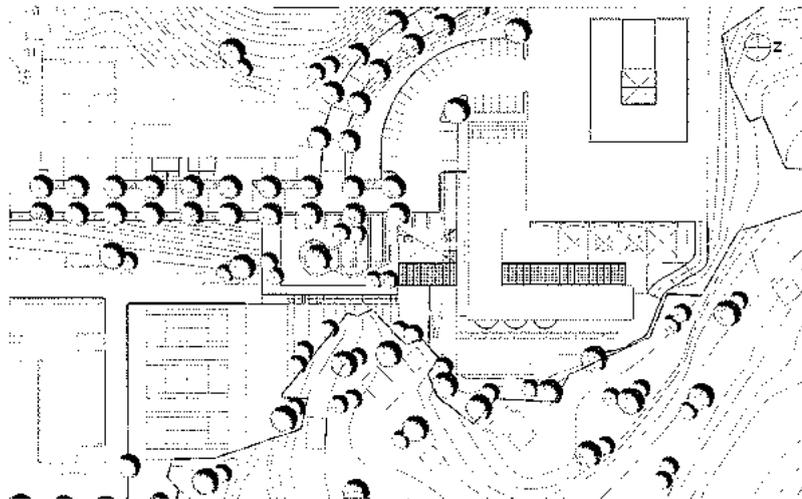
중강당 상부는 옥상정원으로 계획하고 2층으로 오르는 외부동선에 데크를 조성하여 시각적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계획안은 다목적 교육관이니 만큼 다양한 Program이 요구되었는 바, 각시설이용의 혼잡성이 우려되었는데 층별 Zoning방법을 채택하여 시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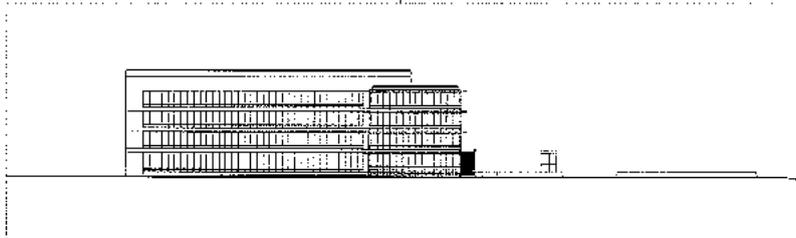


용의 혼잡성을 피하고 교수와 학생의 동선분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발주처에서 증축에 대한 고려를 요구했으므로 건물배치에 있어서 새롭게 계획되는 건물의 접근로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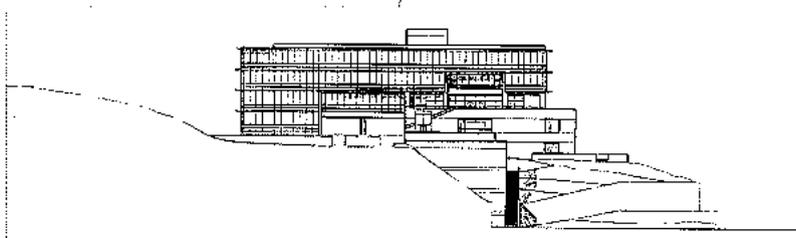
경사지의 이용, 다양한 Program의 수용, 주변지역에서의 인지성, 인천교육대학교의 발전방향의 제시가 본 계획안의 Key Point이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획의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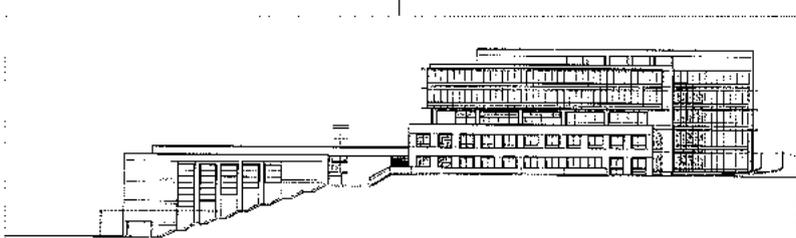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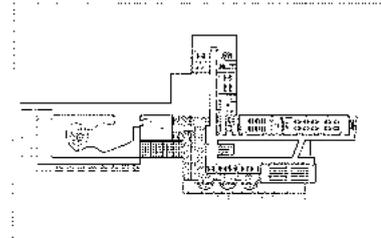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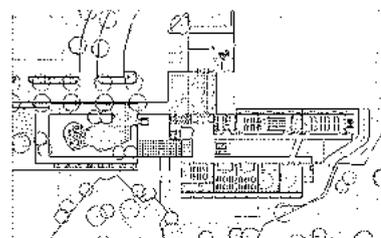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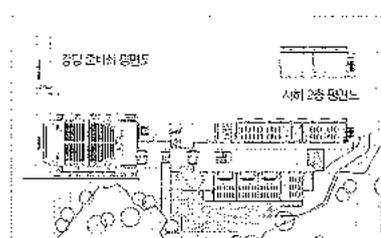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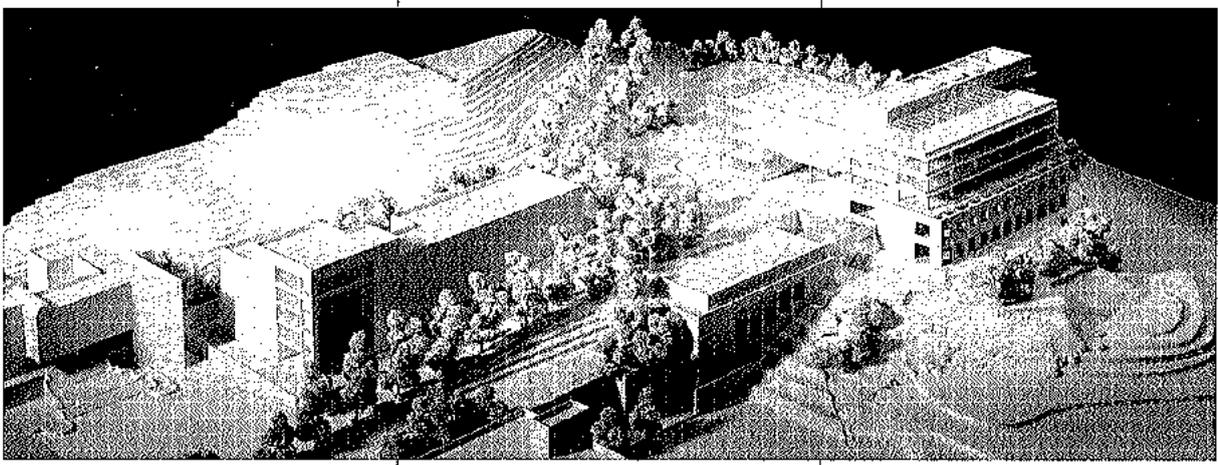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

Human Ecology Center at  
Ulsan University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범건축(박영건·김관석)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773-1, 774-1
지역·지구	일반 주거 지역, 학교 시설 보호 지구
건축면적	1,209.66㎡
연면적	8,767.14㎡
규모	지상10층, 옥탑1층(1인실-10 실, 2인실-150실, 4인실-75실)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주차대수	39대(장애인주차 2대 포함)
외부미감	붉은 벽돌, 외부용 분타일, 적삼 목, 북층유리 커튼월

설계담당 천성호, 김상엽, 송선화, 이흥선,  
한태희, 양승열  
그래픽 박재현, 김원양  
모형 유승원, 유지아

### 계획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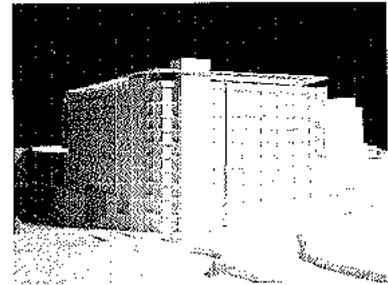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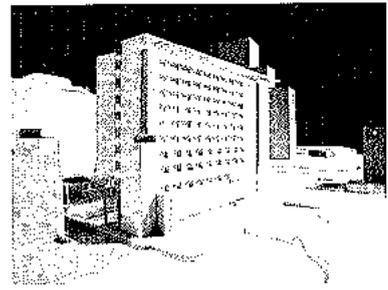
- 기존 환경과 조화롭게 통합된 환경 조성
- 안정된 거주환경 제공
- 다양한 공동 생활의 장 구현

### 배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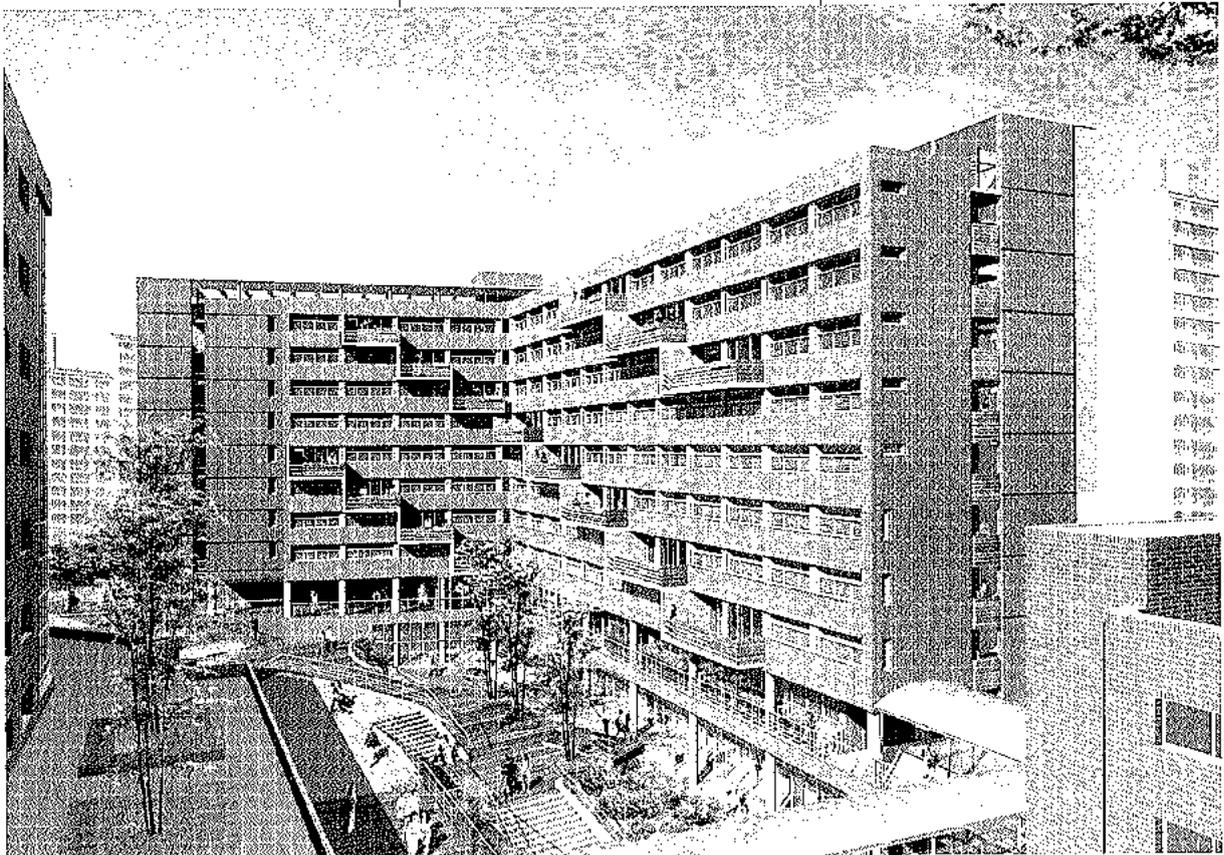
- 기존의 건축 질서 체계와 연계하여 중  
정을 형성
- 3개의 개별적인 기숙사 동을 브릿지  
를 통해서 기능적, 공간적으로 통합
- 진입 공간을 통한 각 건물의 인자성  
확보 및 녹지 공간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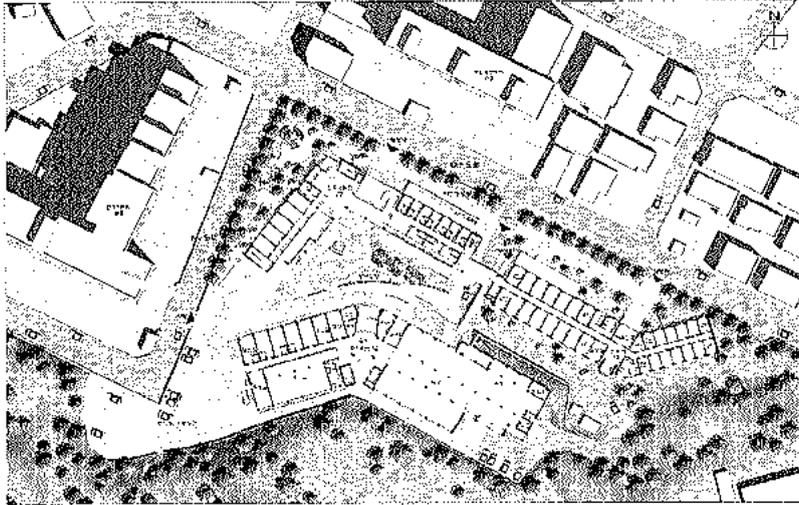
### 동선 계획

- 중정을 중심으로 각 기숙사 동을 유기  
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일체감 확보



- 기존의 등교 길로 사용되던 오솔길을  
중정과 연결
- 브릿지를 통해 기존 학사를 신축 학  
사와 연결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관계  
형성





배치도

**평면 계획**

- 1인실, 2인실, 4인실을 그룹화하여 조닝
- 각 영역에 공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커뮤니티 활성화
-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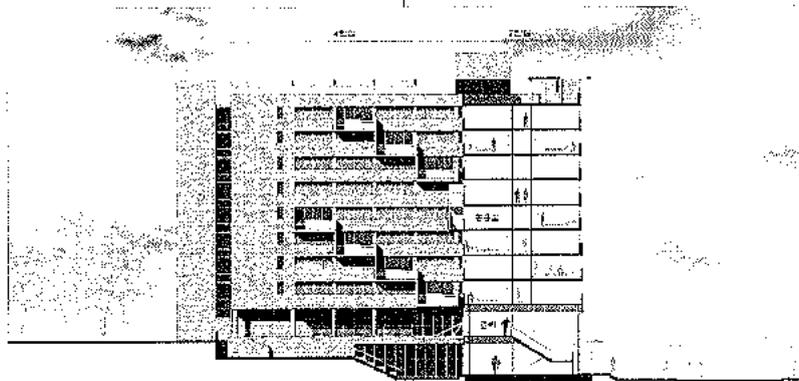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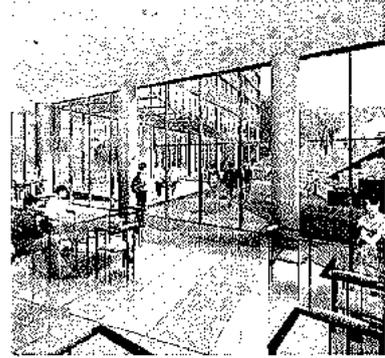
- 중정의 레벨을 다양화 하고 대지 레벨에 따라 성격을 구분
- 2개 층으로 개방된 현관 홀 공간을 통

해 공용공간(휴게실, 독서실, 2층 출입구)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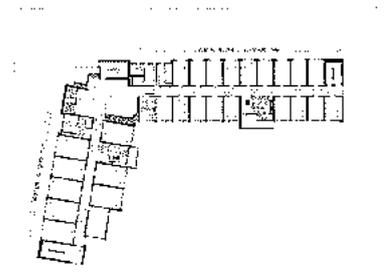
- 커먼룸과 중정의 적극적인 관계 유도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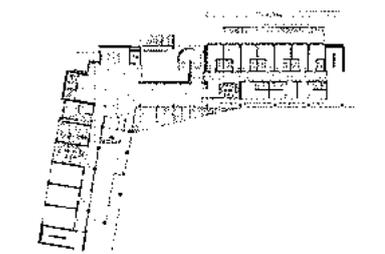
- 커먼룸에 발코니를 계획하여 조형성 부여
- 기존 학사와의 연속감을 확보하기 위해 저층부에 동일한 색의 벽돌 사용
- 주변 아파트와의 불편한 시각적 프라이버시 해결을 위한 개구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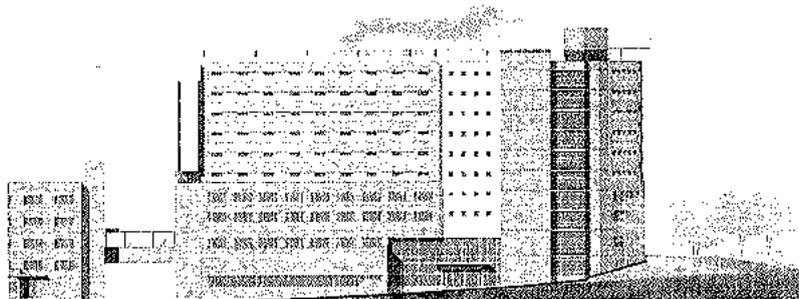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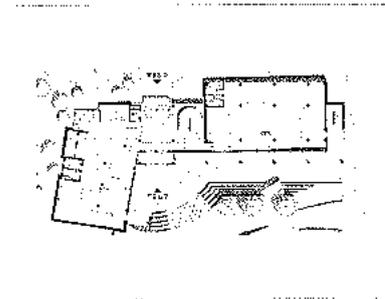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복측외관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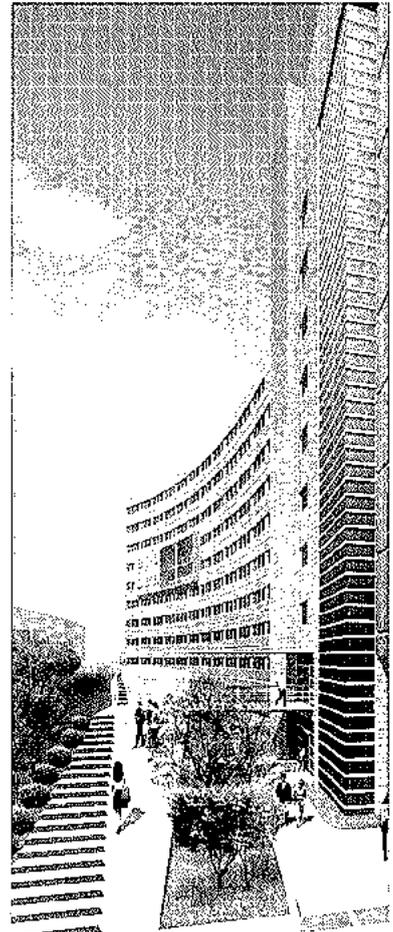
▶ 우수작/ (주)건정종합건축사 사무소 (노형래)

대지위치	울산대학교 구내 기존 학생생활관 주변
건축면적	1,215.5㎡(367.7평)
연면적	8,264.7㎡(2,500.1평)
주차대수	39대(장애자주차 3대 포함)
규모	지상 10층(기숙사), 총 237실 (621인 수용) 1인실-11실, 2인실-147실, 4인실-79실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치장벽돌, THK30 화강석 고운 다듬
설계팀	고종준, 박종술, 신창식, 주영준, 신익주, 허 용, 이창훈, 허 한, 김동원, 원종석, 송기환, 권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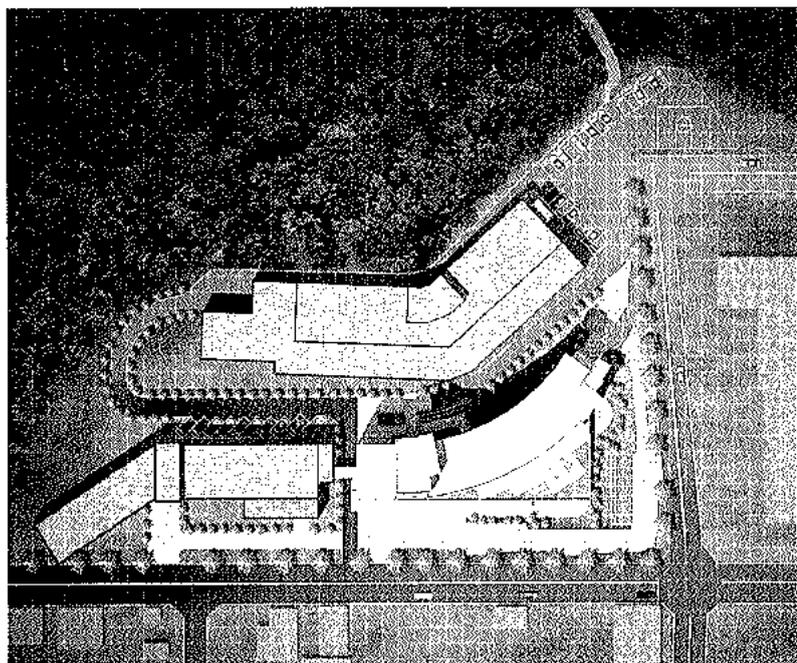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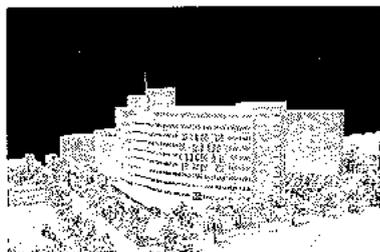
복합적인 대지의 특성, 주택(아파트) 밀집지역, 도로 모퉁이, 대지내 구거와 시도, 기존 2개동 기숙사와의 관계, 새로운 기숙사와 함께 3동이 전체 기숙사 단지를 형성하며, 외부공간과 계단, 브릿지 등으로 기존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외부공간의 흐름을 갖는 길로 해석하고 재조합하는 것에 계획의 주안점을 두었다.

좁은 대지와 주변이 학내 부지가 아닌 도로 모퉁이의 주택(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모퉁이를 돌아가는 원형 매스를 기본으로 해 향과 주변여건을 모두 적절히 수용가능한 기준타입을 만들면서, 전면 도로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어 전면 광장 등의 확보로 상대적으로 높은 매스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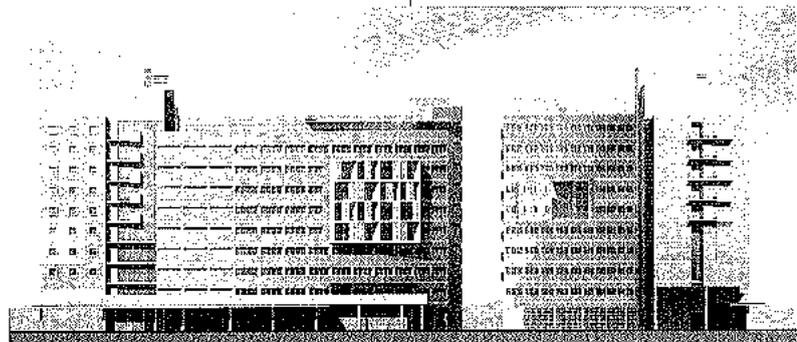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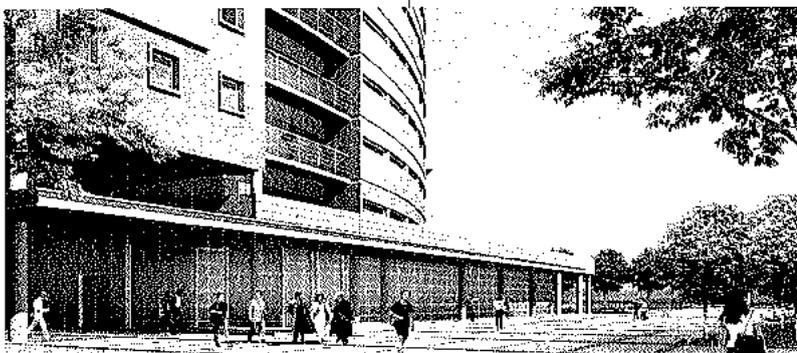
1층에는 주진입이 이루어지며 숙소내 공용시설인 공부방과 휴게실을 두었고, 2층에서 9층은 2,4인실의 숙사를 배치하였으며, 1인실은 10층에 배치해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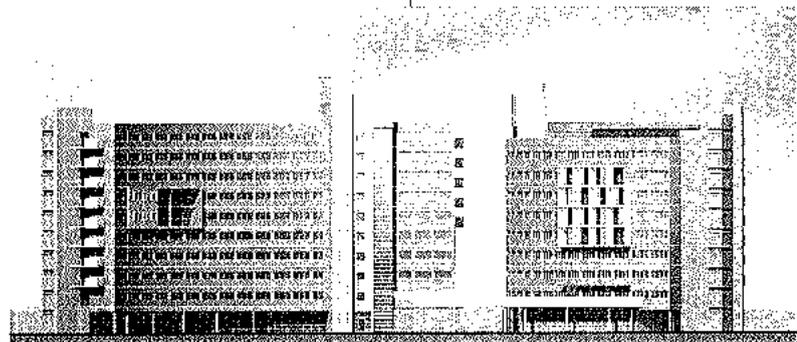
역의 구분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층별로는 숙소 외에 층별 공용 시설인 세면장과 휴게실을 코어부에 배치하고, 2층에서 기존 2등의 기숙사와 연계 가능하도록 브릿지를 계획하였다.두었으며, 배면부의 브릿지는 울산대학으로 가는 기존 학생들의 주동선을 수용하려는 의도록 계획되었다.



배치도



중면 직육면체



배면 우측면도

##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구조 보강 기법 2

### State-of-the-art Structural Reinforcing Devices of Remodeling Buildings

#### 슬래브 보강

이창남 / 센구조 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Nam

학교는 학생을 위해 설립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한 조직인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바닥 판 즉 슬래브이다. 바닥 판에 앉기도 하고 누어 자기도 하므로 거기 금이라도 생기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함의를 해 오는데, 알고 보면 슬래브에 금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며, 어쩌면 정상이란 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정작 속내를 알아보니 그 균열이란 것이 모두가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생긴 균열은 위험한 것이고 어느 경우에 돈을 들여서라도 보강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보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물론 요즘 유행어가 되어버린 리모델링을 위하여 이 공법을 활용하면 제격이 됨은 말할 것도 없다.

#### 슬래브의 구조상 의미

건물을 짓는 목적의 대부분은 평평한 슬래브로 된 바닥 판을 얻기 위함이다. 20층 짜리 아파트이건 100층 짜리 사무실이든 간에 바닥 판이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바닥 판은 그 위에다 책상과 침대를 놓고 기거하기 위함이다. 보는 바닥 판의 하중을 기둥으로 보내기 위한 수단이고 기둥은 바닥 판을 지지하는 보의 하중을 기초에 전달해주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기둥과 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면 상부 층 바닥 판이 아래층의 바닥 판에 포개져 내려서 시루떡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은 바닥 판이 보의 역할도 겸하도록 설계한 이른바 무량 판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시공 및 사용자가 잘못된 3중주를 연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판이 주저앉아 사람이 다치는 일은 별로 없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캔틸레버 슬래브이거나 조적 조 위에 벽보(Wall Girder)도 없이 올려놓은 슬래브, 또는 용도를 바꿔서 사용 하중을 대폭 늘린 경우 등이다. 다만 지금 설명하는 바닥 판은 편의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지칭한다.

바닥 판 주변에 제대로 된 보가 있으면 슬래브는 다소 구부러진다 해도 갑자기 주저앉아 사람이 빠져 버리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바닥이 구부러지면 기울어지고 물건이 낮은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서 불안하므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거기에다 금이라도 생기고 벌어진 틈으로 물이 스며들거나, 아래층이 내려다보이기라도 하면 이미 피난을 가기 때문이다.

고압 전선에 눈이 얼어붙거나, 빨래 줄에 이불을 널어놓으면 더 많이 처져서 포물선 형태를 이룰지언정 좀체로 끊어지지 않는다. 슬래브가 깨져서 틈이 완전히 벌어진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디디고 서있는 바닥 콘크리트를 망치로 깨는 철거 인부를 보면서도 무모한 짓을 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잔뜩 구부러져 처진 철근이 그 인부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커스단이나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실수로 추락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설치하는

안전장치처럼 휘청거리면서도 큰 하중을 받아주는 구조 시스템에 해당한다. 그 같은 망에다 바림이나 물이 새지 않는 형경 등을 씌우거나 형경 자체의 강도가 큰 것을 구조재로 활용하는 것이 이른바 막구조에 해당된다.

그러나 슬래브는 출렁거림을 인정하지 않는 딱딱한 바닥으로 두께와 스펀 비가 작은 얇은 판인 것이 특징이어서 전단 응력 보다는 휨 응력에 지배받는 것이 보통이다. 즉 콘크리트의 두께가 모자라서 전단 파괴가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고, 콘크리트의 압축 내력에도 여유가 있는 반면 인장 철근 부족이 하자의 원인이기가 쉽다.

여기서 막 구조와 슬래브의 다른 점은 막구조가 전단면이 인장 응력을 받는데 비하여 슬래브는 단면 내에 야기되는 휨모멘트를 인장 응력과 압축 응력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평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막구조가 부재의 인장 내력에 의존하는 것인데 반하여 아치 구조는 그 반대로 압축 내력을 주 응력으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벽돌이나 돌로 쌓은 아치 구조는 다소 둔탁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슬래브는 막구조와 아치 구조의 중간 영역에 드는 것이라 설명해도 될 것이다.

이제 다시 슬래브에 초점을 맞춰 보기로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부분의 슬래브는 콘크리트의 압축 내력에 여유가 있으므로 인장 철근을 보강하면 안전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슬래브가 양단 고정일 경우 중앙 하단 보다는 단부 상단 철근이 더 많이 배근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공 중 상단 철근이 자리를 이탈하여 아래로 가라앉아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만약 중앙 하단 철근 량이라도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그런 대로 큰 문제없이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보강을 하여야 한다. 보강은 앞에 거론한대로 슬래브가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용상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즉 구부러지는 값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부러짐이 억제되면 휨 인장 균열이 자동적으로 멎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대상으로 삼는 균열은 물론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것 즉 그대로 방치하면 구조 내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과, 이미 구조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생성된 균열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고 보면 항간에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에폭시수지 주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위에 설명한 구조 균열이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구조 내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에폭시수지 등 고급 재료로 주입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구조 안전상 문

제가 있어서 생성된 어찌면 정상적인 휨 인장균열에 에폭시수지 등의 경질 재료를 주입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초과 하중 또는 온도 응력 등 다른 원인들과의 합성 작용에 의한 휨 내력 부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인장 측에 균열이 발생한 부위를 경질 재료로 짚싸게 채워 넣으면 앞의 초과 하중이나 온도가 원래대로 환원되어도 구조물이 원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휨 균열의 발생 원인이 슬래브가 구부러짐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곡면으로 구부러진 슬래브가 다시 평면이 되도록 펴주는 것이 필요한데 구부러져서 벌어진 틈을 메워주면 원래의 평면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집에서 기르는 어린 강아지가 뒷다리를 들고 뛰는 것이 애처로워 동물병원에 보냈더니 석고로 깁스를 하고 왔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다리를 한 달 동안이나 고정시킨 것이 원인이 되어 성장이 끝난 지금도 다리 하나가 짧고, 구부러진 병신이 되고 말았다. 후에 알게된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무식한 깁스 대신 탄력 있는 반 고정 방법을 사용하여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폭이 0.3mm 이상 되는 콘크리트의 균열은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라는 것이 표준화되었을 정도가 되었다. 갈라진 틈이 앞으로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콘크리트 모체보다 더 단단한 재료로 메워주겠다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겠으나, 균열 보수의 목적이 구조물 강도 저하를 막거나 강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에야 굳이 값비싼 재료를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철근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공기 차단이 되는 값싼 재료로 충전시키거나,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여 공기를 차단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바닥 판이 구부러지면 그 바닥을 기초로 삼아 벽돌을 쌓고 타일을 붙이는 등 경질 재료로 마감한 부위는 변형 흡수 능력이 부족하여 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바닥 마감도 돌을 비롯한 경질 재료가거나 액체방수 등일 때는 역시 파손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그 같은 하자를 방지하거나, 하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닥 판이 구부러지지 않고 평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되어 실무에 적용되는 슬래브 보강 방법 중 일반적이 것들은 슬래브 인장 측 표면에다 탄소 섬유나 철판을 부착하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위에 설명한 바대로 이미 구부러진 바닥 판이 더 이상 구부러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구부러진 상태의 바닥 판에다 탄소 섬유나 철판을 특별한 방법을 써서 강제로 팽팽하게 퍼주거나 잡아당기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생긴 대로, 어찌든 조금은 주름잡히거나 구부러진 그대로 부착하는 것이어서 기존 구조물이 추가 변형을 일으킨 후라야 비로소 팽팽해지면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끈으로 상자를 묶을 때 양단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묶지 않으면 느슨해지는 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수축폼 나무 상자를 묶는 강철 밴드는 전용 공구를 사용하여 잡아 늘리면서 콜립으로 정착하는 방법을 쓴다. 이것이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슬래브 보강 요령의 기본이 된다.

### 슬래브 보강의 기본 조건

슬래브 위에는 일반적으로 마감 재료를 부착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거용 건물에서는 온돌을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감 두께가 비교적 두껍다.

외국에서는 슬래브 콘크리트를 제물 마감하고 그 위에다 카펫을 까는 것이 흔한 일이나,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인지 슬래브를 거칠게 적당히 치고 나서 후에 시멘트 모르타르 레벨을 잡아 마감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조 내력이 부족한 슬래브를 보강할 때 슬래브 윗면 2-3cm 정도는 마음대로 활용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강선을 이용하여 슬래브를 보강하는 방법을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는 슬래브 양 단부 하단에 HE11 고하중용 볼트로 정착단을 부착하고 거기에서 강선을 끼워 유압실린더로 긴장 정착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정착단에 미리 뚫어둔 볼트 구멍에 맞춰서 슬래브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다 보면 운이 좋아야 한번에 끝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도중에 철근이 가로막고 있어서 난관에 부딪치는 일이 생기곤 했다. 드릴이 철근을 만나면 미끄러져서 바로 뚫어지지 않고 드릴 빔이 무뎠어진다. 때로는 정착단의 위치를 조금 이동시켜서 재 시도하거나, 내력이 더 큰 볼트로 교체해 보기도 하고, 강선의 긴장력이 다소 적어도 되는 경우에는 볼트 개수를 줄여도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구멍을 뚫을 때 도중에 철근을 만나도 직선으로 쉽게 뚫을 수 있는 특수 드릴비트를 사용할 경우 1개에 20,000원이 넘으며, 그도 구멍 한 개를 뚫고 나면 못 쓰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그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은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먼지가 나는 것이 어찌든 정상이지만, 기존 건물을 보강할 때는 용납되지 않는다.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건물을 사용하여야 할 때는 공사기간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영업 손실이 감소하게 된다.

가능하면 보강하고자 하는 슬래브가 더 이상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구부러진 것을 다소나마 원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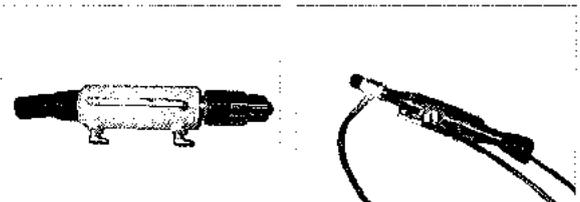
위와 같은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요구 조건에 만족한다고 해도 공사비가 너무 비싸면 채택할 수 없다는 것도 감안하여 기존 구조물 외부 인장 측에 강선을 정착시켜 긴장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한다.

### 정착단

초기의 강선 정착단은 철판을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그러나 중량이 커지고 가공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같은 규격의 정착단도 정확하게 동일한 모양으로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용접 열로 인하여 철판이 구부러지는 것을 보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작고 가벼운 동일 규격의 정착단을 빠른 시일에 값싸게 제작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상화 주철이나 주강을 사용하면 위 조건을 대체로 만족시킬 수 있다.

### 유압실린더

좁은 공간에서 강선을 긴장하면서 정착단에 장착하기 위하여는 유압실린더의 크기가 작고 중량이 가벼워야 하며, 정착 콘 부근에서는 꼬부라진 특수 어댑터가 필요하다. 또한 보강하고자 하는 슬래브의 스패너라야 별로 길지 않으므로 강선을 긴장하면서 쇄기의 톱날 같은 나사에 강선이 물리는 과정에서 미끄러지지 않거나, 최소화 하여 강선의 인장력 손실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건축구조 보강 전용 유압실린더를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 꼬부랑 유압실린더와 미끄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유압쇄기압입기를 제작 사용 중이다.



(그림 1) 건축구조보강 전용 유압실린더와 유압쇄기압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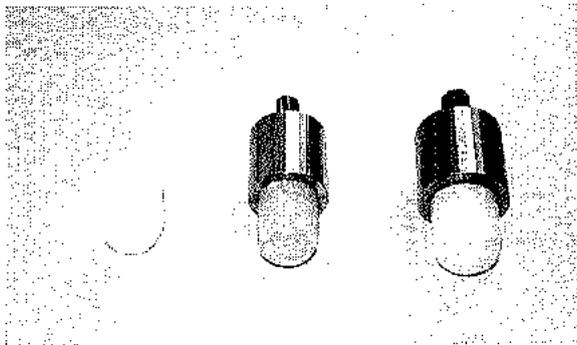
### 강선의 보호

강선을 자른 끝단을 보호하여 모양이 좋게 하고 녹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하면 부식 방지뿐만 아니라 내화 피복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보강에 적용한 와이어를 내화피복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내화구조 기준 자체가 화재 발생 후 구조물을 그대로 또는 마감재만 교체하여 사

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 슬래브만으로도 내화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요 구조물이어서 내화피복이 필수적일 때는 강선 주변에 철망을 붙이고 재래식 내화피복 뽕칠을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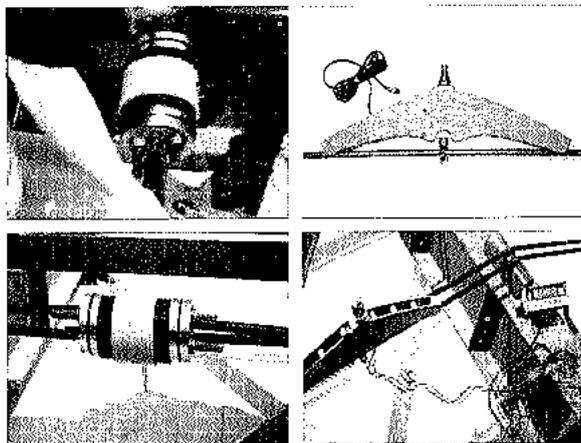
녹 방지를 위하여는 강선에 PVC 파이프를 씌우고 그 사이에 그리스를 주입한 것을 쓰거나 노출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에폭시 코팅된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2) 와이어메쉬 보호결

#### 강선의 긴장력 확인용 와이어텐션미터

유압실린더의 게이지를 읽으면서 강선을 긴장 정착한 후 시간이 흐르거나 정착단의 부실, 또는 정착콘크리트의 미끄러짐 손실과 강선 자체의 늘어남 등으로 인하여 긴장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변화이기는 하나, 슬래브가 원 상태로 복원함으로 인하여 강선의 긴장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같은 변화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로드셀을 부착하는 방법도 쓰고 있으나, 너무 많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건축 구조부재 보강 전용 와이어텐션미터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3) 로드셀과 와이어텐션미터

#### 슬래브 보강의 실제 예

이상 몇 가지 요구 조건과 해결 방안을 실무에 적용한 것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물론 지금도 끊임없이 보다 합리적인 공법을 개발 중이므로 다시 더 합리적인 공법으로 대체될 수도 있으나, 그런 대로 실무에 적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들 공법 모두는 이미 실용신안 등록과 특허로 등록이 된 것이므로 무단 복제를 하면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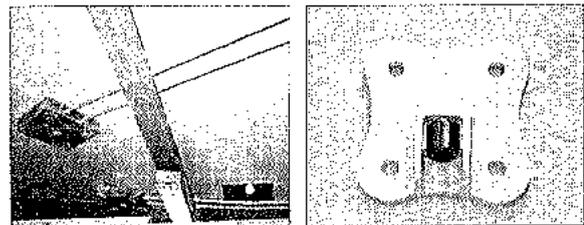
아래 슬래브 보강의 실제 예들은 각각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으며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골라서 사용하면 유리하다.

#### (1) 4각대와 고하중용 볼트를 활용한 슬래브 보강

3층 바닥 슬래브는 3층에서 바닥으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나 그 아래 2층에서는 천장으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3층 바닥 슬래브의 내력이 부족하여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2층과 3층 2개 층이 사용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건물이 백화점 등 하루를 못써도 손해가 큰 경우는 2층이나 3층 하나만 사용 제한을 받아도 보강 공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4각대를 정착단으로 삼아 고하중용 볼트로 부착하여 3층 슬래브를 보강하는 방법은 2층 천장 속에서 작업할 수 있어서 편하기는 하지만 앞에 설명한대로 여러 개의 고하중용 볼트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철근을 만나면 작업이 어려워지고 또한 드릴로 구멍을 뚫는 소리가 시끄러운 단점이 있다.

또한 정착단을 붙이는 부위 슬래브 콘크리트에 균열이 있거나 콘크리트 강도가 너무 약하면 불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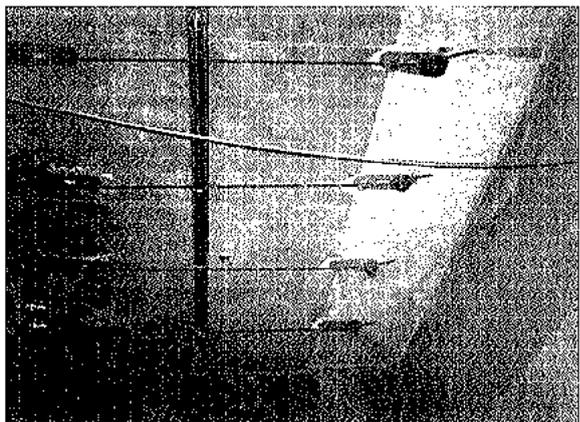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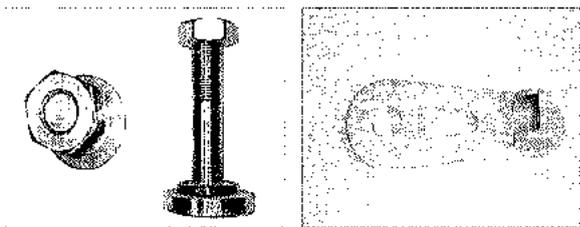
(그림 4) 4각대의 고하중용 볼트를 활용한 슬래브 보강

#### (2) 대구경 볼트와 슬리퍼를 사용하는 슬래브 보강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철근을 만나도 걱정이 없는 것이 코어 보링 방법이다. 가끔 철근이 잘려 나가면 위험하지 않은가 고 질문을 하지만 정착단을 부착하는 곳은 휨 모멘트 값이 크지 않은 위치이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러 개의 고하중용 볼트를 사용하는 대신 한 두 개의 대구경 볼트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가 있다. 코어 보링은 소리가 별로 크지 않으며, 볼트 머리와 와셔의 크기를 늘리면 하중 전달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볼트 머리 일부를 슬래브에 묻히도록 특수 시공하면 돌 마감된 바닥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닥에는 전화선을 빼내 쓰기 위하여 막아두는 신주 뚜껑처럼 장식용으로도 손색 없는 마감이 가능하다.

슬리퍼는 정착단의 이름으로 하나의 대구경 볼트로 부착하는 강선 정착단의 형태가 슬리퍼를 닮았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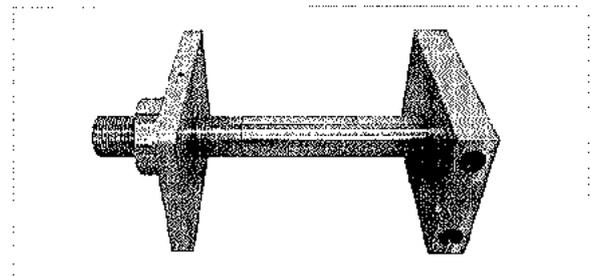


(그림 5) 대구경 볼트의 슬리퍼

### (3) 콘볼트를 활용한 슬래브 보강

지금까지 모든 강선 정착단은 별도의 철물 정착단을 슬래브에 볼트로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정착단과 볼트를 일체화한 효율적인 제품이 콘볼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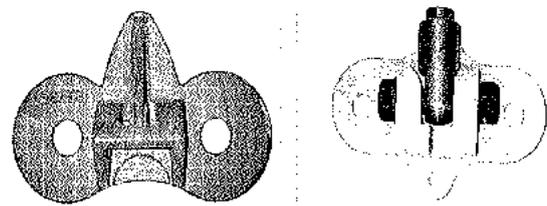
즉 대구경 볼트 머리를 원형이나, 6각, 8각 대신 4각형으로 만들고 거기에는 미리 강선을 끼워 정착할 수 있는 구멍과 쇠기 구멍을 뚫어둔 것이다. 강선을 슬래브의 상하면에서 동시에 긴장 정착할 필요가 있을 때는 4각형 와셔에도 볼트 머리와 마찬가지로 강선 구멍과 쇠기 구멍을 마련한다.



(그림 6) 콘볼트

### (4) 매부리나 변각 4각대를 활용한 슬래브 보강

강선을 슬래브 표면과 평행하지 않고 각도를 주면서 긴장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매부리는 각도가 크지 않고 고하중일 때 사용하고 각도가 클 때는 변각 4각대를 활용한다.



(그림 7) 매부리와 변각 4각대

### 슬래브와 보를 동시 보강하는 방법

꿩 먹고 알 먹는다라는 말이 있고, 도랑 치고 가지 잡는다고도 한다. 구조 안전 진단 결과 슬래브만 내력이 모자라고 보에는 여유가 있을 경우 위 방법으로 슬래브만 보강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으나, 슬래브와 보 모두가 모자라면 온통 보강하는 수고를 하여야 한다. 어떤 때는 아예 헐어버리고 다시 짓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 경우 아래 방법을 도입하면 좋다.

슬래브의 하중이 보를 타고 기둥으로 흘러가는 것이 힘의 경로이다. 그러나 슬래브가 주저앉을 것 같아 파이프 서포트로 받쳐 놓으면 안심이 된다. 공사 중 콘크리트의 양생이 불충분할 때 임시로 잭서포트를 고여 놓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것은 슬래브의 하중이 보나 기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아래로 이동하게 하여 슬래브는 물론 보와 기둥까지 간접 보강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방 가운데 추가로 기둥이 서는 것이다. 그래서 슬래브의 하중이 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둥으로 전달되게 하는 것이 본 보강 방법의 근본 요령이다. 다시 말하면 슬래브를 보강한 결과 보는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 보너스를 얻는 것이다.



# 공동주택에서의 지구단위계획

## District Units Plan of Apartment Complex

김영하 /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교수  
by Kim Young-Ha

###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련 근거 및 지정 대상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련근거는 도시계획법 제42조, 동 시행령 제40조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와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아파트 관련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으로는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지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건립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인 재건축의 경우, 준공업지역안의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시설물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그리고 재건축중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세부운영기준은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으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 인접필지를 추가하여 사업계획변경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이후 인접필지 추가 처리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세부운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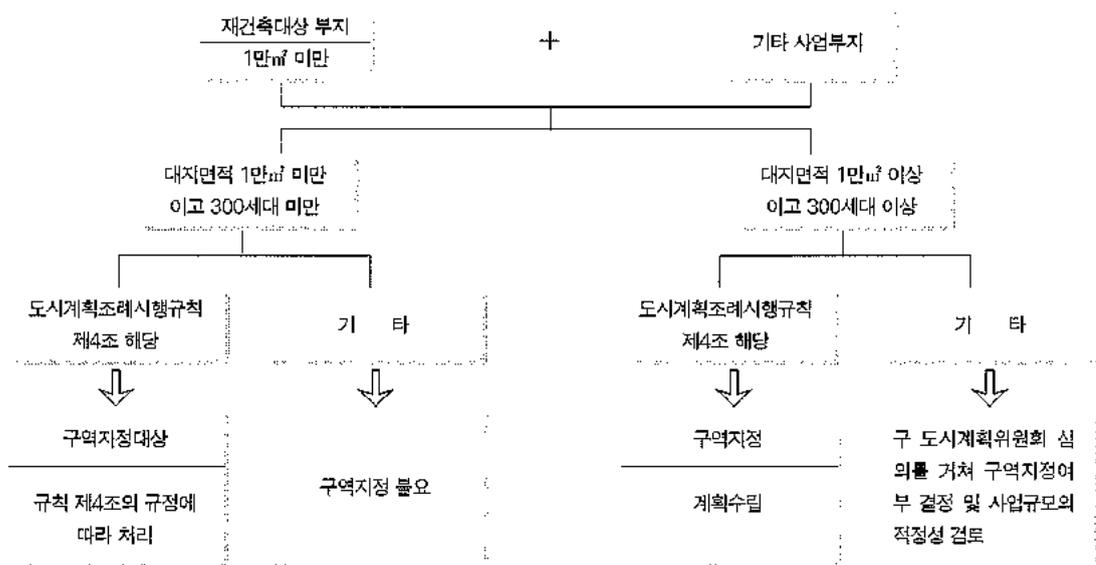


표 2. 인접필지 추가 처리기준

기 사업승인 대지	추 가 대 상 필 지	처 리 기 준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된 지역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아 사업승인된 지역 포함)	추가되는 필지 자체로서 구역지정 대상인 경우 - 조례시행규칙 제4조 해당 지역 - 대지면적 1만㎡이상 재건축	추가필지 면적의 합이 1만㎡이상인 경우 기 승인된 부분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추가필지 면적의 합이 1만㎡미만인 경우 구역지정을 하지 아니하되, 추가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기 사업승인된 용적을 이하로서 250%이하의 범위안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용적을 적용(총수는 기 사업승인된 총수 이하)
	추가되는 필지 자체로서 구역지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지정 불필요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이후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으로서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아니었으나 필지 추가로 구역지정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되는 필지면적의 합이 당초 사업계획승인된 대지면적의 10%이내	구역지정 여부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구역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기 사업승인된 용적을 이하로서 250%이하의 범위안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하는 용적을 적용(총수는 기 사업승인된 총수 이하)
	추가되는 필지면적의 합이 당초 사업계획승인된 대지면적의 10%초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한 경우	추가되는 면적과 무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또한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안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의 사례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상 획지계획 또는 건축을 용도계획에 공동주택 건축계획이 없었으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와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안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처리방향은 공동주택건립과 관련하여 신규로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을 인정하며 처리기준은 표 3과 같다.

###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내용

공동주택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내용은 용도지역의 세분화, 검토구역의 설정, 도시기반 시설과 공동개발, 건축물의 높이, 도시경관 그리고 환경성 검토

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용도지역의 세분화 기준은 서울시에서 작성한 별도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수립지침(2000.9.1)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둘째, 검토구역의 설정은 계획구역의 위상에 따라 상위계획에 의한 지역중심, 지구중심, 생활권중심 중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구역설정 범위를 달리 할 수 있으나, 아파트 건축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차적 영향권을 대상으로 하여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도시기반시설은 재건축 등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에 관해서만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 가능한 도시기반시설의 종류는 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 등 당해 지역의 지정 근거

표 3.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처리기준

구 분	처 리 기 준	비 고	
기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구역	필지합병을 통한 공동주택 건축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최대개발(최대대지)규모 이내의 변경인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여	
	재건축	건축계획심의회시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수립토록 유도 및 심의 조건부여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행정지도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향후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준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시행하도록 운영지침에 규정		

표 4.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

구 분	세 분 화 기 준
제1종 일 반 주 거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역사문화구역의 인접지, 공원 등에 인접한 양호한 주택지, 구릉지</li> <li>• 구릉지와 그 주변 하천/호수 주변지역으로 경관이 양호하여 중/고층 주택이 입지할 경우 경관훼손의 우려가 큰 지역</li> <li>• 전용주거지역 및 경관지구에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는 주택지</li> <li>•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li> <li>• 개발제한 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에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li> </ul>
제2종 일 반 주 거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가지 및 주변시가지의 주택지로서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환경악화, 자연경관의 저해 및 풍자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지역</li> <li>•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단, 녹지대 또는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li> <li>•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li> </ul>
제3종 일 반 주 거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으로 중/고층 주택지로서 정비가 완료되었거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li> <li>• 중/고층주택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상업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li> <li>• 간선도로 설치등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역사권 내에 포함된 지역</li> </ul>

- 기준-1  
가상검토구역 내부에 20m 이상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m 도로를 기준으로 구획된 블록을 기준으로 구획된 가구를 검토구역으로 설정한다.
- 기준-2  
계획구역의 가구 형태가 불규칙하여 기준-1에 의해 구획된 경계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가상검토구역에 인접한 도로의 안쪽 경계선으로 구획된 경계를 검토구역으로 설정한다.
- 기준-3  
계획구역이 각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상검토구역 내부에 포함된 구역 중 도로에 직접 면한 가구를 검토구역에 포함한다 (이 경우, 가구는 폭 6m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가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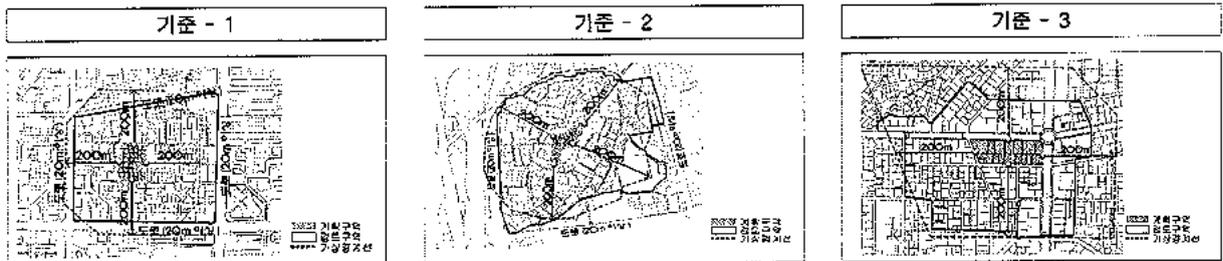


그림 1. 검토구역 적용예시

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제외),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학교(대학 제외),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수도, 종합의료시설로 나타낼 수 있다.

특히 도로의 확보 기준은 기본적으로 계획 구역내 건축되는 계획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도로 확보기준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또한 공원 확보 기준은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여 확보대상은 계획구역의 면적 30,000㎡ 이상이며, 설치기준은 단지면적의 5%와 세대당 2㎡중 큰 면적이상을 확보한다.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원칙은 공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린이공원 설치면적(최소1,500㎡) 이상으로 면적

이 확보되도록 한다. 계획구역 반경 250m내(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 유치거리)에 기존공원이 있거나, 도시계획 및 기타 관련계획에 의해 공원 및 녹지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공원면적이 1,500㎡ 이상인 경우, 초과하는 공원면적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은 되지는 않으나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공개공지 등의 경우 확보면적의 1/2을 공원 및 녹지면적으로 인정해 준다.

넷째, 공동개발의 적용원칙은 검토구역내 가구면적의 평균치(폭6m이상으로 둘러싸인 가구)와 서울시 일반주거지역내 가구의 평균 규모를 비교하여 큰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주거지역내 평균규모는 관련연구와 사례조사결과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6,000㎡를 표준가구규모로 적용한다.

다섯째, 건축물 높이 기준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7층 이하, 기타 지역은 12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높이계획기준을 적용한다.

여섯째, 도시경관의 적용기준은 원경과 중경 경관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구역 전체를 개략적인 매스모델 또는 합성사진으로 제출하며, 도시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검토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가 떨어진 조망점으로 부터 원경, 중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주요 조망대상은 표 5와 같으며 주요 조망대상별 권역 예시는 그림 2와 같다.

표 5. 주요 조망대상

관 련 기 준	주요조망대상	계 획 구 역 위 치
조망가로 및 공동주택 심의기준	북한산	온평구, 강북구, 도봉구
	북악산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남산	중구, 성동구, 용산구
	인왕산	종로구, 서대문구
	도봉산	도봉구
	수락산·불암산	노원구
	아차산	종량구, 광진구
	관악산	관악구
한강연접부 경관계획	대모산, 구룡산	강남구, 서초구
	우면산	서초구, 강남구
	한 강	한강 경계부로부터 500m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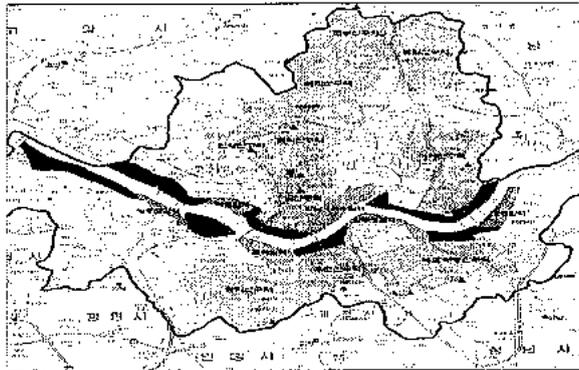


그림 2. 조망대상별 권역예시도

자료 :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관한 규칙, 한강경관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  
조망가로 기본계획에 의한 주요 조망대상과 조망권을 표현

일반적인 조망점 선정 기준의 경우 주로 중경과 원경에서의 도시경관 검토를 위한 사진합성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침에서 제시한 주요조망대상별 권역 예시도에서 지정한 조망권역내에 계획구역 포함여부를 확인 후 조망권역 포함시 조망대상을 선정하며, 별도의 조망대상 선정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선정사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조망점 선정의 일반 기준은 1) 계획구역이 블록의 가각부에 위치하는 경우 계획구역과 연결된 도로상 2개소 이상의 지점, 2) 한강변 및 주요 하천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한강 및 주요하천 건너편 및 한강 및 주요하천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서 각각 1개소 이상 지정, 3) 20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하는 경우 계획구역의 진입방향으로 2개소 이상으로 하며, 그림 3은 조망점 선정기준에 관한 예시도이다.

도시경관 기준은 크게 네가지 정도로 예시할 수 있으나 두가지만 설명하기로 한다. ① 인접대지 경계선과 직접 접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과 직접 접하는 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부분별 최고 높이는 12층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m를 지정하고, 13층 이상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 이내로 하

표 6. 이격거리 산정예시

구 분	건축물 높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비 고
12층 이하 부분(11층)	≒ 31m	6.0m	층고 2.7m
13층 이상 부분(15층)	≒ 42m	10.5m	적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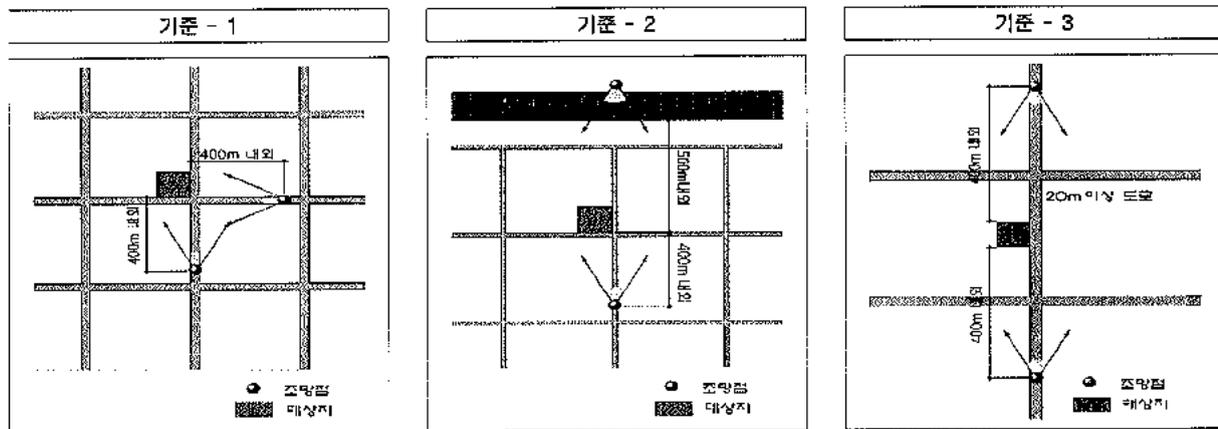


그림 3. 조망점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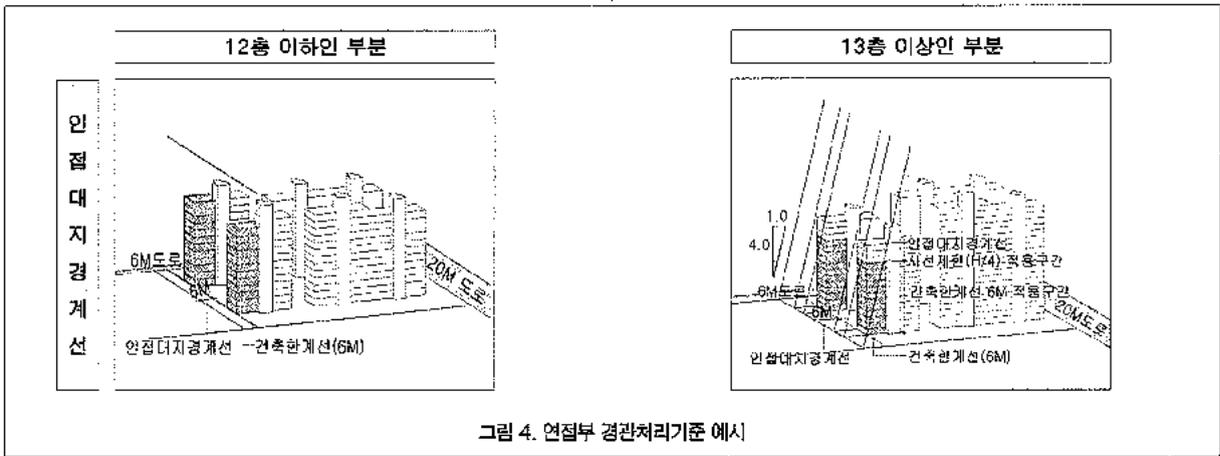


그림 4. 연결부 경관처리기준 예시

표 7. 사선제한 적용예시 - 4m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경계선 이격거리(m)	가장 넓은 도로가 8m인 경우			가장 넓은 도로가 20m인 경우		
	A	B	적용	A	B	적용
3	12	16.5	12.0	12	34.5	12.0
6	24	21.0	21.0	24	39.0	24.0
10	40	27.0	27.0	40	45.0	40.0

\* A : 당해 전면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 적용  
 B :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 적용

② 도로와 직접 접하는 경우는 도로 폭원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차등적용한다. 6m 이하의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건축물 각 부분의 최고높이는 당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4배 또는 전면도로(2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봄)의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의 1.5배 중 적은 높이 이하로 한다.

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정 이격거리 확보로 계획구역과 연결된 필지의 경관상 위압감을 해소한다.

일곱째, 환경성검토는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서울특별시, 2001.3.)에서 지정한 항목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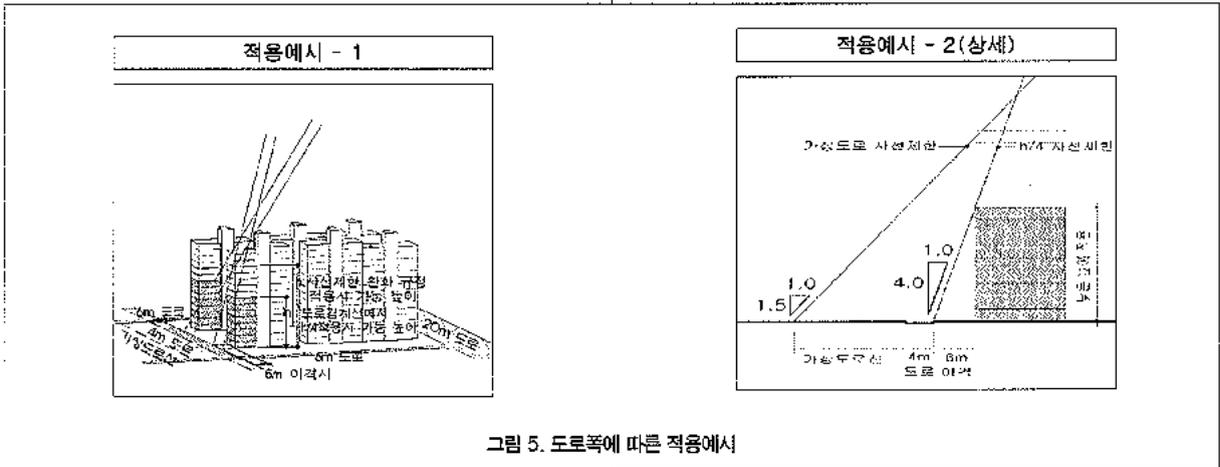


그림 5. 도로폭에 따른 적용예시

표 8. 환경성 검토 항목

구 분	내 용	주 요 내 용		지 환 적 용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기본 검토 항목	• 지구단위계획작성시 1차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항목 (관계전문가의 도움없이 비교적 쉽게 검토할 수 있는 항목)	토양포장, 우수유출, 지형변동, 질성토균형, 녹지변동, 녹지체계, 습지보전, 비오토펙변화	환경오염 대책(폐기물처리 등) 기존수목의 보존 및 이식	규제적지침으로 적용
세부 검토 항목	• 세부검토가 필요한 항목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항목)	습지보전, 우수유출	동/식물, 소음, 일조, 에너지, 바람	유도적지침으로 적용

표 9. 환경성 검토 항목별 검토방법

구분	검토방법	비고	
기본 검토 항목	토양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포장면적의 변화 : 토양포장을 산정 = 토양포장면적/계획구역면적</li> <li>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참조 : 토지이용도별 비옴 유형 검토</li> </ul>	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 참조
	우수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유출량의 변화 예측 - 토양포장면적의 증가 여부</li> <li>- 하수시설의 확충여부 등으로 판단</li> </ul>	-
	지형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구역내 지형변동여부 검토 - 계획구역 단면도 작성 (계획전/후 비교)</li> <li>- 절성로 면적 및 외부 유출량 비교</li> </ul>	-
	녹지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구역내 녹지면적의 변화 - 녹지면적의 변화 (계획전/후)</li> </ul>	-
	습지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구역내 습지오소 보전 방안 모색 - 습지, 하천, 연못, 개울, 논등의 현황</li> <li>- 습지계획시 표현</li> </ul>	습지가 있는 경우만 작성
	비옴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생태현황도상 계획구역내 비옴변화 서술</li> </ul>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참조
	폐기물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구역 개발완료시 건축폐기물 처리방안</li> </ul>	-
	기존수목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구역내 양호한 수목보전 및 이식방안</li> </ul>	-
세부 검토 항목	일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구역내 및 검토구역내 일조변화 내용 검토 - 용적률 및 층고변화로 대체 가능</li> </ul>	용적률 및 층고변화로 대체시 기본 검토항목에 포함
	바 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구역내외의 바람방향 검토 - 용적률, 건축물의 입지방향, 도로의 방향, 녹지의 조성 등으로 간접지표로 사용</li> </ul>	도면화하여 검토
	에 너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내용을 검토 - 계획세대수 변화량에 의한 총에너지량의 검토</li> <li>- 용적률의 변화, 자동차 통행도로의 변화</li> <li>- 규모에너지 소비시설의 입지여부</li> </ul>	-
	환경오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오염 발생요인 검토 - 필요항목만 작성하도록 함</li> <li>- 소음, 진동, 먼지 등</li> </ul>	-

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수 항목과 지구단위계획시 세부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여 지침적용의 객관화를 도모한다. 세분화된 검토항목은 표 8과 같으며, 항목별 검토방법은 표 9와 같다.

### 맺음말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고 주거환경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일반 공동주택단지의 계획요소와 기성시가지의 지구단위계획 규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운용상에서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은 대상지역이 규모 규제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공원과 녹지의 세분화 된 기준,

그리고 공동개발의 규제, 도로에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이 구체화되어 있다. 둘째,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제고하고 경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망점 선정 기준과 조망대상별 권역 예시도가 지정될 정도로 지침 자체가 구체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도로에 따른 규제내용이 4가지 타입으로 제시되어 있어 기존의 아파트 단지 계획보다는 구체적이고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개발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단지계획의 목표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에서도 환경에 관련된 항목별 검토 방법이 구체화 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항목 중 불투수성 포장재료, 녹지 공간의 집약도, 녹지 공간의 배치 등이 심의시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어 이러한 몇가지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

건축계소식 / 107

해외잡지동향 / 111

리포트(홍익국제건축교육포럼회) / 117

건축계소식 archi-net

서울건축사회,  
제9기 시민건축대학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서울건축사회에서는 제9기 시민건축대학을 우리협회 대강당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료(참가비 및 교재비 일체 없음)로 개설,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 입학식을 갖고 11월 18일까지 9강좌를 운영한다. 이 강좌는 지난 1994년도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에게 실생활에 밀접한 건축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강좌별로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개설한다.

문의: 02-581-5715

- ▷ 1강좌/ 10월 22일 14:15~15:30/  
건축사의 역할/류준수(건축사)
- ▷ 2강좌/ 10월 22일 15:45~16:45/  
건축행정의 이해/윤혁경(서울시청)
- ▷ 3강좌/ 10월 29일 13:30~  
15:00/재건축의 절차 및 방법/서민(건축사)
- ▷ 4강좌/ 10월 29일 15:15~16:45/  
건축물의 리모델링/조미란(대한주택공사)
- ▷ 5강좌/ 11월 5일 13:30~16:00/  
한국의 전통가옥 답사/홍대형(시립대 교수)
- ▷ 6강좌/ 11월 12일 13:30~15:00/  
친환경적 건축디자인/이규인(이주대 교수)
- ▷ 7강좌/ 11월 12일 15:15~16:45/  
건축물의 안전관리/김남희(서울대 교수)
- ▷ 8강좌/ 11월 18일 13:30~15:00/  
주택의 시공 및 재료/강석후(건축사)

▷ 9강좌/ 11월 18일 15:15~16:45/  
도시이야기(서울변천사)/지 순(건축사)

▷ 수료식/ 11월 18일 17:00

리모델링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앞으로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이 완화돼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의 상한이 40%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의 증·개축 등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로 등의 설치로 인해 기존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감안, 건축조례에 따라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연환경 및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가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상 건축물을 숙박시설·위락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설계·시공·감리업무 등의 경력에 있는 건축사보가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

울의 상한을 종전의 20% 이하에서 40%이하로 확대, 해당지역주민의 재산권 범위를 넓혔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청사,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 국민대, 목조건축디자인센터

10월 6일 개강

국민대학교 목조건축디자인센터에서 목조건축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3개부문 강좌를 실시한다.

문의: 02-2006-6212

[www.wooddesign.or.kr](http://www.wooddesign.or.kr)

▷제13기 목조건축 설계기술교실

- 교육대상: 미래의 목조건축 관련사업 계획자

- 교육기간: 12주

- 개강일시: 2001. 10. 6.(토)

▷제2기 목조주택 설계실기

- 교육대상: 자기집을 짓고자 설계를 필요로 하는 사람

- 교육기간: 10주

- 개강일시: 2001. 10. 22.(월)

▷제2기 대학생목조건축 동계학교

- 교육대상: 대학(원) 재학생(장학금 지원)

- 교육기간: 8주

- 개강일시: 2001. 12. 19.(수)

## 2002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11월 6일까지 원서접수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은 전문 건축가 양상을 위해 1995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건축대학원으로서 건축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두뇌한국 21 사업의 디자인특성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해외 연수의 특전을 준다.

▷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2년, 3년): 건축설계

- 박사과정: 계획, 도시환경, 역사·이론, 디지털건축

▷ 전형방법

- 석사과정: 특별·영어, 구술 일반·작품

집, 실기(개념스케치 및 해설), 구술

- 박사과정: 특별·서류, 구술 일반·영어, 전공, 구술

▷ 원서교부 및 접수/시험일/합격자발표

- 석사과정 특별전형: 9월 24일~28일 / 10월 11일 오전 10시 / 10월 16일

- 석사과정 일반전형: 10월 29일~11월 6일 / 11월 9일 오전 10시 / 11월 15일

- 박사과정: 10월 29일~11월 6일 / 11월 9일 오전 10시 / 11월 15일

▷ 제출서류

- 석사과정: 입학원서,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작품집(특별전형제외), 주민등록초본 1부, 사진(반명합판) 4매

- 박사과정: 입학원서, 졸업(예정)증명서 1부, 석사학위성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학업계획서 1부, 연구실적 또는 작품집 1부, 석사학위논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사진(반명합판) 4매

▷ 문의: 02-390-5245

<http://gsak.kyonggi.ac.kr>

## 제1회 성균관대학교 동경대학 학술대회

9월 20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에서

성균관대학교와 일본 동경대학의 학술교류협정체결기념으로 '제1회 성균관대학교 동경대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집(家)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9월 20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조병두국제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열려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발표자로는 임창복, 이승우, 이영훈, 최박광 성균관대 교수가 참여했다.

##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가을건축강좌

9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민건협(민족건축인협의회)에서는 민예총(민족예술인총연합)과 함께 문예아카데미 건축강좌를 기획,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개의 강좌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가을건축강좌는 '동서양 건축사 속의 명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9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11주간에 걸쳐 강의(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한다.

문의: 02-739-6854

- 9월 22일: 홍성용/가슴으로 느끼는 건축-종묘/MOI소장, 계원조형예술대학 겸임교수

- 10월 6일: 전봉희/조선 유교사회와 씨족마을-양동마을, 화화마을/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10월 13일: 이영범/동어반복의 공간사슬:도심속의 오아시스인가?-맥도날드/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 10월 20일: 임종업/젊은 꼬브(Le Corbusier)를 매혹시킨 은자의 작은 우주-체르토사 디 파비아/안하대 건축공학과
- 10월 27일: 현장수업/한국건축의 명작, 그 현장을 찾아/건축답사: 양상현(순천향대 건축학과)+민건협
- 11월 3일: 이은영/Pantheon과 천단의 유형론적 변용이 있기까지-슈투트가르트도서관, 남경도서관/한양대 건축공학과
- 11월 10일: 정기철/17세기 영녕전 중수논쟁/신문대 건축학과
- 11월 17일: 김경수/중국건축에 관한 몇가지 미학적 논의-환수산장/명지대 건축학부
- 11월 24일: 김봉렬/안동의 재사건축/한국종합예술학교
- 12월 1일: 이상현/프랭크게리의 디조니콘서트 홀과 불국사/이대 건축학과
- 12월 8일: 양상현/불가(佛家)의 이상세계와 존재의 여정-미항사, 불국사, 부석사, 범주사/순천향대 건축학과

## 2001이상건축상

맹모삼천지가(孟母三遷之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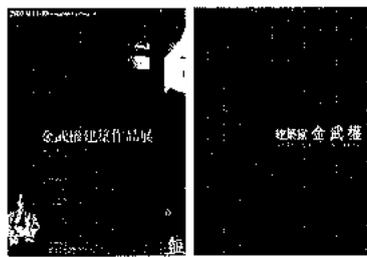
제8회 이상건축아이디어공모전이 맹모삼천지가(孟母三遷之家)라는 주제로 열린다.

- 심사위원: 유 걸(유걸건축연구소 대표), 김준성(범건축 소장)
- 코디네이터: 서 현(본지 편집위원,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 응모자격: 전국의 건축사무소 직원, 건축관련학과 학생, 1인 1작
- 접수기간: 2001년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 작품제출: 2002년 1월 16일부터 1월

- 18일까지
- 1차심사: 2002년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 접수비: 40,000원
- 제출요령: 1차 패널제출 - 도면표현: 패널에 자유롭게 표현(600mm×900mm 2매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조합가능하며, 10mm우드락에 부착 제출)
- 2차 프리젠테이션(모형제출가능)
- 문의: 02-549-5383, 051-462-4711, www.woos21.com

## 김무권 건축 작품전 개최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대구예술문화회관에서



전시포스터

작품집 표지

대구 김무권회원의 건축작품전이 지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대구예술문화회관 제10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전에는 30여년간 건축작업을 통해 만들어낸 40여개의 원공작품과 4개의 계획작품이 전시됐다. 김무권회원은 영남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1976년 현대건축을 개설해 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건축가협회 대구지회장을 역임하고,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와 대구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낙동강승전기념관, 대구건축사회관, 월성성당, 약목성당, 계명대 본관 및 정문, 경일대 본관, 영남대 제2도서관, 계명문화대학 예술관 등이 있다. 한편, 200여 페이지 분량의 건축가 김무권작품집을 발간했다.

##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8TH 작품 전시회

10월 23일(화)부터 27일(토)까지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에서는 오는 10월 23일(화)부터 10월 27일(토)까지 경원대학교 1동(공과대학) 6F, 7F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올 해로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가 발족한지 10년을 맞아 2001과 10주년이 갖는 시간의 의미를 토대로 공간이 갖는 시간성 그리고 각각의 사이트와 주제가 다른 작품들의 퍼즐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TIME PUZZLE이라는 주제로 8번째를 맞는다.

전시기간동안 특강과 10주년 행사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31-750-5379

www.kyungwon.ac.kr/diamond



## 제4회 건축백일장

10월 20일 토요일 시행 예정

제4회 건축백일장이 오는 10월 2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장 홀 및 공원 주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행사

는 인천 시민은 물론 타도시 시민에게도 오픈, 2인 이상 4인 이하 가족 및 친구 단위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주어지는 백일장의 주제에 맞는 집을 페퍼 및 페지재 등을 활용하여 공작하여 제출 후 공개 설명회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행사 프로그램:

- 오후 1시 오픈 및 참가가족 등록
- 오후 2시~5시 백일장 시행
- 오후 5시~6시 작품설명회(참가가족 대표자가 발표)
- 오후 6시~7시 뒷풀이 막간 공연
- 저녁 7시~8시 시상식 후 종료

• 시상내역:

- 1등 장원 1가족(상장 및 20만원 상품권)
- 2등 차상 2가족(상장 및 15만원 상품권)
- 3등 차하 5가족(상장 및 10만원 상품권)
- 4등 가작 10가족(상장 및 5만원 상품권)
- 5등 입선 20가족(상장 및 3만원 상품권)

• 문의: 02-519-6530

## 신간안내

### 건축가 양진석의 이야기가 있는 집

#### ◇ 건축가 양진석의 이야기가 있는 집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꿈과 생활, 러브하우스를 통해 소개되었던 인테리어 디자인 사례를 담고 그가 해왔던 건축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고 있다. 건축가가 자신의 일과 생활을 담아 일반 독자들을 찾아간다는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건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막막함이나 스스로를 드러내놓고 대중 앞에 선다는 모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누구보다 건축가로서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서 있는 저자는 나는 대중들 곁에 있는 건축가이고 싶다, 러브하우스 구경하기, 건물의 새로운 변신, 리모델링 이야기, 나의 꿈, 나의 생활이라는 큰 제목 아래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개인적 이야기부터 건축이야기까지 그의 생활과 생각을 풀어내고 있다.



양진석 지음/160쪽/9천5백원/(주)시공사 펴냄(02-3486-6007)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경남건축사회/(517-307) · 김동건축사회/(486-7475)
- 경북건축사회/(903-3425) · 감서건축사회/(681-6399)
- 권역건축사회/(884-0045) · 광주건축사회/(446-5244)
- 구로건축사회/(664-5828) · 공천건축사회/(593-1588)
- 노원건축사회/(938-578) · 도봉건축사회/(554-1253)
- 동대문건축사회/(923-3213) · 동각건축사회/(815-3026)
- 마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건축사회/(333-6411)
- 서초건축사회/(3474-6100) · 성동건축사회/(292-5855)
- 성북건축사회/(922-5117) · 송파건축사회/(423-6158)
- 양천건축사회/(62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332-2143)
- 용산건축사회/(717-6807) · 은평구건축사회/(886-1466)
- 종로건축사회/(737-3300) · 중구건축사회/(231-5745)
- 중랑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9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6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6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90
- 양양지역건축사회/(033)443-20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3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3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0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3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0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0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충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증추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시지역건축사회/(041)36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8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66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3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시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시지역건축사회/(063)852-379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3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3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삼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만경지역건축사회/(054)853-021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도함지역건축사회/(06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9-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하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933-5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0)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World Architecture  
 Architecture Review  
 Architecture  
 a+u  
 신건축

World Architecture

2001년 7/8월호

이 번 호 는 Ove Arub이 주최한 World Architecture 상에 대한 시상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역별, 시설별 수상작품을 선정후 전체 중 하나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대상은 핀란드의 젊은 건축그룹, Viiva Arkkitehtuuri의 베를린 주재 핀란드 대사관으로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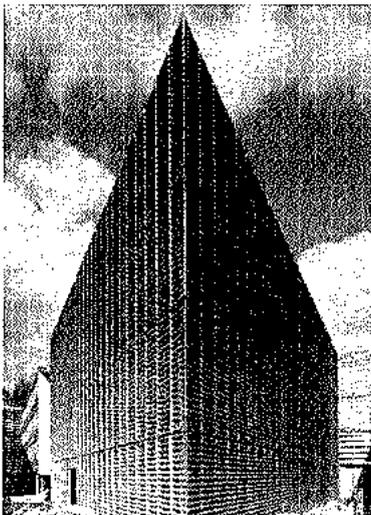


■ 최근 건축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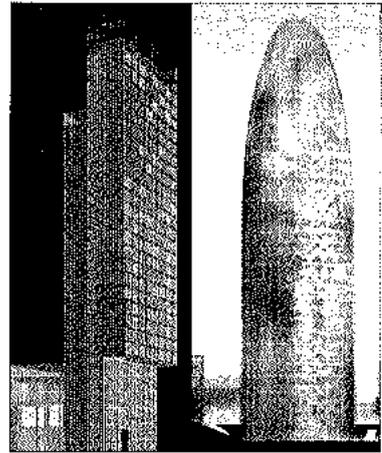
뉴욕 맨하탄에 Rem Koolhaas와 Herzog de Meuron이 공동으로 설계한 부티크 호텔, 바르셀로나의 관문이 될 두 개의 고층건물이 각각 Jean Nouvel과 Dominique Perrault에 의해 디자인 되었다. 올해말 착공예정이다.

■ 바르셀로나시 동쪽 지구 개발

바르셀로나시는 6개의 공공 건물을 위한 국제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였다. Zaha Hadid의 Plaza des Artes와 Oriol Bohigas, Federico Soriano의



Viiva Arkkitehtuuri의 베를린 주재 핀란드 대사관



바르셀로나시 동쪽 지구 개발

작품 등이 포함되며, Richard Rogers, Herzog de Meuron, MVRDV 등이 바르셀로나를 위한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으로부터 비롯된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연속선상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2004년 열리게 될 Universal Forum of Cultures는 이 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유치되었으며 이를 위해 공공, 민간자원을 결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올림픽 빌리지였던 도시의 동쪽 끝을 재개발하여 세계적인 이벤트의 장으로 재활용할 것이다. 이 포럼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흥하여 다수의 환경시설 및 동물원과 습지대를 연결하는 ECO-Leisure 개발 등이 이뤄졌다. 이러한 개발을 통하여 공장이전 등으로 인해 개발이 낙후되어있는 동쪽과 도시의 중심 기능이 몰려있는 서쪽의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홍콩의 현대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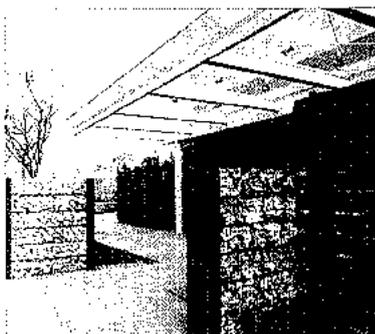
남동 아시아의 중심지로 부상하려는 홍콩의 야심찬 계획과 홍콩 Soho지구의 최신경향의 BAR 디자인을 소개하였다.

▶Architectural Services Department의 홍콩 습지대 공원 및 안내소  
 일반 건축가의 작품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건축과에 의해 지어진 이 건물의 기본 지침은 활용한 재료의 사용이었다. 낡은 석조건물에 사용되었던 화강석을 사용하는가 하면, 인근 해변에서

채취한 굴 껍질을 스틸 망에 채워넣어 외부 칸막이 벽을 만들었다. 주요 재료의 선택은 건물의 축에 따라 이뤄졌다. 동서측은 조적조로 지어졌으며, 물론 헐린 건물로부터 재활용한 벽돌이 사용되었다. 이와 수직으로 굴껍질로 채워진 벽이 가로지르고 있다. 환경에 대한 고려는 실내로의 자연광의 유입과 자연 환기로 이어진다. 이곳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10가지 교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홍콩 SoHo 지구의 상업공간 인테리어 소개

홍콩의 South of Hollywood Road는 외식업이 성행하고 있는 홍콩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여피들의 중심지인 인근 Lan Kwai Fung의 영향으로 이곳은 세계 각국의 요리와 술을 제공하는 장소들이 밀집하고 있다. K plus K의 Jah Bar는 이러한 다양성에 일조를 한 작품으로서 인터넷 중사자들을 위한 컴퓨터 및 바로 계획되었다. 프라스틱 형태와 Richard Serra의 조각에 영향을 받은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그러나 이곳이 완전히 유흥업으로 가득차진 않을 것이다. 주거자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갤러리, 안티크 샵, 판화공방 등 문화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고유의 개성을 추구하고 보존해나갈 지역주민과 도시계획가들은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Wong Tung & Partners의 홍콩, Dragon Air와 China National Aviation Corporation 본사가 소개되었다.



Architectural Services Department의 홍콩 송자다 공원 및 만나스

## Architectural Review

2001년 7월호

세계각국의 주택이 소개되었다. 각나라. 도시의 주택은 그곳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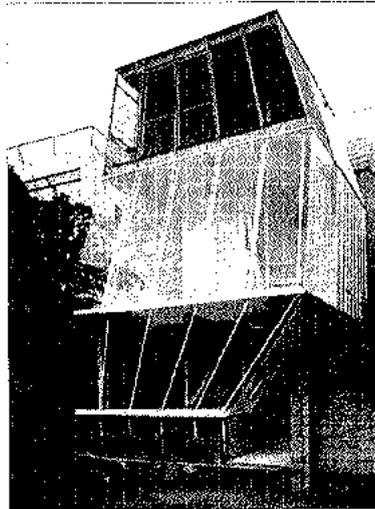
반영함을 이 특집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근대의 주거개념과 현대 주거개념의 변화 등에 관한 글이 소개되었다. 그밖에 런던 템즈강변의 조경계획이 실렸으며, 인테리어도 주거특집에 맞춰 런던 아파트 인테리어가 자세히 다뤄졌다.

### ■ 주거와 주택

▶Kazuyo Sejima & Associates의 동경 도시 주택

오늘날 작은 주택이 더욱 더 건축적 아이디어의 시험대상이 되고 있다. 동경만큼 이러한 시험들이 많이 이뤄지는 한편, 지가가 비싸고 번잡한 곳도 없을 것이다.

Kazuyo Sejima는 동경 아오야마지구의 골목길 끝에 미니어쳐 타워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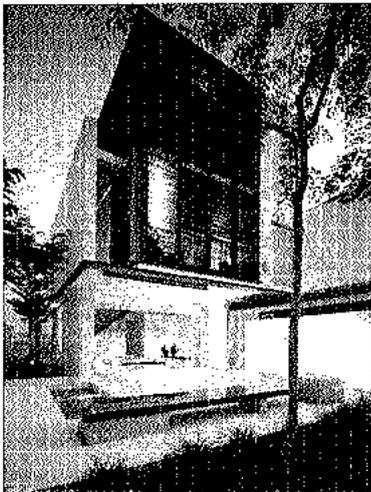
Kazuyo Sejima & Associates의 동경 도시 주택

들었다. 이 주택은 반투명한 유리와 아연도금한 철재의 외피로 감싸져 있다. 건축주는 그가 일하는 소니회사가 보이지 않도록 요구하여서 주택가를 향하는 동쪽을 제외하고는 불투명한 재료로 닫혀있다. 전체 건물은 중앙의 오픈된 샤프트와 그 안의 나선형계단이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건축가는 4개의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반지하층은 부모들의 공간이며, 1층은 손님을 위한 거실, 메자니언으로 된 두 번째 존은 가장 넓고 큰 공간으로서 부엌, 가족실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층은 멀리 신주쿠 타워와 동경중심부를 내다볼 수 있는 큰 옥실과 옥상정원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Sejima의 작품에서 외피는 다른 크기의 층사이를 감싸는 패브릭과 같이 다뤄지며 이 프로젝트에서도 그러한 개념은 지속된다.

▶Olavi Koponen의 핀란드 Kimoto, Langholmen 섬 소재 주택

핀란드의 남동쪽에 있는 군도들 중의 하나인 이 섬은 겨울에 바다가 부분적으로 얼어서 스키로도 갈 수 없고 배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따라서 여름에만 이용되는 별장으로서 지어졌다. 섬에 있기는 하나, 숲안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의 경치는 어렵듯이 보인다. 건축가가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자연과 인간과의 경계를 지우고자한 것이었다. 기존의 수목을 그대로 보존하는 한편 지붕만을 들어올려 실내공간을 한정함으로써 최대한 자연과 실내공간과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였다.

▶SCDA Architects의 싱가포르, 주택 대지가 한정된 싱가포르의 상황을 반영하듯 좁고 긴 형태의 3층 건물로 설계된 이 주택은 중국의 전통적인 상점 건축 양식을 그 원형으로 하고 있다. 1층에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해주는 듯한 실내 연못이 위치해 있으며, 2층부터는 실내 깊숙이 빛을 도입하기 위해 장방형의 매스 중간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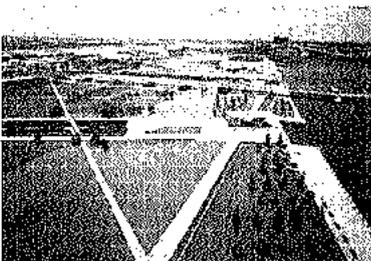
SOCA Architects의 싱가포르 주택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내 전반적으로 최근 유행하는 미니멀리스트 풍을 띄고 있으며, 주로 흰색을 사용하여 부족한 채광을 보완하고 있다.

그밖에 ▶Rick Joy의 아리조나 별장 ▶Harry Seidler & Associates의 오스트레일리아 Southern Highlands 소재 주택 ▶Lippmann Associates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주택 ▶Sidnam Petrone Gartner의 Harrison, 별장 ▶Peter Blundell Jones의 영국 Derbyshire, 주택 ▶Michalis Manidakis의 그리스 Mykonos, 주택 ▶Eleni Mantziou-Venetsanou의 그리스 Doris, 주택 ▶Brian Mackay-Lion의 캐나다 Nova Scotia, 주택 ▶Gerges Mauris의 파리, 주택 ▶Siren Architects의 핀란드 Vammala, 별장 등이 소개되었다.

■ 기타

▶런던 템즈 강변 공원화 프로젝트 ▶Simon Coder Associate Design의 런던 아파트 인테리어 디자인 2제 등이 자세히 다루졌다.



런던 템즈 강변 공원화 프로젝트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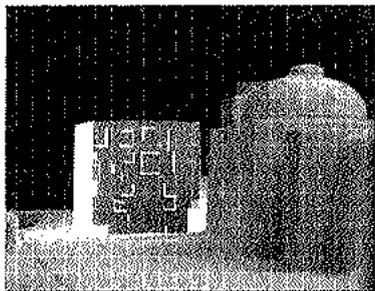
2001년 7월호

스티븐 홀의 최근작을 통해 그가 추구하고 있는 '4차원 입방체'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



어를 읽을 수 있었다. 모더니티의 미덕을 추구하고 있는 Allied Works Architecture의 주상 복합 건물, 그리고 Stanley Tigerman의 윤리적 건축에 대한 사고와 그의 최근작 시카고 보육원이 소개되었다.

■ 최근 건축계 이슈-스티븐 홀의 코넬대학 건축과 증축



스티븐 홀의 코넬대학 건축과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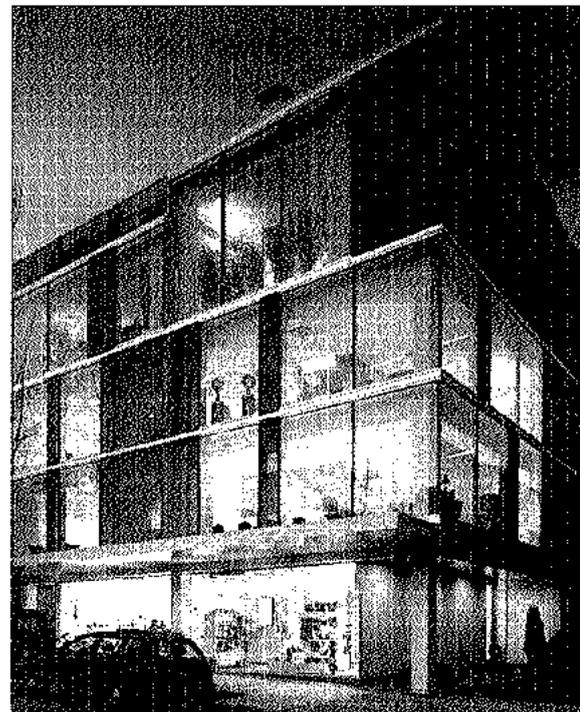
코넬대학 건축과 건물 증축 컴퍼티션에서, 유명 스타 건축가들, Morphosis, Peter Zumthor, Tod Williams Billie Tsien Association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스티븐 홀의 안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정육면체의 매스가 경사진 지형의 캠퍼스에 얹혀있는 이 안에서 스티븐 홀은 사각형의 상위차원이 직육면체이듯, 직육면체의 상위차원으로서의 '4차원 입방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차원의 도약은 시간이라는 요소의 개입으로 가능한 것이다. 3 3 구조로 된 건물의 중앙부에 2-3개층

높이의 리브룸이 위치하고 그 주변에 스튜디오들이 층층이 위치하고 있다. 3개의 리브룸이 5개층에 걸쳐 중앙부에 적층되어 있지만 슬라브의 오픈, 천창설치 등의 정교한 조작으로 최하위의 리브룸까지 자연광이 유입된다.

■ 근작소개

▶Allied Works Architecture의 포틀랜드, 주택

이 집의 건축가 Brad Cloepfil은 20 세기가 가기전에 20세기 건축을 짓기를 희망하였고, 이러한 꿈은 공식적인 21세기를 맞이 전에 이 프로젝트로 실현되었다. 저층부의 3개층은 Aveda 화장품의 스킨케어샵으로 임대 되었으며, 상층의 2개층은 건축주의 주택으로 디자인되었다. 이 작품은 석재 및 타일 사업을 하는 건축주의 소름으로서 다양한 석재 및 타일이 외장 및 내장재로 사용되었다. 주변에 이렇게 모던하고 단순한 형태의 건축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건물의 외피는 투명한 유리 와 스틸메쉬가 삼면을 이루고 있다. 회색빛의 인도산 석재가 나머지 한면을 덮고 있으며 이는 포틀랜드의 겨울 하



Allied Works Architecture의 포틀랜드, 주택

늘빛과 닮아 선택되었다.

▶Dominique Perrault의 베를린, 스포츠 센터

200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Perrault에게 의뢰된 스포츠 콤플렉스가 완공되었다. 벨로드롬과 수영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벨로드롬은 원형의 대형 트러스 지붕구조로서 16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466feet 지름의 지붕을 지지하고 있다. 이 거대 공간은 자전거 경주 뿐 아니라, 육상, 롤러스케이트 경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5800명에서 95000명까지 좌석의 레이아웃을 변경하여 수용할 수 있다. 수영장과 벨로드롬의 주변에는 약 450그루의 사과나무가 심어졌으며, 스프링으로 지지되는 메탈 외피와 지붕은 지면으로부터 약 1m정도만이 튀어졌다. Perrault는 반짝이는 판을 만들고자 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과수원속에 있는 원형과 정방형의 연못과 같은 이미지를 형상화 하고자 한 것이다.

그밖에 ▶Bernard Tschumi의 로잔느 지하철 역 및 버스 정류장 ▶Mathias Klotz의 칠레, Santiago, Altamira 학교 ▶Tigerman McCurry Architects의 사카고, 보육원 등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 ■ 기타

▶ 어느곳에서나 있을 수 있는 회사 Amazon.com과 같은 회사를 위한 창고형 업무공간은 이전의 상징적 외관의 상업, 업무건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건축적 마인드를 요구한다. 시장변화와 사업구도의 변화에 따라 물류의 중심이 되는 곳을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구적 개념의 건축과는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Amazon.com의 부동산 담당 디렉터는 앞으로 이러한 개조형 창고가 건축가들에게 큰 시장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 ▶낙후된 미 국립공원에 있는

관광 안내소 보존에 관한 문제 ▶예술가 James Casebere와 건축가 Glen Seator의 공동작업으로서, 필라델피아 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무의식의 건축' 전시 ▶건축디자인 그룹 Asymptote의 Hani Rashid와 Lise Anne Couture가 디자인한 사무기구 시스템 등이 다뤄졌다. (번역 / 전신영)

## a+u

2001년 8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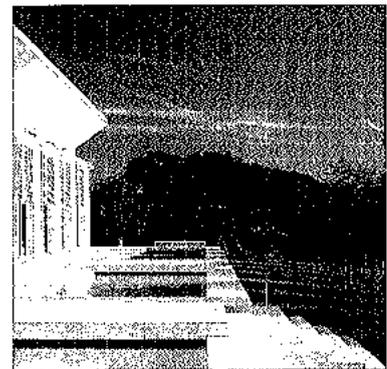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주택 13제'가 꾸며졌다. 최근 4-5년간 완성된 주택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유



렵과 미국의 작품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의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어 기존의 주택 특집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함께 실린 에세이는 특집에 소개된 작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리차드 노이트리의 주택작품에서 보여지는 가정환경의 심리학을 분석한 글이 실려 주택 특집의 구성에 일조하고 있다.

### ■ 특집: 주택 13제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 & Partners)의 노이헤바우어 하우스 (Neugebauer House, Naples, Florida 1995-1998) : 주택이 즐지어 있는 가운데 바다를 향한 1.5에이커의 대지에 마련된 이 주택은 무엇보다 더불란灣을 바라보는 남동쪽으로의 조망이 가장 중요하다. 도로에서 바다 쪽을 향해 가면서 점점 벌어지는 부채



노이헤바우어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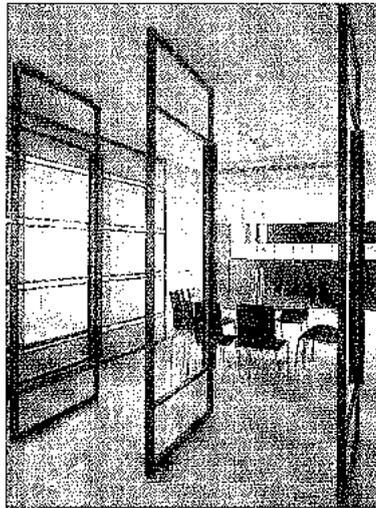
꼴 모양의 대지에 건물은 길게 대지를 가로지르며 도로에서 진입방향의 수직으로 놓임으로써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다. 이 기다란 주택은 4개의 층(layer)이 차례로 나타나며, 주택의 모든 부분이 이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있다. 건물로 다가서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층은 입구와 복도를 이루는 층으로 석회석의 벽에 트라이트를 통해 빛이 드는 넉넉한 공간이다. 이어서 각 침실에 딸린 화장실과 드레스룸, 주방 등이 자리잡고 있는 비교적 폐쇄적인 두 번째 층이 나타나고 이어서 바다를 향해 시원스레 개방된 세 번째 층이 침실과 거실, 식당으로 구성된다. 4번째 층은 건물과 평행하게 놓인 긴 수영장과 마당이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이 주택에서는 어느 침실에서나 수영장과 바다가 보이는 동일한 조건의 조망을 갖게 된다. 바다쪽을 향해 높게 들려진 캔틸레버 지붕은 이 주택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RCR 아란다 피젬 비랄타 아키텍츠 (RCR Aranda Piegem Vilalta Architects)의 파노라믹 하우스 (Panoramic House, Olot, Girona, Spain 2000) : 이 주택에서도 가장 중요시 된 점은 조망이었다. 그러나 그 조망은 보통의 주택에서 기대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넓게 펼쳐진 잔디밭과 그 너머로 내려다보이는 미술의 풍경을 지면의 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한 조망은 건물을 살짝 들어올려

마련된 반 지하층에서 확보되고 있다.

▶파우웰/클라인슈미트(Powell/Kleinschmidt)의 미스 반 데르 로에에 의한 펜트하우스(1956년)의 복구(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주, 2001년): 미스(Mies)가 설계한 시카고의 레이코 쇼어 드라이브 아파트 위에 마련된 이 펜트하우스는 건물 주위의 도로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그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미시건호의 경관을 3면에서 즐길 수 있는 이 펜트하우스의 첫 주인은 미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다던 허버트 그린월드(Herbert Greenwald)였으나 두 번째 주인이 여러 곳을 개조하는 불운한 운명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소개된 모습은 지금의 주인이 이를 원안대로 복구하기를 파우웰과 클라인슈미트에게 의뢰하여 완성된 것이다. 이 펜트하우스에 쓰인 알루미늄 커튼월은 아파트에 쓰인 철제 커튼월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대리석의 계단 발판이 놓여진 철제 계단과 세면대 앞 유리의 한가운데에 설치된 거울 등에서 미스의 세심한 디자인이 엿보인다.

▶시티 크래프트스/曾成德(CitiCrafts/C. David Tseng)의 주택 19911.cjw(대만 대중 2001):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아파트에서 상하로 인접한 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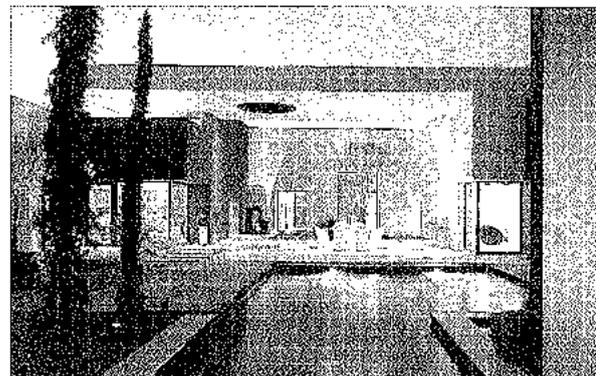


曾成德(CitiCrafts/C. David Tseng)의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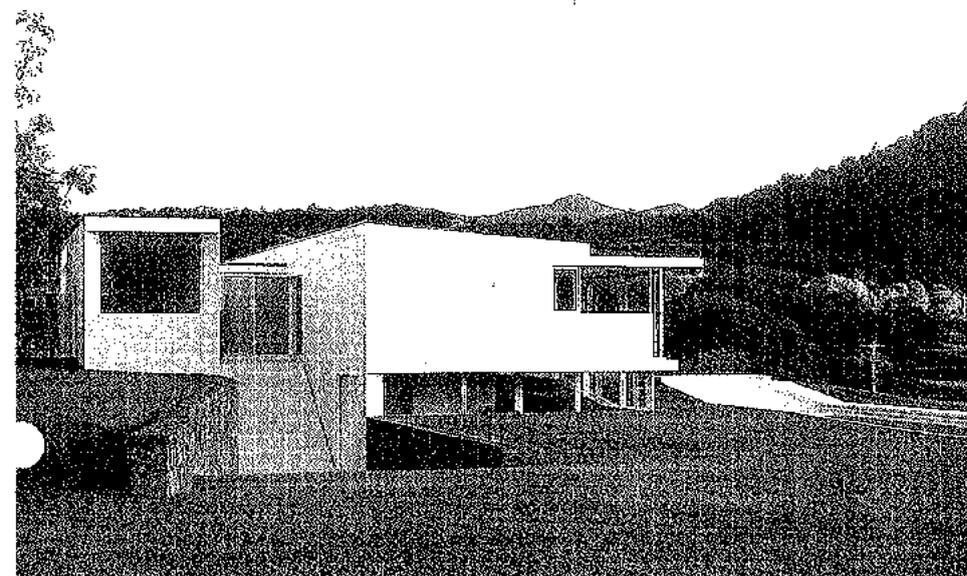
유니트를 하나로 합하여 2층 주호의 형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아래층 부분에는 갤러리, 미술품 보관창고, 거실, 주방, 식당, 객실 등을 복잡한 공간의 중첩을 통해 구성하고, 위층에는 가족실을 중심으로 침실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치하였다. 공간 구성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현관과 갤러리를 중심으로 마련된 오픈 스페이스. '두 개 층이 트여진 오픈스페이스는 가상의 외부가 되어 옥외공간이 옆에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건축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곳으로, 유니트의 4면 중 2면밖에 외기에 면하지 못하는 아파트 평면의 한계를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아이 웨이 웨이(Ai Wei Wei)의 아티스트를 위한 스튜디오(중국 북경, 1999): 건설과 수선에 걸린 시간이 불과 100일 밖에 안되는 이 주택의 외관은 창문도 거의 없이 침묵하는 벽으로 둘러싸인 상자의 모양이다. 이러한 외관은 마치 수형소의 외관을 연상시킬 만큼 무미건조하고 주택 내부의 분위기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모든 재료가 북경지방의 것이고 기본적인 재료의 적절한 사용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예술가를 위한 집이라는 설명이외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무성의한 작가의 설명이 이 주택의 생경함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주택의 내부를 보면 빛이 충만하고 있으며, 창문이 있어야 할 곳에 모두 충실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해 보이는 주택의 구성도 명쾌하면서도 변화 있는 공간구성을 보이고, 작가의 말대로 재료들의 복합적인 사용이 돋보인다. 특히 2층 서재에 마련된 화장실은 둘러싼 벽이 없이 노출되어 눈길을 끈다.

▶마크 맥(Mark Mack)의 토마스 하우스(Thomas House, 미국 라스베가스, 1999): 중정을 둘러싼 'ㄷ'형의 평면, 중간톤의 적, 청, 황의 벽면들과 연못, 수영장의 구성은 멕시코 건축가 루이스 바라간과 리콜레타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벽들과 건물로 둘러싸인 중정은 최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외부공간으로 마련되었고 이 중정이 침실을 거실과 자연스럽게 띄어 놓는 역학을 하고 있다.



마크 맥(Mark Mack)의 토마스 하우스



피노라익 하우스

## 신건축

2001년 8월호

이번 호에서는 렌초 피아노(Renzo Piano)의 메종 에르메스(Maison Hermes)'를 비롯하여 키



타가와라 아츠시(北川原温)건축도시연구소의 '기후현(岐阜縣)산림문화아카데미', 트라이포드 아키텍츠의 수족관, 코보타(窪田)건축아틀리에의 일본 엑스포 야마구치 2001 '야마구치현(山口縣)관' 등이 소개되었다. 의도적이진 않지만 신건축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목재 혹은 철·유리·콘크리트가 주조를 이루는 건물들이 번갈아가며 소개되는 경향이 있어왔는데 이번 호에서는 주로 목재가 쓰인 건물들이 소개되었다.

### ■ 작품

▶ 렌초 피아노의 '메종 에르메스(Maison Hermes)'  
외벽이 모두 유리블럭으로 이루어진 자상 11층 규모의 에르메스의 일본지사 건물이다. 2층부터 11층까지를 모두 유리블럭으로 균일하게 덮기 위해 유리블럭을 지지하는 구조체는 유리블럭 뒷면에 마련되었다. 또한 외관상 구조체 부분이 유리블럭을 통해 어둡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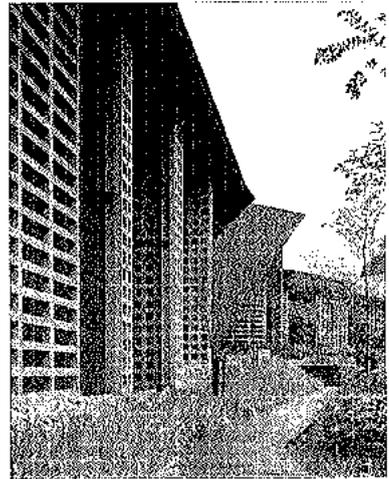
보여져 두드러지지 않도록 유리블럭과 구조체 사이에 반사판이 설치되었다. 피아노는 건축 스스로가 인테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 유리블럭 스킨을 고안해 냈으며,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한 레나 듀마(Rena Dumas)는 이 유리블럭과 에르메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돋보이게끔 내부공간의 조화를 이루어냈다.

▶ 키타가와라 아츠시(北川原温)건축도시연구소의 '기후현(岐阜縣)산림문화아카데미'

건물의 기능이 '산림문화' 아카데미인 점을 고려해 거대한 목조건물로 이루어졌다. 격자형으로 결구된 목재 벽과 천장을 받치는 장대한 스케일의 목구조는 인류에게 수 천년동안 유용하게 쓰여져 왔던 목재의 힘을 느끼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벽체에 사용된 격자는 '地獄の面格子'라 불리는 것으로 힘을 받았을 때 자체 복원력을 가져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구조이다.

▶ 트라이포드 아키텍츠의 야마나시현립(山梨縣立) 후지(富士)湧水里 수족관

건물의 주요 구조체는 철근 콘크리트이나 외벽과 바닥 등을 목재로 처리해 일반적인 수족관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수조와 목재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건물자체가 자연에 친숙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수족관 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타원형 루프모양의 수조 안에 계단실을 넣어 수조에 감싸인 채 계단을 오르내리며 수조안의 모습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한 것. 또 건물 주위를 둘러싸며



키타가와라 아츠시(北川原温)건축도시연구소의 '기후현(岐阜縣)산림문화아카데미'

구성된 연못도 외부보다 낮게 마련된 건물의 1층에서는 수조처럼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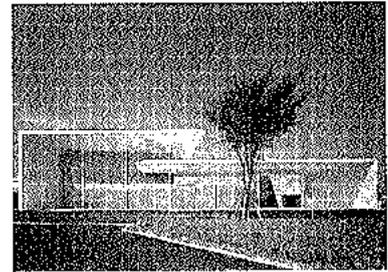
▶ 코보타(窪田)건축아틀리에의 일본 엑스포 야마구치 2001 '야마구치현(山口縣)관'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개최되는 2001년도 엑스포에서 야마구치현을 대표하는 전시관이다. 백색의 거대한 지붕들이 꺾이면서 지붕을 형성하고 그 끝을 칼날처럼 예리하게 처리되었다. 백색과 반사패널, 유리의 사용은 공간의 비물질화를 이루어내고, 극장, 대기실, 갤러리, 연못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성을 명확한 조형으로 구성함으로써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번역 / 강상훈)



트라이포드 아키텍츠의 야마나시현립(山梨縣立) 후지(富士)湧水里 수족관



일본 엑스포 야마구치 2001 '야마구치현(山口縣)관'

홍콩 국제 건축교육 토론회

Visiting Hong Kong'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hitectural Education

2001년 7월 5일부터 7일까지 홍콩의 킹스로드 979번지에 있는 타이쿠 플레이스 도르보셋 하우스내의 버티필드 회의장(Butterfield's 2F/., Dorset House, Tai Koo Place, 979 King's Road)에서 홍콩 건축사 협회(The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아카시아(ARCASIA) 그리고 영연방 건축사 협회(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가 주최한 21세기를 위한 건축 교육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아카시아 회원국 회원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호주, 우간다에서 약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토론회의 제목은 "21세기를 위한 건축교육의 새로운 틀 만들기" (Remaking the Framework of Architectural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로 새로운 세기를 향하여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건축사를 길러내는 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재고하자는 취지였다.

5일과 6일 양일동안 오전에는 각국에서 온 기조연설자들이 건축 교육 전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였고, 오후에는 다양한 교육의 실례를 중심으로 논문발표가 있었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홍콩의 건축대학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작품과 건축과 시설에 대한 참관이 있었다.

Day 1 Thursday, 5 July 2001

오전중에 발표된 기조연설과 논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조 연설자 : Alan Plattus 교수, Yale University, 미국  
기조연설제목 : Civic and Tectonic Humanism as a Framework for Architectural Education

• 1955년 역사가인 Hans Baron이 능동적인 정치적 참여와 전통적 학문의 부활이 1400년경 플로렌스에서 인본주의 속에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공공적 인본주의(civic humanism)라 말하였다. 이는 철학적 사고와 실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현대의 건축교육에서 나타나는 이론과 실무교육의 괴리현상을 피하고 양자를 통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축조적 인본주의(tectonic humanism)는 건축의 요소, 각각 요소의 결합, 재료등이 디자인과 건설기술의 관계에 의해 구축되어지고 철학, 수사학, 문학, 역사학과 같은 자유예술 혹은 전통적인 인본주의에 기초를 둔 연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이론과 실재가 유리된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회가 원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기조 연설자 : Susan Savage 교수,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호주  
기조연설제목 : The parable of a baby and her bathwater

• 건축은 실무를 전제로 하고, 이론을 기본으로 하는 전문 교육이다, 이것을 "아기"에 비유한다면 "목욕물"이란 아기가 놀 수 있는 시대를 말하며, 이 시대는 항상 변화하고 실무를 기초로

하는 수준 높은 전문교육은 건축교육의 미래에 열쇠를 제공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실무를 할 수 있는 건축가를 길러내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3. 기조 연설자 : Alexander Tzonis 교수, University of Technology of Delft, 네덜란드  
기조연설제목 : Architecture by Dialogue for Dialogue

• 대화와 협동을 통한 작업의 새로운 개념이 건축교육, 빌딩디자인 그리고 건축사 전문교육 모두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다.

1. 우리는 대화를 통한 디자인 방법 속에서 새로운 디자인 방법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복합문화성, 복합적인 정체성, 그리고 불변의 인식력에 대한 모습을 찾아야 한다. 2. 건축교육은 상호교류를 통한 창조적인 과정으로서 건축실무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와 필요를 갖기 위해 그리고 협동 작업하는 여러 사람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축을 위해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

현재의 건축교육에서는 이러한 급박한 요구를 모르고 있고 대화를 통한 작업이 가져다주는 소중한 기회에 대하여도 모르고 있다.

4. 기조 연설자 : Zhou Chang, 중국건축사협회회장, 중국  
기 조 연 설 제 목 : The Professional Architectural Degree System in China

• 중국건축사 교육제도와 그 역사에 대한 내용

중국건축사 교육제도의 문제점

1. 전문성의 결여  
인증제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램에 따라다 보면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리기가 힘들다. 학교에서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증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2. 교육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회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3. 중국에서는 경험이 많은 좋은 선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육에 어려움이 많고 여전히 사회의 요구와 건축교육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 4. 건축사 등록제도와 건축 전문 교육제도 사이의 불충분한 연계.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식 시험제도와 유럽식 자격제도 두 가지 방향 중에 현재의 중국은 시험제도가 더 합리적이다.

오후에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제목 : Problem Based Learning  
발 표 자 : Bong Wah Sang 교수, the Hong Kong University, 홍콩

시공기술과 재료에 대한 교육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해결 학습법이 유용하다. 건물 유형을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문제를 분류 분석하고 이어서 주제에 관련된 통합적 건설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해결책을 도출해낸다. 문제 원인의 규명, 문제 개선 작업 그리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술과 디자인에서 대안을 찾는다.

2. 논문제목 : Impact of Social change of Architectural Education  
발 표 자 : Ujwala Shirish Chakradeo 교수, L.A.D. College for Woman Nagpur, 인도

1947년 독립 후부터 인도의 교육정

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인도의 건축교육은 약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RIBA의 제도에 근접하게 발전이 되었고, 1972년 Council of Architecture와 All India Board of Studies in Architecture가 만들어져 건축교육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1986년까지 36개 학교가 세워졌다. 1987년 All India Council for Technical Education이 AICTE아래 만들어져 건축을 포함한 기술교육을 관장한다. 현재 102개의 건축학교가 있고 향후 사립학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립학교는 이중등록금 제도가 시행되는데 같은 주에서 지원하거나 장학생은 싼값의 등록금을 내고 일반 학생은 비싼 등록금을 낸다.

- 학교 교육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3. 논문제목 : Contemporary Roles of Architectural Professionals and Their Education  
발 표 자 : Edwin H W CHAN 교수, the Hong Kong University, 홍콩

건축직업인의 현재 문제점

1. 직업정신의 붕괴와 직업위상의 추락
2. 건축에서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새로운 영역의 출현
3. 상업성과 경쟁력의 중요도 증가
4. 직업의 정체성 붕괴.
5. 직업교육에서 타전공과의 연계 교육 필요.

건축사의 역할과 교육에 대한 권고

- 다 전공교육의 강조
- 전공의 특성화
- 타 영역의 탐구를 위한 장기전략 수립

- 상업적 현실에 대한 적응
- 한 차원 높은 직업의 비전 형성
- 국제 경쟁력 고양
- 프로젝트와 디자인 경영에 대한 영역 확장
- 경영, 공학과 같은 다양한 과목을 추가하여 복합적인 프로젝트 해결 능력을 키움

4. 논문제목 : Innovative in Architectural Education in UK  
발 표 자 : Robert Fowels 교수, Cardiff University, 영국

- 학습, 교육 지원망(The Learning and Teaching Support Network) LTSN 은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 아일랜드 이상 4개의 고등교육 기금에 의해 설립되었고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영국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들이 기초가 되어 24개 주제별 센터망이 학습과 교육에 대한 정보와 주제별전문가를 공급한다.
- Generic Center 에서는 서로 관련된 주제내의 학습과 교육 관심사에 대한 전문가의 정보를 제공한다.
-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York 내의 학습, 교육학회내에 집행부를 둔다.
- 공동 정보 위원회 (Joint Information System Commit) 에서 설립한 기술센터가 고등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위하여 발전시키고 투자한다.

LTSN 의 전략적 목표(요약) :

1. 학습, 교육 실무에 대한 일차적 정보제공
2. 좋은 학습, 교육의 실행과 혁신을 고무하고, 전달하며 증대한다.
3.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네트워크를 유지 발전시킨다.

4. LTSN의 자료가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널리 사용되도록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LTSN을 만든다.
5. 학습, 교육에 대한 폭넓은 교류를 갖는다.
6. 국가정책에 관련된 학습, 교육법의 전파를 위한 네트워크를 발전시킨다.
7. 교육, 학습방법의 국제적인 전망에 대한 공급.

**건조환경 교육센터(The Centre for Education in the Built Environment)**

**CEBE 목표**

영국 건조환경 고등교육기관에 학습, 교육 지원망(LTSN)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한다. 국내외의 교육시장에서 일어나는 도전에 대한 적응을 돕고 이를 위해서 학문의 기본과 품질, 전문성과 중요도,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킨다.

**CEBE의 6가지 건축교육에 대한 주제**

1. 학습, 교육 능력, 교육 연구, 현실적인 실습
2. 교과과정 디자인, 발전 그리고 문서화
3. 평가전략
4. 신기술
5. 실무위주 교육, 연구위주 교육, 연구와 교육의 균형 잡기
6. 고등교육 밖에서의 건조환경에 대한 요구.

5. 논문 제목 : International Transferability of Architectural Qualification  
 발표자 : Gordon Holden 교수,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호주

세계화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건축자격제도와 건축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A" 단계- 교육 자격제도**

건축교육이 UIA/UNESCO 의 기준에 기본을 두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내에서의 평가는 각국이 자체적인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인증을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교육은 UIA가 주관하여 인증을 한다.

**"B" 단계 실무 자격제도**

졸업건축사 - 인증된 학교를 졸업한자  
 국내건축사 - 국내의 일만 할 수 있는 건축사로 국내 인증제에 의해 자격 취득한 사람.

국제 건축사 - 국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축사로 국제 인증제에 의해 자격 취득한 사람.

6. 논문 제목 : Diversifying Architectural Practice  
 발표자 : Desley Luscombe 교수,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UNSW 대학의 건축교육에 대한 3가지 전략**

1. 실무와 이론의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통합된 교육을 시켜야 한다.
2. 건축실무에서 도출되는 문제로부터 발전된 교육모델을 만든다.
3. 다양한 응용실무에 대한 전략 : 도제식의 반복 교육 보다 응용교육에 의한 자기 스타일 형성 교육.

7. 논문 제목 : Architectural Education for 21st Century  
 발표자 : Bernard LIM 교수,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홍콩

2000년 건축의 해 여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 전공인을 위한 "건축 탐험과 건조환경 프로그램 디자인하기" 행사에 대한 발표다

건축과 교수, 학생들이 자원봉사하였고 약 60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초등, 중등학생을 위한 디자인 캠프로서 사람 몸으로 빌딩모습 만들기, 홍콩 문화발견하기 등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결과물에 대하여 전시회를 하였고 책자를 만들어 냈다.

목적은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 건축과 건조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의 디자인과 창조적 행위가 건조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Day 2 Friday, 6 July 2001**

7월 6일 둘째날에 열린 회의는 홍콩 도심에 강타한 태풍의 경계 발령중에 진행되었다. 홍콩 시내의 모든 건물들이 폐쇄되고 모든 교통수단이 마비되었지만 건축인들의 회의는 중단되지 않았다. 다만 오전 기초발표 예정이던 말레이시아의 Ken Yeang씨가 늦게 도착하였다. 기초논문 발표 시작 전에는 어제 발표된 내용들에 대한 Kyran Sze 회의의장의 간단한 Review가 있었다.

오전중에 발표된 기초연설과 논문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설자 : Ralph Lerner 교수, Princeton University, 미국

Lerner 교수는 프린스턴 건축대학의 교육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총 학생수 90여명(학·석사과정 75명, 박사과정 15명)의 적은 규모이지만 학교의 전통과 충실한 건축교육방향을 강조하였다. 1832년에 설립된 프

린스턴 건축대학의 교육은 역사, 환경 문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예술과 기술습득 교육, 시각예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화/국제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도시문제에 관한 연구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건축대학은 예술대학, 고고학과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학생들 중에는 외국학생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Research Project 진행과정에서 각 나라의 사례 및 문화적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했다. 현재 프린스턴 대학은 미국내 타 대학들뿐만 아니라 영국, 중국, 스페인, 캐나다 등의 외국대학들과 교환학생, 교환교수제도를 채택하고 상호학점 인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의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

2. 기조연설자 : Peter Steffian, Chairman, Steffian Bradley Associates Inc. 미국

• Peter Steffian씨는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는 건축가 입장에서 미래의 건축교육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현재 BAS(Boston Architecture Society)에서 건축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NCARB의 임원이기도 하다.

그는 미래의 건축교육을 위해서는 세계화를 목표로 수준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설립돼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새로운 건축교육제도는 교육과 실무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어야 하며, 철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뛰어난 디자인 능력과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 배출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건축사 협회에 의하여 서로의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고, 유럽과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국제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

준이 필요하며, 각 나라들마다 건축에 대한 법규와 규정들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통합된 규정(교육수준, 시험기준, Internship, Training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기조연설자 : Liu Thai-Ker, Director, RSP 건축사무소 싱가포르

• Liu Thai-Ker씨도 다른 기조발표자와 같이 실무를 하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다년간 설계 교육강사로 재임하였던 건축가이다. 그는 학교와 설계사무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자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현재 싱가포르의 학교와 건축사무소에서 연구보다는 실무에 치중한 점을 비판하였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들은 서구와 달리 과밀화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어 도시환경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건축교육이 자연과 인간중심이어야 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건축설계시 기능과 미적 치중보다는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고층건축물의 환경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했다. 더불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참고로 싱가포르에 단 하나뿐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건축대학에 대해 소개하였다. 현재 싱가포르 건축대학은 5년제로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생수 500명에 정교수 35명과 겸임교수 및 강사들이 있다. 싱가포르 건축대학도 국제적인 추세에 걸맞게 대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과정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2. 기조연설자 : Dr.Ken Yeang.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 회장, 말레이시아

• 태풍 때문에 오후에 도착한 Ken Yeang씨는 생태건축설계로 유명한 건축가이다. 그는 주로 자신이 설계한 건물들을 사례로 하여 대형건물들의 환경 개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생태건축의 목적은 건축이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했으며 이는 건축물에 기계적인 HVAC 시스템 사용을 억제하고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의존하는 건물설계로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건축가들은 저층건물을 위한 수평적 조경뿐 아니라 고층건물들을 위한 수직적 조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황폐화 되어가는 도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ecosystem 개념이 제시되었다.

오후에는 논문발표가 있었으며 논문 발표 직전에는 뉴질랜드의 John Surtherland 씨가 영연방국가들(CAA 회원국)의 건축협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The CAA "Red Book" 2000에 대하여 설명(선전)하였다. "Red Book"은 영연방국가간의 건축사등록, 인증 및 건축사 인정에 대한 규정들이 실린 책이다. 다음은 오후에 발표된 논문들의 내용이다.

1. 논문제목 : Mind the Gap  
발표자 : Clare Newton 교수, The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

Clare Newton교수는 학교교육과 실무사이에 큰 격차가 있어왔다고 보고 건축교육은 학생들을 실무로 연결시켜 주는 가교역할을 함으로서 교육과 실무사이의 Gap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시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자인 초기부터 건물의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교육시킨 사례를 소개하였다. 학교에서의 건축디자인 교육 및 실무교육 개념을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하였다.

- 1) 실용에 중점을 두고
- 2) 도시적, 건축적 디테일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하며
- 3) 실무에 직결되는 교육이 필요하며
- 4) 교수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 5) 학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교육의 전략이 필요하다.

2. 논문제목 : New Directions In University Education - Architecture as Pioneer  
 발 표 자 : Antony Redford 교수, Susan Shannon 교수, Gerry Mullins 교수, Adelaide University, 호주

3인 공동연구논문인 본 논문은 Adelaide 대학의 Case Study로서 2000년도에 호주 교육상을 받았다. Antony Redford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건축교육방식에 대한 내용이 었다. 현재 Adelaide 건축 및 조경대학은 전교생 300여명의 비교적 소규모 대학이며 건축교육 뿐만 아니라 환경 Design 또는 문화적인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진취적이고 포괄적인 교육방식의 개선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중심의 교육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과정개선에 참여하도록 유도
- 2) 세계화에 초점을 둔 교육
- 3)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각종 정보를 습득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 4) 교수들의 연구 Project에 학생들의 적극참여
- 5) 재학생들과 건축실무자들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3. 논문 제목 : Redesigning Architectural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발 표 자 : Grace C. Ramos 교수, The University of Philippines 건축대학, 필리핀

Grace C. Ramos 교수는 필리핀 건축대학의 교육상황과 현재 추진중인 건축교육제도 개선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필리핀 건축대학은 현재 5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Ramos교수는 교육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문화에 적응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환경문제와 도시문제, 문화재 보전등에 대한 건축가들의 시대적 책임을 역설했고, 이에 대비하여 교과과정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수들은 가르치는 것과 연구는 상호 연관되어야 하며, 세계화에 대비하여 민족적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역설하였다.

그는 결론으로서 건축교과과정은 사회문화를 대변하고 보다 나은 물리적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사고력 높은 건축가들을 길러 내는데 그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4. 논문제목 : Can a Visually Impaired Person become an Architect?  
 발 표 자 : John Wakefield, International Coordinator, Faculty of Health & Environment,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 영국

John Wakefield 교수는 시각장애자들이 건축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문을 통하여 피력하였다. Bristol 대학에서 몇 년에 걸쳐 1주일간 36시간의 순회식 단기 설계과정을 시각장애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1980

년대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은 강의와 현장방문, 실습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살 주택, 빌딩등을 설계하여 도면과 모형을 함께 제출한다. 그들의 설계는 건물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 요소들(안전, 외관등)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Bristol 대학의 1학년 설계에 준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한다. 그는 몇차례에 걸쳐 시도된 설계코스 및 설계 결과물등을 소개하였다.

5. 논문제목 : Professional Exodus? The shifting Geography of Architectural Work  
 발 표 자 : Paolo Tombesi 교수, The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

Tombesi 교수는 각국의 설계시장을 조사하였고 이를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사무실임대료, 시간당 임금, 간접비등의 통계에 의한 분석으로 세계 건축설계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지리학적인 측면으로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설계비 산정방식이 사무실의 역량과 조적여건에 맞추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리적인 요인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임금수준 및 국민소득의 차이와 더불어 새로운 통신수단과 정보교환기술에 의해서 건축설계의 거리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진 상태다. 컴퓨터는 표준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설계작업과 빠른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여 국가간 교대근무로 24시간 작업이 가능해졌다.

이 결과로 고임금 국가들은 저임금 국가들에게 작업을 의뢰함으로써 작업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작업형태는 기술경쟁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현상이 도래될 수 있고, 고임금 국가들은 많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건물 디자인의 획일화, 새로운 국제주의 탄생, 그리고 국제성을 띤 디자인이 지역

의 전통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세계화에 수반되는 일련의 현상들이 다방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각 나라들의 설계수준은 상당히 높아가고 있음에도 작업의 분산으로 질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국가간 작업의 분업은 건축설계시장이 겪어야 할 현실이지만 각국의 건축계는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Discussion Forum

기조연설과 논문발표가 끝난 후 2일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아시아의 건축교육은 발전된 서구의 교육과 많은 차이가 있다.
- 2) Teaching 위주의 교육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 3)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선된 교육풍토가 요구되고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4) 건축교육과정이 환경문제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
- 5) 몇 개의 소규모 대학들이 오히려 최고 수준의 건축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대학들간의 교류가 절실하다.
- 6) 모든 토론자들과 참석자들은 좋은 교육이 절실한 때이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음

### 회의참관후기

21세기 건축교육에 중점을 둔 이번 국제회의는 교수들과 건축가들의 열띤 토론 마당이었다. 설계시장 개방으로 노동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해 질수 있는 시점을 눈앞에 두고 각국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이번 회의는 건축 교육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들이 순수하고 솔직하게 제시되었다. 회의중 각국의 참석자들은 자국의 건축교육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였으며 건축교육제도가 새로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견해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WTO의 회원국인 한국도 건축교육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차 건축사 상호 인증제도가 가동될 경우 국내설계시장개방과 건축사 활동영역을 국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제도 및 건축교육제도의 선진화·국제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새로운 제도는 건축교육단계부터 국제수준의 교육제도에 걸맞은 건축 전문가 교육(Professional Education) 시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새로운 학제선택으로 학생들이 실무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우리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Tour to the University of Hong Kong &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7월 6일 금요일에 모든 회의일정을 마쳤으며 7월 7일 토요일에는 홍콩에 있는 대학들의 견학이 있었다. 오전에는 the University of Hong Kong을 방문하였으며 오후에는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을 방문하였다. 태풍의 영향으로 간혹 진비가 내리는 찜푸린 날씨에 방문단은 산중턱에 위치한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ampus에 도착하였다. Campus에서 내려다 본 도시 중심가와 해안은 각각 각색의 건물들과 많은 상선들이 어우러져 태풍직후의 날씨와 함께 신비로움을

더해 주었다. Campus에는 홍콩대학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고건물들이 몇동 있었으나 대부분의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으며 좁고 가파른 Campus는 고층화된 건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건축대학 Studio에서 학교의 교과과정과 타학교와의 교류등에 대하여 재직교수들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The University of Hong Kong은 대학과정이 3년이며 졸업후에 학교를 떠나 1년간 실습기간을 거친 후에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여 2년간 대학원 과정을 거친다.

Studio에는 학년별 과제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CAD를 사용한 Presentation 이 대부분이었으나 저학년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손으로 Drawing하는 과제도 있었다. 고학년들의 3D Presentation은 수준급이었으며 크고 작은 Scale의 Study 모형들과 주요부분에 대한 Detail Drawing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홍콩대는 공식언어를 영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우수한 교수진 확보가 유리하고 아시아권내의 외국학생들이 다수 수학하고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글 / 이인호, 김홍일)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ampus에서 방문단 기념촬영